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 여성정책의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김은경 · 장은하 · 김정수 · 곽서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4

연구보고서 - 19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여성정책의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연구책임자 : 김 은 경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장 은 하 (본원 부연구위원)
 김 정 수 (본원 연구원)
 곽 서 희 (본원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은경·장은하·김정수·곽서희(2014).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IV): 여성정책의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 간 사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신흥공여국으로서 개발협력의 국제적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11년, 부산에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관련 논의에 있어 젠더이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한국 역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에서의 성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DAC 가입 이후 처음 진행된 2012년 DAC 동료검토(Peer Review)에서는 한국의 보다 강력한 성 주류화 통합방안 및 가이드라인 구축, ODA 내 젠더관련 지출 확대에 대한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ODA에 있어 성 주류화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 기한인 2015년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개발목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성 평등 이슈는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개발협력 접근의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도부터 본 연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1차 협력대상국인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2013년과 올해는 미얀마와 베트남을 대상으로 현지 여성정책 수요조사, 정책 세미나, 초청 워크숍, 심층면접 등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4개 협력대상국(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의 성 평등 원조 체계와 집행과정을 파악하였으며, 4개 협력대상국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이하 SSAGE’ 정책전문가 초청워크숍 및 4개국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각국의 양성평등 관련 정책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본 연구는 젠더분야 ODA 사업에 대한 선진 양·다자기구 사례 정리,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협력대상국 현지 기관과의 공동협력연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2012년도부터 다양한 분야별 한국 여성정책 및 사업 발전과정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8개 사례연구가 영문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구축한 사례연구는 현지 협력대상국과의 협력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한국과 현지 간 여성정책 분야 지식공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가 앞으로 향후 4개 협력대상국의 여성정책 제도적 기반 강화와 동시에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증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 ODA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데 협조해 주신 국내외 협력기관 및 전문가들과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의 진행을 지원해준 구영은 위촉연구원, 권미란 위촉연구원, 김정현 위촉연구원, 조윤주 연구인턴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베트남과 미얀마의 심층면접 현지 코디네이터로서 수고해주신 베트남여성연맹의 Dao Thi Vi Phuong, 베트남 하노이대학의 Nguyen Thi Nhu Trang, 미얀마 개발연구소의 Kyawt Kyawt Khaing, 미얀마 Pyoe Pin Programme의 Su Su Nge씨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이 명 선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는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 강화와 모성보건 증진이 새천년개발목표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음. 또한, MDGs의 달성 기한인 2015년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성평등 이슈는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OECD에 젠더마커에 따라 구분된 한국의 성평등 원조는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분야별 원조(total sector-allocable aid)의 7%이며, 다른 DAC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또한, 2012년 첫 DAC 동료검토에서도 보다 강력한 성 주류화 통합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양성평등 분야의 양적 비중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 받은 바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의 확대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2011년도부터 시작된 본 다차년도 ODA 연구사업은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개발협력 접근의 확대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 제고와 한국 ODA의 선진화를 궁극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함.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정책 분야의 제도적 인프라 강화와 이를 위한 한국과 협력국 간 젠더관련 협력사업의 증대를 그 중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음.

2. 4차년도 연구의 초점과 세부내용

가. 지식공유와 개발권설팅

- 지식공유는 공여국의 일방적인 주입식 지식전수가 아니라, 상호성을 전제로 함.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과거 상하조달식 기술지원에서 수원국의 내재적 역량과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역량개발로 변화해 왔음. 지식공유는 역량개발과 그 맥락을 같이 하며, 수원국 현황과 수요를 고려하는 상호성

을 기반으로 함.

- 개발컨설팅은 협력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조사업의 한 형태로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경제·사회·과학기술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제도 자문 및 기술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개발컨설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일방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수원국이 참여하는 지식공유의 과정, 수원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 맥락을 고려한 기획 및 진행, 국내외 시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중복성 문제 극복 및 원조조화 도모, 타 사업과의 연계 및 후속사업을 통한 효과의 지속성 담보,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사업성과 모니터링을 들 수 있음.

나.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의 세부내용

- 본 4차년도 연구에서는 4개 협력대상국(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함께, 현지 여성관련 부처 관계자, 현지 공여기구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일반 및 성평등 원조 체계와 집행과정을 파악함. 더불어 지식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이하 SSAGE) 정책전문가 초청워크숍 및 4개국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국의 여성전담부처 관계자들이 4개 협력대상국의 양성평등 관련 원조 현황 공유결과를 취합함.
- 본 연구사업이 2011년도부터 실시해온 4개 협력대상국에 대한 기초 수요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함. 4개 협력대상국의 여성지위 현황 및 여성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를 정치, 경제, 인권분야별로 종합·정리하고, 각국별 한국과의 협력사업 수요를 한국의 국별협력전략(CPS)과 연결하여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사업은 2011년도부터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사업의 추진 자체가 여성정책 분야 개발컨설팅의 첫 시도라고 볼 수 있음. 보다 세부적으로는 SSAGE 정책전문가 초청워크숍 및 4개국 고위급 정책협의회, 현지 기관과의 공동협력 연구 추진이 있음. 그리고 2012년도부터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 체계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2011년도부터 지난 4년간의 연구결과를 총 정리하여 제시하는 동시에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

컨설팅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성평등 분야 ODA의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아태지역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체계

I. 인도네시아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 인도네시아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측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며, 기획부는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과 대출전략(RKPLN)에서 제시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제안서 평가를 시행함. 채택된 사업제안서는 대외 용자 및 보조금 중기 계획 목록(Blue Book)에 수록됨. Blue Book은 양다자 공여기관과 공유되고,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업준비도 평가를 거친 후, 공여기관의 자금제공 약속을 거쳐 대외 용자 및 보조금 계획 우선순위 목록(Green Book)에 실리게 됨.
- 사업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대외자금이 실제 사업 시행 부처/기관에 전달되기까지도 꽤 긴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재정적 제약거래 개설과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술협력 방식의 협력을 부처 입장에서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음.
- 공여기관이 대 인도네시아 ODA 사업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 문제임. 인도네시아는 34개 주정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상충되는 규정을 수립한 경우 ODA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게되는 사례도 있음.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 인도네시아 내 공여기관 간 별도의 원조협의체는 없음. 주제별로 공여기관 간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 회의를 진행하며, 인도네시아 내 공여기관 간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지 정부와 공여국 간의 협의도 사안별, 주제별 회의가 비정기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공여기구가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

해서는 국가개발청(BAPPENAS)과 각 부처의 메일링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함.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 인도네시아 정부가 젠더이슈를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여기관에서 젠더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음. 여성역량강화 및 아동보호부(MoWECP)와 같이 그 정치력이 제한적인 부처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음.

2. 베트남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 베트남 ODA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는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가 있음. 기획투자부(MPI)는 공여기관과 유관 부처들의 ODA 사업제안서를 일괄적으로 취합하는 일종의 ODA 포컬포인트(focal point)를 맡고 있으며, 실제 유·무상원조 자금의 유입과 예산 관리 등은 재무부(MOF)가 담당함.
- 베트남 내 원조사업 추진에는 크게 두 가지 채널이 있음. 첫째, 정부나 국제기구 기관간 혹은 고위급간 논의를 통해 기 결정된 사업은 총리실 결재 이후 원조자금이 기획투자부(MPI)에 전달되면, 기획투자부(MPI)가 실제 해당 사업을 담당할 정부 부처에게 다시 전달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소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top-down)임. 둘째, 실무 부처와 공여기관이 논의를 통해 희망하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기획투자부(MPI)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이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bottom-up)임. 베트남에서는 1백만달러 이하 사업은 비ODA(Non-ODA)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비 ODA 사업의 경우 기획투자부(MPI) 검토와 총리실 최종승인을 받는 절차 대신 사업을 담당할 해당 정부부처 장관의 승인만으로 추진이 가능함.
- 베트남은 수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과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예를 들어 베트남은 ‘베트남 원조 조화 행동계획(Vietnam Harmonization Action Plan, V-HAP)’, ‘원조효과성에 대한 하노이 핵심 성명(Hanoi Core Statement on Aid Effectiveness, HCS)’, 베트남개발목표(Vietnam Development Goals, VDGs)를 발표한 바 있음.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 베트남의 원조협의체로는 기획투자부와 세계은행(World Bank) 베트남 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연례 원조협의체 ‘베트남 개발파트너십 포럼(Vietnam Development Partnership Forum, VDPF)’이 있음. 유상원조 분야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JICA), 프랑스(AFD), 독일(KfW), 한국수출입은행(Korea Exim Bank)으로 구성된 6 Banks Group을 운영 중임.
- 베트남 내 성평등 원조협의체로는 국가여성발전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NCAFW)가 주관하고 정부 부처, 산하기관, 공여기관, 현지 및 국제 NGO 등이 참여하는 젠더액션파트너십(Gender Action Partnership, GAP)이 있음. 또한 베트남 정부와 16개 UN 기관 및 국제 이주기구(IOM)로 구성된 One Plan 2012-2016이 있으며 하위그룹으로 젠더 공동프로그래밍그룹(Joint Programming Group on Gender)이 운영됨.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역시

- 노동보훈사회부(MOLISA)내 양성평등국은 비교적 최근인 2008년에 신설된 부서이고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여기관별로 성평등 원조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그리고 정부부처 안에서도 여성 폭력분야의 경우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는 젠더기반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OCST)는 가정폭력 관련 ODA 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소관부처가 양분되어 있음. 타 공여기관들의 성평등 원조사업 역시 노동보훈사회부(MOLISA)와 타 부처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음.

3. 캄보디아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 캄보디아의 원조를 총괄하는 기구는 ‘캄보디아복구및개발위원회 투자개발위원회(Cambodian Rehabilitation & Development Board-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RDB-CDC)’임. CDC는 원조 조정기구로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기 보다는 캄보디아 현지 부처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 시, 이를 공여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 캄보디아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MOWA)는 1993년에 설립된 이래 촉매자로서, 그리고 다른 부서 및 공공 기관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성평등 주류화 지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 캄보디아 여성부는 성평등 5개년 발전계획인 니어리 라타나크 III(Neary Rattanak III)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다양한 개발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 캄보디아에서는 젠더분야 기술지원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on Gender, TWG-G)이 2004년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 여성부가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여성부가 제시하는 우선순위와 역할분담에 공여국이 부합하는 방식으로 성평등 원조 사업이 진행됨.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 캄보디아에서의 젠더 ODA 체제는 양자간 협약과 다자간 협약으로 나뉨. 양자간 협약은 캄보디아 여성부와 공여기관이 직접 협약을 맺는 경우와 현지 정부의 각 부처들에게 여성부가 기술자문을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다자간 협약은 여성부와 여러 공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캄보디아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to Prevent Violence on Women, NAPVAW) 관련 협력을 들 수 있음.

4. 미얀마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 미얀마 정부는 해외원조관리중앙위원회(Foreign Aid Management Central Committee, FAMCC)와 해외원조관리실무위원회(Foreign Aid Management Working Committee, FAMWC)를 통해 해외원조를 지휘하고 있음. 해외원조관리중앙위원회(FAMCC)는 테인세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정책과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담당 정부 부처로는 국가기획경제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MNPED)가 양·다자 개발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국가의 우선순위 및 전략이 개발자원의 분배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 특히 해외경제협력부(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 FERD)는 원조프로그램의 대상 지역 및 분야 선정, 구성, 이행과 모니터링, 평가와 보고 등을 포함한 원조의 전반적 단계에서 조율을 담당하고 있음.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 미얀마 정부는 개발 파트너와의 원조를 조율하기 위하여 1) 종합조율체계(overall coordination mechanism) 2) 분야별작업반(Sector Working Groups, SWG), 3) 원조정보관리시스템(Ai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IMS)의 세 가지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 분야별작업반(SWG) 17개 중 하나가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강화 작업반(Working Group on Gender Equality and Women Empowerment)임.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역시

- 미얀마에서는 사회복지부의 사회복지국에서 여성복지 및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사회복지부는 UN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UN 기구들의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젠더가 크로스 커팅이슈로 포함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UN Gender Theme Group(UN GTG)이 운영되고 있음.
- 공여국 정부가 미얀마에서 성평등 원조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첫 번째는 외교 채널로, 공여국의 외교부가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얀마 외교부를 접촉하여 진행하는 위
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top-down)임. 두 번째는, 원조 제공을 희망하는
공여국 측이 성평등 전담부처인 미얀마 사회복지부와 논의 후 정부의 승
인을 받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bottom-up)임.

5. 소결

- 성평등 원조사업 추진을 위해 공여국이 접근해야 될 대상은 해당 수원국
의 여성정책 담당부처라는 것을 확인함. 그리고 수원국은 개발파트너들과
공식·비공식적 성평등 원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수원국측이
한국정부에 대해 공여국으로서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역
시 확인함.

III. 아태지역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수요 분석

1. 정치분야

가.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여성정책 수요조사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가
장 영향력이 큰 행위자로 43.2%의 응답자들이 정부와 의회라고 답하였으
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요 주체가 되어야 할 행위자로는
84.1%의 압도적인 비율로 정부와 의회가 1위를 차지함.
-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 장애요인으로서는 종교주의 원칙에 따른 여성 정치
인 양성예의 보수성, 공천 과정에서 남녀 차별적인 종교규범이 반영되는
등 정당 공천기준에 대한 진입 장벽이 언급됨. 또한 여성 정치인에 대한
평가와 여성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인식도 낮음.
-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후보 공천의 투명성 제고, 선
거자금 마련을 위한 공영제의 채택, 선거 출마 정당의 기준 확보 등의 제
도적 차원의 과제와 여성 개인의 역량 강화, 여성 의원들의 세력화 등 개
인적 차원의 과제를 들 수 있음.

나. 베트남

- 베트남 여성정책 수요조사에서 베트남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는 정부가 36.84%로 가장 높았으며, 국제기구가 23.68%로 뒤를 이었음. 향후 가장 기대되는 행위자에서도 정부가 37.72%로 1위를 차지한 반면 2위는 일반시민이 18.42%로 나타남.
- 베트남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 내의 여성 의사결정 영향력의 미미, 차별적인 법체제의 존재, 직무순환과 연수 기회의 부족, 성에 대한 고정관념 및 규범, 정치 세력화의 어려움 등이 포함됨. 그리고 베트남은 양성평등 관련 법과 정책은 갖추어져있으나, 주요 정책이행 주체들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를 가능하게 할 정보와 영향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야 함. 여성 공무원 및 정당, 정부의 고위 지도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년퇴직연령 남녀차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다. 캄보디아

- 캄보디아 여성정책 수요조사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행위자로는 정부와 의회라는 응답이 72.58%로 가장 높았고, 향후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할 행위자에 대한 응답도 정부와 의회가 68.25%로 1위를 기록함.
- 캄보디아에는 여성부가 있고, 새천년개발목표와 니어리 라타나크가 존재하나 법과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이 어려움. 그 요인으로 고위 공무원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법과 정책에 대한 존중 및 지도층의 의지 부족을 언급할 수 있음. 그 밖에도 금권선거 관행, 여성 정치인 개인역량 부족도 문제로 제시됨.
- 개선과제로 먼저 제도적 측면으로는 금권선거 문화를 개선하고, 정당의 공천과정을 공정하게 마련하는 것, 개인적 측면으로는 정치 활동 중인 여성 개인에 대한 역량강화가 있음.

라. 미얀마

- 미얀마 여성정책 수요조사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는 여성 NGO가 24.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국제기구가 13.7%, 외국정부가 10.96%로 뒤를 이었음. 반면 향후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할 행위자로는 정부가 16.44%로 가장 높았으며, 국회가 13.7%, 국제기구가 12.33%로 나타남.
- 미얀마의 여성 차별적 문화와 관습으로 인해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군부정권 기간 동안 여성들이 정치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낮았음. 아울러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위한 학습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여성의 정치참여 장애요인임.
- 미얀마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미얀마 내에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고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인적 자원 개발 노력이 필요함.

2. 경제분야

가.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여성의 경제 분야 참여가 미약한 것은 여러 장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장 큰 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임.
- 개선과제로는 첫째, 여성 사업가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둘째, 직업훈련소 시설 및 교육 커리큘럼 현대화, 셋째, 여성들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정책 대상자를 여성 중에서도 더욱 세분화하여 선정, 넷째, 여성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및 정책 이행을 통해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시장 개선이 있음.

나. 베트남

- 베트남 여성의 경제참여 장애요인으로서는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데, 여성들이 부담해야하는 가정에서의 성역할이 존재함. 또한, 노동법에 의한 여성의 출산휴가가 오히려 고용주들이 여성 직원을 고용하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의 직업훈련 과정에서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노동력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베트남 남녀 정년차별 문제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교육수준과 직종에 따라서 상이함.

다. 캄보디아

-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장애가 되는 첫 번째 요인은 성 차별적 문화와 관습임. 그리고 다양한 직업교육 커리큘럼의 부재, 여성개발 센터에서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 낮은 취업 연계 가능성도 지적됨.
- 개선과제로는 여성들이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전통적인 직업훈련을 통한 여성 역량 개발이 필요함. 그리고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특히 농어촌 여성들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됨. 설문조사에서는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가장 안 되어있는 취약 분야로서 현지 전문가들은 농어촌 여성분야(22.5%)를 제시함.

라. 미얀마

- 약 75%에 달하는 미얀마 여성의 경제참여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참여 및 역량강화에 있어 남성우월주의로 대표되는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은 여성의 경제 참여 장애요인이 됨. 농업 및 소규모 자영업과 같은 비공식 분야에 여성 노동자가 집중되는 현실과 남성과의 임금 격차 등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결과임.
- 여성의 경제 참여 장애요인을 고려했을 때,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역시 남성우월주의 사상이 팽배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임. 또한 여성 스스로의 의식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음. 금융, 교통과 같은 전 국가적인 인프라의 부족 문제 역시 여성들의 좀 더 활발한 경제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 파악됨.

3. 인권 및 폭력분야

가. 인도네시아

- 2011년 수요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여성정책 중 가장 잘 안되어 있는 분야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31%)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음. 인프라가 되어있지 않은 분야이면서 법제도화 필요한 분야 중 1위가 여성인권보

장 및 폭력철폐로 지적된 것은 이 분야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함.

- 지방자치단체가 ‘샤리아법(이슬람 기본법)’에 따라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음.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는 존재하지만 경찰이나 상담소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부족함. 이슬람이 주를 이루는 종교도 여성인권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히 “잘못된 종교적 해석으로 인해 폭력을 합법화하는” 경우가 있음.
- 인도네시아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체적 법령이 필요함.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 없는 사법기관 절차 개선 및 사법 공무원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며, 공교육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됨.

나. 베트남

- 2013년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여성의 지위가 열악한 분야로 인권이 7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지적됨.
- 베트남에는 가정폭력방지철폐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2014년 실시한 심층면접에 의하면 베트남에서는 성폭력을 포함하여 가정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형사, 민사 사건으로만 분류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성폭력 해결에 어려움이 존재함. 가정폭력법의 경우, 법 자체는 이미 충분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행의 효과는 미미함.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새로운 법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현존하는 정책을 본래의 취지대로 잘 실행해 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함.

다. 캄보디아

- 2011년 수요조사에서 캄보디아 여성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정책분야는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가 30%로 가장 많았음. 국가 양성평등 법제도화가 필요한 분야로도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철폐(36%)가 1위를 차지함.
- 캄보디아의 여성인권증진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장애요인으로 ‘차밥 쓰레이(Chbap Srey)’와 남성 중심적인 문화, 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및 수용적 태도, 장애인 등 소외 여성이 겪는 차별, 빈곤과 부정비리, 금권 남용을 둘러싼 이슈 그리고 실효성 없는 법과 정책집행 등이 있음.

- 개선과제로는 첫 번째로 인적역량강화의 필요성(예: 공무원과 여성의 역량강화), 두 번째로 폭력/차별에 대한 처벌 및 방지에 대한 정책적 실효성 강화(예: 법률의 성 차별적인 부분을 개선), 세 번째로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 마련이 제시됨.

라. 미얀마

- 미얀마의 양성평등 인프라 구축 중 가장 잘 안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답변에서 여성의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31%)가 가장 많이 지적됨. 2014년 심층면접에 의하면 여성인권 증진 및 폭력 철폐를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관련 법규 미비와 충분하지 않은 처벌로 나타난. 또한 아직 미얀마에는 가정폭력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폭력을 경험한 가족을 보호할 법도 존재하지 않음. 예산 및 인력 부족문제도 지적되었음.
- 미얀마에서는 2013년 10월 북경행동강령 12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 발전국가전략(NSPAW)이 제정되었으며 이 중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인권 두 분야에서 폭력 및 인권 이슈가 포함됨. 2014년 현재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 중에 있음.

4. 한국과의 협력사업 수요 및 한국의 CPS와의 연결

가. 인도네시아

- 심층면접에서 여성의 정치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주요 협력 가능 방안으로 여성 정치인의 역량 강화 교육이 꼽혔고 연구를 위한 기금(research fund)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정부 관계자의 경우, 정부 정책 기획과 실행 예산 및 인력 지원을, 의원이나 의회 관계자는 여성 국회의원의 연수와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경향이 있었음. NGO 소속 관계자인 경우에는 여성 정치인과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경제분야에서는 여성실업교육, 한국의 여성창업 기회확대 경험 공유 및 한국의 여성실업교육정책 및 여성창업활성화사업 활용 등이 제시됨.

- 인권분야에서는 한국의 성매매 관련 법제화 경험 공유, 국가반성폭력위원회(KOMNAS Perempuan)의 여성폭력 철폐 등이 제안됨.
-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CPS 2012-2015에서는 모성사망을 문제에 있어 숙련된 조산인력에 의한 출산비용, 청소년 분만을, 모자보건 관련 지역별 격차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그리고 중점프로그램 형성단계에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 지원, 모자보건 지원을 명시함.

나. 베트남

- 심층면접을 통해 제안된 베트남 정치분야 한국과의 협력수요로는 국민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운영,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법률 및 정책 개발, 그리고 여성 관리 및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시되었음. 또한 베트남 여성 정치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과 정책연구도 제안된 바 있음.
- 경제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수요로는 여성노동력의 고급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분야의 직업훈련 제공, 여성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정보와 자영업 여성 지원을 위한 시장 정보 제공 조직의 설립 등 기존 베트남의 정책을 통한 지원 사업이 있음.
- 인권분야의 경우, 한국의 출생성비불균형 문제 극복에 관심이 높았으며 관련 정책에 관한 학술적인 성격의 워크숍 개최가 제안됨. 또한 한국의 정책 연구자들을 지원, 파견하여 베트남 현황을 평가하고 정책 실행을 감독하는 방법도 제안되었음. 더불어 여성 및 가정 폭력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수립과 같은 사업도 제시됨.
- 베트남 CPS에서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가치와 현대사회의 흐름사이에 여성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공식분야에서 여성대상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함. 여성의 저임금 분야 치중,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여성의 취약한 재산권 등도 언급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한국 대 베트남 ODA ‘기본 추진계획’에서 소수민족, 여성, 농촌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을 연계할 것을 밝힘. 특히 여성의 농업분야 경제적 역량강화를 중시하고 있음.

다. 캄보디아

- 심층면접을 통해 제안된 캄보디아 정치분야 한국과의 협력수요로는 여성 정치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 연수와 장학금 지원 및 공무원의 의식 개선이 언급됨. 또한 부정부패가 해결이 필요한 주요 문제로 제기됨.
- 경제분야의 경우, 여성 교육 강화는 한국과의 가장 큰 협력 사업 수요 중 하나이며, 캄보디아가 시장 수요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여성 창업인 육성에 관심이 많음에 따라 여성 창업 지원도 제안됨.
- 인권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수요는 여성 폭력문제 해결이 주를 차지함. 지방 낙후지역까지 포괄 할 수 있는 여성인권증진 및 보호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거점센터의 건립 및 운영이 제안됨. 정부 및 NGO 관계자 모두 인적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부족한 예산의 문제도 언급하였으며, 적극적인 인식개선활동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됨.
- 한국의 대 캄보디아 CPS 2012-2015에서는 모성 및 아동보건 관련 현황이 열악하다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계획이 여러 차례 제시됨. 또한 성차별적 관습, 특히 가정폭력, 인신매매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중점협력분야’ 중 농촌 농업개발 추진계획에서는 젠더라는 범분야 이슈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라. 미얀마

- 2014년 실시한 미얀마 심층면접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사업 수요로 일반 국민 여성 인식제고가 제안됨. 또한 여성 당원들이나 여성 국회의원들 대상 해외 연수 및 세미나를 통한 역량강화가 다수 제안되었음.
- 경제 분야에서는 여성들에게 단순한 직업기술 훈련뿐만 아니라 시장진출을 위한 역량개발, 기업가 정신 교육, 멘토링 역시 필요하다고 제기됨. 농촌지역, 소외된 지역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됨.
- 인권분야의 경우, 미얀마 내 여성 인권 및 폭력 관련 연구 강화,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 기술적 지원 등 여성 인권 관련 분야에서의 사업이 다양하게 제안됨. 또한 여성권리 옹호활동에 있어서 한국의 기술적 지원을 희망함.

- 미얀마는 현재 한국의 ODA 26개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대 미얀마 유·무상원조 통합 CPS는 수립되어 있지 않음. 대안으로 살펴본 ‘2013 KOICA 국별 지원현황: 미얀마’에서는 별도로 양성평등 관련 현황파악이나 지원계획을 찾을 수 없었음.

5. 소결

- 정치, 경제, 인권 분야를 막론하고 4개국 모두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문제가 양성평등 실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됨. 이와 같은 현상은 4개국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성 고정관념과 같은 문화적 요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을 시사함. 또한 양성평등 혹은 여성의 정치, 경제참여나 여성대상 폭력을 금지하는 법적 기반이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여러 차례 강조됨.
- 현재 CPS가 수립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의 경우, 모두 양성평등 현황을 다루고 있으나 간략한 수준에 그침. 반면 베트남, 캄보디아 CPS에서는 사회문화적 성차별적 관습, 가정폭력, 인신매매와 같은 여성 인권문제가 다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현지 수요조사, 심층면접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양성평등 실현 장애요인 파악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함.

IV. 아태지역 협력국과의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경험

1. 개발컨설팅의 기제로서의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과 평가

-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4개년에 걸쳐 여성정책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SSAGE)을 진행하여 왔음. SSAGE 워크숍은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공통적인 틀은 유지하여 왔으나, 참가자 구성과 개최 형식에 있어서는 매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였음.
- SSAGE 워크숍의 프로그램은 강의(공통과목, 선택과목), 전문가(참가자)

워크숍 혹은 세미나, 현장학습,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됨. 본 워크숍은 기존 여성과 개발에 대한 강의 중심의 연수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나아가, 참가자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과 전문가 컨설팅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획됨.

- SSAGE 워크숍의 특징으로는 첫째, 워크숍 준비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지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점, 둘째, 일방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참석자들이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 낸 점, 셋째, 종종 대립관계에 놓일 수 있는 정부, 학계, NGO 등 다양한 여성정책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 점, 마지막으로 현지 정책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을 발굴함으로써 한국정부의 ODA 사업 발굴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 워크숍 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SSAGE 워크숍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고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참여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기관방문 등의 현장학습이 좋은 반응을 얻음. 강의와 토론을 위한 충분한 시간확보는 향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됨.

2. 4개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 발굴 결과

- 4년간 진행된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매년 참가자들이 성평등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참가자들은 각국의 양성평등 현황과 개선안을 반영하여 정치, 경제,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이 제안서들을 요약하여 기술함.

3. 4개국 공동협력연구 시도와 결과의 공유

- 본 연구사업은 현지 여성정책의 실질적 수요 파악과 그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3개월 정도의 단기 연구를 목표로 4개 협력국 내 정부, 국제기구, NGO 혹은 연구기관과의 공동협력연구를 추진하였음.
- 이러한 시도는 현지 소규모 공동협력연구를 통해 협력국의 여성정책 연구역량 강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과 수원국의 수요와 자료가 직접적으로 반

- 영된 점, 수원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캄보디아의 경우 원활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과 현지 연구 수행 인력의 부족으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음. 미얀마의 경우에도 현지 연구 인력 풀 부족과 기관 간 행정절차의 상이함으로 인해 공동연구가 성사되지 못 하였음. 이에 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추진되었는데, 연구 인프라와 본원과의 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4. 소결

- 본 장에서 분석한 역량강화 워크숍과 공동협력연구는 정책자문과 프로젝트 자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개발컨설팅의 형식 중 정책자문으로 구분될 수 있음. 한국의 여성발전 과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강의, 법과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파악할 수 있는 기관방문은 향후 참가자들이 정책 수립 시 직접 적용가능하며, 참여적 세미나의 경우 한국정부 전문가들과 외부 전문가의 피드백 제공은 자문적 성격을 띠고 있음.
- 워크숍을 통해 축적된 사업제안서는 수원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직접 파악하고 분석한 수원국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향후 개발컨설팅 및 프로젝트 컨설팅으로서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음.

V. 아태지역 협력국에 대한 여성정책 개발컨설팅과 한국의 성평등 ODA 증진 방안

1. 아태지역 4개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체계와 수요 분석

- 본 연구사업의 첫 번째 성과는 아태지역 협력대상국 4개국의 원조체계와 수요를 분석한 것인데, 본 절에서는 4개국의 성평등 원조 인프라의 유형과 원조사업의 특징과 4개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성평등 원조사업의 수요를 분석하고 있음.
- 우선, 4개국의 성평등 원조 인프라 분석과 관련하여 성평등 원조의 운영 매커니즘을 살펴보면, 4개 협력국가 중에서 여성정책 전담부처가 존재하는 국가

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2개국이고, 성평등 원조 협의체가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있음. 법제화 부분에서 인도네시아는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나 정치, 경제, 인권 분야별 법제화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나머지 3개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제화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임. 한편,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제시된 성평등 원조 수요는 4개국 공통적으로 여성인권 증진과 폭력철폐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정치분야 사업이 많았음. 또한, 4개국을 대상으로 성평등 원조를 분석한 결과, 젠더마커 1점 사업인 성 주류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 면에서는 보건과 교육분야의 사업이 우세하게 나타남.

- 성평등 분야 중 한국 ODA를 통해 협력하고자하는 분야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성 주류화를 잘 실천하고 있는 국가로 파악되며, 인권증진이나 폭력철폐라는 4개국 공통 관심 분야 외에 여성보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이점임. 워크샵을 통해 개발된 사업제안서에서는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취업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 연수를 통한 농촌출신 여성들의 취업지원 사업 등이 제안됨.
- 베트남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법제화가 필요한 분야로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철폐가 최우선 순위로 고려된 바 있으며, 워크샵에서 제안된 정책제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일반 여성들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도시이주 여성노동자의 경제역량강화 등의 이슈가 제기됨.
- 캄보디아 경우 농어촌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부분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법제도화의 우선순위에도 이 부분은 제외되고, 여성인권보장과 정치참여, 그리고 정책의 성 주류화가 중요시 됨. 워크샵을 통한 정책제안서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 전환 사업, 한국의 각종 여성센터를 벤치마킹한 여성취업센터 등을 도입해보고자 했음.
- 미얀마의 경우, 설문조사에서는 법제화가 필요한 분야로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책의 성 주류화 그리고 여성인권 보장 및 폭력철폐가 가장 우선시되는 의제로 파악됨. 워크샵을 통해 개발된 사업제안서 주제로는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과 연수,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센터 설치와 학교 교사에 대한 양성평등 의식증진 사업, 지방정부의 양성평등 지원사업과 여성보건 관련 법 제정 및 센터 설립 등이 있음.

2. 아태지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경험과 성과

가. 여성정책 지식공유와 개발컨설팅의 플랫폼 형성

- 본 연구사업은 아태지역 협력국의 성평등정책 실무자와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서 수요를 듣고 그들과 함께 양국의 여성정책 발전상황에 대해 지식을 공유하였음. 그리고 4개국의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고 이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수요를 공유하였으며, 이를 한국 정부관계자와의 정책대화로 연결하였음. 나아가 본 연구사업이 협력국에서 필요한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연구라는 형태로 정책연구의 기회 또한 제공하였음.
- 본 연구사업은 4년에 걸쳐 아태지역 국가들과 교류하였고, 4개국 여성정책 담당부처 및 주요 여성NGO들과 쌓은 네트워크와 신뢰는 이 연구가 낳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나. 협력국 내 여성정책 연구와 조사에 대한 인식 증진

- 4개국과의 공동협력연구 시도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음. 첫째,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둘째, 4개국의 프로젝트 수행의 효율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국가와의 여성정책 컨설팅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가 되었음.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와의 공동협력연구가 SSAGE 워크숍에서 공유되면서, 각국의 반응은 자국 내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고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남.

다. 국내 정책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성평등 원조의 인식 제고

- 본 연구는 아태지역 협력국과의 네트워크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 정부 관계자와 NGO 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이 연구를 알리게 되었음. 그리고 이 연구가 국내 정책 관계자와 함께 진행하는 ‘젠더와 ODA 포럼’이나, 각종 자문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여성부, KOICA, KDI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한편으로는 한국 ODA 정책에 있어서 젠더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왔음.

- 위와 같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난 것은 두 가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음. 첫 번째는, 2012년 국무조정실의 주관으로 ‘한국형 ODA 모델수립’이라는 과제에 미래이슈 영역의 여성부문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 것임. 둘째,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에 2014년 평가과제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ODA사업 평가’를 제안했고, 그것이 과제로 채택된 것을 들 수 있음.

3. 아태지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 경험에 기반한 한국 ODA 정책제언

가. (국무조정실) CPS 수립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 향후 정치, 경제, 인권, 교육, 보건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국의 양성평등 현황을 고려한 ODA 지원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재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CPS는 각 2012-2015년, 베트남 CPS는 2011-2015년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음. 지금의 CPS가 갖고 있는 한계와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진일보한 차기 CPS 수립을 준비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향후 CPS에서는 협력국의 개발환경을 파악할 때 다양한 분야별 양성평등 현황과 문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협력국의 국가경제개발계획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관련 정책도 요약할 수 있을 것임. CPS에서는 양성평등을 단순히 범분야 이슈로서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전략을(what to do), 어떻게(how to do) 이행할 것인지 그 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국무조정실, 각 정부부처) ODA사업 기획과 평가단계에 성별분리 통계자료 사용 의무화

- ODA 사업에 젠더관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기제가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기획과 평가단계에서만이라도 성별분리 통계자료의 사용을 의무화 하는 조치가 필요함. OECD/DAC은 5가지 기준을 젠더관점으로 재구성한 지표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ODA 사업을 평가하는 일반 ODA 전문가들이 젠더지표를 적용하기란 매우 비현실적임.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사후평가 시 평가하는 모든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에 대해 성별 분리 통계로 제시 할 것을 제안함.

다. (외교부, KOICA) 국내 개발컨설팅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 2012년 외교부에서는 KOICA가 지난 20여 년간 기술협력으로 실시한 정책자문,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실시설계 등의 사업을 개발컨설팅 사업으로 유형화한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음.
- DEEP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거나, 한국의 경험이 개발컨설팅에 활용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본 연구가 실시한 여성정책에 관한 현지 수요 파악 결과를 고려하고 반영한다면, DEEP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정치, 경제, 인권,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주제별로 한국의 여성발전경험을 체계화 한 사례연구를 DEEP 프로그램 주제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라. (외교부, KOICA, 한국수출입은행) 현지 성평등 원조 협의체에 한국정부의 참여

- 4개국은 각기 다른 형태로 성평등 원조에 대해 공여기구들과 원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본 4개국의 성평등 원조 협의체에 한국정부는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함.
- 사실상 젠더분야 하나만을 전담할 인력을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해외 사무소에 파견된 인력 가운데 젠더파트를 담당할 수 있도록 중앙 본부차원에서의 정책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마. 여성대상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

- 지금까지 한국의 원조 시행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도로 인프라사업, 식수 사업, 모자보건 사업 등을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 이 같은 사업수요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내 시행기관이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바. 프로그램 지원 형태의 성평등 원조사업의 개발

- 본 연구는 국제원조기구 활동 조사를 통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첫째, 지원 형태면에서 하드웨어적 측면보다는 연수, 컨설

팅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둘째, 많은 사업들이 지역사회 맞춤형으로 또는 이미 해당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 NGO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임. 한국의 경우 협력국에 필요한 물리적 시설 확충 등의 부문에서 주력하고 있고, 다자나 원조 기구와는 달리 성 주류화나 거버넌스, 인권 분야에 상대적으로 취약함. 따라서 국내 시행기관에서 여성대상 사업 또는 젠더관점 통합 사업을 기획할 때, 국제기구와 공조를 하는 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성평등 원조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어떤 국가에 어떤 유형의 사업을 접근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별분리 통계자료 사용과 젠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업에 젠더관점을 통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자의 정책적 의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법이나 시행단계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임.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
| 가. 연구의 배경 | 3 |
| 나. 연구의 목표 | 5 |
| 2. 4차년도 연구의 초점과 세부내용 | 8 |
| 가. 지식공유와 개발컨설팅 | 8 |
| 나.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의 세부내용 | 13 |
| II. 아태지역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체계 | 19 |
| 1. 인도네시아 | 22 |
|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 23 |
|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 25 |
|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 26 |
| 2. 베트남 | 42 |
|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 42 |
|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 45 |
|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 49 |
| 3. 캄보디아 | 61 |
|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 62 |
|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 64 |
|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 65 |
| 4. 미얀마 | 77 |
|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 77 |
|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 80 |

| | |
|-----------------------------------|-----|
|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 83 |
| 5. 소결 | 105 |

Ⅲ. 아태지역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수요 분석

| | |
|--------------------------------------|-----|
| 1. 정치분야 | 113 |
| 가. 인도네시아 | 113 |
| 나. 베트남 | 117 |
| 다. 캄보디아 | 122 |
| 라. 미얀마 | 126 |
| 2. 경제분야 | 130 |
| 가. 인도네시아 | 130 |
| 나. 베트남 | 136 |
| 다. 캄보디아 | 143 |
| 라. 미얀마 | 146 |
| 3. 인권 및 폭력분야 | 153 |
| 가. 인도네시아 | 153 |
| 나. 베트남 | 158 |
| 다. 캄보디아 | 162 |
| 라. 미얀마 | 166 |
| 4. 한국과의 협력사업 수요 및 한국의 CPS와의 연결 | 171 |
| 가. 인도네시아 | 171 |
| 나. 베트남 | 175 |
| 다. 캄보디아 | 178 |
| 라. 미얀마 | 184 |
| 5. 소결 | 186 |

| | |
|--|-----|
| IV. 아태지역 협력국과의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경험 | 189 |
| 1. 개발컨설팅의 기제로서의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과 평가 | 191 |
| 가. SSAGE 워크숍의 목적 및 개요 | 191 |
| 나. 워크숍 프로그램 구성 | 194 |
| 다. 워크숍의 특징 및 의의 | 195 |
| 라. 4개년도 워크숍 평가 | 199 |
| 2. 4개국의 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 발굴 결과 | 213 |
| 가. 인도네시아 | 213 |
| 나. 베트남 | 220 |
| 다. 캄보디아 | 228 |
| 라. 미얀마 | 235 |
| 3. 4개국 공동협력연구의 시도와 결과의 공유 | 241 |
| 가. 4개국 공동협력연구의 시도와 진행과정 | 241 |
| 나. 공동협력연구 결과의 공유 | 244 |
| 다. 시사점 | 250 |
| 4. 소결 | 251 |
| V. 아태지역 협력국에 대한 여성정책 개발컨설팅과 한국의 성평등 ODA | |
| 증진 방안 | 253 |
| 1. 아태지역 4개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체계와 수요 분석 | 257 |
| 가. 4개국 성평등 원조 인프라의 유형과 원조사업의 특징 | 257 |
| 나. 4개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성평등 원조 사업 수요 분석 | 270 |
| 2. 아태지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경험과 성과 | 276 |
| 가. 여성정책 지식공유와 개발컨설팅의 플랫폼 형성 | 276 |
| 나. 협력국 내 여성정책 연구와 조사에 대한 인식 증진 | 278 |
| 다. 국내 정책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성평등 원조의 인식 제고 | 279 |

| | |
|--|-----|
| 3. 아태지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 경험에 기반한 한국 ODA 정책제언 .. | 280 |
| 가. (국무조정실) CPS 수립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 281 |
| 나. (국무조정실, 각 정부부처) ODA사업 기획과 평가단계에 성별분리 통계자료 사용 의무화 | 282 |
| 다. (외교부, KOICA) 국내 개발컨설팅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 283 |
| 라. (외교부, KOICA, 한국수출입은행) 현지 성평등 원조 협의체에 한국정부의 참여 | 284 |
| 마. 여성대상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 | 285 |
| 바. 프로그램 지원 형태의 성평등 원조사업의 개발 | 288 |
| ■ 참고문헌 | 291 |
| ■ 부 록 | 297 |
| <부록 1> 2014년도 미얀마/베트남 심층면접 질문지(영문) | 299 |
| <부록 2> 2012, 2014년도 심층면접 응답자 리스트 (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 4개국 | 313 |
| <부록 3> 2014 SSAGE 워크샵 4개국 참가자 리스트 | 317 |
| <부록 4> 2014 SSAGE 워크샵 참가신청서 1 : Application Form | 319 |
| <부록 5> 2014 SSAGE 워크샵 참가신청서 2 : Policy Paper | 322 |
| <부록 6> 워크샵 평가지 | 324 |
| ■ Abstract | 331 |

표 목 차

| | | |
|---------|--|-----|
| <표 -1> | 국제개발컨설팅의 분류: 정책자문과 프로젝트 자문 | 10 |
| <표 -2> | 효과적인 개발컨설팅 시행을 위한 선행문헌 상 제언사항 | 11 |
| <표 -3> | 협력대상국과의 위탁연구 과제목록 | 15 |
| <표 -4> | 2014년도 연구과제 발간 보고서 목록 | 17 |
| <표 -1> | 4개국 성평등 원조 체계조사 면담 개요 | 22 |
| <표 -2> | 인도네시아 양자 기관의 젠더 프로젝트 | 28 |
| <표 -3> | 인도네시아 다자 기구의 젠더 프로젝트 | 35 |
| <표 -4> | 양자 기구의 베트남 젠더 프로젝트 | 52 |
| <표 -5> | 다자 기구의 베트남 젠더 프로젝트 | 56 |
| <표 -6> | 니어리 라타나크 III의 중점분야와 개발 파트너 | 63 |
| <표 -7> | 양자원조기구의 캄보디아 ODA 젠더 프로젝트 | 69 |
| <표 -8> | 다자원조기구의 캄보디아 ODA 젠더 프로젝트 | 73 |
| <표 -9> | 양자 기구의 미얀마 젠더 프로젝트 | 85 |
| <표 -10> | 다자 기구의 미얀마 젠더 프로젝트 | 91 |
| <표 -11> | 젠더분야 ODA사업에 대한 여성대상 사업 사례 | 97 |
| <표 -12> | 젠더분야 ODA사업에 대한 성 주류화(젠더관점 통합)사업 사례 ... | 101 |
| <표 -1> | 4개국 여성정책 수요발굴 파악 과정 개요 | 112 |
| <표 -1> | SSAGE 워크샵 개요 (2011-2014) | 192 |
| <표 -2> | SSAGE 워크샵 세부 일정 (예) | 195 |
| <표 -3> | 전체 워크샵 평가 결과 | 200 |
| <표 -4> | 강의에 대한 평가결과 | 202 |
| <표 -5> | 기관방문에 대한 평가결과 | 203 |
| <표 -6> | 세미나세션에 대한 평가결과 | 204 |
| <표 -7> | 워크샵 전·후 자기평가결과 | 205 |
| <표 -8> | 2011년도 전체 워크샵 평가 결과 | 207 |

| | | |
|---------|---|-----|
| <표 -9> | 2012년도 현지 워크샵 평가 결과 | 208 |
| <표 -10> | 2011년도 및 2012년도 워크샵 전-후 인식변화 평균값 비교 | 209 |
| <표 -11> | 워크샵 장소에 따른 의식변화 전-후 자기평가 평균 값 집단 간 차이 비교 | 210 |
| <표 -12> | 2013년도 전체 워크샵 평가 결과 | 211 |
| <표 -13> | 현지 공동협력연구 주제 및 수행기관 개요 | 244 |
| <표 -14> | KWDI와의 공동협력연구 공유세미나 개요 | 245 |
| <표 -1> | 4개국 성평등 원조 인프라의 유형 구분 | 258 |
| <표 -2> | 인도네시아에 대한 주요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사업 분야 | 259 |
| <표 -3> | 인도네시아에 대한 주요 다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분야 | 261 |
| <표 -4> | 베트남에 대한 주요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분야 | 262 |
| <표 -5> | 베트남에 대한 주요 다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분야 | 263 |
| <표 -6> |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분야 | 265 |
| <표 -7> |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다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분야 | 266 |
| <표 -8> | 미얀마에 대한 주요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분야 | 267 |
| <표 -9> | 미얀마에 대한 주요 다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분야 | 269 |
| <표 -10> | 4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제안서의 분야별 리스트 | 273 |

그 립 목 차

| | | |
|----------|---|-----|
| [그림 -1] | 양성평등 분야 지원을 위한 DAC 국가들의 원조액(2011-2012년) .. | 4 |
| [그림 -2]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논리모형 | 6 |
| [그림 -3] |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 12 |
| [그림 -1] | 인도네시아 원조분배체계 | 24 |
| [그림 -2] | 베트남개발파트너십포럼(VDPF) 2013년도 주요 의제 | 46 |
| [그림 -3] | 캄보디아 ODA 원조체계 | 62 |
| [그림 -4] | 미얀마 원조체계의 과정과 프로세스(중앙정부) | 79 |
| [그림 -5] | 미얀마 정부와 개발파트너들 간의 원조체계 | 80 |
| [그림 -6] | 17개 분야별 작업반 | 82 |
| [그림 -1] | 인도네시아 수요조사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행위자 | 114 |
| [그림 -2] | 인도네시아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 114 |
| [그림 -3] | 베트남 수요조사 - 여성지위가 열악한 분야 | 118 |
| [그림 -4] | 베트남 수요조사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행위자 | 119 |
| [그림 -5] | 캄보디아 수요조사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행위자 | 123 |
| [그림 -6] | 캄보디아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 124 |
| [그림 -7] | 미얀마 수요조사 - 여성지위가 열악한 분야 | 127 |
| [그림 -8] | 미얀마 수요조사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행위자 | 128 |
| [그림 -9] | 인도네시아 수요조사 -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있는 분야 | 131 |
| [그림 -10] | 인도네시아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 134 |
| [그림 -11] | 베트남 수요조사 -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가장 잘 되어있는 분야 | 136 |
| [그림 -12] | 베트남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 141 |
| [그림 -13] | 캄보디아 수요조사 -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있는 분야 | 145 |

| | | |
|----------|--|-----|
| [그림 -14] | 미얀마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 150 |
| [그림 -15] | 인도네시아 수요조사 -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분야 | 153 |
| [그림 -16] | 인도네시아 수요조사 - 양성평등을 위해 법제도화/실천이 필요한 분야 중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대한 응답 | 155 |
| [그림 -17] | 인도네시아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 156 |
| [그림 -18] | 베트남 수요조사 -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잘 안되어 있는 분야 | 159 |
| [그림 -19] | 베트남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 160 |
| [그림 -20] | 캄보디아 수요조사 - 여성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분야 | 163 |
| [그림 -21] | 캄보디아 수요조사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화/실천이 필요한 분야 중 ‘폭력 철폐’ 응답 | 164 |
| [그림 -22] | 캄보디아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 166 |
| [그림 -23] | 미얀마 수요조사 - 양성평등 인프라 구축에서 잘 안되어 있는 분야 | 167 |
| [그림 -24] | 미얀마 수요조사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행위자 | 168 |
| [그림 -25] | 미얀마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 요인 | 169 |
| [그림 -1] | 아태지역 4개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성과 | 256 |
| [그림 -2] |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구조와 운영방식 | 277 |
| [그림 -3] | 여성대상 사업과 일반사업이 통합·확장된 형태의 예시 | 287 |

I

서론

- | | |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
| 2. 4차년도 연구의 초점과 세부내용 | 8 |

1. 연구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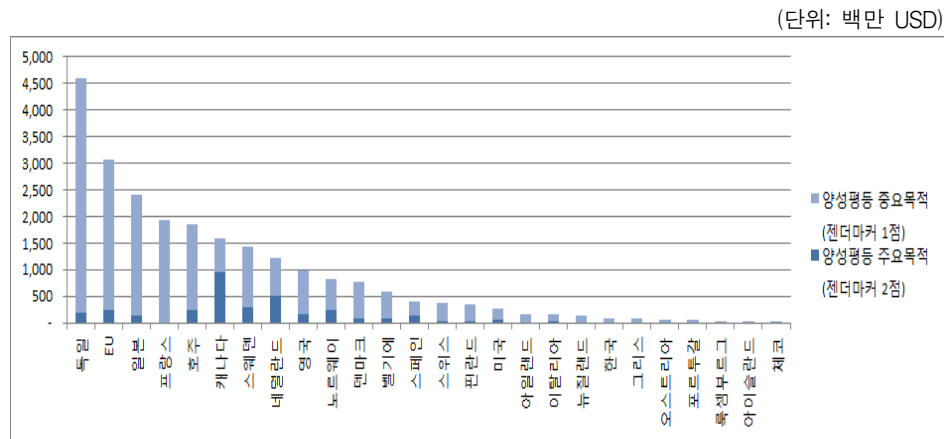
가. 연구의 배경

OECD 및 UN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관련 논의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1995년 제4차 북경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GM)’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세계의 빈곤퇴치를 위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도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 강화와 모성보건 증진이 8가지 새천년개발목표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김은경 외, 2013: 3). 최근,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 기한인 2015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성평등 이슈는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을 위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의 가장 최근 제안서에 제시된 17개 목표안 중에서 양성평등의 달성과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가 5번째 독립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외 8개 목표의 하위목표에서도 성평등 및 여성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다(UN, 2014).

한편, OECD 중심의 원조효과성 논의에 있어서도 젠더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1983년과 1989년에 각각 ‘여성과 개발(Women in Development, WID)’ 지침서를 채택 및 개정하고, 1998년 성평등 지침서와 2008년 추가 성평등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개발협력에 있어 젠더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양성평등네트워크(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GENDERNET) 회의의 개최, 젠더마커(Gender Marker)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젠더이슈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오고 있다(김은경 외, 2013: 4).

우리나라는 최근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선진 공여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나, 여성 및 양성평등 분야의 개발협력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OECD에 젠더마커에 따라 구분된 한국의 성평등 원조는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분야별 원조(Total sector-allocable aid) 중 7%이며, 다른 DAC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그림 I-1 참조) (OECD, 2014).

4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자료: OECD(2014).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Donor Charts. 자료 재구성.

[그림 I -1] 양성평등 분야 지원을 위한 DAC 국가들의 원조액(2011-2012년)

또한, DAC 회원국으로서 이루어진 2012년도 첫 DAC 동료검토에서도 보다 강력한 성 주류화 통합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양성평등 분야의 양적 비증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OECD DAC, 2012).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분야 ODA의 확대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본 연구가 다차년도 연구사업으로서 추진되어 오고 있다.

한편, KOICA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젠더분야 ODA 사업은 그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유형의 다양화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사업의 2차년도 연구결과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사업들은 물리적 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선진 양다자기구에서 시행된 사업들을 참고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역시 병합될 필요가 있다(김은경 외, 2012: 156-157). 이러한 맥락에서 본 4차년도 연구의 초점인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역시 소프트웨어적인 양성평등 분야 개발협력 접근의 확대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의 목표

2011년도부터 시작된 본 다차년도 ODA 연구사업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 제고와 한국 ODA의 선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성정책 분야의 제도적 인프라 강화와 이를 위한 한국과 협력국 간 젠더 관련 협력사업의 증대를 중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협력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에는 미얀마, 베트남을 추가 하여 현재 총 4개의 협력국을 대상으로 본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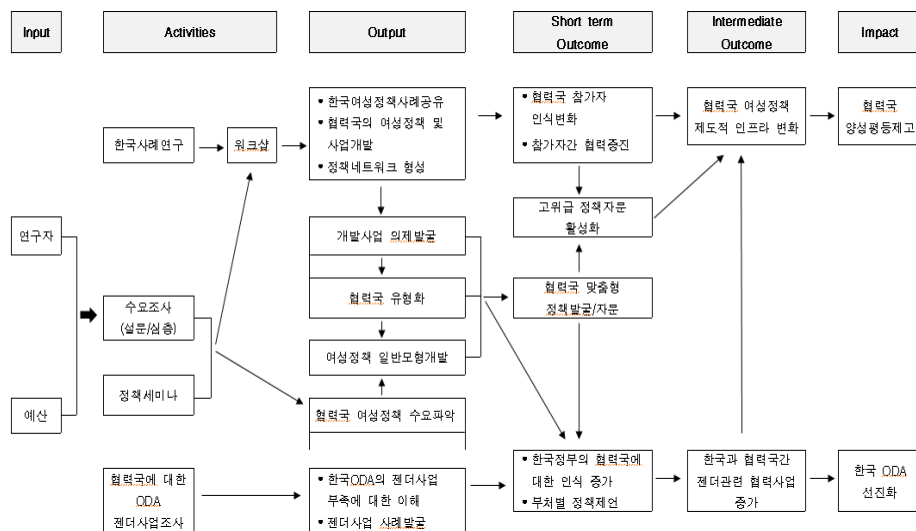
협력대상국가의 선정기준으로는 효율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였다(김은경 외, 2011a: 7-10). 효율성은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고 연구결과를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우선, 아시아를 최우선 중점지원 지역으로 고려하는 한국 정부의 ODA 정책에 발맞추고자 아태지역을 본 연구사업의 범위로 선정하였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6-32). 같은 맥락으로 한국 정부의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이 구축되어 있는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와 2013년부터 한국 정부가 전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미얀마)로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효율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염두에 둔 또 다른 요인은 협력국 내 여성정책 전담부처의 유무이다. 협력국 내에 여성전담부처가 존재할 때에는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면담 진행, 초청 연수 등의 실질적인 사업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표성은 아태지역, 그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김은경 외, 2011a: 7).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종교문화적인 측면을 대표할 수 있도록 불교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을 선정하였고, 정치민주화의 정도를 고려하여 동남아 국가 중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부터 가장 발전이 덜 된 국가를 포함하였으며,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최저 소득국부터 중저 소득국까지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과의 경제·사회적 교류정도, 외교적 배경과 전망을 협력국가 선정 기준에 또 다른 요소로서 고려하였다(김은경 외, 2013: 9).

6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그림 I-2에서는 변화이론에 따른 본 연구사업의 논리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4년간 본 연구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활동과 산출물(output), 단기 및 중장기 성과(outcome)와 기대효과(impact)가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연차를 더해감에 따라 연구의 초점이 진화해오고 있으며, 횡적·종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협력국가의 숫자 면에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개국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3차년도(2013년)부터 미얀마, 베트남 2개국을 추가함에 따라 횡적인 확장을 도모해오고 있다. 2011년도부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여성지위 현황 및 여성정책 수요에 대한 기초조사와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3년도부터 2차 협력대상국가 2개국, 미얀마와 베트남을 그 연구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베트남, 미얀마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가 축적되었다.



자료: 김은경 외(2013), p.224

[그림 I -2]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논리모형

한편, 연구의 내용 측면에서도 종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연구의 종적인 측면에서 연속성과 차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년도 연구(2011년)에서는 정책전문가들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현지 정책전문가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기제로 보고, 여성정책 역량강화 워크숍 모듈을 개발하는 데 그 초점을 두었고, 2차년도 연구(2012)에서는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여성정책 모형개발’이라는 부제 하에 1차 협력대상국에 여성정책 수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이 어떠한 시사점을 지닐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협력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모형과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의 이행을 위한 정책모형, 한국 ODA 사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3차년도 연구(2013년)에서는 2차년도의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 연구사업의 논리모델 개발을 통해 여성정책 분야의 지식공유에 대한 기반을 구축·제시하고자 하였다. 신규 2개국에 대한 기초조사가 추가됨에 따라 아태지역 4개 협력대상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지위 현황과 여성정책 수요의 특징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현지 정책전문가들과의 지식공유 노력을 통해 구축된 여성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협력국과의 네트워크 축적과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4차년도 연구(2014년)는 앞선 논의들을 좀 더 발전시켜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2011년도부터 지난 4년간의 연구결과를 총 정리하여 제시하는 동시에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성평등 분야 ODA의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¹⁾

본 연구는 다차년도 연구사업으로서 5차년도 연구(2015)도 기획 중에 있

1) 본 연구사업은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추진해온 경제발전경험 지식공유(KSP)와 유사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출발하였다. 정책중심의 자문, 수요중심의 맞춤형, 역량강화를 통한 중장기 협력추진 등의 KSP에서 제시하는 요소들을 본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김은경 외, 2013: 14). 그러나 협력국 정책과제를 도출한 뒤 실제로 이를 개발 사업으로 실현시키는 작업은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 여성정책은 협력국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인 경우가 많고 재정 관련 부처에서의 예산편성,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김은경 외, 2012: 12). 따라서 본 사업은 KSP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여성정책의 상황에 맞추어 심층면접조사 방법 도입, 국가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제안, 지식공유에서 성과도출까지의 기간의 넉넉한 설정(최소 3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주어 적용되었다(김은경 외, 2013: 15-16).

다. 5차년도에는 지난 4년 동안의 협력국의 여성정책 수요와 인프라 변화에 대한 성과와 이행을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4개 협력국 현지에서 그간의 연구사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 4차년도 연구의 초점과 세부내용

이번 절에서는 앞서 간단히 제시된 4차년도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의 초점과 세부 연구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상술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가 지향하는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하고, 본 연구의 세부내용을 소개한 뒤, 본 연구의 초점에 대해서 상술하고자 한다.

가. 지식공유와 개발컨설팅

개발컨설팅이라는 개념은 자칫 공여국이 갖고 있는, 혹은 경험했던 개발 노하우를 수원국에게 전수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공여국이 지식 전수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수원국의 원조 의존성 및 수동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Ellerman, 2000: 2; 김은경·곽서희·심수민, 2013: 118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소절에는 개발컨설팅에 대한 선행문헌의 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지식공유’, ‘개발컨설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본 연구가 지향하는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구성된 본 연구의 세부내용을 정리해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오늘날의 개발협력에서는 개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으로 진일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에서 점차 수원국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개발관련 지식을 받아들이고 수원국

의 맥락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외부 공여주체 및 수원국간의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전수민, 2012: 6; 김은경·곽서희·심수민, 2013: 119에서 재인용). 즉 수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여국은 이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상호성은 성공적인 개발협력에 주요한 열쇠인 것이다(Galtung, 1996: 135; 김은경·곽서희·심수민, 2013: 119에서 재인용).

지식공유는 단발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지식전수가 아니라,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바로 오늘날의 역량개발 패러다임과 그 맥락을 함께한다. 즉, 일방적이었던 과거 기술지원에서 변모해온 역량개발 패러다임은 수원국의 내재적 역량과 주인의식을 강조하면서 수원국 현황과 수요를 고려하는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다(김은경·곽서희·심수민, 2013: 122). 따라서 오늘날의 개발컨설팅은 공여국과 수원국이 개발환경을 함께 고찰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공여국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개발컨설팅(Development Consulting)

2012년도 3월 제1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인 ‘개발컨설팅 ODA 사업 종합평가결과’에서 제시된 정의에 따르면, 개발컨설팅(Development Consulting)은 ‘협력국 등의 경제·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조사업의 한 형태로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경제·사회·과학기술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제도 자문 및 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김현주, 2013: 12). 또한, 외교부의 2012년도 ‘개발협력분야 컨설팅 발전방안’에서는 개발컨설팅을 ‘무상원조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TC)’의 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곽재성 외, 2013: 14에서 재인용). 따라서 개발컨설팅은 원조사업의 한 형태인 기술협력을 구현하는 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곽재성 외, 2013: 20), 실제로 우리나라의 개발컨설팅 ODA 사업은 기술협력의 하나로 OECD에 보고되고 있다(박수영, 2012; 김현주, 2013).

일반적으로 국제개발컨설팅은 크게 정책자문 서비스와 프로젝트 자문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정책자문은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목적인 협

10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프로젝트 자문의 경우, 협력국의 제반시설 구축 및 관리 등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곽재성 외, 2013; 박수영, 2012).

〈표 I-1〉 국제개발컨설팅의 분류: 정책자문과 프로젝트 자문

| 분류 | 목적 | 컨설팅 내용 | 예시 |
|---------|---------------------|----------------------------|--|
| 정책자문 | 협력국의 경제·사회발전 |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지식 | 개발경험, 정책 노하우, 금융/경제/무역/행정 정책수립 및 집행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개발 등 |
| 프로젝트 자문 | 협력국의 제반시설 구축 및 관리 등 | 기술적인 자문 (Technical Advice) | 통신, 전력,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등의 분야에서 제반시설의 건축과 관련된 설계, 타당성 조사, 실행계획 또는 감리 등 |

자료: 곽재성 외(2013), p.20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관련 선행문헌(곽재성 외, 2013; 박수영, 201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컨설팅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몇 가지 원칙적인 제언을 하고 있다(표 I-2 참조). 이러한 제언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자문을 포함한 개발컨설팅 시행에 있어서의 몇 가지 시사점을 이끌어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컨설팅은 일방적인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수원국의 참여가 이루어진 지식공유의 과정이어야 한다. 둘째, 수원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 맥락을 고려하여 기획·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외 시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복성 문제를 극복하고, 원조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넷째, 일회성 개발컨설팅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과의 연계 및 후속사업을 통해 그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의 성과가 꾸준히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사점들은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시행 시에도 참고 되어야 할 원칙들이라 생각된다.

〈표 I-2〉 효과적인 개발컨설팅 시행을 위한 선행문헌 상 제언사항

| 선행문헌 | 제언사항 |
|--|---|
| 개발컨설팅 ODA 사업 종합 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 시행기관 간 사업연계 강화 • 정책자문 사업에 대한 소관부처의 참여 강화 • 개발컨설팅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개발조사 사업의 비중 확대를 통한 다양한 개발협력 콘텐츠 전수 및 후속사업과의 연계 강화 • 개발컨설팅 사업제도 개선 |
|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개발협력컨설팅 ODA사업'과 개발원조 개선방안 (박수영, 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컨설팅에 대한 용어 정의의 명확화와 이에 따른 전략 구성 • 일원화된 개발협력컨설팅 ODA 사업/단독기술협력(FTC) 추진의 일원화 및 연계성 강화 • 국제적인 원조 관련 논의동향을 반영한 개발협력컨설팅 ODA 사업/단독기술협력(FTC) 사업 추진 • 수원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개발협력컨설팅 ODA 사업/단독기술협력(FTC) 사업의 추진 |
| DEEP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곽재성 외, 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방적인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양방향의 참여적 협력 도모 • 제도 구축뿐만 아니라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역량강화가 포함된 기술협력의 제공과 이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 수원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국가적 개발목표에 부합 및 정책자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결합된 포괄적 협력형태를 지향 • 조화로운 협력: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 제3의 수원국을 활용한 삼각협력 방안 시도 및 국내적으로는 타 기술협력기관과의 공동사업 확대 |
| KOICA의 개발컨설팅 사업사례를 통해 본 성과 및 시사점 (오기윤, 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획 시부터 명확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의 설정을 통한 협력대상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 사업지원 방식 간 연계성 강화 및 컨설팅 결과와 다양한 후속사업 간 효과적 연계 • 한국 및 협력대상국의 이해관계자 간 협의 강화 • 협력대상국의 사회·문화·정치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한 한국 경험과 전문성의 창조적 적용 |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2), pp.28-29; 박수영(2012), pp.13-19; 곽재성 외(2013), pp. 134-148; 오기윤(2013), pp.34-36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3)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의 강화를 목표로 2011년도부터 시작된 본 연구의 추진과정은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앞서 정의된 정책자문 개발컨설팅에 대한 정의에 따라 협력국의 경제·사회발전에 필수적인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의 증진을 위해 관련 여성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지식(개발경험, 정책 노하우 등)을 공유해 왔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정책 분야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의 국내 첫 시도라고 생각된다(그림 I-3 참조).



[그림 I-3]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본 연구과제를 통해 시도되어온 개발컨설팅의 구체적 경험과 성과는 본 론 및 결론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이나,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우선, 2012년도부터 축적해온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 체계화 작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공유할만한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과정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왔다. 이러한 사례연구들은 향후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의 밑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축적된 개발도상국 현지의 여성지위 현황 및 여성정책 수요에 대한

자료 역시 향후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박수영, 2012; 곽재성 외, 2013; 오기윤, 2013)에서도 지적인 것처럼, 효과적인 개발컨설팅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수원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국가적 개발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통해 축적한 현지의 여성지위 현황 및 여성정책 수요에 대한 자료는 향후 효과적인 여성정책 분야 개발컨설팅 시행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사업에서 시도된 개발컨설팅의 주요 매커니즘 중 하나는 SSAGE 정책 전문가 초청워크샵 및 4개국 고위급 정책협의회이다. 본 워크샵을 통해서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현지 연구자들의 협력연구가 공유되고, 여기에 워크샵에 참석한 4개국의 공무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방향/다방향의 정책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사업은 여성정책 분야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의 국내 첫 시도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향후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의 발전을 위한 자료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는 개발컨설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현지의 지속적인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자문과 연계된 후속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발굴된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와 워크샵, 정책자문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아이템이 ODA 시행기관을 통해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연계되어 발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의 세부내용

본 보고서는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의 관점에서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의 다차년 간의 연구사업 결과를 총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의 세부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태지역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체계

보고서의 제 2장에서는 각 협력국의 일반 ODA 수원체계, 원조 협의체계, 젠더 분야 개발 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1차~3차년도의 연구가 현지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수요 등 수원국의 전반적인 경제·사회·문화적 맥락(context)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보다 실질적인 과정(process)의 측면에서 4개 협력대상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개발원조 사업 발굴 및 시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개발원조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아태지역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수요 분석

보고서의 제 3장에서는 2011년도부터 이루어진 4개 협력대상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에 대한 기초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치, 경제, 인권 분야별 현지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수요와 함께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주체, 여성지위 향상의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를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초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에서 제시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우리나라의 국별협력전략(CPS)와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3) 아태지역 협력국과의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경험

보고서의 제 4장에서는 2011년도부터 매년 추진되어온 현지 여성정책 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인 SSAGE 워크숍의 내용과 평가, 그리고 이 워크숍을 통해 현지 전문가들이 개발한 개발사업 제안서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2011년도부터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사업의 추진 자체가 여성정책 분야 개발컨설팅의 첫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년도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도에 새롭게 추진된 연구사업 활동으로 개발도상국과의 공

동협력연구를 소개한다. 본 연구는 현지 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협력국의 여성정책 연구역량강화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수원국 참여중심의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 과정과 시사점이 제시될 것이다.

〈표 I -3〉 협력대상국과의 위탁연구 과제목록

| 국가명 | 사례연구 목록 | 협력연구 기관 |
|-------|---|--|
| 인도네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ter's Behaviour in Voting for Candidates in 2014 Legislative Election and Voter's Perception in Voting for Women Candidates (2014 총선에서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인식 분석 연구) | 인도네시아대학 정치연구소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PUSKAPOL), University of Indonesia) |
| 베트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y Review on Vocational Training from Gender Equality Perspective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직업훈련 정책 리뷰) • Gender Issues in Vocational Training: Findings from National Survey Data (직업훈련에서의 젠더이슈: 국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 Theoretical and Practical Methods on Assessing Vocational Training Needs of Vietnamese Rural Women (베트남 농촌여성의 직업훈련 수요 평가를 위한 이론적·실질적 방안) | 베트남 노동사회연구소 (Institute of Labour Science and Social Affairs, ILSSA) |
| 캄보디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engthening National Policy Research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Gender Equality in Cambodia (양성평등 분야에서의 캄보디아 국가 정책 연구 역량강화 방안) | 아시아재단 (Asia Foundation) 캄보디아 사무소 |

4) 아태지역 협력국에 대한 여성정책 개발컨설팅과 한국의 성평등 ODA 증진 방안

제 5장에서는 보고서 전체의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다양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아태지역 4개 협력대상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분야의 한국 ODA 확대 및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첫째, 아태지역 수원국 혹은 협력대상국 4개국 성평등 원조체계와 수요에 대한 분석을 총정리하여 시사점을 이끌어내고, 둘째, 본 연구사업을 시행되어온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경험과 성과를 제시하며, 셋째, 아태지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 경험에 기반한 한국 ODA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5) 부록보고서 및 위탁연구 보고서

본 ODA 연구사업을 통해 본보고서 외에 9권의 부록보고서와 4권의 위탁연구보고서가 발간될 예정(표 I-4 참고)이며,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젠더분야 ODA 사업에 대한 선진 양·다자기구 사례집

본 ODA 연구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축적해온 선진 공여기구의 여성대상 사업 및 성 주류화 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로서 국내 ODA 정책 관계자 및 ODA 시행기관 관계자들이 양성평등 분야 원조를 기획·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나)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위탁보고서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도부터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와의 업무협력(MOU)을 체결하여 여아/여성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로 2차년도를 맞는 본 위탁보고서의 2014년도 세부주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분야에서의 아시아 여학생과 여성 (A Complex Formula: Girls and Women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g and Mathmatics in Asia)”이다.

다) 아태지역 협력대상국과의 2014년도 공동협력연구 모음

앞서 설명된 것처럼, 여성정책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의 일환으로서 협력대상국 현지의 연구기관을 통한 협력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공동협력연구를 모아놓았다(세부내용은 IV장 및 그림 I-3 참고).

라) 한국 발전경험 사례연구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만한 여성정책 분야의 우리나라 발전경험에 대한 콘텐츠 구축을 위해 본 연구의 일환으로 2012년도부터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이 체계화된 사례연구로 구축되어 오고 있다. 2013년도에 총 10개 주제의 사례연구가 본 연구과제의 부록보고서(영문 9종, 국문 1종)로 발간되었으며, 올해 역시 영문으로 8개의 보고서가 추가 발간될 예정이다.

〈표 I-4〉 2014년도 연구과제 발간 보고서 목록

| 번호 | 연구보고서명 |
|-----|--|
| 1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여성정책의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
| 2 | 젠더분야 ODA 사업에 대한 선진 양·다자기구 사례집 |
| 3 | A Complex Formula: Girls and Women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in Asia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위탁보고서) |
| 4 | 아태지역 협력대상국과의 2014년도 공동협력연구 모음 |
| 4-1 | Voter's Behaviour in Voting for Candidates in 2014 Legislative Election and Voter's Perception in Voting for Women Candidates (인도네시아 공동협력연구 보고서) |
| 4-2 | Vocational Training Policy and Status of Women in Vietnam (베트남 공동협력연구 보고서) |
| 4-3 | Strengthening National Policy Research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Gender Equality in Cambodia (캄보디아 공동협력연구 보고서) |
| 5 | 한국여성정책 및 사업 발전경험 영문보고서 8종 |
| 5-1 | Adoption Process of the Women Quota System through Amendment of the Political Party Law |
| 5-2 | Policy Support for Fostering Women Farmers |
| 5-3 | Sex Protection System for Child and Adolescents |
| 5-4 | Establishment of Legal Aid Programs: the Case of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
| 5-5 | Systemization and Evalu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
| 5-6 | Establishment of Gender Disaggregated Statistics |
| 5-7 | Policy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and Employment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a Focus on Career Development Centers |
| 5-8 | Programs to Foster Female Student in STEM |

II

아태지역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체계

| | |
|----------|-----|
| 1. 인도네시아 | 22 |
| 2. 베트남 | 42 |
| 3. 캄보디아 | 61 |
| 4. 미얀마 | 77 |
| 5. 소결 | 105 |

이 장에서는 4개국 내에서 성평등 원조 사업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3차년도 연구까지는 각국의 여성정책 인프라 현황과 성평등 원조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처럼 각국의 원조 관계자들 간의 업무 메카니즘을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4차년도 연구에서는 4개국에 대한 한국의 성평등 원조가 확대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한국이 4개국과 협력 사업을 맺을 때의 진입지점은 누구이며, 4개국에 대한 양다자 기구의 젠더분야 원조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같은 목적으로 먼저 4개국의 젠더분야 ODA 보고서를 취합하였고, 각 국가내에서 부처간 이루어지는 원조 프로세스의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현지 출장을 통한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현지 관계자 면담은 여성정책 담당부처의 담당자를 우선 면담대상으로 삼았으며, 각국의 개발청이나 개발위원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에서는 성평등 원조 추진체계와 집행과정, 그리고 현황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나누었으며 면담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자료를 받았다.

또한 현지에서 젠더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다자기구들을 방문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와의 네트워크 운영상황과 성평등 원조의 협의체 운영여부를 질문하는 식으로 하여, 정부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한번 체크하였다. 현지의 KOICA 사무소도 방문하여 현지에서 한국 원조사업이 젠더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다(표 II-1 참조).

〈표 Ⅱ-1〉 4개국 성평등 원조 체계조사 면담 개요

| 협력국가 | 일정 | 주요 면담기관 및 인원 |
|-------|------------------------------|--|
| 인도네시아 | 2014. 8. 19 - 2014. 8. 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역량강화및아동보호부(Ministry of Women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MoWECP) 1인 - World Bank 인도네시아 사무소 1인 -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인도네시아 사무소 2인 - UNDP 인도네시아 사무소 5인 -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3인 |
| 베트남 | 2014. 5. 21 - 2014. 5.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사회보훈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Social Affairs, MOLISA) 5인 - UNDP 베트남사무소 1인 -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베트남사무소 3인 - UN Women 베트남사무소 3인 - ADB 베트남사무소 2인 |
| 캄보디아 | 2014. 5. 21 - 2014. 5.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MOWA) 2인 - 캄보디아 복구및개발위원회-투자개발위원회(CRDB-CDC) 3인 - UNDP 캄보디아 사무소 1인 - ADB 캄보디아 사무소 1인 -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3인 |
| 미얀마 | 2014. 6. 2 - 2014. 6.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부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내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Social Welfare) 2인 -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내 해외경제관계국(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 4인 - UNDP 미얀마 사무소 2인 - KOICA 미얀마 사무소 1인 - Pyoe Pin Programme(NGO) 1인 |

이처럼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4개국의 성평등 원조의 체계를 분석하였으며, 하반기에 개최된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도 참석자들이 각국의 성평등 원조 운영체계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내용을 공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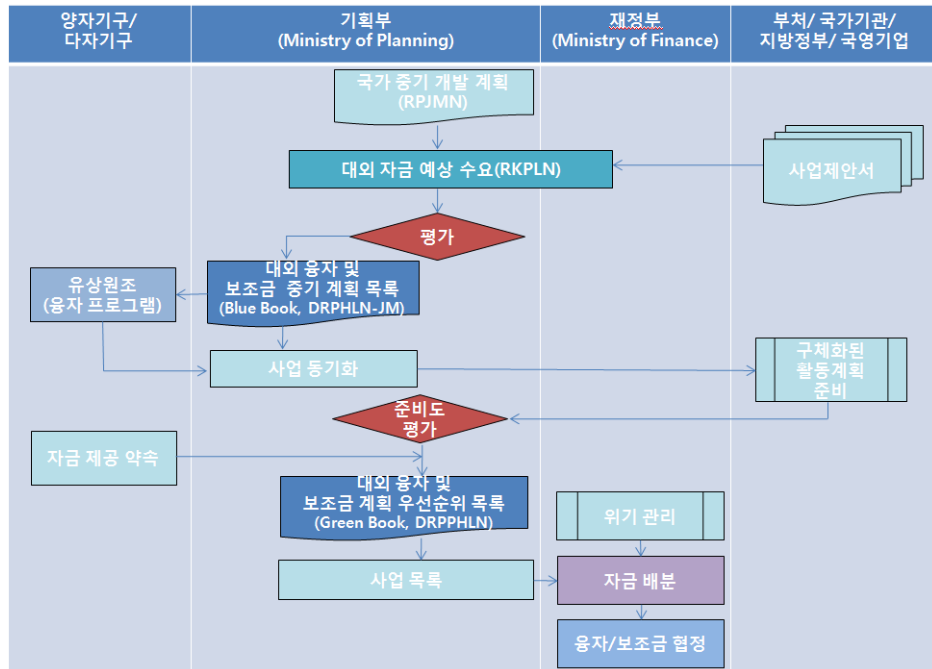
1. 인도네시아

본 절에서는 기존의 국내 문헌 및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의 1차년도 보고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료 등을 근거로 하고, 올해

실시한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일반적인 ODA 수원체계와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시행과정, 그리고 인도네시아 원조관련 협의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진은 2014년도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여성부 국제협력 관계자, 주요 양·다자 공여기구(세계은행, UNDP, 아시아재단),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일반·성평등 원조사업의 기획과 집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청(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BAPPENAS)에서 발간되는 “중기 대외차관 및 무상원조 목록 2011-2014”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발원조 수원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개별기관이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기획부는 중기개발계획(National Medium Term Development Plan, RPJMN)과 대출전략(Planned Need for External Loans, RKPLN)에서 제시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이 평가 과정에서 채택된 사업제안서는 대외 용자 및 보조금 중기 계획 목록(Blue Book)에 실리게 된다. 이 목록은 양다자 공여기관과 공유되고,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업준비도 평가를 거친 후, 공여기관의 자금제공 약속이 이루어지고, 대외 용자 및 보조금 계획 우선순위 목록(Green Book)에 실리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김은경 외, 2011a: 121-123).



자료: BAPPENAS(2011), p.2 김은경 외(2011a), p.123에서 재인용

[그림 Ⅱ-1] 인도네시아 원조분배체계

위의 그림에서 드러나지는 않으나, 보통은 개별 수원부처 및 기관과 양다자 공여기관 간의 협의가 사업제안서 작성 이전에 이루어지며, 사업제안서와 관련된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고위급들이 원조사업을 결정하는 데까지의 과정은 거의 2년이 소요된다. 사업제안서가 국가개발청(BAPPENAS)에서 검토될 때 크게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되는데, 첫째는 5개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사업활동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이다. 국가개발청(BAPPENAS)의 검토에서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승인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정부부처와 함께 검토 및 점검을 통해 수정·보완작업을 거치게 된다. 국가개발청(BAPPENAS)에서 사업제안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정부부처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 있는지 고려되는데, 이것이 위의 그림상 사업 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으로서, 예를 들어, 다른 부처가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여성역량강화및아동보호부(Ministry of Women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MoWECP)가 해당사업의 이해관계자로서 포함하게 된다.²⁾

사업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대외자금이 실제 사업 시행 부처/기관에 전달되기까지도 꽤 긴 시간이 걸린다. 대외원조 기금을 받기 위해 해당부처는 재무부에 공문을 보내 계좌등록 협조를 요청하고, 등록번호를 받아 계좌개설을 요청해 최종적으로 계좌가 생성되는 데에만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3~4개월이 걸리며, 이 기간이 1~2개월 더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적 계좌거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술협력 방식의 협력을 부처 입장에서는 더 선호한다는 의견 역시 있었다.³⁾

한편, 몇몇 공여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에서 개발사업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우선, 인도네시아의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가 그 중 하나였다. 인도네시아는 34개 주정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상충되는 규정을 수립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협력 원조에 대한 협의는 공여국과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간에 이루어지는데,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정부와의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⁴⁾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연구진이 인도네시아의 정부와 양다자기구를 방문하고 알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 내 공여기관 간 별도의 원조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주제별로 공여기관 간 필요시 비정기적 회의를 진행하며, 인도네시아 내 공여기관 간 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어 공여국 간 협의를 위한 회의 소집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⁵⁾

2)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및아동보호부(MoWECP) 관계자 면담(2014. 8. 21). 해당 면담자는 국제협력 부서장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재직하였음.

3)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및아동보호부(MoWECP) 관계자 면담(2014. 8. 21).

4)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사무소 면담(2014. 8. 20); UNDP 인도네시아 사무소 면담(2014. 8. 21);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면담(2014. 8. 21).

5) 아시아재단 인도네시아 사무소 면담(2014. 8. 20);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사무소

또한, 현지 정부와 공여국 간의 협의도 사안별, 주제별 모임이 비정기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면담결과 확인하였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청(BAPPENAS)이 원조조율(coordination)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복지, 경제 등 각 해당분야의 정부부처가 별도의 워킹그룹이나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여기구가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국가개발청(BAPPENAS)과 각 부처의 메일링 리스트에 해당 공여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할 수 있다.

젠더사업과 관련된 공여기관 간 원조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때 아시아재단에서 젠더 원조협의회를 추진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재단, UN Women, 세계은행 등 참여하는 공여기관이 제한적이기도 했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여서 이야기만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여기관 젠더담당자들 간에 네트워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공여기관이 모여 역할분담을 하는 것은 용이한 편이라는 점이 공유되었다.⁶⁾

한편, 젠더관련 공여기관 간 커뮤니티에 대한 한국 원조기관의 참여는 미미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었다.⁷⁾ 따라서 한국정부가 젠더분야의 ODA를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젠더분야 논의와 관련된 공여기관 간 회의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현지 정부 측에도 이러한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대부분의 원조 사업은 명확하게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여기관 중 어느 쪽에서 주도한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젠더사업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인도네시아 정부보다는 공여기관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⁸⁾ 여성역량강화및아동

면담(2014. 8. 20).

6) 아시아재단 인도네시아 사무소 면담(2014. 8. 20).

7) 아시아재단 인도네시아 사무소 면담(2014. 8. 20).

8)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및아동보호부(MoWECP) 관계자 면담(2014. 8. 21); 아시아재단 인도네시아 사무소 면담(2014. 8. 20).

보호부(MoWECP) 관계자는 젠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로서 UNFPA, UN Women, UNDP, 독일 GIZ, 캐나다 CIDA를 언급하였고, 호주 AusAID의 경우, 그 젠더사업의 규모가 크고 활발하지만, 정부보다는 시민사회를 현지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⁹⁾ 한편, 아시아재단도 젠더사업에 있어서 활발한 공여기구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는데, 3년 전까지 젠더관련 다자기구 간 협의체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공여기관들이 1~2개월마다 한 번씩 모여 젠더관련 사업 이슈를 다루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한다.¹⁰⁾

젠더분야 사업의 아이디어 발굴은 공여기관에서 많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그 접근이 다른 사업에 비해 좀 더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면담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젠더이슈를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여기관에서 젠더사업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주로 공여기관이 젠더사업을 먼저 제안하게 되고, 현지 정부로서는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현지 정부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젠더이슈의 경우 문화적 맥락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의의 전면에 내놓기 보다는 다른 논의 중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이야기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 역시 언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재정부 등 유관부처에 젠더상황의 개선이 국가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네시아 내 젠더분야 개발협력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한 가지 긍정적인 향후 전망은 올해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새로운 5개년 국가개발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젠더분야에 대한 별도의 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현지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공여국이 참여하고 있는 작업반(working group)도 존재한다고 한다.¹¹⁾

그리고 젠더사업의 시행에 있어 앞서 언급된 바 있는 지방분권화와 관련된

9)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및아동보호부(MoWECP) 관계자 면담(2014. 8. 21).

10)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사무소 면담(2014. 8. 20).

11)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사무소 면담(2014. 8. 20);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및아동보호부(MoWECP) 관계자 면담(2014. 8. 21).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여성역량강화및아동보호부(MoWECP)와 같이 그 정치력이 제한적인 부처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여기관과 지방정부 중간에서 의견조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¹²⁾

다음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양다자 기구의 성평등 원조사업의 대략적인 현황을 정리하였다. 아래 표에 포함되지 않은 성평등 원조사업들도 많을 것으로 보며, 다만 연구진이 최대한 수집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제시된 사업들은 여성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음영표시가 된 사업은 성 주류화 사업이다.

〈표 Ⅱ-2〉 인도네시아 양자 기관의 젠더 프로젝트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AusAID (호주) | Australia's Education Partnership with Indonesia * 호주 NGO들과 협력 | 2011-2016 |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 질 향상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교육부 |
| | Australia's Education Partnership with Indonesia * 호주 NGO들과 협력 | 2006-2010 |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기초 교육 기회 증진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교육부 |
| | Learning Assistance Programme for Islamic Schools | 2004-2010 | 여학생 진학률이 높은 이슬람 학교 지원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교육부, 종교부 |
| | Australia Indonesia Partnership for HIV | 2008-2015 | HIV/AIDS 억제 (성매매업 종사 여성 중 HIV/AIDS 감염인 지원)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보건부 |

12) 인도네시아 여성역량강화및아동보호부(MoWECP)와 현지 KOICA 사무소 면담 과정에서 최근 양국과 추진하고자 했던 여성개발센터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의견조율이 실패로 끝나 사업이 무산된 사례를 접할 수 있었음.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Australia Indonesia Partnership for Maternal and Neonatal Health | 2008-2011 | 산모 및 유아 건강 증진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보건부 |
| | Schools Reconstruction Program in West Java and West Sumatra | 2010-2011 |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와 수마트라의 학교 재건 | - | 교육부, 종교부 |
| | Australia Indonesia Basic Education Program | 2006-2010 | 양질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제공 및 빈곤 지역에 기초 교육 서비스 개선 | - | 교육부, 종교부 |
| | Eastern Indonesia Road Improvement Project(EINRIP) Project Preparation Consultants (PPC) | 2009-2013/2014 | 도로 개선을 통한 인도네시아 동부의 경제와 사회 발전 | - | Directorate Bina Program (Department of Public Works) |
| | Smallholder Agribusiness Development Initiative | 2006-2010 | 1) 생산성의 증대를 통한 가구 소득 증대와 지방 개발 지속성의 확보 2) 소농의 시장 접근성 개선 3) 동부 인도네시아 4개 지역의 농업 외 부가가치 활동의 양산 | - | 국가개발청, PMD, CoFTRA |
| CIDA (캐나다) | Building Better Budget for Women and the Poor * Asia Foundation 협력 | 2010-2014 |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젠더정책 계획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재무부, 지방 정부 |
| | Support to Voter Education for Election 2009 | 2008-2010 | 여성과 청년층 투표율 증진 (도입주체: UNDP)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선관위 |
| | Indonesia Agribusiness Development | 2014-2018 | 남녀 소규모농업민의 수익 증대, 농촌으로의 성인지 투자 증대, 농작물의 지속가능한 수요 증대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
| | Skills for Employment in Indonesia | 2013-2017 | 공립 폴리텍 학교 졸업생들의 고용 개선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지속적 경제 성장 증진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교육부 |

30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Indonesia Volcano and Tsunami | 2010-2011 | 2010년 인도네시아의 화산분출과 쓰나미로 인한 재해에 인도적 지원(물, 임시침터, 기초 보건서비스) 제공 | Red Cross | - |
| | Local Leadership for Development (SILE) | 2008-2016 | 여성중심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역 수준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거버넌스 장려를 지원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
| | Private Sector Enterprise Development | 2008-2014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증가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경제 참여 기회를 향상하고 빈곤을 감소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
| |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Sustainable Livelihoods | 2008-2015 | Sulawesi 지역에서 빈번한 빈곤을 완화하고, 재활 가능한 천연자원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장려함으로써 생계 지원(빈곤 여성과 아동 포함)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지방정부 |
| | Social Equity Project | 2002-2012 | 이슬람 공동체(여성 포함)의 역량강화, 인도네시아의 거버넌스와 사회의 공정성 향상을 통한 빈곤 완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 장려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교육부 |
| DFID (영국) | Civil Society Initiative against Poverty * Asia Foundation 협력 | 2008-2011 | 빈곤층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성평등적 예산 편성 도모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내무부, 재정부 |
| | Oxfam's Practical Review on DRR Investment * Oxfam 협력 | 2010 | 정부의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반영 평가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
| | Indonesia's Country Gender Assessment | 2010 | 성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데이터 수집 | 인도네시아 현지 NGO 다수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국가통계청 |
| | UNDP Women - 2009 Elections | 2009 | 2009년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대표성 증가 | UNDP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Improving Maternal Health in Indonesia | 2006-2010 | 21개 지역을 중심으로 임신과 출산 관련 보건서비스와 체계 향상 | UNICEF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보건부 |
| | Indonesia Tsunami: Multi Donor Trust Fund for Aceh and Nias | 2005-2010 | 쓰나미 발생 이후 Aceh와 Nias 지역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지방정부 |
| | West Sumatra Earthquake: Support to Transitional Shelter Activities of CARE | 2010 | 인도네시아의 서부 수마트라 지역에 지진대피소 제공 | CARE | 국가개발청, 외교부 |
| | Health Sector Assessment and System Strengthening | 2009-2011 | 남녀의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보건서비스로의 접근성 증가를 위한 정부의 전략과 역량 향상 지원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보건부 |
| | HIV and AIDS * UNDP와 협력 | 2005-2010 | HIV/AIDS 전염위험자 및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HIV/AIDS를 예방하기 위한 역량 향상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보건부 |
| | Safer Communities through Disaster Risk Reduction (SC-DRR) * UNDP와 협력 | 2007-2010 |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빈곤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위험성 감소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내무부, 재난대응국 |
| |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terventions | 2012-2018 |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을 통해 보건정책을 향상하고 정책결정자, 공여국, 전문가 등이 보건 정책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보건부 |
| EuropeAid (EU) | Building Partnership among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Support for Pro-Poor and Gender-Responsive Budget Initiatives in South Sulawesi | 2008-2010 | 빈곤층을 위하고, 성인지적인 예산 계획을 위한 정부, 의회, 시민 사회 간의 파트너십 강화 | YLSMPL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내무부, 재무부, 지방정부 |
| GIZ (독일) | Strengthening Women's Rights Project | 계속 | 여성 권리 증진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국가인권위, 정치·법·안보부 |

32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Promotion of Small Financial Institution | 진행 중 | 영세 사업 지원 (여성 영세 상인 포함)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Bank Indonesia, 경제협력부, 중소기업협력부 |
| JICA (일본) | Program for Enhancing Quality of Junior Secondary Education (Pelita SMP/MTs) | 2009-2013 | 중앙정부가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연구수업과 학교기반 참여적 경영 이행관련 역량 강화 | - | 교육문화부, 종교부 |
| | Ensuring MCH Services with the MCH Handbook Project Phase 2 | 2006-2009 | 지역 보건시설에 모자보건 핸드북 보급 및 모든 임신부와 5세 미만의 영아가 건강기록부 작성 지원 | - | 보건부, 내무부, 지방정부, 교육부 |
| | Urgent Disaster Reduction Project for Mt. Merapi, Progo River Basin | 2005-2014 | Yogyakarta와 자바 중앙 지역에서 Merapi 산의 화산 폭발로 인한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토양 안정을 통한 지역 주민 복지 향상 | - | 공공사업부 |
| | Aceh Reconstruction Project | 2007-2015 | Aceh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를 복원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
| | Project on Self-sustainable Community Empowerment Network Formulation in Nanggroe Aceh Darussalam (NAD) Province | 2007-2009 | 지진과 쓰나미를 비롯한 자연재해가 잦은 Aceh 지역의 재건을 돕기 위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고 공동체 네트워크 확장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지방정부 |
| |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Project of Jakarta Fishing Port | 2004-2012 | 자카르타의 항구 재건을 도와 해양수산자원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용을 장려하여 외환을 유치하고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도록 지원 | - | 해양수산부 |
| | Sulawesi Capacity Development Project | 2007-2010 | Sulawesi의 지역개발에 필요한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기획 및 이행능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 빈곤 완화 | - | 국가개발청, 내무부, BAPPEDA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Climate Change Program Loan | 2008-2010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성취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지원하며, 남녀가 모두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토지사용, 농림업, 수자원 관리, 에너지 및 삼림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 - | 국가개발청 |
| | Tanjung Priok Access Road Construction Project, (I) and (II) | 2005-2006 | Tanjung Priok Port에 접근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자카르타 시내의 교통체증을 감소 | - | 공공사업부 |
| KOICA (한국) | 인도네시아 여성능력개발센터 건립사업 | 2012-2014 |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인도네시아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여성능력 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비즈니스 교육 등을 포함 하는 창업보육센터 출범 | - | 여성부 |
| SNV (네덜란드) | Human Rights for All Program on Strengthening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vement with Special Support for Gender Equality and Sexual Reproductive Rights * HIVOS(네덜란드) 협력 | 2008-2010 | 여성과 성적 소수자의 인권 및 성과 생식관련 권리 증진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보건부, 국가인권위 |
| | Strengthening Democracy and Development through Participation * Asia Foundation 협력 | 2008-2012 | 여성의 정치 참여 증진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정치·법·안보부 |
| USAID (미국) | The Pathway to Achieving MDGs 4&5 - Health * UNICEF 합작 | 2010-2015 | 산모 및 영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지역 차원의 응급 진료 접근성 강화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보건부 |
| | Malaria in Pregnancy * CDC(미국) 협력 | 2005-2015 |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산모 및 영아의 말라리아 감염률 감소를 위한 의료적 지원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보건부, 지방 정부 |

34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Maternal and Child Health Integrated Program (MCHIP) * JHPIEGO 협력 | 2010-2011 | 산모 및 영아 대상 국가 보건서비스 개선 및 Aceh, Banten, East Kalimantan 지방 정부 관련 역량 강화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보건부, Aceh, Banten, East Kalimantan 지방 정부 |
| | Expanding Maternal and Newborn Survival (EMAS) Program | 2010-2011 | 근거에 기반한 수술과 위탁 시스템, 지방수준의 문제 해결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보건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향상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보건부 |
| | Indonesia Urban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IUWASH) Project | 2011-2016 | 도시지역의 가난한 남녀 주민들을 중심으로 안전한 물 공급, 위생 개선 및 접근성 향상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보건부, 공공사업부 |

참조: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oFTRA: Commodity Future Trading Regulatory Agency; DRR: Disaster Risk Reduction;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EU: European Union; GIZ: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erman Federal Enterpris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HIVOS: Humanistisch Instituut voor Ontwikkelingssamenwerking (Humanist Institute for Cooperation in Full);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HPIEGO: An International Non-profit Health Organization Affiliated with Johns Hopkins University;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MCH: Maternal and Child Health; MoWECP: Ministry of Women Empowerment & Child Protection;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zation;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Rights and Emergency Relief Organization;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YLSMPL: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to Monitor Indonesia Government's Legislation Process

* 양자기구와 협력한 NGO를 표기하였음.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성 주류화 사업임.

자료: JICA (2011); AusAid, CIDA, DFID, EuropeAid, SNV, USAID 홈페이지

〈표 II -3〉 인도네시아 다자 기구의 젠더 프로젝트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ADB | Gender Responsive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 2004-2007 | 젠더 시각에서 국가 단위와 국가 하부단위의 행정 서비스 개선 | 정치부문 여성 NGO 다수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
| | Assisting Girl Street Children at Risk of Sexual Abuse | 2000-2006 | 성적 학대를 당함/당할 위험이 있는 거리의 여아 지원 | - | 보건부 |
| | Nutrition Improvement through Community Empowerment Project | 2007-2012 | 빈곤층 여성과 아동을 포함 하는 영양 상태 개선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보건부, 국가사무처, MoWECP, 낙후지역개발부 |
| | Community Empowerment for Rural Development | 2001-2007 | 농업 지원, 자원 활용 노하우 전수 (여성 농업 종사자 포함)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내무부, 농업부, 국가사무처, 낙후지역개발부 |
| | Sustainable Capacity Building for Decentralization | 2003-2011 | 분권화 관련 양성평등 증진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법 제정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내무부, MoWECP, 낙후지역개발부 |
| | Urban Sanitation and Rural Infrastructure Support to PNPM Mandiri Project | 2011-2015 | 여성에게 도시 위생/지방 인프라 지원 서비스 보급 | - | 공공사업부 |
| | Community-focused Investments to Address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2014-2015 | 벌채와 삼림악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커뮤니티 중심적 투자의 성 주류화 | - | - |
| | Stepping Up Investments for Growth Acceleration Program Subprogram 2 | 2014-2016 | 공공분야 재정 운영의 성 주류화 | - | - |
| | Coral Reef Rehabilitation Management Program-Coral Triangle Initiative Project | 2003-2019 | 수자원 운영과 농업 및 지방 발전의 성 주류화 | - | - |
| | West Kalimantan Power Grid Strengthening Project | 2014-2016 | 전기 공급과 분배의 성 주류화 | P.T. Perusahaan Listrik Negara | - |
| | Polytechnics Education Development Project | 2013-2018 | 기술 및 직업 훈련과 트레이닝의 성 주류화 | - | Directorate General of Higher Education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State Accountability Revitalization Project | 2013-2018 | 공공 행정의 성 주류화 | - | Badan Pengawasan Keuangan & Pembangunan |
| | Regional Road Development | 2012-2015 | 도로/교통 개발의 성 주류화 | - | - |
| | Madrasah Education Development | 2005-2007 | 여아를 위한 교육기회의 증대 | - | 종교부 |
| | Community Based Basic Education for the Poor | 2002-2006 | 여아를 포함하는 소외 및 고립 지역의 기초교육 기회 증대 | - | 교육부 |
| | Decentralized Basic Education Project | 2002-2009 | 여성과 남성의 기초 교육 기회 확대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교육부, MoWECP |
| ILO | Access to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Women Project | 2012-2016 | 고용시장의 성평등 도모를 위해 여성의 정규직 진입 장벽 제거 및 여성 차별 철폐 | Apindo, 노동조합 장애인조직 외 | 국가개발청, 인력·이주부, 사회부 |
| | Equality and Decent Work Promotion for Asian Women through Prevention of Human Trafficking, Protection of Domestic Workers and Gender Capacity Building | 2009 |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관리 및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평등 증진과 성 주류화 추진: 성평등에 관한 ILO 국제행동 강령 이행, 고용에 있어서의 성평등 추진,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착취 근절 | KSPSI, KSPI, KSBSI, Apindo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인적자원 및 이주노동부 |
| | Gender Mainstreaming in the ILO Norway Partnership Agreement * 노르웨이정부 지원 | 2012-2013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고용에 있어서의 성평등 도모 | Apindo, 노동조합 | 인력·이주부, MoWECP |
| | PROMOTE: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to End Child Domestic Work * 미국정부 지원 | 2012-2016 |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가사 노동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이주노동자 조직의 역량 강화 | JALA PRT, JARAK, IDWN | KAPPR-T-BM |
| | Combating Forced Labor and Trafficking of Indonesian Migrant Workers * 노르웨이정부 지원 | 2008-2011 |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다수 여성 포함)의 니즈와 인권 보호 및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가능성 인식 개선 | 이주노동자조직, 가사노동자조직, 노동조합 | 인력·이주부, 경제조정부, BNP2TKI, 외교부, 여성경제 역량부, 내무부, 보건부, 지역정부, 국가 인권 및 여성인권 위원회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Entrepreneurship Skills Development Programme (Papua Province) | 진행 중 | Papua지방 경제 활동 지원 (여성에게 대해 집중적 지원)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경제부, 중소기업 협력부, Papua 지방정부 개발지원팀 |
| | Promoting Rights and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mployment through Legislation | 2012-2015 | 사법/정책 영역의 확장을 통해 장애를 가진 여성과 남성의 일과 고용 기회 개선, 기술개발과 차별 철폐 | 노동자고용조직, 장애인조직, 대학, 미디어 | 인력·이주부, 사회부 |
| | Promoting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Indonesia(UNPRPD) | 2013-2014 | 장애를 다루는 기관 및 장애 관련 데이터 수집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인권 도모 정책 마련-여성장애인에게 대한 폭력 실태 조사 | 장애인조직 | 국가개발청, 인력·이주부, 사회부, 교육문화부, 보건부, 통계청 |
| | Youth Employment Policy and Programme to Better Equip Young People for School to Work Transition and Enter the World of Work * 스웨덴정부 지원 | 2012-2013 | 청년 여성과 남성의 고용 도모와 직업 및 기업 훈련, 재정 접근성 개선과 기술 개발 | 인도네시아 청년고용네트워크, Apindo, 노동조합 | 부통령실, 국가개발청, 인력·이주부, 청년·스포츠부, 교육·문화부 |
| | People-centered Development Program Phase II: The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izing Sustainable Livelihood Development for Papuan Communities | 2012-2013 | 파푸아 원주민의 생계를 위한 지역 정부와 시민 사회의 시스템 강화와 이를 통한 커뮤니티 복지의 개선-여성에게 대한 불평등 인지 및 여성 기업가의 니즈 파악 연구 | Cendrawasih 대학, Ottow Geisler 대학, UNIPA, 지역 커뮤니티조직, KADIN, Apindo, 노동조합 | 주지사, 지역수장, BAPPEDA (서부와 서파푸아), BPMK, 인력·이주부 (서부와 서파푸아), Bank Indonesia |
| | Sustaining Competitive and Responsible Enterprises(SCORE) Project | 2009-2012 | 다수의 남녀노동자 모두를 위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고용을 도모 | Apindo, KSPSI Pasar Minggu, KSPSI Kalibata, KSPI, KSBSI, Astra Dharma Bhakti Foundation | 인력·이주부 |
| | Green Jobs in Asia-Indonesia * 호주정부 지원 | 2010-2012 | 성인지적 녹색직업 기회 확대 | Apindo, KSPSI Pasar Minggu, KSPSI Kalibata, KSPI, KSBSI, | 인력·이주부, 환경부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UNDP | The Gender Equity and Women's Rights: Rising the Profile | 2008-2009 | 여성 인권 및 양성평등 현황 분석 | Indonesia Gender Network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국가인권위, 국가여성폭력 철폐위 |
| | Safer Communities through Disaster Risk Reduction | 2007-2012 | 재난관리 지원 (재난 지역 여성 역량강화, 보호 프로그램)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국가재난 관리소, 내무부, MoWECP |
| | Support to the Acceleration of MDG Achievement Project | 2011-2015 | 인도네시아 MDG 달성 지원 프로젝트(MDG 3- 고등 교육의 성 격차 해소; 비농업 고용분야 여성 고용 증대; MDG5 청장년 여성 피임약 사용 개선 포함) | - | 국가개발청 |
| | SAJI Project | 2012-2015 |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젠더 기반폭력 포함 사법 서비스 강화 | - | Directorate of Law and Human Rights, 국가개발청 |
| | The Legal Empowerment and Assistance for the Disadvantaged | 2006-2011 |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젠더 기반범죄로부터 보호 제공을 통한 법적 역량강화 | - | 국가개발청 |
| | PCPD Project * 뉴질랜드 정부 지원 | 2011-2012 | 빈곤감소의 성 주류화(젠더 액션 플랜 마련) | - | 국가개발청, BAPPEDA |
| | Wind Hybrid Power Generation Marketing Development Initiatives-WhyPGen Indonesia | 2012-2015 | 풍력 하이브리드 파워 마케팅 개발의 성 주류화-성인 지적 전략을 가진 기술개발 | - | BPPT, MEMR, PLN |
| | Strategic Planning and Action to Strengthen Climate Resilience of Rural Communities in Nusa Tenggara Timur Province SPARC | 2012-2016 | 환경, 재난 위험 감소-성인 지적 기후대응모듈 개발 및 성인지적 취약성을 고려한 재정 및 기술 지원 | - | KLH, BAPPEDA |
| UNICEF | The Pathway to Achieving MDGs 4&5 - Health * USAID 합작 | 2010-2015 | 산모 및 영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지역 차원의 응급진료 접근성 강화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보건부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Monitoring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 DFID, AusAID 협력 | 2007-2010 |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보건부 |
| | Traditional Birth Attendance and Midwife Partnership * DFID, AusAID 협력 | 2007-2010 | 빈곤층 출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 산파 역량 강화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보건부 |
| | Community Care for Women and Children | 2005-2009 | 폭력, 착취로부터 여성,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 구축 | Global Thematic Fund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서 자바 (Java) 및 치르본 (Cirebon) 지방정부 |
| | Integrating Support for Women and Children | 2006-2010 | 말루쿠(Maluku) 지역에서 폭력이나 착취로 고통받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심리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제공 | Global Thematic Fund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보건부, 말루쿠 지방정부 및 경찰청 |
| | Early Childhood Development | 2006-2011 | 저 연령 아동을 위해 특히 교육 및 보건 분야 서비스 지원을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방안 마련 | Global Girls' Education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교육부, 보건부 |
| UN Women | Women Participate for Gender-responsive Governance in Aceh | - | 분쟁지역 재건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및 의사결정 과정 참여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연수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정치법안보부 |
| | Safe Community Initiative Finding Community Solutions to Violence against Women in Aceh * CEDAW 추진위원회 (CWGI)와 공동 추진 | 2009 | 분쟁지역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캠페인 및 피해 여성 보호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국가인권위, 정치법안보부, 여성폭력철폐 국가위원회 |
| | CEDAW Southeast Asian Program * CEDAW 추진위원회 (CWGI)공동추진 | - | 동남아시아 지역에 CEDAW 도입 및 이행 | APAB, Kalyanamitra, KPI, LBH APIK 인도네시아 NGO 다수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

40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Empowering Women Migrant Workers | - | 여성 이주 노동자들 권익 보호 및 역량 강화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인적자원 및 이주관리부 |
| | Capacity Building for Women Candidates | - | 여성 후보자 역량강화 | KPI | - |
| | Legal Support to Develop a Law to Protect Rights of Women Migrant Workers, Blitar | - | 블리타르(Blitar) 지역 여성 이주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 제정 지원 | 해당지구 지역사회 NGO 참여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블리타르 지방정부 |
| |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 Aceh | - | Aceh 지역 여성 경제역량 강화 에이전시와 함께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 교육 | - | - |
| World Bank | Demand for Legal Reform: Women's Legal Empowerment | 2010-2011 |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법 제정 | PEKKA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정치·법·안보부 |
| | Developing the Capacit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Support Women Migrant Workers | 2005-2008 | 여성 이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외교부의 역량 개발 | -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WECP, 인적자원 & 이주 관리부 |
| | Empowering Women Overseas Migrant Workers | 2010-2013 | 여성 보건 및 복지 서비스 (40%), 교육 및 직업 교육 (30%), 관련 행정 및 법 개선 | TIFA Foundation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EWCP, 보건부, 교육부, 정치·법·안보부 |
| | Women's Legal Empowerment | 2010-2011 |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행정 및 법제도 개선 및 이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강화 | PEKKA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EWCP, 정치·법·안보부 |
| | Sustaining Women's Leadership | 2009-2014 | 보건 및 기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강화 | PEKKA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EWCP, 보건부 등 |
| | Poverty Reduction and Women's Leadership | 2007- | 보건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빈곤 여성의 접근성 강화 | PEKKA | 국가개발청, 외교부, MoEWCP, 보건부, 교육부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Improving Food Security by Empowering Poor Women | 2008-2012 |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빈곤 커뮤니티에 식량 안보 제공 | Yayasan Tanaoba Lais Manekat, Yayasan Alfa Omega | - |
| | Safe Motherhood Project | 1997-2004 | (파트너십과 가족 접근을 통한) 모성보건개선, 모성 사망률 감소 | - | MOP, BKKBN |
| | National Program for Community Empowerment in Rural Areas Healthy and Bright Generation | 2013-2017 | 재생산 보건(모자)과 아동 보건 및 교육 | - | 내무부 |
| | Financial Sector and Modernization Development Policy Loan | 2014-2015 | 젠더를 고려한 은행, 금융, 자본 시장 개혁 지원 | - | 재정부 |
| | Research and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Project | 2013-2020 | 젠더를 고려한 고등 교육 및 직업 교육 | - | 연구·기술부 |
| | National Community Empowerment Program in Urban Areas for 2012-2015 | 2012-2015 | 젠더를 고려한 도시 빈곤층 대상 거버넌스 개선 사업 | - | 공공사업부 |

참조: ADB: Asian Development Bank; APAB: Inter-Nation Rainbow Alliance; APIK: Legal Aids of Indonesian Women's Association for Justice; APINDO: The Employers' Association of Indonesia;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BAPPEDA: Regional Body for Planning and Development; BNP2TKI: Indonesian Migrant Workers Placement and Protection National Agency; BPPT: Agency for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CEDAW: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against Women; CWGI: CEDAW Working Group Initiative;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JALA PRT: National Network for Domestic Workers Advocacy; JARAK: Network of Indonesian Child Labor NGOs; KADI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onesia; KLH: Ministry of Environment of Indonesia; KPI: Indonesian Women's Coalition for Justice and Democracy; KSPSI: All Indonesian Workers Union Confederation; KSPI: Indonesian Trade Union Confederation; KSBSI: Indonesian Prosperity Trade Union Confederation; 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 MEMR: Ministry of Ennergy and Mineral Resources; MoWEC: Ministry of Women Empowerment & Child Protection; PEKKA: National Movement for Empowerment emale-headed Hous; PLN: State Electricity Company; PNPM: National Program for Community Empowerment; SAJI: Strengthening Access to Jucsice in Indonesia;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Rights & Emergency Relief Organization; UNIPA: United Nations Independent Prctice Association;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다자기구와 협력한 양자기구 및 NGO를 표기하였음.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성 주류화 사업임.

자료: JICA (2011); ADB, ILO, UNDP, UNICEF, UN Women, World Bank 홈페이지

2. 베트남

베트남의 원조수행체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베트남 ODA 관련 정부 부처 및 공여기관들이 발표한 공개 자료들을 근거로 하였으며, 둘째, 2014년 5월 베트남 현지 출장을 통해 정부, 국제기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원조 전반적인 체제 그리고 성평등 원조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4년 9월 개최된 4개국 협력워크숍인 2014 KWDI SSAGE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 양성평등국 부국장이 베트남의 ODA in Gender Sector를 주제로 발표한 것을 참고하였다.¹³⁾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본 절에서는 베트남 일반 원조 분야와 성평등 원조의 기본적인 추진체제와 공여조화를 위한 원조협의체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일반적 ODA 수원체제

1) 일반 원조의 추진체제

베트남에서 ODA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는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가 있다. 외교부(MOFA)가 해외 국가 혹은 국제기구와의 ODA 논의과정을 다룬다면 기획투자부(MPI)는 공여기관과 유관부처들의 ODA 사업제안서를 일괄적으로 취합하는 일종의 ODA 포컬포인트(focal point)를 맡고 있다. 그리고 실제 유·무상원조 자금의 유입과 예산관리 등은 재무부(MOF)가 맡고 있다. 물론 그 밖의 정부부처들도 ODA에 관여하고 있다.

베트남 내 원조사업 추진에는 크게 두 가지 채널이 있다. 첫째, 정부나 국제기구 기관 간 혹은 고위급 간 논의를 통해 기 결정된 사업은 총리실 결재 이후 원조자금이 기획투자부(MPI)에 전달되면 기획투자부(MPI)가 실제 해당 사업을 담당할 정부 부처에게 다시 전달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소위

13) 2014년 4개국 KWDI SSAGE 워크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IV장 참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top-down)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둘째, 실무 부처와 공여기관이 논의를 통해 희망하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기획투자부(MPI)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이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bottom-up)이다.¹⁵⁾ 기획투자부(MPI)에서는 제출된 사업제안요청서를 검토한 뒤, 총리실에 전달한다. 그리고 약 5단계 정도의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¹⁶⁾ 최종 승인을 받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착수하는데 까지는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되어 약 1-2달정도가 더 소요된다.¹⁷⁾

베트남에서는 1백만달러 이하 사업은 비ODA(Non-ODA)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비ODA 사업의 경우 기획투자부(MPI) 검토와 총리실 최종승인을 받는 절차 대신 사업을 담당할 해당 정부부처 장관의 승인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¹⁸⁾ 그러나 공여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게되는 사항에 대해 재무부(MOF)에 먼저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뒤 본격적인 자금 사용이 가능하다.¹⁹⁾

위와 같이 중앙차원에서 ODA 사업이 선정 및 확정되고, 자금이 유입되면 유관부처들은 사업안에 따라 해당 지역정부에게 맡기거나 지방의 사업이행기관(Project Management Unit, PMU)을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 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사업이행기관(PMU) 간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ODA 사업이 연기되기도 하는데, 지역 차원에서는 아직 ODA 이행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실제 이행에 많은 장애물이 발생하고 있다(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10).

14) 베트남 현지 출장 내 노동보훈사회부(MOLISA) 관계자와의 면담(2014.5.22).

15) Ibid.

16) Hoang Thi Thu Huyen, Gender ODA in Vietnam, KWDI SSAGE 워크숍 발표내용 (2014.10.2).

17) 베트남 현지 출장 내 노동보훈사회부(MOLISA) 관계자와의 면담(2014.5.22).

18) Hoang Thi Thu Huyen, Gender ODA in Vietnam, KWDI SSAGE 워크숍 발표내용 (2014.10.2).

19) 베트남 현지 출장 내 노동보훈사회부(MOLISA) 관계자와의 면담(2014.5.22).

2) 일반 원조 관련 법과 정책

베트남은 원조 수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2004년 베트남 정부와 공여기관은 ‘베트남 원조 조화 행동계획(Vietnam Harmonization Action Plan, V-HAP)’을 발표하였는데, 원조 조화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2005년 2월 개최된 ‘제 2차 OECD/DAC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서 채택된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이후, 그 해 6월 베트남 정부는 파리선언을 최초로 현지화 한 ‘원조효과성에 대한 하노이 핵심 성명(Hanoi Core Statement on Aid Effectiveness, HCS)’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베트남의 노력은 국제적 차원의 선언적 의미를 현지에 맞게 해석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수원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2002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현지화한 베트남개발목표(Vietnam Development Goals, VDGs)를 수립한 바 있다. 베트남개발목표(VDGs)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새천년개발목표(MDGs)중 8번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외한 7개 달성을 위해 베트남 현지 맞춤형 세부 타겟(target)들을 설정하였으며, 둘째, 베트남 맥락에서 우선순위인 취약성 감소, 빈곤 감소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민족별 불평등 감소, 친빈곤형 인프라개발 4가지를 추가하였다(Swinkels & Turk, 2003: 8-10). 이러한 베트남의 움직임은 수원국으로서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은 국내 차원의 ODA 관련 법 제정에도 적극적인 수원국 중 하나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1년부터 ODA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법령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원조 추진을 도모해왔다. 그리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 2013년 4월에는 ODA 및 양허성차관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법령(Decree on Management and Us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Concessional Loans of Donors)을 공포하였다.²⁰⁾

20) No. 38/2013/ND-CP

그리고 기획투자부(MPI)는 ODA 사업 동원과 활용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 워크(Strategic Framework for ODA Mobilization and Utilization for 2011-2015)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1) 베트남 개발파트너십포럼

(Vietnam Development Partnership Forum, VDPF)

2013년, 베트남 정부는 1993년부터 20년간 운영해온 원조사업 협의그룹(Consultation Group, CG)을 베트남 개발파트너십 포럼(Vietnam Development Partnership Forum, VDPF)으로 전환하였다. 베트남 개발파트너십 포럼(VDPF)은 고위급 회의로서, 기획투자부와 세계은행(World Bank) 베트남 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사무국은 기획투자부(MPI)가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개발파트너십포럼(VDPF)은 매년 12월에 개최되는데, 사전 정책토의(Policy Discussions)는 포럼 3-4주 전부터 시작되며, 구체적 정책 과제 논의 활성화와 의견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대화 내용이나 포맷은 유동적이다.²¹⁾ 이 포럼에는 광범위한 사회경제 발전 방안 논의를 목표로 베트남 정부와 개발파트너, 민간기업, 지역 및 국제 시민사회단체, 국가연구기관 및 기타 개발행위자 등이 참여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 개발파트너십 포럼의 주제는 “경쟁력 있고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으로 설정되어 있다.²²⁾ 그리고 2013년 개최된 베트남 개발파트너십 포럼(VDPF)에서 다룬 주요 의제는 민간분야 참여, 빈곤감소, 환경보호, 직업훈련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II-2 참조). 2013년의 경우 직업훈련 관련 정책토의에서 젠더도 주제(topic)들 중 하나로 다뤄지기도 하였으나, 아직까

21) Vietnam Union of Friendship Organisations (VUFO)-NGO Resource Centre 웹사이트 참조, Presentation on Vietnam Partnership Development Forum, Presented by Hoang Phuong Thao, Country Director of ActionAid Vietnam at INGO Forum Meeting 2014, May 23, p. 6, <http://www.ngocentre.org.vn/pub/ingo-forum-meeting-2014-may>(접속일 2014.10.23).

22) Hoang Thi Thu Huyen, Gender ODA in Vietnam, KWDI SSAGE 워크숍 발표내용 (2014.10.2).

지는 부수적인 위치(side line)라고 할 수 있고, 2013년 베트남 개발파트너십 포럼(VDPF)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보훈사회부(MOLISA)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²³⁾ 2014년 12월 개최될 제 2차 베트남개발파트너십포럼(VDPF)에서는 제도 개혁, 민간 경제분야 개발 크게 두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Vietnamplus, 2014).

그리고 2004년부터 베트남 개발파트너십 포럼(VDPF)의 전신인 원조사업 협의그룹(CG) 활동의 일환으로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트너십 그룹(Partnership Group on Aid Effectiveness, PGAE)이 운영되어 왔는데, 2008년에는 원조효과성 포럼(Aid Effectiveness Forum, AEF)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08: 3). 원조효과성포럼(AEF)은 ODA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과 원조효과성에 대한 하노이 선언(Hanoi Core Statement on Aid Effectiveness)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08: 3). 현재 원조효과성포럼(AEF)은 베트남 개발파트너십 포럼(VDPF) 체제 내에서 부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료: World Bank 웹사이트,
<http://www.worldbank.org/en/events/2013/12/04/vietnam-development-partnership-forum-a-new-platform-for-policy-dialogue> (접속일 2014. 10. 21)

[그림 Ⅱ-2] 베트남개발파트너십포럼(VDPF) 2013년도 주요 의제

23) 베트남 현지 출장 내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와의 면담(2014.5.23).

2) 유상원조 6개 은행 그룹(6 Banks Group)

베트남은 중저소득국으로 진입함에 따라,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총 원조의 약 60%에 이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16). 특히 베트남에서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JICA), 프랑스(AFD), 독일(KfW), 한국수출입은행(Korea Exim Bank)이 유상원조 주요 공여주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6 Banks Group로 불리는 그룹(like-minded group)을 조직하여 운영 중이다. 6 Banks Group은 사안에 따라 공식, 비공식적인 형태로 주기적인 만남을 갖고 유상원조 사업 현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²⁴⁾ 원조 추진 중 고려사항(concern)이 생기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6 Banks Group 차원에서 함께 기획투자부(MPI)나 재무부(MOF)측에게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영향력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²⁵⁾ 원조 규모 면에서 볼 때, 6 Banks Group 주체들이 실시하는 원조가 베트남 총 원조 수원 금액의 약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6 Banks Group이 베트남 원조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17). 그리고 6 Banks Group내에는 환경, 재정착이슈(resettlement)와 같이 주제별 실무그룹(thematic working group)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참여기관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현재 젠더에 대한 독립적인 실무그룹은 존재하지는 않는다.²⁶⁾

3) 성평등 원조를 위한 협의체

가) 젠더 액션 파트너십(Gender Action Partnership, GAP)

베트남에서는 젠더액션파트너십(Gender Action Partnership, GAP)이 1999년부터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무국은 국가여성발전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NCFAW)가 맡고 정부 부처, 산하 기관, 공여기관, 현지 및 국제 NGO 등이 참여한다.²⁷⁾ 주요 의제로는 각 주

24) 베트남 현지 출장 내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와의 면담(2014.5.23).

25) Ibid.

26) Ibid.

27) 국가여성발전위원회(NCFAW)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은경 외(2013), p. 56 참조.

체들의 젠더관련 활동 사례 공유와 상호 발전방안 논의로, 연 1-3회정도 개최된다. 그리고 젠더액션파트너십(GAP)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UN Women이 베트남 정부 측에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하고 있다.²⁸⁾ 그러나 젠더액션파트너십(GAP)에서 각 공여기관이 갖고있는 성평등 관련 비교우위 분야를 논의하거나 원조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역할분담을 논의하지는 않고있다.²⁹⁾

이와는 별도로 국가여성발전위원회(NCFAW)는 1년에 1-2회정도 노동보훈사회부(MOLISA)와 공동주관으로 해외공여기관들을 초청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대화(Policy Dialogue on Gender Equality)를 개최하고 있다.³⁰⁾

나) UN 젠더 공동프로그램 그룹(Joint Programming Group on Gender)

2012년,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와 16개 UN 기관 및 국제이주기구(IOM)는 협약을 맺고 ‘One Plan 2012-2016’을 발표한 바 있다.³¹⁾ One Plan에 책정된 전체 예산은 약 480만 달러이고, One Plan은 베트남 개발 우선순위 문제 해결을 지원할 공동의 전략을 다루고 있으며, 크게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성장, 양질의 필수 서비스와 사회보호, 거버넌스 강화 세 집중분야로 나뉘진다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United Nations in Vietnam, 2012: 32-35).

One Plan 2012-2016에서는 양성평등을 범분야 이슈들 중 하나로 지정하였고 One Plan 추진 전반에 걸쳐 통합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 옹호활동, 비

28) 베트남 현지 출장 내 노동보훈사회부(MOLISA) 관계자와의 면담(2014.5.22).

29) 베트남 현지 출장 내 UN Women 관계자와의 면담(2014.5.23).

30) Ibid.

31) 2008년 반기문 사무총장이 제안한 ‘Delivering as One Initiative’를 의미하며, 8개 시범국가(pilot countries)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베트남이 그 중 하나였음. 유엔기관 간 상호 협력을 제고하고 중복성과 거래비용을 없애기 위해 하나의 리더, 예산, 프로그램, 그리고 사무실이라는 4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 중임. 2014년 8월 기준으로 UN 개발체제가 본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 국가는 40개국에 이름. 보다 자세한 내용은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UNDG) 웹사이트 참조, http://www.undg.org/content/un_reform_and_coherence/delivering_as_one(접속일 2014.10.20.).

사업적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United Nations in Vietnam, 2012: 36).

주제별 공동프로그램 그룹(Joint Programming Group, JPG) 중 젠더도 그 중 하나로서, 젠더 공동프로그램 그룹(JPG)에는 UN Women 베트남 사무소장이 의장(convenor)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부처가 참여하기도 하며, UN 기관별로 한 공동프로그램 그룹(JPG)에 고정적으로 참여한다기 보다는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이행중인 경우 필요에 따라 UNICEF가 주재하는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관련 공동프로그램 그룹(JPG)에 참여하기도 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UNIDO가 주재하는 기후변화와 환경(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관련 공동프로그램 그룹(JPG)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유동적이다.³²⁾

2009년부터 2011년, UN기관들은 One UN 체제하에서 젠더 공동프로그램(Joint Programme on Gender)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13년에는 UN과 정부가 협력하여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캠페인(UN-GOV Campaign o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Response)을 대대적으로 1달간 개최하고, UN측이 가정폭력 관련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초안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였다.³³⁾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베트남에서는 여성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양성평등국(Department of Gender Equality)이 소속된 노동보훈사회부(MOLISA)가 관련 사업을 관할하고 있다. 양성평등국은 약 14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 성평등 원조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성평등국이 전체적인 사업관리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지방정부, 베트남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 VWU) 등 사업관리기관(PMU)을 선정하여 추진한다.³⁴⁾ 예를 들어 지방에서 실시하는 성평등 원조사업의 경우, 사업 개요 및 추진 일정 등은 양성평등국이 구상하고, 사업을

32) 베트남 현지 성평등 원조 체계조사 출장 당시 UN Women 관계자와의 면담(2014.5.23).

33) Ibid.

34) 베트남 현지 출장 내 노동보훈사회부(MOLISA) 관계자와의 면담(2014.5.22).

이행할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먼저 사업 관련 교육을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위탁한다.³⁵⁾

현재 베트남 기획투자부(MPI)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백만달러 이하 비ODA(Non-ODA) 사업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베트남의 성평등원조 ODA 수원 규모는 약 42백만 달러정도이며, 성평등 원조 공여주체는 독일, 스페인, 한국, 일본, UNFPA, UN Women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³⁶⁾

1) 베트남 정부

베트남측 국가차원의 원조 이행 파트너(national implementing partners)로는 주로 8개 기관으로,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문화체육관광부(MOCST), 외교부(MOFA), 보건부(MOH), 베트남농민연맹(Vietnam Farmers' Union), 베트남여성연맹(VWU), 그리고 하장성(Ha Giang) 지역과 띠엔장성(Tien Giang) 지역이다.³⁷⁾

노동보훈사회부(MOLISA)내 양성평등국은 비교적 최근인 2008년에 신설된 부서이고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여기관별로 성평등 원조에 대한 비교우위, 성평등 원조 유치를 위한 전략과 같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³⁸⁾ 그리고 정부부처 안에서도 노동보훈사회부(MOLISA)가 베트남 내 성평등 원조 전체 사업을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여성 폭력분야의 경우 노동보훈사회부(MOLISA)는 젠더기반폭력(GBV), 문화체육관광부(MOCST)는 가정폭력 관련 정책담당과 ODA 사업을 이행하는 것으로 소관부처가 양분되어 있다.³⁹⁾

35) Ibid.

36) Hoang Thi Thu Huyen (2014), Gender ODA in Vietnam, KWDI SSAGE Workshop, 서울, 2014. 10. 2. 베트남 양·다자기구의 젠더프로젝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p.33-43 참조.

37) Ibid.

38) 베트남 현지 출장 내 노동보훈사회부(MOLISA) 관계자와의 면담(2014.5.22).

39) 베트남 현지 출장 내 UN Women 관계자와의 면담(2014.5.23).

2) 공여기관

UN Women은 다방면으로 성평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UN 기관 중 한 곳이다. UN Women의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대상 지원분야를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면 첫째 사회보호, 둘째 이주, 셋째 CEDAW 이행, 넷째 국가양성평등전략(National Strategy on Gender Equality, NSGE)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관계자 역량강화이다.⁴⁰⁾

그리고 국회 내 여성이나 양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문제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Social Affairs)와도 협력 및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⁴¹⁾ 그리고 CEDAW 이행은 사법부(Ministry of Justice), 기후변화와 여성 관련 사업은 베트남여성연맹, 기타 주제 사안에 따라서는 현지 시민사회(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들과도 협력하고 있다.⁴²⁾

타 공여기관들의 성평등 원조에서도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게 집중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UNESCO는 교육훈련부(MOET)에게 베트남 교육자료 및 커리큘럼의 성 주류화를 위한 지원, ILO는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관련하여 베트남여성연맹과 사업 추진, UNFPA는 문화체육관광부(MOCST) 내 가족국(Department of Family Affairs)에게 가정폭력 관련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⁴³⁾ 특히 UNFPA는 문화체육관광부(MOCST)와 가정폭력 방지를 주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MOCST)가 UNFPA 지원으로 ‘국가 가정폭력 철폐 및 방지 네트워크(National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Control Network, NDVPCN)’를 출범하였다(김은경 외, 2013: 73). 이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국제기구들이 참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가정폭력 관련 법과 정책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은경 외, 2013: 73). UNFPA는 또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를 주재하고 있는데, 이와 관심있는 공여주체들과 더불어

40) Ibid.

41) Ibid.

42) Ibid.

43) Ibid.

관련 부처인 보건부(MOH), 문화체육관광부(MOCST),公安部(Ministry of Public Security, MOPS) 등도 참여하고 있다.⁴⁴⁾

앞서 소개된 젠더 액션 파트너십(GAP)과 같이 오랜기간 운영되어 온 성평등 원조 관련 상설 협의제도 있지만, 비공식 고위급 젠더 협의제도 조직되어 있다. 바로 2012년 설립된 ‘Informal Ambassador and Heads of Agencies Coordination Group on Gender’ 라는 네트워크인데, 국가 대사, 양·다자기구 수장, UN 기관 대표 등의 최고결정권자들을 중심으로 1년에 2-4회 젠더정책이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논의사항을 베트남 부주석에게 제언의 형식으로 전달하며, 노동보훈사회부(MOLISA), 국가여성발전위원회(NCFAW), 보건부(MOH) 등과도 소통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3: 60).

다음은 베트남에 대한 양자 기구의 성평등 원조사업의 대략적인 현황을 정리하였다. 아래 표에 포함되지 않은 성평등 원조사업들도 많을 것으로 보며, 다만 연구진이 최대한 수집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제시된 사업들은 여성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음영 표시가 된 사업은 성 주류화 사업이다.

〈표 II-4〉 양자 기구의 베트남 젠더 프로젝트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AECID (스페인) | Peace House Shelter of CWD Humanitarian Reception Programme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of Children and Wome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 2007-2011 |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와 예방 프로그램 | - | 베트남 여성연맹 |
| | Improve the Financial Planning and Resource Mobilizing Capacity of the VWU and Raise Community's Awareness to Reduce Domestic Violence in Vietnam | 2009-2011 | 가정폭력에 대한 베트남 여성연맹의 교육활동을 위한 역량 구축 | - | 베트남 여성연맹 |

44) 베트남 현지 출장 내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와의 면담(2014.5.23).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Project on Developing Behavior Change Communication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Control | 2010-2012 |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의 개선 | ActionAid, RAFH, PyD | 문화체육관광부 |
| AusAID (호주) | Human Rights Technical Program – Vietnam Australia Phase 3 | 2010-2011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권리에 대한 공동체 교육, 변호사 대상 인권 교련, 여성권리 및 성평등 인식 증진 | - | 베트남 여성연맹 |
| | HAARP-Vietnam Country Flexible Program | 2010-2013 | 남녀 약물중독자 대상 HIV 감염 예방 서비스를 제공, 관련 담당 직원 훈련 및 역량강화 | - | 보건부, 노동보훈사회부,公安부 |
| | Climate Change and Coastal Ecosystems Program * GIZ 협력 | 2011-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안 지역의 제방 개선 및 관리, 해안 숲에 의존한 마을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법 개발 등 기후변화 대처와 연안 생태계 보호 | GIZ | CSDM, CSAGA, FHI |
| CIDA (캐나다) | Rural Enterprise Expansion * Oxfam-Québec 협력 | 2004-2011 | 농촌지역 MSME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발전센터 설립 및 운영 기관여성연합, 베트남 협동조합)의 역량 구축 | - | - |
| | Targeted Budget Support for Education for All * Belgium, WB, EC, UK, NZ 자금 지원 | 2006-2012 |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맞춤 패키지 교육의 기회 제공 | - | 교육훈련부 |
| | Community-based Initiative in Counter Human Trafficking in Ha Giang Province | 2009-2010 | 인신매매 인식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및 사회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 Oxfam-Québec Vietnam | - |
| | Promoting Ethnic Minority Community Participation in Village Self-governance According to Grassroots Democracy Decree in Na Tau Commune, Dien Bien District, Dien Bien Province | 2009-2010 | 소수민족에 대한 인식,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 CSDM | - |

54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ME) Development in Soc Trang Province | 2010-2017 | Soc Trang 지역 SME 5개년 개발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가난한 농촌 여성 및 남성, 소수민족의 경제적 기회 확대 | - | People's Committee of SocTrang Province |
| DFID (영국) | Primary Education for Disadvantaged Children * IBRD와 협력 | 2003-2009 | 장애 여아 및 남아를 위한 초등 교육 질 및 접근성 향상 | - | - |
| | HIV/AIDS Prevention Programme * IBRD 협력 | 2008-2013 | HIV/AIDS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및 확산방지 | - | 보건부 |
| Embassy of Sweden in Hanoi (스웨덴) | Support LGBT Rights and Encouraging Men's Participation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 2009-2011 |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남성 대상 교육 | CSAGA | - |
| JICA (일본) | Project for Improvement of Medical Service in the Central Region | 2005-2010 | 경제성장 속도가 느린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시설이 열악한 기관에 향상된 서비스와 훈련활동 교육 및 지원 | Hue Central Hospital | 보건부 |
| | Project for Implement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Handbook for Scaling Up Nationwide | 2011-2014 |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일부 지역에 산모와 아이의 건강서비스 제공 및 임신, 출산, 산후 모니터링을 통한 건강관리 | - | 보건부 |
| |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nti-trafficking in Persons(TIP) Hotline in Vietnam | 2012-2015 | 중앙차원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및 인신매매 방지 핫라인 개설 | - | 노동보훈 사회부 |
| SDC (스위스) |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with Active Involvement of Men and Boys | 2008-2010 |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남성의 폭력 개선 향상을 위한 교육 | RAFH | 베트남 여성연맹 |
| | The Market Access for the Rural Poor through Value Chain Promotion Programme * SNV, Helvetas, Oxfam 협력 | 2013-2016 | 농업가치사슬 내 추가 소득 획득을 통한 소수민족 및 가난한 여성들의 빈곤 감소 | Vietcraft | - |
| | The FHI Program: HIV/AIDS Prevention, Care and Treatment in | 2006-2011 | HIV/AIDS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국가전략목표를 지원함으로써 HIV/AIDS 감염대 | FHI | 보건부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USAID (미국) | Vietnam | | 상자 및 영향 받는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 |
| | Human Anti-trafficking Project * UNIAP 협력 | 2008-2013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및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 및 보호 시설 마련 등 피해자 지원 | - | 노동보훈 사회부 |
| | Improved Recognition of the Needs to Address MSM in the National HIV Response and Strengthened National and Provincial Coordination on MSM and HIV Activities | 2011- | MSM 그룹에서 HIV에 대한 조치 |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보건부 |
| |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HIV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 2011- | HIV/AIDS를 위한 프레임 워크 구성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 | - | 보건부, 통계청 |

참조: AECID: La 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SDM: Cent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Mountainous Areas; CSAGA: Center for Studies and Applied Sciences in Gender, Family, Women and Adolescents; CWD: Centre for Women and Development;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EC: European Commission; FHI: Family Health International; GIZ: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erman Federal Enterpris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HAARP: HIV/AIDS Asia Regional Program;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LGBT: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MSM: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E: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NZ: New Zealand; PyD: Paz y Desarrollo(Peace and Development,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panish-based NGO);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zation; RAFH: Institute for Reproductive and Family Health; VWU: Vietnam Women's Union; UK: United Kingdom; UNIAP: United Nations Inter-Agency Project;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B: World Bank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성 주류화 사업임.

자료: AECID, AusAID, CIDA, DFID, Embassy of Sweden in Hanoi, JICA, SDC, USAID 웹사이트

〈표 Ⅱ-5〉 다자 기구의 베트남 젠더 프로젝트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ADB | Gender Strategy and Implementation Plan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2002-2004 | 성 주류화에 대한 국가행동 계획의 정부 지원프로그램으로 농업농촌개발부서의 젠더전략 시행을 위한 젠더와 개발(GAD) 역량 구축 | - | 베트남 여성연맹 |
| | Gender Mainstreaming Action Plan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2005-2007 | 농업 및 농촌 개발에서 남녀의 사회경제적 이득을 평등하게 달성하기 위해 젠더를 통합하고 전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및 관계자의 역량강화 | - | 농업농촌 개발부 |
| | Supporting the Preparation of the Law on Gender Equality | 2005-2007 | 성별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성평등 법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 - | 베트남 여성연맹 |
| | Greater Mekong Subregio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 2008-2014 | 지속가능하고 친빈곤적인 관광접근법을 개발하여 가난한 주민 및 소수민족 특히 여성들에게 생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 - | 문화체육관광부 |
| | Harness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Initiatives to Benefit Women | 2011-2015 | 기후변화 정책 프레임워크 및 배출감소 프로젝트 심사에서 젠더 분석 통합을 시행하는 기관에게 인적자원 및 기술능력개발 지원 | - | - |
| | Second Health Care in the Central Highlands Project | 2012-2013 | 중앙고원지역 사람들(특히, 빈곤여성, 아동, 소수민족 및 취약집단)의 보건과 영양상태 개선 | - | 보건부 |
| | Second Upper Secondary Education Development Project | 2012-2020 | 경제발전 기여 및 빈곤감소를 위해 형평성에 맞는 교육기회 보장, 향상된 지식과 기술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 - | 교육 훈련부 |
| | Center for Community Health and Development | 2010 | HIV/AIDS 감염률 감소 및 HIV/AIDS 감염 남성 및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 - | 보건부 |
| | To Prevent and Deter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 2011 |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와 예방 | CEPEW | -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Asia Foundation | Preventing Human Trafficking and Protecting Victims in the Mekong Delta of Vietnam * USAID 자금지원 | 2011 | 안전한 이주와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최소 기준 개발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 RECEET | 노동보훈 사회부 |
| | University Scholarship Program for Vietnamese Women | 2012 | 취약계층에 있는 100명의 젊은 여성들에게 5년 동안 과학 및 기술 관련 학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 | CED | - |
| | Vietnam Scholarship Program for Disadvantaged Girls | 2012 | 취약계층에 있는 406명의 여아들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학비 지원 | CRISOP | - |
| | Youth and Gender-online Research and Debate | 2012 | 온라인 조사 및 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베트남의 젊은 남성 및 여성들에게 젠더 역할, 현 문제, 미래의 변화 등에 대해 사고해보도록 지원 | ISEE; CGFED | - |
| FAO | Gender Mainstreaming of the UN Joint Programme on HPAI in Vietnam | 2006-2010 | 여성 농부의 생계지원과 독감(bird flu) 근절 프로그램 | - | 농업농촌 개발부, 보건부 |
| ILO | Prevention of Trafficking in Children and Women at a Community Level in Cambodia and Vietnam * UNHSF 자금지원 | 2003-2006 |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과 관련하여 참여적 방법을 통해 공동체 기반 역량 강화 | - | - |
| | Promoting Women's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and Gender Equality | 2008-2011 | 저소득층 여성과 가족에게 안정된 고용과 소득 확보를 위한 여성 사업지원 | VWEC | - |
| | Joint Programme on Gender Equality | 2009-2012 | 양성평등법 및 가정폭력방지철폐법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시행,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위한 정부와 지방 당국의 역량 강화(노동 및 고용 법률, 정책, 국가 프로그램에 젠더 통합) | VCCI | 노동보훈 사회부, 통계청 |
| | Tripartite Action to Protect Migrants from Labour Exploitation (GMS Triangle) * 캐나다 정부 자금지원 | 2010-2015 | 메콩지역의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안전한 이주 및 노동보호 장치를 통해 노동이민자의 착취 감소 | VGCL VAMAS | 노동보훈 사회부, 베트남 여성연맹, 베트남 청소년연맹 |

58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IOM | Stand Up Against Violence Phase I: CSAGA, CEFACOM, LIGHT 협력 (2008-2009) Phase II: CSAGA, LIGHT, Tinh Than (NGO) 협력 (2010-2012) | 2008-2012 | 국가차원에서 여성 대상 폭력철폐 노력 및 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증진 | | |
| | Addressing Human Trafficking in Vietnam through Capacity 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 2009-2011 | 인신매매로부터 보호 및 예방 담당 부처의 역량강화 | | 노동보훈 사회부, 공안부, 베트남 여성연맹 |
| | Gender and Remittances-evidence from Internal Migrants in Hanoi UN Joint Programme on Gender Equality | 2009-2012 | 젠더와 송금의 전송, 관리, 활용 간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농촌의 사회경제적 개발에 기여하는 국내 송금의 잠재성 강화 | GSO | |
| | The Situation of Sex Work in Vietnam: A Gender Perspective between Sex and Mobility UN Joint Programme on Gender Equality | 2010-2012 | 성 노동, 이동(mobility) 및 젠더 간의 상관관계와 착취문제를 통해 베트남 성 노동의 상황 이해 및 성 노동 관련 프로그램, 정책, 전략 수립 | | 노동보훈사회부 |
| |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Strengthening Capacity of Women along the Central Mekong Delta Connectivity Project Phase 2 | 2012-2013 | 새로운 도로의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HIV/AIDS, 성 착취, 인신매매 위험에 대한 여성들의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기술지원 | | |
| UN | UN-Government of Vietnam Joint Programme on Gender Equality | 2009-2011 | 양성평등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이행 역량강화, 모니터링, 정부 내·외 간 네트워크 구축, 젠더 관련 데이터 체계 구축 | UNDP | 통계청, 노동보훈 사회부, 문화체육 관광부 |
| UNDP | Support to the National Machiner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to Mainstream Gender in National Policy and Planning | 2002-2005 | 주요 정부부처 및 지방 정부기관의 성인지적 정책수립 및 시행, 의사결정에서 젠더 관련 이슈를 통합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 | 국가 여성발전 위원회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Strengthening the Capacities of People's Elected Bodies in Vietnam | 2008-2012 | 투명성과 책임감 증진을 통한 국회의 역량 강화 및 여성의원 집단의 네트워킹 강화 | - | 국회 |
| | Empowerment of Women in the Public Sector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 Cambridge Overseas Trust 협력 | 2008-2013 | 경제성장과정에서 여성의 고급인력 양성 및 기회 부여 등 공공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 지원 | - | 외교부 |
| | Cambridge- Vietnam Women's Leadership Programme | 2008-2013 |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국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 - | - |
| | Empowerment of Women to Claim Property Rights in Vietnam | 2011-2013 | 재산으로의 동등한 접근을 통한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 | - | - |
| | Empowerment of Women in the Period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 2013-2016 | 공공분야 여성 리더십 강화를 통해 국제 경제통합 시기에 여성의 역량 강화 | - | - |
| UNESCO | Capacity Building of MOET on Gender Mainstreaming in Education | 2009-2011 | 교육훈련부의 성 주류화 노력에 대한 지원 | - | 교육 훈련부 |
| UNFPA | 7th Country Programme Action Plan (CPAP or CP7) | 2006-2010 | 정부의 'National Safe Motherhood Plan'의 일환으로 8개 지방 중심 산모 및 의사 교육, 보건 접근성 열악한 지역 대상 출산/산후서비스 강화 | - | 보건부 |
| | UNFPA-SDC Project | 2006-2011 | 여성을 위한 가정폭력 예방 메커니즘 구축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남성 및 여성의 지식 증진 및 태도 변화 유도 | - | 보건부 GOPFP, 베트남 여성연맹, 베트남 농부연맹 |
| | Support for Reduction of HIV/AIDS Related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Under-served Areas | 2007-2008 | HIV/AIDS 감염자 대상 상담서비스, HIV/AIDS 편견 철폐를 위한 지역사회 대상 인식 제고 활동 | - | 보건부, 베트남 여성연맹, 청소년 연맹, 조국전선 |
| | Support for National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Control | 2013- | Hai Duong성 가정폭력 철폐를 위한 캠페인, 정책네트워크 형성 및 정책대화 | - | 문화체육 관광부 |

60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Network (NDVPCN) | | 등 운영지원 | | |
| UNIDO | Improved Partnership between Mass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to Promote Women's Economic Empowerment * ILO 협력 | 2009-2010 | 여성의 기업 활동과 경제적 역량강화 지원 | VCCI | - |
| UNODC | Building Capacity of Law Enforcement and Justice Sectors to Prevent and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in Vietnam | 2008-2011 |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사법 및 경찰 내각의 역량강화 | - | 법무부, 경찰청 |
| UN Women | Joint Programme on Gender Equality * AusAID 협력 | 2009-2011 | 여성평등부의 역량 구축 | - | 노동보훈 사회부 |
| | Strengthening Women's Capacity in Disaster Risk Reduction to Cope with Climate Change | 2012-2016 | 여성의 기후변화 대응역량과 재난위험감소 역량개발 | - | 베트남 여성연맹 |
| | Gender-responsive Schools Pilot Model | 2013-2016 | 학교 내에서 청소년 여아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을 통한 여아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실현 | PLAN Vietnam | - |
| World Bank | Primary Education for Disadvantaged Children * WB Australia, Canada, UK, Norway 공동 협력 | 2003-2009 | 장애 여아 및 남아를 위한 초등 교육 질 및 접근성 향상 | - | - |
| | Support for National Education-for-All Plan Implementation Program | 2005-2009 | 기초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취약집단을 위한 관리 및 예산 지원 | - | 교육 훈련부 |
| | Third Rural Transport Project | 2006-2014 | Lao Cai 농촌지역의 도로 정비 수행 및 유지에 여성참여를 증진하여 여성에게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빈곤한 농촌 지역 여성의 고용 제공 | - | 베트남 여성연맹 |
| | Natural Disaster Risk Management Project | 2007-2010 |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경감, 후속조치의 효율성 강화, 관련 당국의 역량강화, 특히 프로젝트 실행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증진 | - | 농업농촌개발부, 재정부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Schoo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Programme | 2008-2013 | 취약계층의 기초교육 접근 보장 | | 교육 훈련부 |
| | Transmission Efficiency Project | 2014-2019 | 전력 공급 서비스의 역량, 효율성, 의존성 강화 및 여성 가장에게 재정착 과정에서 특별 지원 제공 | | NPT |

참조: ADB: Asian Development Bank; CED: Centre for Education and Development, CEFACOM: Research Centre for Family Health and Community Development; CGFED: Research Centre for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CRISOP: Centre for Raising the Intellectual Standards of the People; CSAGA: Center for Studies and Applied Sciences in Gender, Family, Women and Adolescents;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GAD: Gender and Development; GOPFP: General Office for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GSO: General Statistics Office;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SEE: Institute for Studies of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MOET: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NPT: National Power Transmission Corporation;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HSF: UN Human Security Fund;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VAMAS: Vietnam Association of Manpower Supply; 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VGCL: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VWEC: Vietnam Women Entrepreneurs Council

* 음영표시된 부분은 성 주류화 사업임.

자료: ADB, Asia Foundation, FAO, ILO, IOM, UNDP, UNESCO, UNIDO, UN Women, World Bank 웹사이트

3.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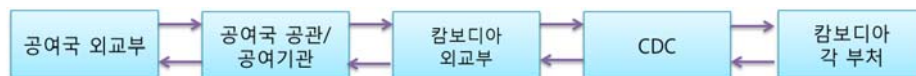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캄보디아 여성부의 ODA 보고서,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관계자와의 면담내용, 그리고 한국에서 개최된 KWDI 워크숍에서 발표된 캄보디아 젠더분야 원조의 원고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일반적인 ODA 수원체제와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시행과정, 그리고 캄보디아 원조관련 협의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진은 2014년도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여성부 양성평등및경제적

역량강화국 및 기획통계국 관계자, 캄보디아복구및개발위원회 투자개발위원회(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RDB-CDC)의 원조조정담당관, 주요 양·다자 공여기구(UNDP, ADB), KOICA 캄보디아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일반·성평등 원조사업의 기획과 집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캄보디아의 원조를 총괄하는 기구는 캄보디아복구및개발위원회 투자개발위원회(CRDB-CDC)이다. 원조 조정기구로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기 보다는 캄보디아 현지 부처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CDC가 이를 공여기관에 전달하게 되며, CDC가 공여기구나 캄보디아 현지 부처에 특정 분야(예를 들면, 젠더)를 포함시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부재했다. CDC는 국가개발을 위한 정책차원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사업제안서를 취합하며, 사업제안서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CDC가 부처 사업제안서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에는 경제 사회적 이익과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⁴⁵⁾

캄보디아 원조 사업에서 CDC의 역할은 원조사업이 공여국 대사관과 캄보디아 외교부 간 협의로 진행될 때, CDC는 각 부처와 캄보디아 외교부/공여국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김은경·김정수(2014). 캄보디아 성평등 원조체계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복명서(내부자료).

[그림 Ⅱ-3] 캄보디아 ODA 원조체계

캄보디아 여성부(MoWA)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를 증진시킴으로써 캄보디아 사회가 성평등을 성취할 수 있도록

45) 캄보디아 현지 출장 내 여성부(MoWA) 관계자와의 면담(2014.5.22).

하는 주요 국가 기관이다. 1993년에 설립된 이래로, 여성부(MoWA)는 촉매자로서 그리고 다른 부서 및 공공 기관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성평등 주류화 지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게다가, 여성부(MoWA)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인 민간분야와 시민사회에 성평등의 중요성을 옹호해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과 노력은 또한 사각전략 II, NSDP 및 CMDGs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 이 목표들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여성부(MoWA)는 5개년 전략계획인 니어리라타나크 III에 크로스커팅 분야를 포함하여 수많은 핵심 분야를 선정해왔다(MoWA 2011, 4).

전략 분야로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여성 및 여아의 교육, 태도와 행동 변화, 여성과 여아의 법적 보호, 여성과 여아의 건강 및 영양, 그리고 HIV/AIDS, 여성과 공공의사결정과 정치참여이며, 성 주류화 크로스커팅 분야에서는 국가 정책의 성 주류화, 정부개혁프로그램의 성 주류화, 분야별 성 주류화, CEDAW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니어리 라타나크 III에 나타난 중점분야와 개발파트너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6〉 니어리 라타나크 III의 중점분야와 개발 파트너

| 니어리 라타나크 III | 개발파트너 | 비 고 |
|------------------------------|--------------------------|--|
| 1.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 IFAD, CARE, JICA | IFAD는 농촌 삶 개선에서의 성 주류화를 지원. CARE는 맥주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안전 증진에 지원. JICA는 여성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
| 2. 여성과 여아의 교육 | UNICEF | UNICEF의 지원과 MoWA와 MoEYS의 협력이 이루어짐. |
| 3. 여성과 여아의 법적 보호 | GTZ | 여성의 권한 증진과 모든 종류의 밀매 방지는 GTZ에 의해 지원된다. |
| 4. 여성과 여아의 건강 및 영양과 HIV/AIDS | Global Fund Program(GFP) |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
| 5. 공공의사결정에서의 여성 및 정책 | UNDP, UNFPA | UNFPA의 지원에 의한 양성평등 증진, UNDP 및 TWG-G(JICA와 UNDP가 공동의장)의 지원에 의한 양성평등 II 파트너십, |
| 6. 성 주류화 프로그램 | 모든 수준의 개발파트너들 | 5가지 전략 분야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함. |

자료: MoWA(2011), ODA Report 2010, Cambodia, p.11.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여성부(MoWA)는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니어리타나크 III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 수많은 개발파트너들과 밀접하게 협업 해왔다. 캄보디아는 2006년에 원조효과성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조화(harmonization), 수원국 정책과의 일치 및 조율(alignment), 성과(results) H-A-R 실행 계획에 일련의 우선순위 활동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선언의 정신을 따라 공여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원조를 동원하고, 그들과 협업·조정하는 것은 여성부(MoWA), 타 부처, 그리고 다른 부서파트너들 사이에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여 캄보디아의 양성평등을 증진하는데 필수적이다(MoWA, 2011: 4).

MoWA와 개발파트너들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젠더분야 기술지원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on Gender: TWG-G)이 2004년에 설립되었다. TWG-G는 효과적인 장소(effective venue)를 제공하고 원조 효과성 및 조화를 위해 MoWA, 관련 부처, 시민 사회 그리고 개발 파트너들 간 합동 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TWG-G의 의장은 장관이 맡고 사무국은 여성부(MoWA)가 맡으면서, 원조사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개발파트너들이 여성부(MoWA)로 제공하는 기술지원과 관련 정보를 관리, 조정,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MoWA, 2011: 4-5).

TWG-G 회의는 1년에 두번, 혹은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으며, 회의 진행방식은 캄보디아 여성부의 우선순위에 공여국이 맞추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⁴⁶⁾

공여기관이 여성부를 직접 방문해 서로의 우선순위(priority) 주제분야를 공유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고위급 간 회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실무 선에서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며, 이후 CDC의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보통은 공여기관들이 관심영역을

46) 여성부의 우선순위 분야 선정방식은 여성부 내 분야를 대표하는 차관(Secretary of State)을 중심으로 부서 간 사업의 조율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 할당 시 부서 간 공평성 보다는 업무분야와 사업주체 등을 우선시해서 이루어진다. 캄보디아 현지 출장 내 여성부(MoWA) 관계자와의 면담(2014.5.22).

공유하면, 여성부가 이를 참고해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고 한다.⁴⁷⁾

공여국 간 중복사업 방지를 위해서는 공여국 간에 회의가 진행되거나, 여성부 장관이 회의를 소집해 역할분담을 정하기도 한다. TWG-G 내 주제별 하위그룹(sub-group)에서 미팅을 소집해 공여기관 간 역할분담을 정하기도 한다. TWG-G 회의에는 공여기관장이 참석의사를 표시하는 서한을 보내거나, 여성부가 몇몇 공여기관에 선별적으로 초청장을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KOICA 캄보디아 사무소가 지금까지 참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의외였으며, 향후 KOICA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였다.⁴⁸⁾

여성부가 다른 부처의 젠더분야 사업에 대한 직접적 관여는 어렵지만, 부처 내 성 주류화 액션그룹 (Gender Mainstreaming Action Groups in Line Ministries: GMAGs)과 이를 통한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부가 타 부처의 여성 사업에 관여할 여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여기구가 여성관련 사업 추진 시, 여성부와 협의 내지는 협업의 필요성을 프로젝트 문서에 명시해 준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캄보디아에서의 젠더 ODA 체제는 양자간 협약과 다자간 협약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또한 양자간 협약 내에서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캄보디아 여성부(MoWA)와 공여기관이 직접 협약을 맺는 경우이다. UNDP, SIDA, JICA, GIZ, UN Women, UNFPA 등이 양성평등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ender Equity, PGE) 또는 성 주류화 프로젝트(Project on Gender Mainstreaming, PGM)와 같은 여성부(MoWA)의 양성평등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현지 정부의 각 부처들에게 여성부(MoWA)가 기술자문을 하는 경우로, 수자원부(Ministry of Water Resources),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등 각 부처의 성 주류화 액션그룹(Gender Mainstreaming Action Group, GMAG)을 ADB, AusAid 등의 공여기관과 함께 지원한다.⁴⁹⁾

47) 캄보디아 현지 출장 내 여성부(MoWA) 관계자와의 면담(2014.5.22).

48) 캄보디아 현지 출장 내 여성부(MoWA) 관계자와의 면담(2014.5.22).

49) 2014년 4개국 초청워크숍 내 여성부(MoWA) 관계자 발표(2014. 10. 2).

다자간 협약은 여성부(MoWA)와 여러 공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캄보디아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to Prevent Violence on Women, NAPVAW) 관련 협력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MoWA는 UNDP와 MDG 가속 프레임워크(MDG Acceleration Framework, MAF), 국제 NGO와 캄보디아 글로벌 행동(Cambodia Global Action, CGA), UNIAP(UNs Inter-agency Project on Human Trafficking)/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Somaly Mam Foundation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COMMIT 국가훈련프로그램 등을 함께 실행 및 운영하고 있다. MoWA뿐만 아니라 현지 각 부처들도 민주적인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메커니즘인 지역민주개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Sub-national Democratic Development, NCD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처들마다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와 같은 분야별 관련 국제기구들과 관련 분야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⁵⁰⁾

여성부와 협력이 많은 공여기관으로는 UNDP, JICA를 들 수 있고, UNICEF와도 긴밀하게 협력한 바 있다. 국제기구 중 UNDP는 캄보디아 내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반면, UN Women은 베트남에서 강한 파트너십을 보이는 것과 달리 캄보디아에서는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은 편이었다.⁵¹⁾ 그 외에도 ADB(경제분야 관심), SIDA, GIZ와 협력이 있으며, 스위스 SDC는 새로 부상하는 공여기구이고, 젠더기반 폭력 관련해서는 호주 AusAID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UNDP는 캄보디아에 ‘Partnership for Gender Equity Project(PGE)’ 사업을 10년 전 시작하여, 현재 3기(1기: 2004-2006년, 2기: 2008-2010년, 3기: 2011-2014년)를 맞고 있으며, 캄보디아 여성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 여성부 건물 안에 UNDP PGE 사무국을 두고 3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다. 2014년도 중점 지원분야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이며, 본 사업의 중간검토를 통해 젠더기반 폭력 분야를 제외시켰는데 이는 UN Women의 젠더기반 폭력사업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

50) 2014년 4개국 초청워크숍 내 여성부(MoWA) 관계자 발표(2014. 10. 2).

51) 캄보디아 현지 출장 내 여성부(MoWA) 관계자와의 면담(2014.5.22.).

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또한, 경제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빠른 진전을 보이는 영역이어서 선호되는 지원분야라고 밝혔다.⁵²⁾

UNDP PGE 사업의 중점지원 영역 중 하나가 5년단위로 이루어지는 캄보디아 젠더평가(Cambodia Gender Assessment, CGA)이며, 캄보디아 여성부가 국제 컨설턴트를 고용해 이루어지는 형태로, 현재 세번째 CGA 보고서('Fair Share for Women') 초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캄보디아 각 부처에 포진해 있는 성 주류화 액션그룹(GAMG)은 UNDP PGE 사업의 2기 사업으로 형성되어 현재 3기 사업으로 계속 운영을 지원하고 있었다. GMAG은 CGA의 운영 메커니즘(operational mechanism)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UNDP는 어떻게 이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그들의 역량과 책무성(accountability)를 개발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⁵³⁾

한편, UNDP 캄보디아 사무소와의 면담 중 본원에 대한 제안사항도 있었다. UNDP는 현재 기술직업훈련(TVET)과 관련해 여성개발센터(WDC) 프로젝트 기획을 진행 중이며, 이 부분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협력을 타진하였다. 또한 UNDP가 추진 중인 고위급 해외선진사례 연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이는 2014년 9월 'KWDI SSAGE : Senior-Level Workshop and Dialogue(본 보고서 4장 참고)'에 반영되어, 이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연례행사가 올해는 UNDP 캄보디아와의 협력으로 수행되기도 하였다.

JICA는 2015-2020년까지 새로운 5개년 프로그램인 농촌여성을 위한 경제역량강화(Economic Empowerment for Rural Women)를 진행 중이다. UNDP/SIDA는 성 주류화와 관련한 프로그램 접근방식 및 정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는 2018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UN Women, AusAID, UNFPA는 젠더 기반 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농촌개발기금(IFAD)은 2017년까지 여성을 위한 농촌의 삶(rural livelihoods for women)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UN-ACT는 메콩유역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⁵⁴⁾

52) 캄보디아 UNDP 사무소 관계자와의 면담(2014.5.22.).

53) 캄보디아 UNDP 사무소 관계자와의 면담(2014.5.22.).

그 밖에도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프로그램에 따라 공여주체들과 탄력적으로 하위그룹/ 또는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원조 조율 메커니즘을 추진할 수 있다. 그 예로 캄보디아는 UNDP/JICA와 함께 MAF(MDG Acceleration Framework, MAF) 및 WEE(Women's Economic Empowerment)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여성 경제 역량 강화와 관련한 하위그룹/소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으며, 또한 GIZ/UN Women과 NAPVAW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한 하위그룹/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⁵⁵⁾

한국정부에 캄보디아의 젠더 관련 ODA에 대해 제언하자면, 전반적인 캄보디아의 젠더 정책 프레임워크인 CGA나 니어리 라타나크 IV의 정책 기조와 일치를 이루어야 하며, MoWA에 직접적으로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캄보디아 젠더 정책에 대한 한국의 원조 일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 우선순위인 NAPVAW, MAF/WEE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이민, 여성 리더십 및 의사결정, 기후변화/녹색성장, ASEAN 경제 통합, 젠더자원센터와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기술협력을 제안한 젠더자원센터는 젠더 이슈를 연구하고, 정책을 제언하고 지지하며 소통할 뿐만 아니라 젠더 역량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캄보디아에 대한 양다자 기구의 성평등 원조사업의 대략적인 현황을 정리하였다. 아래 표에 포함되지 않은 성평등 원조사업들도 많을 것으로 보며, 다만 연구진이 최대한 수집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제시된 사업들은 여성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음영표시가 된 사업은 성 주류화 사업이다.

54) 2014년 4개국 초청워크숍 내 여성부(MoWA) 관계자 발표(2014. 10. 2).

55) 2014년 4개국 초청워크숍 내 여성부(MoWA) 관계자 발표(2014. 10. 2).

〈표 Ⅱ-7〉 양자원조기구의 캄보디아 ODA 젠더 프로젝트

| 원조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AECID (스페인) | Improve Opportunities and Encourage Cambodian Women's Role in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Areas * PYD와 협력 | 2008-2012 | 여성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성적인 권리 증진 | - | 여성부 |
| | Promotion of Economic Empowerment and Gender Equity | 2012- | 사회, 경제, 정치적 권리로의 접근에서 배제되는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보호, 농업조합(SRAC) 관리 위원회에서 참여 및 여성 단체들 간의 회의 및 훈련을 통해 여성의 역량 강화 | CIRD | - |
| AusAID (호주) | IWDA Community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 NGO Cooperation Agreements * IWDA와 협력 | 2010-현재 | 여성 폭력에 대한 지역의 태도 및 행동 변화 유도, 지역의 범죄 예방 및 여성의 안전 강화 | ADHOC | 여성부 |
| | Cambodia Agricultural Value Chain Program | 2009-2014 | 농업시스템 상의 시장 중심적 접근을 통한 남성 및 여성 쌀 생산 농부들의 소득 향상 | Cardno Emerging Markets | 농림수산부, 수자원기상부 |
| CIDA (캐나다) | Anti-human Trafficking | 2004- | 인신매매지원센터 설립, 예방 캠페인 | Oxfam-Quebec Vietnam | - |
| | Securing the Lives of Mothers and Infants Lives with Equity (SMILE) * ADRA와 협력 | 2012-2015 | 모성 및 가임여성들의 보건서비스 향상, 보건 인력 역량 강화, 보건서비스 질 향상 및 영양 개선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 | - | - |
| DANIDA (덴마크) | Integrated Women Empowerment Project * ADDA와 협력 | 2005-2011 |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 조직의 설립과 관리를 통한 여성 농부들의 권한 강화 | - | 농림수산부 |
| DFID (영국) | Action Research to Advocacy: Empowering Indigenous Women to Realise their Maternal | 2008-2011 | 선주민여성의 안전한 모성에 대한 권리 증진 및 모성 문제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 증진 | - | 보건부 |

70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 원조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Health Rights in Difficult Environment of Cambodia and Peru | | | | |
| | Reduction in Maternal Mortality Programme | 2008-2010 |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 생식 및 모성 보건 서비스 활용 증진 및 서비스의 질 향상 | - | - |
| | Cambodia Social Marketing of Reproductive Health Commodities | 2007-2013 | HIV/AIDS 예방, 성 및 생식 건강 향상, 아동 생존율 향상을 위한 질 높은 상품 및 서비스의 올바른 활용 증진 | - | - |
| | Health Sector Support * IBRD 협력 | 2009-2011 | 보건분야 계획 수립, 관리, 재정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역량 강화, 여성들을 위한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감염질환 및 영양실조를 통한 부정적 효과 감소 | - | - |
| | Cambodia Health Sector Support Programme-Phase 2 * ADB 협력 | 2008-2013 | 여성 아동 및 빈곤층을 위한 보건서비스 질 향상 및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캄보디아 보건 전략 계획 2008-2015' 실행 지원 | - | 보건부 |
| GIZ(독일) | Promotion of Women's Rights * CIM와 협력 | 2002-2009 |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부의 정책 지원, 가정폭력 금지 법안 로비, 시민사회 조직의 피해자 보호 지원 | - | 여성부, 사법부 |
| | Access to Justice for Women, 1st Phase * AECID 자금공동지원 | 2014-2016 |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 및 관련 사회 서비스 구축 및 지원 | - | 여성부 |
| | Gender Mainstreaming and Policy Development through Upgrading Information and Research Capacity | 2003-2008 | 여성부 및 주요 부처의 성평등 연구와 정책 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 | GADC | 농림수산부, 기획부, 상업부, 지역개발부, 통계청 |
| |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ject * UNICEF와 협력 | 1998-현재 | 항생제와 비타민A 제공을 통한 모자 건강 증진 | - | 보건부 |

| 원조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JICA(일본) | Girls' Education Project * Care International 협력 | 2002- | 여아를 위한 방과 후 교실, 장학금, 기숙사 지원 등 여아의 교육 기회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 - | 교육체육부 |
| | Development Study on Strengthen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 Performance | 2006- | 캄보디아의 모자 건강 현황 분석, 보건부의 모자 건강 서비스 제공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 - | 보건부 |
| | The Project for Improv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 in Rural Areas in Cambodia * International Medical Centre of Japan 협력 | 2007-2010 | 중년여성 보건인력 양성, 산전건강관리, 출산 시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농촌지역의 모자 및 신생아 보건 서비스 향상 실현 | - | 보건부 |
| | The Project for Improving Maternal and Newborn Care through Midwifery Capacity Development | - | 중년여성 보건인력 양성을 통한 모성보건 향상 | - | - |
| | Project on Gender Mainstreaming (Phase II) | 2010-2015 | 정부부처 파트너들이 여성부와 협력하여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성 주류화 메커니즘 강화 | - | 여성부 |
| KOICA (한국) | 바테이 병원 역량강화 사업 | 2011- | 모자보건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후한 병원 시설과 장비를 모자보건 센터로 개보수하고 모자보건 교육에 필요한 의료진 파견 및 한국초청연수 시행 | - | 보건부 |
| |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을 통한 자립형 농촌개발 사업 | 2014-2015 | - | - | - |
| | 캄보디아 중등교육 기술직업훈련 확대 및 강화 사업 | 2013-2014 | - | - | 교육청·소년체육부 |
| NORAD (노르웨이) | Women's Rights in Banteay and Meanchey * NPA 협력 | 2005- | 여성 인권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캠페인 | PADV | - |

| 원조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USAID (미국) | Counter Trafficking in Persons in Cambodia | 2004-현재 | National Task Force on Trafficking 설립, 인신매매 관련 감시 방안 마련, 피해자 보호 기준 마련 | - | 여성부, 인신매매와 착취에 대한 국가대책본부 |
| |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gram | 2008-2013 | 산전후 및 출산 시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지역 보건센터의 역량 강화 | - | - |
| | Sustainable Action against HIV/AIDS in Community | 2009-2014 | HIV/AIDS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기반 삶 보호, 성 노동자 및 성 소수자들의 HIV 감염 예방 지원 및 현지 NGO 대상 관련 역량 강화 | KHANA | - |

참조: ADB: Asian Development Bank; ADDA: Agricultural Development Denmark-Asia; ADHOC: Cambodia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RA: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Canada; AECID: La 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M: Center fo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CIRD: Cambodian Institute for Research and Rural Development; DANIDA: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GADC: Gender and Development for Cambodia; GIZ: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erman Federal Enterpris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WDA: International Women Development Agency;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NORAD: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NPA: Norwegian People's Aid; PADV: Project Against Domestic Violence; PYD: Paz y Desarrollo(Peace and Development);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Rights & Emergency Relief;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FP: World Food Programme;

* 음영표시된 부분은 성 주류화 사업임.

자료: MoWA 웹사이트; 기관별 웹 사이트; CRDB/CDC ODA 웹사이트; JICA(2007), Cambodia Country Gender Profile, p.46-49 재인용.

〈표 II-8〉 다자원조기구의 캄보디아 ODA 젠더 프로젝트

| 원조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ADB | Sustainable Employment Promotion for Poor Women | 2002-2004 | 여성의 고용기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기업가 스킬 교육 제공 및 관련 네트워킹을 위한 여성부의 역량 강화 | - | 여성부, 지역개발부, 상업부, 교육체육부 |
| | Second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 2004-2011 | 프로젝트 대상에 여성 및 여아를 포함하여 초등 및 고등 직업 교육의 질 향상,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가난한 공동체에 공동체 기반의 수요주도형 기술 훈련 제공 | - | 교육청소년체육부, 노동직업훈련부 |
| | Action Plan for Gender Mainstreaming in Agriculture | 2006-2010 | 농업 분야와 지역 개발에서의 성 주류화가 가능하도록 농림어업부의 역량 강화 | Employer's Federation, Cambodian Union Federation | 경제재정부, 농림수산부 |
| | Women's Development Centers | 2006-2010 | 여성개발센터 건립을 통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및 빈곤 감소 | - | 여성부 |
| | Tonle Sap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ector Project | 2005-2011 | 농촌지역 물 공급 및 위생 시설 설치를 통한 농촌 거주민, 특히 여성 및 아동들의 삶의 질 및 건강 증진 | - | 농촌개발부 |
| | Emergency Food Assistance-Additional Financing | 2008-현재 | 식량가격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특히 여성농부들을 위한 즉각적인 식량보급 안정화 및 소규모 자작농이 직면하는 구조적 한계 해결 | - | 경제재정부 |
| | HIV Prevention and Infrastructure: Mitigating Risk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 AusAID 자금지원 | 2009-2011 | 여성 포함 성 노동자 및 건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건설 시기 동안의 HIV 전파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 다수 | 프로젝트 대상지역 지방정부 |
| | Harness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Initiatives to Benefit Women | 2013-2015 | 탄소기금으로의 접근성 강화, 성평등한 이익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주체로서 여성 단체의 참여증진을 통한 여성의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 | - | 농림수산부 |
| Asia Foundation | Cambodia Tertiary Scholarship Program | 2012 | 농촌의 가난하고 취약한 젊은 여성들의 경제적/사회적 역량 | KAPE | - |

74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 원조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CTSP) | | 강화를 위한 4년 학사 학위를 취득 지원 | | |
| | Combating Trafficking in Cambodia: Build a Youth Peer Network on Safe Migration and Anti-trafficking | 2012-2013 | 여성 및 여아의 인신매매 감소를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반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및 안전한 이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청년 동료네트워크 형성 | YCC | - |
| | Supporting Female Commune Councilors in Cambodia | 2012 | 공동체 사안을 논의 및 전략 개발에의 참여, 여성 지도자 동료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한 여성 공동체 위원들의 역량 및 자신감 강화 | WFP | - |
| FAO | Assisting Cambodian Women to Improve Household Food Security and Family Economy | 2001-2003 |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영양 및 식량 안보에 관한 훈련, 여성 대상 소규모 신용대출 프로그램 | - | 여성부 |
| IFAD | Support for Gender Mainstreaming in Rural Poverty Reduction | 2009-2010 | 농업분야 성 주류화 및 지역 역량 강화, 소규모 여성 비즈니스 그룹 설립 등을 통해 농촌 빈민(특히 여성)의 삶의 질 개선 | - | 여성부 |
| | Rural Livelihoods Improvement Project in Kratie, Preah Vihear and Ratanakiri * UNDP 자금지원 | 2007-2014 | 빈민, 소수민족, 여성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득 향상 및 더 나은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기술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개발 실현 | - | 농림수산부 |
| ILO | Regional Programme for Expans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EEOW) * JICA, PAD 협력 | 2001-2006 |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향상을 위해 노동 관련 법안 제정 및 실행 검토, 지방 행정부의 성 주류화 실행, 지역 커뮤니티에서 여성 대상 프로그램 실행 | AFD APDO | - |
| | Reducing Labour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Women: Combating Trafficking in the Greater Mekong Sub Region * UK 자금 지원 | 2003-2008 | 메콩지역 및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인신매매 방지 전략 및 행동 계획 수립,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 및 여성의 노동착취 철폐 | - | - |
| | Prevention of Trafficking in Children and Women at a | 2003-2006 |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과 관련하여 참여적 방법을 통해 공동체 기반 역량 강화 | - | - |

| 원조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Community Level in Cambodia and Vietnam * UNHSF 자금지원 | | | | |
| UNDP | Partnership for Gender Equity (II): 2004-2010 (III): 2011-2015 | 2004-2015 | 여성부의 역량 강화, 여성 대상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 - | 여성부, 통계청 |
| UNFPA | Reproductive Health-Community-based Distribution of Contraceptives | 2001-2003 | 지역에 기반을 둔 피임약 보급 등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의 접근성 증대 | - | 보건부, 여성부 |
| | HIV/AIDS Policy for Women & Girls | 2003 | 여성과 여아 대상 HIV/AIDS 정책 및 워크숍 | - | 보건부 |
| | Reproductive Health and Gender Advocacy | 2002-2004 | 재생산 건강 부문의 성평등을 옹호, 지원하는 정부 기관과 NGO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자와 미디어의 이해 증진 | 캄보디아 보건 NGO 다수 | 보건부 |
| | Promote Gender Equality | 2010 | 공무원 및 프로젝트 대상 지역의 여성 및 청소년들에게 성평등 관련 인식 증진 | - | 여성부 |
| UNICEF | A Global Women Empowerment Program * Oxfam과 협력 | 2004-2007 | 마을 기반의 여성 저축 공동체 형성, 여성권한강화 그룹 형성, 여성 문맹 교육을 통한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 | Pact Cambodia | - |
| | The Local Governance for Child Rights Programme * SDC 자금지원 | - | 여성 및 남성 주민들이 사회기초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받기 위한 훈련을 받음으로써 그들 및 그들의 아동들의 권리 강화 | - | - |
| UN Women | Promoting Safety of Women Workers in the Beer Industry (PSWWBI) | 2009-2012 | 맥주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 성희롱과 폭력을 예방 | CARE Cambodia, SABC | 여성부 |
| | Safe Workplaces, Safe Communities | - |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정책, 행동계획 이행 및 강화 | CARE Cambodia | - |
| | Improving the Bamboo Handicraft Industry to Enhance Women's Economic | 2012-2014 | 대나무 수공업품 생산 및 판매 지원을 통해 고용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 | - | - |

| 원조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Empowerment | | | | |
| | CEDAW Southeast Asian Programme | 2006-2007 | CEDAW와 CMDG에 대한 트레이닝 모듈 개발 | Silaka | 여성부 |
| | Cambodia Gender Assessment | 2003-2008 | 캄보디아 성평등 현황 분석 및 관련 데이터 수집 | 캄보디아 현지 NGO 다수 | 여성부 |
| WFP | Food Security for the Most Vulnerable in Cambodia * CIDA 자금지원 | 2011-2012 | 국제 식량가격 및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농촌 빈민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으로의 접근성 강화 | - | - |
| World Bank | Cambodia Cash Transfer Pilot Focused on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Nutrition Project | 2014- | 산모 및 5세 이하 아동의 기초 보건서비스 활용 증진 및 사회 보장체제에서 출산 관련 메커니즘 준비 강화 | - | - |

참조: ADB: Asian Development Bank; AFD: Association Farmers Development; APDO: Ankor Participatory Development Organization;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MDG: Cambodian Millennium Development Goal;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APE: Kampuchean Action for Primary Education; PAD: People's Association Development; SABC: Solidarity Association of Beer Promoters in Cambodia;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HSF: United Nations Human Security Fund;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Rights & Emergency Relief; WFP: Women for Prosperity; WFP: World Food Programme; YCC: Youth Council of Cambodia

* 음영표시된 부분은 성 주류화 사업임.

자료: CRDB/CDC ODA Database 웹사이트; MoWA 웹 사이트; 기관별 웹 사이트; JICA(2007), Cambodia Country Gender Profile, p.46-49 재인용.

4. 미얀마

가. 일반적 ODA 수원체계

1) 미얀마 해외원조의 기본 정책

미얀마는 2014년 현재 한국정부의 CPS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국가이나, 이미 한국원조의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얀마의 원조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미얀마에서 2008년도 발생한 태풍 나르기스(Nargis) 긴급구호는 폐쇄적이었던 미얀마 정부가 해외 원조에 개방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1년 취임한 미얀마의 테인세인 정부는 금융 및 세제 개혁,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민간부문 개발, 보건 및 교육, 식량안보와 농업 성장, 정보통신 분야의 개혁을 강조해 왔다(FERD, 2014: 5). 이와 함께 민주적 체계의 새로운 정치문화 양상을 위해 양질의 거버넌스, 깨끗한 정부, 투명성, 반부패(anti-corruption), 검증과 균형(check and balance), 그리고 공공재정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활용도 강조하고 있다(FERD, 2014: 5).

이러한 거시적 정책 하에 미얀마는 해외 원조를 통해 대량의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식과 역량강화를 유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FERD, 2014: 5). 미얀마는 ODA 자원 조달(mobilization)에 있어서 빈곤퇴치 및 농촌개발, 경제인프라 개발, 사회인프라 개발, 환경 보호, 그리고 제도적 발전(institutional development)의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⁵⁶⁾

미얀마에서 강조되는 개발원조 수혜정책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FERD, 2014: 6-8). 첫째, 원조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미얀마 정부가 지정한 우선순위와 일치하도록 장려한다는 점이다. 매년 8월경까지 개발파트너들은 미얀마 정부에게 다음 회계연도(4월에 시작)에 기대할 수 있는 원조의 수준을 공지해야하며, 세부적인 자원 분배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논의해야 한다. 둘째, 미얀마 정부는 한동안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현재 미얀마는 물질적 인프라 및 인적자본 등과 같이

56) 2014년 4개국 초청워크샵 내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관계자 발표자료(2014.10.2.).

결과의 도출이 지연되는 장기적 투자에 많은 외부자본을 투입했으나, 아직도 미얀마의 1인당 GDP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외채무에 대한 취약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얀마 정부와 미얀마의 공공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특히 분야별 작업반(SWG)은 개발파트너들이 그들의 전문성과 국제적 지식 및 분석을 이용하여 미얀마 정부의 분야별 정책과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도록 참여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미얀마에 대한 원조는 민간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개발 파트너들은 미얀마의 사회적 문맥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하여 적절한 자문을 강구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다섯째, 개발파트너들은 프로그램의 이행, 재정관리, 보고에 있어서 미얀마 정부의 체계를 준수해야 하며, 또한 필요시 분석 작업 및 기술지원 등에 있어서 타 원조 프로그램과 합동하여 진행할 것이 장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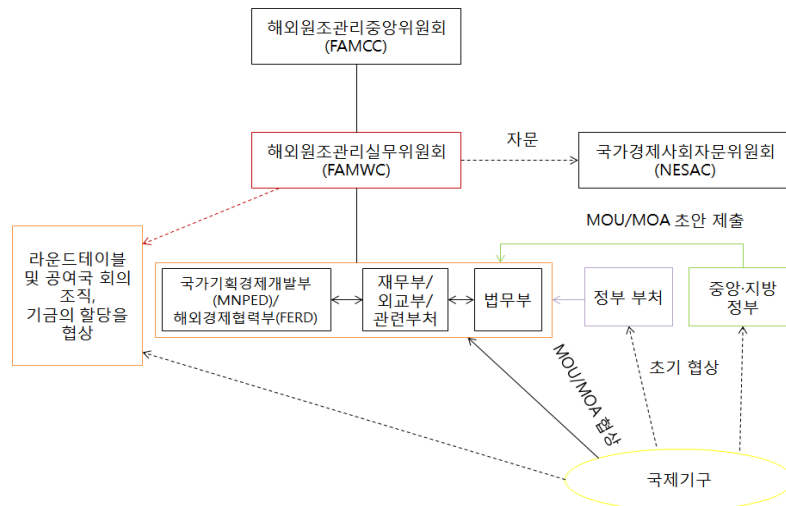
2) 미얀마 원조체계

미얀마 정부는 해외원조관리중앙위원회(Foreign Aid Management Central Committee, FAMCC)와 해외원조관리실무위원회(Foreign Aid Management Working Committee, FAMWC)를 통해 해외원조를 지휘하고 있다. 동 기관에서는 원조가 미얀마의 우선순위 및 전략과 일치하도록 전략적인 지침을 제공한다(FERD, 2014: 8-10).

해외원조관리중앙위원회(FAMCC)는 미얀마의 해외원조를 지휘하는 최고 상부기관으로써 테인세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정책과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FERD, 2014: 8). 해외원조관리중앙위원회 아래에 위치한 해외원조관리실무위원회(FAMWC)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외원조관리중앙위원회가 설정한 정책과 전략의 이행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FERD, 2014: 8). 주요 임무로는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의 협의를 통한 해외 유무상 원조의 배분, 그리고 국가개발계획 및 개혁전략(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Reform Strategy)에 따른 원조의 유치에 대한 우선순위의 수립이다(김은경 외, 2013: 41-42).

자문기구인 국가경제사회자문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dvisory Council, NESAC)는 미얀마 국가개발의 우선순위와 전략 및 국제원조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적 주체라 할 수 있다(FERD, 2014: 9). 위원회의 회원들은 민간분야, 시민사회, 학자들로 주로 구성되어있으며, 미얀마 국가개발 계획 및 개혁전략 수립, 국내 및 해외 투자, 해외 원조 유치 등에 있어서 각종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FERD, 2014: 9). 해외원조를 포함한 여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테인세인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김은경 외, 2013: 43).

또한 담당 정부 부처로는 국가기획경제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MNPED)가 양·다자 개발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국가의 우선순위 및 전략이 개발자원의 분배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FERD, 2014: 9). 특히 해외경제협력부(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 FERD)는 원조프로그램의 대상 지역 및 분야 선정, 구성, 이행과 모니터링, 평가와 보고 등을 포함한 원조의 전반적 단계에서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FERD, 2014: 9). 다음 그림은 이러한 원조의 전반적 단계의 과정과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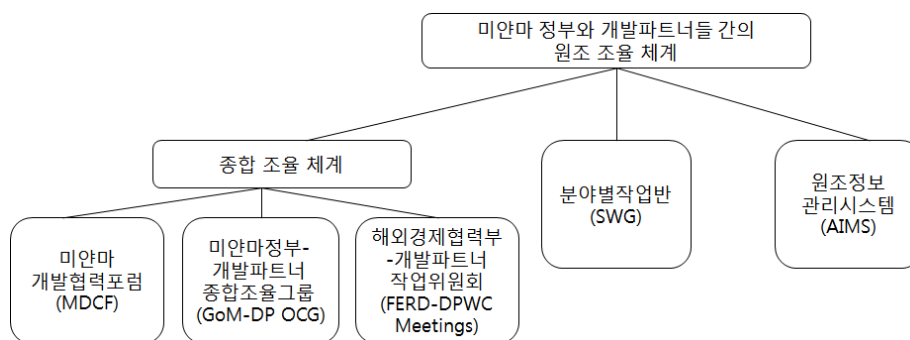
자료: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 해외경제협력부서(MNPED FERD, 2014)

[그림 Ⅱ-4] 미얀마 원조체계의 과정과 프로세스(중앙정부)

나. 원조 일치(Alignment)와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의체

미얀마 정부는 개발 파트너와의 원조를 조율하기 위하여 1) 종합조율체계(overall coordination mechanism) 2) 분야별작업반(SWG), 3) 원조정보관리시스템(Ai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IMS)의 세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FERD, 2014: 10-12).

종합조율체계에는 미얀마개발협력포럼(Myanmar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MDCF), 미얀마정부-개발파트너 종합조율그룹(GoM-DP Overall Coordination Group), 해외경제협력부(FERD)-개발파트너작업위원회(Development Partner Working Committee, DPWC)의 세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FERD, 2014: 10-11)(그림 II-5 참조).



자료: 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2014), p.10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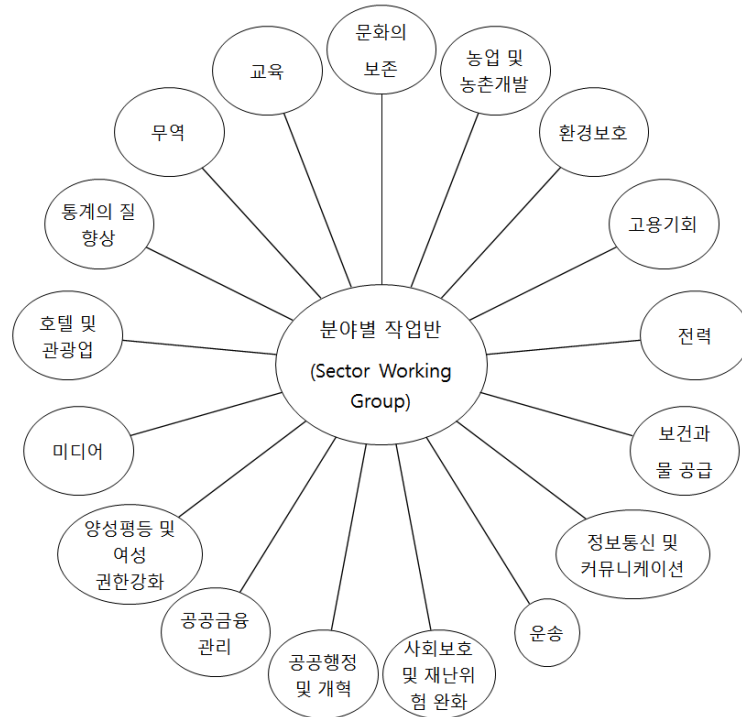
[그림 II-5] 미얀마 정부와 개발파트너들 간의 원조체계

먼저 미얀마개발협력포럼(MDCF)은 미얀마정부와 개발파트너들 간의 최고 위급 종합적 코디네이션 체계라 할 수 있다(FERD, 2014: 10). 일 년에 한 번 개최되는 본 포럼에는 국회, 지역 및 주의 대표, 시민사회단체, 민간분야 및 학계가 참여하여 미얀마의 개발을 지속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적 활동을 논의한다(FERD, 2014: 10-12). 미얀마개발협력포럼은 매해 초 개최되며 매해 6월 말에 중간 점검회의 또한 개최된다. 다음으로 미얀마정부-개발파트너 종합조율그룹(GoM-DP OCG)은 국가기획경제개발부의 장관이 지휘하

고 있으며 해외경제협력부서를 사무국으로 두고 있다(FERD, 2014: 10). 본 그룹은 일 년에 두 번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과 화합에 있어 진척사항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외경제협력부서-개발파트너 작업위원회(FERD-DPWC Meetings)는 두 달에 한 번씩 개최되며, 개발파트너 작업위원회(DPWC)는 아시아개발은행(ADB), 호주, 유럽연합, 일본, 영국, UN, USAID, 세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FERD, 2014: 10). 본 FERD-DPWC 회의는 특히 주요 국가개발과 원조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제공하며 분야별작업반의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한다(FERD, 2014: 10).

분야별작업반(SWG)은 미얀마정부와 개발파트너들 간에 원조의 각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인 협력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FERD, 2014: 11). 개발파트너들은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각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전략, 프로그램들이 일관성 있게 개발되고 실행되게 함으로써 미얀마 정부를 지원한다(FERD, 2014: 11). 이 그룹은 또한 해당 분야에서 있어서 미얀마 정부와 개발파트너 간에 일차적 대화의 장을 제공한다. 분야별작업반은 관련 부처, 기타 정부 조직, 개발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학계, 민간부문, 시민사회도 포함된다(FERD, 2014: 11). 2013년 17개 분야에서 작업반이 개설되었다(그림 II-6 참조).

17개 분야 중 하나가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강화 작업반(Working Group on Gender Equality and Women Empowerment)이며 현재 사회복지국의 부국장이 포컬포인트(focal point)를 맡고 있다. 사회복지부는 본 협의체를 통해 성평등 분야의 원조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전략 개발을 선도하며 개발파트너간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이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부, 노동부 등 타 정부부처의 여성 관련 업무 담당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자료: FERD(2014), p.11 본문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Ⅱ-6] 17개 분야별 작업반

한편 원조정보관리시스템(AIMS)은 개발협력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얀마로 유입되는 국제원조를 파악하기 쉽도록 개발된 관리 체제이다(FERD, 2014: 12).⁵⁷⁾ 이를 통해 원조의 분배와 투명성을 향상하고 예산기획 등에 있어서 미얀마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도록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원조정보관리시스템은 개발파트너가 일 년에 두 번 이상 개발 포트폴리오 및 프로그램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관리 및 유지해 해외경제협력부서가 담당하고 있다(FERD, 2014: 12).

57) 최근 웹페이지를 구축하였다. Myanmar Information Management Unit, <http://www.themimu.info/>

다. 젠더분야 개발사업의 발굴과 수원국의 주인의식

1) 성평등 원조 현황

미얀마에서는 사회복지부의 사회복지국에서 여성복지 및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개발파트너들과의 성평등 원조도 사회복지부와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미얀마에서의 성평등 원조는 프로젝트 성 사업수행 원조보다는 기본 정책 및 관련 법 수립, 그리고 역량강화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부에서 기술적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크게 국가계획 및 국가보고서 작성, 법제정작업, 연구조사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⁵⁸⁾

첫째, 국가계획수립과 국가보고서 작성 부분을 살펴보면, UN Gender Theme Group(UN Women, UNFPA, UNDP 포함)의 기술지원을 받아 CEDAW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있다. 2013년에는 10년 간의 여성개발계획을 담은 국가 여성발전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ment of Women, NSPAW 2013-2023)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UN Women과 UNFPA로부터의 기술지원을 받았다. 또한 UNFPA, UNDP, UNICEF, UN Women, ADB와의 협력을 통해 젠더현황분석(Gender Situation Analysis, GSA)을 2013년에 실시하였다.

둘째, 미얀마 사회복지부는 미얀마의 여성단체인 양성평등네트워크(Gender Equality Network, GEN) 및 UN Gender Theme Group(UN Gender Theme Group, UNGTG)과 협력하여 여성폭력방지법(Anti-Violence Against Women Law, AVAW Law)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미얀마 사회복지부는 근거에 기반한 옹호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성폭력에 대한 질적연구(2013-2014), 전국설문조사(2014-2015), 사회문화규범연구(2013-2014)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 CEDAW 관련 부처의 공무원, 사법 부문 실무자, 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훈련, 오리엔테이션 세션 등을 포함한 역량개

58) 미얀마 네피도 방문 시 실시된 사회복지부 현지 면담(2014.6)과 2014년 4개국 초청 워크숍 내 미얀마 사회복지부 관계자 발표자료 “ODA in Gender Sector”(2014.10.2)를 참고로 하여 재구성.

발 프로그램을 개최한 바 있다.

미얀마의 성평등 정책과 성평등원조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부는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UN 기구들의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젠더가 크로스 커팅 이슈로 포함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UN GTG가 설립되었다. 이 GTG는 UN 기구 뿐 아니라 개발협력파트너들과 NGO들이 그들의 개발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실행하는 것을 장려하며 관련 정보, 사업경험, 방법, 실행과정 등을 공유하고 조율한다. 한 달에 한 번 양곤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미얀마 주재 각 UN 기구의 젠더 담당관이 참석하며 사안에 따라 시민단체와 정부관계자가 참석하기도 한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UNFPA의 대표가 UN GTG의 대표를 맡고 있다.

2) 성평등 원조 진행 프로세스

다음에서 기술할 미얀마 성평등 원조 프로세스와 사업 주제 선정과 관련된 내용은 미얀마 FERD 관계자와의 면담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먼저 공여국 정부가 미얀마에서 성평등 원조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⁵⁹⁾ 첫번째는 외교 채널이다. 이는 공여국의 외교부가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얀마 외교부를 접촉하여 진행하는 루트이다. 보통 공여국의 거시적인 외교 전략에 성평등 원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시행될 수 있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채널은 보다 실질적인 방법으로서, 사회복지부를 통하는 방법이다. 원조 제공을 희망하는 공여국의 유관단체(예: KOICA)가 성평등 전담부처인 미얀마 사회복지부와 비공식 논의를 거친 후, 사회복지부는 이 사업계획을 해외경제협력부(FERD)에 보고한다. 즉, 해외경제협력부(FERD)는 이 계획을 검토 후 원조 제공을 희망하는 공여국의 유관 단체(예: KOICA)에

59) 미얀마 네피도 현지 출장 내 사회복지부와 FERD 관계자와의 면담(2014.6).

공식 원조요청서를 발송하게 된다.⁶⁰⁾ 이후 해외경제협력부(FERD)는 이 원조 사업계획을 해외원조관리 실무위원회(Foreign Aid Management Working Committee, FAMWC)에 보고하게 된다. 이 방법은 첫 번째 제시한 외교채널과는 대조적으로 실무부처 선에서 협의가 진행되어 상급선의 허가를 얻게되는 일종의 아래로부터의(bottom-up) 채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얀마 내에서의 성평등 원조 사업의 주제 선정에 대해서는 원조 제공 기관(공여국 정부, UN 기관, NGO등)과의 긴밀한 의견 교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미얀마 사회복지부가 UNFPA와 진행 중인 다년간 프로젝트의 경우 매해 사회복지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행계획(working plan)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국,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미국, 영국, EU 등의 서방공여국의 경우 사회복지부와 협의할 거처가 없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원조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미얀마 정부로서는 도전 과제이다.

다음은 미얀마에 대한 양다자 기구의 성평등 원조사업의 대략적인 현황을 정리하였다. 아래 표에 포함되지 않은 성평등 원조사업들도 많을 것으로 보며, 다만 연구진이 최대한 수집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제시된 사업들은 여성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음영표시가 된 사업은 성 주류화 사업이다.

〈표 II-9〉 양자 기구의 미얀마 젠더 프로젝트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AusAID (호주) | The Joint Initiative on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JI-MNCH) | 2010-2012 | 싸이클론 나르기스의 영향으로 열악하고 의료 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모자보건 서비스를 통한 접근성 증대 | - | 보건부 |
| | Vocational Training for Refugees from Myanmar (VTRM) | 2011-2013 | 태국-미얀마 국경과 주변 지역에 난민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 KRC, OVEC, Mae Sot VTC, WEAVE | - |

60) FERD는 미얀마 정부에서 원조요청서를 발송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기관임.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Strengthening HIV Responses through Partnership | 2010-2011 | HIV 예방, 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민 사회파트너의 기술 역량 강화 및 조직 지원 | Burnet | - |
| |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 2009- | 싸이클론 나르기스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농업생산지원, 시장 고용 지원, 사회안전강화, 생계 및 식량안전 지원 등 지역 파트너 역량 강화 | SIDA, UK aid, SDC, Swden, SNV | - |
| | Prevention and Control of Avian and Human Pandemic Influenza in Myanmar (Phase II) | 2009-2012 | 미얀마에서 유행성 인플루엔자(조류독감 등)에 대응 및 예방 | WHO, FAO | 보건부, 농림수산부 |
| | Mid-term Evaluation of the Tripartite Action to Protect Migrants with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from Labour Exploitation (TRIANGLE) Project | 2013- | 미얀마를 포함한 메콩 주변에서 여성과 남성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 및 협의를 도출하고 이행 추진 | - | 사회복지부 |
| CIDA (캐나다) | Emergency Assistance to Conflict-affected People in Burma | 2013 | 분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건의료 케어, 옷, 물과 위생서비스 지원 및 생계 재건 지원, 여성과 아동 그리고 부상자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인구에 보호서비스 지원 | Red Cross | - |
| | Humanitarian Assistance for Conflict-affected and Displaced People - HOPE 2014 | 2014-2015 | 미얀마 카친주에서 분쟁의 영향을 받은 난민에게 쉼터 제공, 보건 자원봉사자들에게 훈련 제공, 난민 아동들에게 임시 교육장소 제공 등 | HOPE | - |
| | Food Security, Water and Sanitation - Oxfam-Québec 2014 | 2014-2015 | 카친주의 난민들에게 식수, 위생시설,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여성과 아동 난민들을 중심으로 취약성 감소 | Oxfam-Québec | - |
| | Health Assistance for Vulnerable Populations - Doctors without Borders 2014 | 2014-2015 | 라카인주의 18만 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영양실조와 정신건강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HIV와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 지원 | MSF - 국경없는 의사회 | -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DFID (영국) | Strengthening Livelihoods in the Dry Zone of Myanmar | 2012-2015 | 중앙 건조지역의 낮은 소득과 생계 필수품 구입의 제한으로 실업 및 이주가 빈번한 지역에 식품가공 산업 개발 및 역량 지원 | ADRA | - |
| | Primary Education Programme, Burma | 2010-2015 | 기본교육의 질적 향상 및 접근성 개선 | - | 교육부 |
| | Microfinance Services for Poor and Vulnerable People in Burma | 2012-2013 | 가장 취약한 농촌 지역에 식량안전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 은행과 계좌 개설 | GRET, PACT Save the Children, World Vision | - |
| | The Three Millennium Development Goal Fund for Addressing Essential Maternal and Child Health Needs of Poor and Vulnerable Women, Children and for People with HIV, Tuberculosis and Malaria in Burma | 2010-2016 | 가난하고 취약한 여성과 아동을 포함하여 HIV 환자, 폐결핵 및 말라리아 환자 등을 대상으로 모자 보건 증진 | - | 기획부, 보건부 |
| | Cyclone Nargis - Emergency Response | 2008-2009 | 나르기스로 인한 피해 최소화, 피해로부터의 재할시 생계와 인권을 보호 | UNDP, UNICEF, WFP | - |
| | Programme for Democratic Change (PDC) in Burma | 2014-2019 | 주로 여성 시민을 대상으로 정치 및 선거 프로세스에서 대표성을 향상 | - | 기획부 |
| | Primary Health Care Programme in Burma | 2006-2013 | 미얀마의 소수민족 여성, 특히 5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보건상태 개선 | - | 보건부 |
| JICA (일본) | Major Infectious Diseases Control Project | 2005-2012 | 미얀마 국민건강강계획(2006-2011)의 최우선 문제로 AIDS, 결핵, 말라리아 질병 퇴치 및 감염 예방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 | - | 보건부 |
| | Community-oriented Reproductive Health Project (CORHP) | 2004-2010 | 보건교육, 보건지원시스템 구축, 의료장비 유지보수 등 농촌지역의 보건 센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에서 재생산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 보건부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Child Health and Nutrition Project | 2005-2009 | Kayin 지역 아이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의 자녀 양육과 건강 교육 제공, 예방접종 및 보건센터 구축 | - | 보건부 |
| | The Project on Rural Water Supply Technology in the Central Dry Zone | 2006-2009 | 중앙 건조 지역에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을 향상 시키기 위해 물 공급 시설 설비, 수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지원 | - | DDA |
| | Development Study on Sustainabl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for Poverty Reduction Programme in the Central Dry Zone | 2005-2010 | 미얀마 중앙 건조지역에 낮은 강수량으로 인한 가뭄으로 흉작이 발생함에 따라 기후에 적합한 농업, 가축, 소규모 산업 형성 및 기술 개발 | - | 농업 관개부 |
| | Traditional Medicine Project | 2006-2008 |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작용이 적고 값이 저렴한 전통의학의 보급 장려 및 전통의학 전문의를 훈련 | - | 보건부 |
| | Project on Strengthening of Rehabilitation | 2008- | 미얀마의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전문 병원에서 보건 및 의료서비스 향상 | - | 보건부, 사회복지부 |
| | Project for the Eradication of Opium Poppy Cultivation and Poverty Reduction in Kokang Special Region No.1 | 2005-2011 | 미얀마 코캉지역의 아편배 금지의 영향으로 인한 빈곤을 완화하고 농업훈련과 농업 설비 및 재료를 제공하여 생계 향상 | - | Ministry for Progress of Border Areas |
| | Agricultural Extens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 2007-2011 |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 기술 교육, 농업기술 교육 및 훈련 자료 생성, 훈련자 선별과 훈련 | - | 농업관개부 |
| | Project on Capacity Improvement of Recovery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for Trafficked Persons in Myanmar | 2012-2015 |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훈련과 워크숍 및 커리큘럼 등을 통해 보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회복 역량을 강화 | - | 사회복지부, 경찰국 |
| KOICA (한국) | 미얀마 짜웃단구 교육시설 재해복구 지원 | 2009-2011 | 싸이클론 나르기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양곤시 | 굿피플 | -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사업 | | 짜웃단 소재 농촌 중 정부의 복구계획에 소외된 지역의 교육시설 복구를 통해 현지 청소년들의 기본 학습권 지원 등 인재 양성 기반 구축 지원 | | |
| | 미얀마 마웨이 냇마옥 지역 보건 위생 사업 | 2011- | 보건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모자보건 환경 개선 및 진료시설 접근성 증대, 위생교육을 통한 주민들의 위생관리와 질병예방에 대한 인식 증진 | 더프라미스 | - |
| |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녹화 사업 | 2008-2010 | 건축, 기자재 지원, 초청 연수 등을 비롯하여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의 산림 생태환경 개선 및 주민생계 지원 등 산림녹화를 통한 사회 경제적 효과거양 | - | 임업부 |
| | 미얀마 홀레구지역 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 | 2008-2009 | 미얀마 양곤의 홀레구 지역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저개발 빈곤 농촌지역에 인프라 및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자립 발전의 기반을 마련 | - | 농업관계부 농업청 |
| Norad (노르웨이) | Myanmar Community and Home Based HIV/AIDS Programme | 2008-2012 | HIV/AIDS에 감염된 사람의 생계 지원과 지역사회의 차별과 인식개선 | - | 보건부 |
| | Sowing a Healthy Future: Supporting Women to Strengthen Community Health and Livelihoods in Myanmar | 2010- | 코캉 지역의 아편 금지의 영향으로 생계를 잃은 사람들에게 식량지원 및 지역사회 식품생산 개발과 창출 지원, 여성의 건강과 질병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 CARE | - |
| | Support for Education in Post Conflict South-eastern Myanmar | 2013 | 미얀마의 동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양질의 민족 인 지적인(ethical sensitive) 기초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민족의 통합과 평화를 도모 | - | 교육부 |
| SDC (스위스) | Restoring and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and Reduce Vulnerability of | 2012- | 미얀마 동부, 델타지역에 취약한 지역사회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학교 및 | LIFT, WFP | - |

90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현지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People at Risk | | 쉼터 재건, 물과 위생시설 복구 | | |
| | Improving Access to Water and Health Resources in Demosoe Township, Kayah State, Union of Myanmar | 2012-2014 | 전쟁의 영향을 받은 인구의 생계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물, 의료분야의 시설과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화해와 분쟁해결에 기여 | CARE | - |
| | Improved Learning Environment for Primary School Children in Mon and Kayin State and Yangon Region (UNICEF Partnership) | 2013-2015 | 열악한 학교 시설, 부족한 학습자료, 부족한 교사의 질과 교육방법을 고수해 온 미얀마 교육현실에 교육 환경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 UNICEF | - |
| USAID (미국) | Countering Trafficking-in-Persons | 2011-2013 | 인신매매에 대한 미국과 미얀마의 공동계획 발표에 함께 인신매매 범죄자 조사 및 기소, 국제 지침에 따른 희생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성매매 및 노동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자국민 보호 및 방지 | MTV-EXIT | - |
| | Improv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 2003- | 조산사, 조산원의 역량 구축 및 지역사회건강 서비스 제공 등 가족계획 해결을 위한 산모와 아이의 건강 향상, 위생교육, 분만 후 관리 및 상담 지원 | - | 보건부 |
| | Enhancing Disaster Safety in Vulnerable Communities and Schools in Myanmar | 2012- | 미얀마 5개 공동체의 10개 국립학교의 안전과 회복력을 향상하여 사망과 상해를 줄이고, 재해로부터의 영향을 감소 | - | 사회복지부, 교육부 |
| | Provision of WASH Assistance to IDPs in a Protracted Crisis in Rakhaine * UN 기관 협력 | 2014 | 미얀마의 라카인주를 대상으로 물 공급, 환경 보건(쓰레기 관리 등), 위생 인프라, 위생 상태(손 씻기)를 개선하기 | 미얀마 NGO 다수 | - |
| | Maternal Newborn Health Situational Analysis in Burma | 2013 | 미얀마의 보건부와 협력하고 지방의 보건 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영향력 있는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 | - | 보건부 |
| | | | | | |

참조: ADRA: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Da: Department of Development Affairs, Ministry of Progress of Border Areas;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GRET: Groupe de Recherche et D'Echanges Technologiques;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RC: Karen Refugee Committee; LIFT: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Mae Sot VTC: Mae Sot Industrial and Community Education College; NORAD: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OVEC: Office of Vocational Education Commission;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zation;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Rights & Emergency Relief;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EAVE: Women's Education for Advancement and Empowerment; WFP: World Food Programme;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양자기구와 협력한 NGO를 표기하였음.

*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성 주류화 사업임.

자료: AusAID, DFID, JICA, Norad, SDC, USAID, KOICA 홈페이지

〈표 Ⅱ-10〉 다자 기구의 미얀마 젠더 프로젝트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ADB | Support for Education Sector Planning | 2012-2014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노력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 교육에 대한 분석 및 계획 등 역량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 | - | 교육부 |
| | Support to the Prepar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Myanmar Gender Situational Analysis | 2012-2014 | 미얀마 상황별 젠더 분석을 위한 준비 및 보급 지원 | - | - |
| | Support for Post-primary Education Development | 2013- | 미얀마 교육당국에서 실시하는 Comprehensive Education Sector Review에 대한 교육정책과 평가에 대한 지원 | - | 교육부 |
| | Greater Mekong Subregion Capacity Building for HIV/AIDS Prevention | 2013- | 미얀마 메콩지역의 HIV/AIDS 예방을 위한 역량구축 | - | 보건부 |

92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Skills Development for Inclusive Growth | 2014- | 균형적이고 포괄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기술훈련 및 직업기술훈련 | - | 교육부 |
| | Pro-poor Community Infrastructure and Basic Services | 2014- | 미얀마의 만달라이와 양곤을 중심으로 기본서비스와 공동체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생활조건과 환경 향상 | - | 지방정부 |
| ESCAP | Research on the Child Abuse and Exploitation in the Border Areas | 1999 | 국경지역에서 아동학대와 착취에 관한 연구 | MMCWA, JODC, MMRD | 사회 복지부 |
| FAO | Prevention and Control of Avian and Human Influenza in Myanmar | 2006-2012 | 농민의 생계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 질병에 대한 진단, 통제 및 감시 교육 | - | 축수산 자원부 |
| | Sustainable Community-based Mangrove Management in Wunbaik Forest Reserve | 2009-2011 | 맹그로브 숲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역 사회의 생계를 강화 | - | 산림부 |
| | Improving Nutri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Monastery School Fruit and Vegetable Garden | 2013-2014 | 미얀마 수도원학교의 과일과 야채 정원 개발을 통한 영양 개선 | - | 산림부 |
| | Support to Food Production and Nutrition for the Conflict-affected Population in Kachin State | 2014 | 미얀마 카친 주에서 분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주민을 위한 식량생산과 영양을 지원 | - | - |
| | Sustainable Small-scale Fisheries and Aquaculture Livelihoods in Coastal Mangrove Ecosystems | 2009-2015 | 맹그로브 해안 생태계에서 수경재배/물고기양식과 소규모 임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 - | 축수산 자원부 |
| ILO | Promoting Rights at Work in Myanmar * USAID 협력 | 2012- | 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인식 증진 | - | -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ILO Freedom of Association Programme | 2013- | 미얀마에서 단체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공무원 및 여성을 포함한 미얀마 노동자에게 훈련과 워크숍 제공 | - | 노동부 |
| UNDP | Watershed Management Project | 1996-1999 | 마을 회의 및 집단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더 많은 참여 독려 | FAO | 산림청 |
| | Sustainable Livelihoods through Microcredit for the Poorest | 1996-1999/ 1999-2002 | 농촌지역의 빈곤여성을 위한 소규모사업을 통한 벤처사업 장려 | - | Cottage Industries Department |
| | The 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CDP) | 2003-2012 | 가난한 소외계층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 - | 외교부 |
| | Community Development in Remote Townships (CDRT) Project | 1994-2012 | 의식과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직업 및 기술 기반, 사회교육프로그램 제공 | | 외교부 |
| | Enhancing Capacity for HIV/AIDS Prevention and Care Project | 2004- | HIV/AIDS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성인, 청소년들에게 HIV/AIDS 예방 및 인식 제고 | - | 보건부 |
| | Sustainable Microfinance to Improve the Livelihoods of the Poor (MF) | 2008- | 농촌의 빈곤여성들에게 소액대출을 통해 가계 소득과 생산 자산 증대, 소규모 여성기업가 훈련 등 여성의 역량강화와 경제활동에 참여 | PACT | - |
| | Local Governance Programme | 2013-2015 | 미얀마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관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단체 역량 강화 | - | 기획부, 지방정부, 재정부, 내무부 |
| | Environment, Climate Change, Energy and Disaster Risk Reduction Project | 2013-2015 | 미얀마의 지역공동체들이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응, 준비, 적응하도록 참여를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성인지 정책자문을 제공 | - | 사회복지부, 산림청, 농촌개발부 |

94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UNESCO | UNESCO SchoolNet Project | 2003-2006 | 학교에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학습에 정보통신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 | Japanese Funds-in-Trust, ASEAN Foundation | - |
| | UNESCO's Myanmar Education Recovery Programme (MERP) | 2010- |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재앙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교육시스템 재활성화 지원 | - | 교육부 |
| UNFPA | The Myanmar Birth Spacing Project | 1996-1999 | 출생간격 조절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MMCWA | 보건부 |
| | Country Programmes and Related Matters | 2012-2015 | 재생산 건강 서비스 제공, HIV/AIDS 예방 및 여성의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에 맞춘 유엔 전략 프로그램 | - | 보건부 |
| UN-HABITAT | Shae Thot Project | 2011-2016 | 학교 및 도로의 위생 시설과 인프라(도로, 공동체 학교, 물, 우물 등) 개선 | USAID | 사회복지부, 건설부, 농림축산부 |
| | Safer Coastal and Urban Communities through Disaster Risk Reduction in Myanmar | 2012-2014 | 재난위험 완화를 통한 해안 및 도시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및 정부 당국에게 지식과 역량을 훈련 | - | 사회복지부 |
| | The Program for Development and Rehabilitation of Community in Ethnic Minority Area | 2013 | 미얀마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인프라, 쉼터, 물 및 위생시설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경제적 회복을 도모 | - | 사회복지부 |
| | Land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Program (LAMP) | 2012-2014 | 연구조사활동 및 시민사회 훈련과 역량구축 등을 통한 토지행정 및 관리 역량 구축 | - | 사회복지부, 농림축산부 |
| | Disaster Risk Reduction for Safe & Resilient Burmese Coastal Communities | 2012-2014 | 안전한 안착을 위한 기획과 환경적 내구성이 강한 설계를 통하여 미얀마 연안 지역 공동체의 안전 향상과 재난위험 및 취약성 감소 | - | 사회복지부, 건설부 |
| | Myanmar Climate Change Alliance | 2013-2017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 및 정책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 - | 사회복지부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 Disaster Response & Preparedness - Resilient Coastal Communities and Urban Risk | 2012-2014 | 연안지역 공동체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난 대응 및 준비 프로젝트로, 젠더에 기반한 공동체 재난대응 접근법 활용 | - | 사회복지부 |
| UNHCR | Women's Training Project in Northern Myanmar Generates Income and Goodwill | 2010- | 부족한 자원과 열악한 교통수단의 외곽지역에 사는 여성들에게 재봉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새로운 기술 전수와 교육활동 지원 | - | - |
| UNICEF | Women's Health | 1996-2001 | 재생산 건강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분만을 위한조산원 훈련 프로그램 | - | 보건부 |
| | Child Rights | 1996- | 아동의 권리 협약에 포함된 것으로서 아동 권리의 통합과 이행 | - | 사회복지부 |
| | Improving Access to Quality Basic Education in Myanmar (2006-2010) | 2010 | UNICEF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프로그램계획에 반영 및 개발 | - | 교육부 |
| | Participatory Qualitative Evaluation of Life Skills and HIV/AIDS Training for Youth and Women | 1994-1997 | 미얀마 27개 거주구의 기혼 여성과 젊은층을 대상으로 기술훈련과 HIV/AIDS 훈련을 실시하고 그 영향을 평가 | Red Cross | - |
| UNIDO | Quick Market Analysis on the Potential for Micro-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in Handicraft Sector in Myanmar | - | 섬유 제품 및 수공예품 생산을 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 마케팅 개선 지원 | JODC, MMRD | - |
| | Fostering Pro-poor and Inclusive MSME Development in Myanmar | 2014- | 비즈니스 연계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미얀마 지역공동체의 고용기회와 생계 향상 | - | 산업부 |
| WHO | National Reproductive Health | 1996-2001 | 여성의 재생산 건강 보호 프로그램 | - | 보건부 |
| | Women's Health and Development | 1996-2001 | 여성의 재생산 건강 프로그램 | UNICEF UNFPA UNHCR | MNCWA |

| 공여 기관 | 사업명 | 기간 | 사업내용 | 협력기관 | |
|------------|---|-----------|---|------|---------------------------|
| | | | | NGO | 정부부처 |
| World Bank | Myanmar National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Project | 2012-2019 | 열악한 농촌지역에 기초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람중심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 | - | Ministry of border affair |
| | Essential Health Services Access Project | 2014-2019 | 모성, 신생아, 영아를 중심으로 필수보건서비스의 질과 접근을 향상 | - | 보건부 |
| | Ayeyarwady 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Project | 2014- | Ayeyarwady 강 유역의 기후변화 대처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수자원개발에 기여 | - | 교통부 |

참조: ADB: Asian Development Bank;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JODC: Japanese Overseas Development Corporation; MMCWA: Myanmar Maternal and Child Welfare Association; MMRD: Myanmar Market Research and Development;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CR: United Nation High Commissioner of Refugees;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Rights & Emergency Relief;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다자기구와 협력한 양자기구 및 NGO를 표기하였음.

* 음영표시된 부분은 성 주류화 사업임.

자료: ADB, ESCAP, FAO, ILO, UNDP, UNESCO, UNHABITAT, UNHCR, UNICEF, UNIDO, WHO, World Bank 홈페이지

〈표 Ⅱ-11〉 젠더분야 ODA사업에 대한 여성대상 사업 사례

1. ADB의 캄보디아 톤레삽 지역 수자원공급 및 위생 분야 프로젝트⁶¹⁾

캄보디아에서는 물을 구하는 일과 가정 내 위생을 여성들의 책임으로 여긴다. 물을 구하는데 하루 3시간 씩 소요되며, 건기에는 그마저도 깨끗하지 못해 아이들이 설사병과 같은 질병에 걸린다. 질병 치료와 깨끗한 물 구입에 드는 비용은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이 된다. 위생적인 용변 시설 또는 용변 시설 자체가 없는 곳은 숲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용변을 볼 수 밖에 없어 뱀, 모기 등에 안전하지 못해 각종 질병에 걸리고,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 범죄에 노출된 것 같은 위험을 느끼기도 한다.

톤레삽 농촌지역 물 공급 및 위생 분야(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ector: RWSS) 프로젝트는 농촌지역 물 공급 및 위생 분야 투자 계획(2005-2015)에서 제시한 목표치⁶¹⁾를 달성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상 지역 농촌 거주민들의 삶의 질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실시되었다. 대상 지역의 총 주민 중 52%가 여성, 27%가 여성 부양가족이다.

프로젝트는 1) 안전한 물 사용하기 2) 열린 공간에서 용변 보지 않기 3) 청결한 환경을 위해 개선된 화장실을 건설하고 사용하기 4) 손 씻기 5) 급수장치를 관리 및 유지하기 등 5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실행되었다.

여성과 소수민족이 최대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사회/젠더 분석(extensive social and gender analysis)을 실시하고 물 사용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여 프로젝트 설계에 반영하였다. 젠더실행계획(GAP)은 여성 및 여아 모두가 프로젝트 활동에 가능한 참여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GAP에 구체적인 지표와 대상을 자세히 명시하여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고 남녀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젝트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침서 또한 제공되어 GAP이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른 프로젝트들의 좋은 사례로서 제시되기도 한다.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 프로젝트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팀워크를 강화하며 수자원 및 위생분야에서 여성의 역량 및 권한 강화를 꾀하기 위해 수자원 및 위생 사용자 모임(Water and Sanitation User Group: WSUG)을 창단하였고, 5명의 이사회 중 최소 2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하였다. 총 여성회원 수는 12,273명에 달하며 대부분 기술회원이거나 회계(treasurer)를 도맡았다. 프로젝트를 이해하고자 마련된 첫 워크숍에 여성들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여 프로젝트 실행 내내 여성의 참여를 북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정은 여전히 남성의 몫인 경우가 있어 어느 정도의 한계는 존재하였다.

둘째, 핸드 펌프를 비롯한 물공급장치 4500개를 설치하고 공동체 WSUG 내의 최소 남성회원 1명과 여성회원 1명을 수자원 설비 운영 및 보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였다. 여성의 경우가족 또는 남편 허락 없이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비율을 초과달성하였다.

셋째, 마을의 중심부에 급수장치를 설치한 이후, 여성들은 깨끗한 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절약된 시간만큼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다른 생산적인 일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깨끗한 물 구입에 드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깨끗한 물 및 집 근처 공용화장실 설치로 공동체 내 가족들의 건강 또한 증진되어 가정에서 치료비로 지출되던 비용을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젊은 여성들도 외부에서 거의 용변을 보지 않게 되었고, 밤에 용변을 보아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변기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위생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가난한 여성 가장들도 집 근처의 용변시설은 매우 유용하다고 인식하여 돈을 빌려서라도 변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위생은 여성의 책임만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위생교육에 남성도 포함하였는데 남성의 위생교육 참여율이 전체 평균 40%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농촌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MRD) 역량 구축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계획/예산/계약관리/모니터링 및 평가 등과 더불어 젠더 이슈도 포함되었다. 프로젝트 관리단은 RWSS에서 성 주류화 전략을 개발하여 국가 RWSS전략개발팀에 자료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젠더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농촌개발부 남자직원들의 젠더이슈에 대한 이해도는 한계가 있었다.

완료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전체 결과(overall assessment)는 프로젝트의 세부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목표한 바를 모두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젠더 관점에서는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며 WSUG 이사회 내 여성 비율, 남성의 물 사용 및 위생 교육 참여율은 목표한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성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AusAID의 미얀마 모성과 신생아·영아 보건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JI-MNCH)⁶³⁾

본 프로그램은 2008년 태풍 나르기스의 영향으로 열악하고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미얀마 델타 지역의 6개 행정구역의 빈민과 서비스로의 접근이 어려운 인구에게 모성보건, 신생아 보건, 그리고 아동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접근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첫째, 기초보건전문가(Basic Health Staff)가 접근이 어려운 인구를 직접 방문하여 출산전/후 케어, 아이의 분만시 숙련된 조산사 도움 제공, 보건교육, 예방접종, 영양결핍 스크리닝테스트 등의 필수적인 보건서비스를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응급상황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환자를 지역의 병원으로 보냈다. 특히 출산전 관리를 위해 보건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혈압측정, 몸무게 측정, 복부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비타민 B1, 철분 영양제, 구충제를 제공했다.

둘째, 훈련에 있어서는 기초보건전문가, 보조 산파, 공동체 보건전문가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역량개발의 훈련 주제는 모성/아동보건 증진(예: 설사, 폐렴 등의 관리), 응급 산부인과 케어 제공(예: 유산, 출혈, 경련 등의 진단과 관리), 금융과 로지스틱스 관리, 영양 관리, 심리적 건강관리, 양질의 모유영양과 아동 질병의 포괄적인 관리를 포함했다. 또한 여성들이 출산과 가족계획 관련에 대한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고, 여성들이 자궁내 피임기구(IUD)의 삽입과 제거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기초보건전문가들도 재생산보건 및 자궁내 피임기구 삽입 및 제거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 숙련된 봉사자들의 배치에 있어서는 접근이 곤란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했다.

그러나 나르기스의 영향을 이후로 행정구역의 경계선이 변하고 마을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체보건전문가와 보조 산파를 모집하는 것과 훈련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 접근이 어려운 마을일수록 잠재적 자원봉사자들 인력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가 있었다. 따라

서 보건전문가를 훈련한 뒤에는 정기적이며 지원적인 감독이 요구되었으며 지식과 기술의 유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따라야 했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보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행정구역에서 기초보건전문가들을 위한 훈련워크숍도 실시했다. 여기에서 보건응급상황 대비계획을 요약하고 업데이트했으며, 병원 응급상황 계획을 브레인스토밍하는 세션을 가졌다. 워크숍에는 행정구역의 보건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찰들과 Myanmar Red Cross Society, Myanmar Maternal and Child Welfare Association 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응급환자를 즉각 병원으로 이송(emergency referral)하는 덕분에 생명을 구하는 케이스도 증가하였다. 특히 응급 이송이 잦은 케이스는 분만시간의 장기화와 고혈압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 경우 응급 분만을 한 케이스 중 절반이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이송(referral)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소와 개인의 판단에 따른 편향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는 프로그램 차원의 이송(referral)에 대한 규범적인 가이드라인을 개선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었다(DFAT, 2010: 31-32).

이와 함께 모성과 아동의 사망에 대한 후속조사 및 데이터 구축에 있어서도 향상이 있었다. 더불어 행정구역의 보건전문가와 이행파트너에 의한 공동 모니터링과 감독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보건 니즈가 충족하도록 보장했고, 매달 개최되는 기초보건전문가와 이행파트너 간의 회의에서 감독 방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후속 조치가 결정되었다. 보건위원회는 보건계획과 이행에 있어서 공동체의 참여를 도모했다. 예를 들어, 보건위원회의 회원들은 농촌보건센터에서의 회의를 통해 기초보건전문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공동체 수준에서의 보건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보건 활동을 조직했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본 프로그램에 의해 구축이 되었으며, 이들은 역량강화, 자금마련, 위원회의 기능적 위치를 모니터링 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의 또다른 중요한 활동은 영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재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보건전문 봉사자들은 생후 6개월-5년이 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양실조를 측정했고, 영양실조가 심한 아동들을 응급 이송(emergency referral)시키거나 마을의 음식저장소(Village Food Bank)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 또 숙련된 보건전문가들이 가족, 돌봄, 산모, 모유수유중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균형 잡힌 다이어트, 구충제거, 비타민결핍 예방, 그리고 위생(손, 물, 음식, 변소)에 관한 보건교육도 제공했다. 보건전문 봉사자들은 산모들과 모유수유중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의식제고 세션을 실행하였고, 요리(조리) 시범도 마을 단위로 개최했으며, Mother Support Group이 동료교육자(peer educ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건에 대한 메시지를 자신의 공동체 내의 어머니들에게 배포했다. 이로써 모유수유를 하는 생후 6개월 이하의 아동들이 2010년 31%에서 2012년 42.7%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영양에 대한 프로그램의 성과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국가 영양센터를 상대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해야하고 효율적이며 실질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2010년부터 12년까지 본 사업을 통해 조산사로부터 출산전 케어를 받는 여성이 20,451에서 37,635로 증가하고, 숙련된 산파의 간호(skilled birth attendance)를 받는 케이스가 출생아중 4,836명에서 19,084명으로 증가했으며, 출산시 보조 산파의 도움을 받는 케이스는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출산과 분만에 있어서 향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새로운 보조 산파(Auxiliary Midwives)와 공동체보건전문가의 훈련, 그리고 조산사를 위한 봉사 활동 지원에 있어서 양적·질적인 확장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전반적으로 본 사업의 비용효과는 WHO의 기준인 US \$150보다 다소 높은 US \$298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의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비용,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서비스 제공, 데이터 구축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DFAT, 2010: 53). 이러한 단점은 지역의 보건정책과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규격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
- 61) ADB 웹사이트의 성공사례(succes stories) 카테고리에서 소개하는 젠더 사업임.
ADB(2012a) Helping Women Through Water and Sanitation in Cambodia.
<http://www.adb.org/features/well-springs-new-hope> (접속일 2014.5.7.)
ADB(2006a) Project Data Sheet: Tonle Sap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ector Project. <http://www.adb.org/projects/34382-022/main> (접속일 2014.5.7.)
ADB(2011) Cambodia: Tonle Sap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ector Project, Completion Report. <http://www.adb.org/features/well-springs-new-hope> (접속일 2014.5.7.)
 - 62) 안전한 수자원에 접근 가능한 농촌 인구 비율 50%, 안전한 위생시설에 접근 가능한 농촌 인구 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함.
 - 63) 김은경 외 (2013)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Ⅲ): 여성정책 지식 공유 기반 구축” pp.46-48(미얀마) 에서 소개된 프로젝트 사례임.

〈표 Ⅱ-12〉 젠더분야 ODA사업에 대한 성 주류화(젠더관점 통합)사업 사례

1. ADB의 인도네시아 농촌 개발을 위한 공동체 강화⁶⁴⁾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주도하에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결과적으로 빈곤율이 상당히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율이 경제 위기 전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정부는 다시 빈곤율 감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방정부에 의사결정 및 자원 보유 등의 권한을 위임하면 개발비용이 낮아지고, 지방정부가 얻는 프로젝트 성과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개발을 위한 공동체 강화(Community Empowerment for Rural Development, CERD)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가난한 농촌 지역 공동체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세부목표로는 i) 지방 정부의 기관 및 인적 자원 역량 강화, ii) 소액 금융 및 소기업을 위한 농촌 금융기구 개발, iii) 시장과 공동체의 네트워크 구축 및 농업 생산성과 농외 비즈니스 기업 증진을 위한 인프라 건설이 있다.

프로젝트의 젠더 실행 계획(GAP)은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비전통 분야의 기술을 여성들에게 훈련시키며, 지방 정부 제도를 성 주류화하는데 초점을 두어 여성의 프로젝트 참여율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주요 젠더 전략으로는 i)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 단체 조직 및 여성의 니즈 강조, ii)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에서 여성이 프로젝트 실행자 및 수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설정, iii) 마을 공동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성 교육 및 지방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서 작성 지원, iv) 신용대출 이용 및 마을 개발 계획 과정에 가난한 여성과 소외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이 있다.

프로젝트의 젠더 실행 계획(GAP) 실행은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 수입이 적거나 전혀 없었던 여성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가정 평균 소득은 897,000Rp에서 1,847,000Rp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수입 증가로 인해 여성들은 공동체 기반 저축 및 대출기구(Community based Savings and Loan Organization, CBSLO)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창업 활동도 가능해졌다. 창업활동을 통해 가정 내 수입을 높이거나, 매우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어나가는 선순환 구조의 사례도 생기게 되었다.

또한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 중 34%,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들 중 43%, 국내 석사학위를 딴 학생들 중 60%, 해외석사학위를 딴 학생들 중 7%가 여성이었다. 고용된 프로젝트 조력자(NGO field facilitator)의 43%, 마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계획 및 관리에 참여하는 주민들 중 38%, 농촌 인프라 건설 책임을 맡은 단체의 회원 중 29%, 공동체 교육을 받은 수혜자 중 38%, 마을 관리자 교육을 받은 참가자 중 32%, CBSLO 회원의 55%, CBSLO 대출자 중 65%가 여성이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남성 및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여성이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자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필요성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소득을 여성도 함께 관리하게 되어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대출을 갚기 위해 남편과 가정 내 경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면서 남녀 간의 전통적인 관계가 점차 개선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재정, 비즈니스, 지도력, 운영 등에 관한 기술

을 교육 받음으로써 마을 활동 및 인프라 건설에 여성 참여율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곧 공동체 내에서도 여성들의 자신감과 권한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마을 인프라 건설의 경우 건설 관련 기술이 부족하여 여성 참여가 다른 분야에 비해 미비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과 같은 훈련 기관에서도 여성 대상 훈련과정에 전통적인 기술보다는 수입창출의 잠재성이 더 큰 다양한 비전통적인 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젠더 실행 계획을 잘 실행하여 상당한 양성평등을 이끌어 낸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2. WB의 베트남 3차 지방 교통(도로유지) 사업⁶⁴⁾⁶⁵⁾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은 도로 개선을 통해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프로젝트는 도로 개선을 통해 여행비용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여 농업 외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빈곤한 지방의 커뮤니티들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면, 프로젝트는 약 252,000km에 달하는 도로의 정비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베트남 인구 약 2/3 정도가 접근성 개선을 경험할 수 있는 수치로 조사되었다. 실제 도로의 정비를 통해 전반적인 학교 참여율, 건강 서비스 활용도, 사회 참여는 물론 성평등 개선 등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었다. 나아가 도로 접근성의 개선은 과거 고립된 지역을 연결하여 서비스, 물자, 네트워크의 이동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성 주류화에 있어서 해당 프로젝트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도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빈곤 및 고립 지역을 연결하기 위하여 소수 인종 여성 농부들에게 도로 유지를 맡기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는 세계은행의 젠더 실행 계획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 이행은 Lao Cai 지방의 여성 조합이 맡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성 주류화 이행 내용과 성과를 조명하자면, 세계은행이 소수 인종 여성 농부들이 지역의 도로를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약 1,533명의 여성들이 도로 엔지니어링과 유지 기술 훈련에 참가하였다. 프로젝트는 약 51km의 도로를 유지함에 있어서 소수 인종 여성들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의 사회적, 공적 역할을 개선하는 효과도 낳았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은 도로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매일 약 100,00 VND 정도의 급여 수준에서 여성 고용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소수 인종 여성을 인간 개발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성평등을 추구하였다는 데 부차적인 의의가 있다.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조망하자면 해당 사업을 통해 도로 유지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고 교통안전도 또한 개선되었다. 특히 소외된 지역들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었고 가구 경제도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여성의 의견 개진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는데 여성이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가구 운영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여아에 대한 교육 투자도 확대되었으며, 여성이 휴농 기간 동안 소득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났다.

3. AECID의 베트남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경제역량강화⁶⁴⁾

동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정폭력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감소하기 위해 베트남여성연맹의 재정 계획과 자원 동원 역량을 향상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감소에 대한 공동체의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베트남에서는 2008년부터 가정폭력방지법(Law o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이 시행되어왔다. 이 법은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과 가족 및 조직의 책임, 그리고 가해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시행에도 별 효과 없이 아직도 베트남에서는 가정폭력이 공적 위법행위(public offenses)가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만 비추어지는 성향이 강하며, 가정폭력예방과 제어를 담당하는 사법과 경찰 등의 효과적인 대응 부족으로 인해 폭력의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베트남여성연맹이 국내의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기 위해 피해자 센터를 조직하고, 피해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보호를 돕는 역할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베트남여성연맹의 제한된 자원, 가정폭력과 가정폭력 예방법에 대한 공동체의 의식부족,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이 정상인지 폭력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점, 가정폭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자료가 적절히 배분되지 않는 점,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신고를 해도 담당조직으로부터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점, 그리고 담당 기관과의 협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베트남여성연맹이 베트남에서 가정폭력을 다루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베트남여성연맹은 스페인의 AECID에게 기금을 지원받아 본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포괄적이고 다방면적 접근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훈련, 피해자 지원, 가해자 다루기, 포상, 네트워킹 등을 실행했다.

프로그램의 Phase 1 기간인 2010년에는 베트남의 Bac Ninh, Da Nang, Kon Tum, Can Tho 지방의 공동체와 학교에서 문화대회(cultural competition), 공동체모임/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책자, 연극, 질의응답, 시나리오 등을 커뮤니케이션 자료⁶⁵⁾로 개발하여 이용했다.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책자를 포함했다: (1) 가정폭력에 대한 연극(공동체에서 사용); (2)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싸움에 대한 연극(학교에서 사용); (3) 가정폭력에 대한 질의응답과 시나리오(공동체에서 사용); (4)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싸움에 대한 질의응답과 시나리오(학교에서 사용). 연극 책자는 A4용지로 70페이지 미만이며, 질의응답과 시나리오 책자는 40페이지 미만이다. 책자의 제작을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했으며, 컨설턴트는 양질의 자료와 적절한 콘텐츠를 선정하고, 질의응답과 시나리오 및 연극이 법적 규율에 맞고 젠더에 민감하도록 편집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프로그램의 Phase 2에서는 “화해의 이야기(Reconciliator Stories)”와 “신뢰하는 강의를 신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Manual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usted Addresses)”책자를 개발했다⁶⁶⁾. 화해의 이야기는 최근 2년 동안 일어났던 가정폭력의 성공적인 대처와 비성공적인 대처의 실례사례 30여개를 소개함으로써 현지의 직원들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배움의 자료로 쓰였다. 본 책자는 약 40페이지로, 첫 번째 파트는 사례에 대한 정보와 대응에 대한 묘사를 하고, 사례에서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했으며, 두 번째 파트는 화해(reconciliation)에 관한 기존의 규율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반면, 매뉴얼 책자는 프로젝트 경험을 통하여 개인과 현지 기관에게 믿음만한 강의(trusted addresses)를 신설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과 배움점을 제공하며, 이에 관련된 기존의 규율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본 책자도 약 40페이지로 구성되었다.

커뮤니케이션 자료와 책자를 사용하는 수혜자는 공동체, 프로젝트 협력자, 베트남여성연맹 직원, 가정폭력예방에 관련된 기관들을 포함했다. 또 본 책자들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싸움 예방을 위한 표준자료(reference material)로 공동체 활동, 문화대회/모임, 공동체회의, 클럽회의, 여성조직의 회의, 학교행사, 훈련코스 등에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 64) ADB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웹사이트의 사례연구(project case studies) 카테고리에서 소개된 젠더사업임. ADB(2006b), Project Data Sheet: Community Empowerment for Rural Development.
<http://www.adb.org/projects/32367-013/main>에서 (접속일 2014.5.9.)
 ADB(2010), Indonesia: Empowering Rural Women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 2010.
<http://www.adb.org/themes/gender/case-studies/indonesia-empowering-rural-women-through-community-development>. (접속일 2014.5.9.)
 ADB(2012b), Completion Report - Indonesia: Community Empowerment for Rural Development Project.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rojdocs/2009/32367-INO-PCR.pdf>. (접속일 2014.5.9.)
- 65) World Bank (2011), 참조하여 요약·기술함.
- 66) 장은하 외 (2013), 『미얀마·베트남 젠더 프로파일』, p.130 에서 소개된 프로젝트 사례임.
- 67) 김은경 외 (2013),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Ⅲ): 여성정책 지식 공유 기반구축』, pp.82-84(베트남)에서 소개된 프로젝트 사례임.
- 68) Hoilhpn 웹사이트 참조, <http://hoilhpn.org.vn/print.asp?newsid=16172> (접속일 2014.7.1.)
- 69) Ngocenter 웹사이트 참조,
<http://www.ngocentre.org.vn/jobs/consultancy-development-booklets-%E2%80%99Creconciliator-stories%E2%80%99D-and-%E2%80%99Cmanual-establishment-and-operatio> (접속일 2014.7.1.)

5. 소결

4개국의 원조체계와 정책을 살펴본 결과, 성평등 원조사업을 위해 공여국으로서 접근해야할 대상은 해당 수원국의 여성정책 담당부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국은 각기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파트너들과의 원조협의를 공식·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성평등은 그 협의체 내의 한 주제분야로 자리하고 있었다. 국가에 따라서 성평등 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누어지기도 하였으나, 정작 성평등 원조사업이 가시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수원국 여성정책 담당부처와의 협력에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세 개 국가와 달리, 원조협의체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젠더분야 역시 마찬가지였다. 필요에 따라 소집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같은 운영방식은 시간적 소모를 줄이고 사안이 발생할 때 집중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인도네시아 국가내 원조 공여기관간 네트워크가 매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여성정책 담당부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에 조정자 역할로 들어가 있어서, 형식적인 면에서는 부처의 성 주류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성평등 원조사업을 시행할 때 여성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베트남은 국가수준의 원조협의체가 있었으며, 주요 의제분야 중 세부분야로 여성의 직업훈련강화를 통한 역량강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베트남은 젠더분야 원조협의체가 UN Wome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성정책 담당부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부처의 성평등 원조사업은 분산되어 있었다. 노동보훈사회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부 그리고 베트남여성연맹이 주로 성평등 원조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슈에 따라서 이들 부처가 연합하기도 하였으나,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베트남의 성평등 정책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의지하는 형태도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사회주의 국가로서 해외 양자기구보다는 상징성을 가진 UN Women과의 협력이 국가적 차원의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크다.

캄보디아 역시, 국가단위의 원조수행체계가 있었으며, 성평등 원조와 관련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었다. 캄보디아는 독립적인 여성정책 전담부처가 존재하며, 성평등원조 협의체는 UNDP와 JICA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캄보디아 모든 부처에 성 주류화 액션그룹(GMAG)이 있어, 이 협의체 개최 시 전 부처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성평등 원조 협의체는 여성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나 원조사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여성부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 성평등 원조사업을 시행할 때 캄보디아 여성부가 인도네시아의 경우처럼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만큼 캄보디아 정부부처 간 자율성이나 권한이 명확한 측면이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각 부처내에 성 주류화 액션그룹(GMAG)이 여성부의 역할을 대신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정도로 부처내에서 성 주류화 액션그룹(GMAG)의 권한이 부여되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미얀마의 경우, 국가단위 원조수행체계가 있고, 성평등 원조 협의는 주로 UNFPA와 UNDP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미얀마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원조협의체라 할 수 있는 미얀마개발협력포럼(MDCF)이 2013년 1월 신설되었고, 2014년 1월에 2차 포럼이 개최되었을 정도로 개발원조가 공식화된 것은 최근이다.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이 과거 군사정부가 오래 지속되어 온 관계로 미얀마의 사회복지부는 양자기구들과 교류하기 보다는 다자기구들과 교류를 진행해온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 성평등 원조를 수행할 때,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수원국 정책과의 원조일치, 공여국간의 조화는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여성부가 사업을 먼저 제안하기 보다는 공여국 쪽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그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얀마는 성평등과 관련한 기본 정책과 법체계 정립이 더 우선시되는 상황이므로 기존의 UN 그룹들과 진행하던 작업 이외에 다른 수요는 드러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수원국들은 원조 의존현상이 높게 나타났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제발전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서인지, 이런 부분은 좀 덜 드

러나는 편이었다.

또한, 이들 수원국 성평등 원조사업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들 수원국 정부가 공여국으로서 한국정부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2010년 OECD/DAC에 가입하였고 물론 그 이전부터 공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성평등 분야쪽에 사업은 이들 4개국에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특히 각 국가의 성평등 원조 협의체에 한국정부가 참여한 실적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본 연구를 4년차 진행하면서, 아시아 국가와 한국은 많은 면에서 공통적인 것이 많고 이들 아시아 협력국에서는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 모델을 따르고자 하는 기대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비율이 아시아 국가에 치중해있으면서도 성평등 원조분야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인지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철저히 한국정부의 책임인 것이다.

다음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들 4개국의 성평등 원조의 수요를 정치, 경제, 인권 분야에서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형태로 아시아 협력국과 손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4개국에 대한 양다자 기구의 젠더 프로젝트에 대한 여성대상사업과 성 주류화(젠더관점 통합) 사업사례는 현재 2장에서 간략하게 몇가지의 사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례에 대한 것은 이 보고서의 별책부록을 참고할 수 있겠다. 또한 이들 성평등 원조사업 사례에 대한 좀더 면밀한 분석은 결론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III

아태지역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수요 분석

| | |
|-----------------------------------|-----|
| 1. 정치분야 | 113 |
| 2. 경제분야 | 130 |
| 3. 인권 및 폭력분야 | 153 |
| 4. 한국과의 협력사업 수요 및 한국의 CPS와의 연결 | 171 |
| 5. 소결 | 186 |

본 장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4개 협력국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현황과 수요를 파악한 결과를 총 망라한다. 본 장은 크게 정치, 경제, 인권 및 폭력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국별로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주체,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를 개괄하고자 한다. 그리고 4개국과 한국과의 협력사업 수요파악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한국의 유·무상 원조 전략을 통합한 국가별 최상위 원조계획인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에서 나타난 젠더부분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수요발굴 파악을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해온 수요조사, 역량강화 워크숍, 정책세미나, 심층면접은 현지 여성정책 담당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국별 상황에 맞춰 추진하였다. 위와 같은 다양한 수요발굴 조사의 표본은 현지 여성정책 관련 정치인, 정부 공무원, NGO 활동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요발굴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협력국의 현지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현지 맞춤형 조사 및 면접 문항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다음 표 III-1은 그동안 추진해 온 4개국별 성평등 원조 수요 파악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표 Ⅲ-1〉 4개국 여성정책 수요발굴 파악 과정 개요

|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캄보디아 | 미얀마 |
|---|---|----------------------------|---|----------------------------|
| 수요조사 • 추진 방법: 현지 기관 방문 및 설문지 배포 ⁷⁰⁾ | | | | |
| 기간 | 2011. 5 - 2013. 7 | 2013. 4 - 2013. 6 | 2011. 3 - 2013. 5 | 2013. 4 - 2013. 6 |
| 응답자 수 | 89 | 114 | 77 | 73 |
| 사업제안서 발굴 • 추진 방법: 여성정책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⁷¹⁾ | | | | |
| 기간 | 1차: 2011. 9 2차: 2012. 5 3차: 2014. 9 | 1차: 2013. 9 2차: 2014. 9 | 1차: 2011. 9 2차: 2012. 5 3차: 2014. 9 | 1차: 2013. 9 2차: 2014. 9 |
| 참가자 수 | 1차: 15 2차: 40 3차: 7 | 1차: 14 2차: 6 | 1차: 15 2차: 46 3차: 6 | 1차: 14 2차: 6 |
| 정책세미나 • 추진 방법: 현지 및 한국 정책전문가 분야별 정책공유 발표와 토론 ⁷²⁾ | | | | |
| 기간 | 2011. 8 | 2013. 7 | 2011. 8 | 2013. 9 |
| 참가자 수 | 32 | 9 | 46 | 3 |
| 심층면접 • 추진 방법: 사전교육한 현지 코디네이터를 통한 1:1 심층면접 ⁷³⁾ | | | | |
| 기간 | 2012. 3 - 2012. 6 | 2014. 4 - 2014. 6 | 2012. 3 - 2012. 6 | 2014. 4 - 2014. 6 |
| 대상 수 | 24 | 24 | 21 | 29 |
| 계 | 207 | 167 | 196 | 125 |

70) 수요조사 설문지 세부 문항 및 내용은 김은경 외 (2011) pp.227-238; 김은경 외 (2013) pp.255-266 참조.

71) 본 연구는 2011-2012년 1차 협력국으로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2014년에는 기존 1차 협력국과의 연구를 지속하면서, 2차 협력국으로서 미얀마, 베트남을 선정하였음. 2014년은 4차년도로서 4개국 모두를 포괄하며, 2014년 9월 실시한 워크숍은 협력국 간 여성정책 경험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4개국 전체를 초청하여 진행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IV장 참조.

72) 정책세미나 참가인원의 경우, 4개국별로 개최 장소(현지 혹은 서울), 개최 일수(1~3일)에 따라 상이함.

73) 심층면접 세부 문항 및 내용은 김은경 외 (2012) pp. 363-275; 본 보고서 pp.311-330 참조.

1. 정치분야

가.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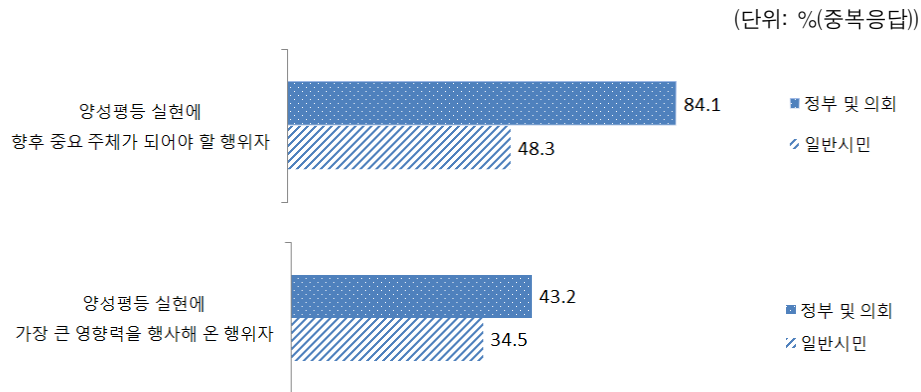
1)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인도네시아는 수요조사 결과 여성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는 응답자가 전체의 48%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이슬람 교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추세가 지속되며 여성의 지위 전반이 도전 받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김은경 외, 2011a: 137).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여성의 참여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응답으로는 정치 분야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27.68%가 여성의 정치 분야 진출이 증진되었다고 평가했으며,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가장 기대되는 분야로도 정당 및 정치 분야가 22.56%로 집계되어 1위를 차지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38).

또한 여성정책이 잘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여는 두 번째로 잘 되어 있는 분야로 꼽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여성부의 대표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로는 3.45%의 응답자만이 여성의 정치 참여 정책을 꼽았다(김은경 외, 2011a: 143).

2)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주체

인도네시아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영향력이 큰 행위자로는 수요조사 결과 43.2%의 응답자들이 정부와 의회라고 답했다(김은경 외, 2011a: 144). 또한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요 주체가 되어야 할 행위자로는 84.1%의 압도적인 비율로 정부와 의회가 1위를 차지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44).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양성평등 실현에 있어 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컸으며, 앞으로도 계속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주요 행위자임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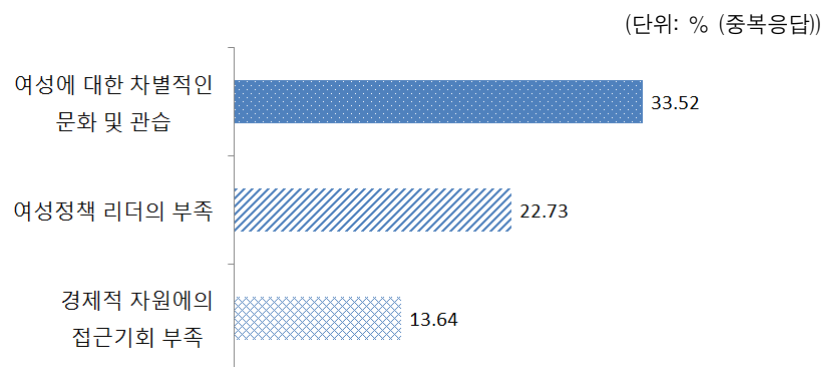


자료: 김은경 외(2011a), p.144.

[그림 Ⅲ-1] 인도네시아 수요조사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행위자

3) 여성 정치 참여의 장애 요인 및 개선 과제

2011년 실시된 인도네시아 여성정책 수요조사에서는 여성지위 향상 장애 요인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33.52%)이 1위, 이어서 여성 정책 리더의 부족(22.73%)이 2위, 경제적 자원에서의 접근기회 부족(13.64%)이 3위로 나타난 바 있다(김은경 외, 2011a: 137). 의사결정직을 맡고 있는 여성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이것이 전반적인 여성 지위 향상에 주요 장애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 김은경 외(2011a), p.137.

[그림 Ⅲ-2] 인도네시아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현지 수요조사에서 인도네시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2%, 실천분야가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8%가 여성의 정치 참여라고 보았다(김은경 외, 2011a: 146-147). 필요한 법 제도화, 실천 분야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각 35.71%, 29.55%)에 비하면,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제시된 10개 중 각각 7위, 5위를 차지한 수치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양성평등 사업을 실행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14.97%가 법안 통과와 정책형성을 위한 로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3위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1a: 146-147).

그리고 정치분야 심층면접에서도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은 장애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여성 정치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가장 큰 장애요인이 바로 사회문화 관습과 대중 인식에 기초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인도네시아 대중들은 정치를 남성의 분야로 인식하며 여성은 가정에 머물러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 게다가 종교주의 원칙에 따라 여성 정치인의 양성에 보수적이며, 여성 후보자는 공천 과정에서 남녀 차별하는 종교규범이 반영된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김은경 외, 2012: 47-48).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활동적일 필요가 없다는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여성은 부엌에서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인3, 여, 39, 야당 국회의원)

“골카르당 발리지부에 있는 동료들이 말하기를, 가장 힘든 부분이 여성후보를 내세울 때 종교적인 규범과 맞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4, 여, 54, 야당 국회의원)

두 번째 장애요인은 정당 공천기준에 대한 진입 장벽이다. 정당 공천에 있어서 연고주의가 중시되어 정당 내부에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귀족계층의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하다. 또한 금권선거 역시 연고주의 이상으로 여성이 정당에 공천받기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으며, 후보에 적합할 지라도 선거운동 자금을 부담하기 어려우면 선거에 출마하기 어렵다(김은경 외, 2012: 48-49).

“정당이 생각하는 좋은 후보의 기준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명성이나 부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5, 여, 32, NGO 활동가)

마지막 장애요인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평가와 여성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이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여성 정치인들의 자세가 소극적이고, 목표의식이 결여된 점과 성인지 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여성 의원의 활동이 부각되지 않으며 여성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에 충실한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김은경 외, 2012: 49-50).

“(여성국회의원들은) 그 수가 적은 것 외에도 소수로 분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 여성 국회의원들이 속한 정당이 다르고 (여성 국회의원들은 여성 이슈보다는 정당의 이익에 더 신경 쓰기 때문에) 여성의원들이 내는 목소리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여성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5, 여, 32, NGO 활동가)

인도네시아는 2009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정당이 여성 후보를 30% 할당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대하여 심층면접 결과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여성 국회의원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회 내 여성의 정치 대표성은 18.2%로 세계 74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 여성 국회의원의 평균 비율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김은경 외, 2012: 47).

인도네시아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개선 과제는 크게 제도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국을 광역으로 나눈 인도네시아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이며, 여성할당 30%라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다른 국가에 비하면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문화적, 종교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은경·박연선, 2013). 이는 연고주의와 금권선거에 기초한 정당의 관행과 종교에 기반을 둔 사회문화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성별보다 정당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 공천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선거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영제의 채택이 필요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정당의 기준이 확보돼야 한다(김은경 외, 2012: 5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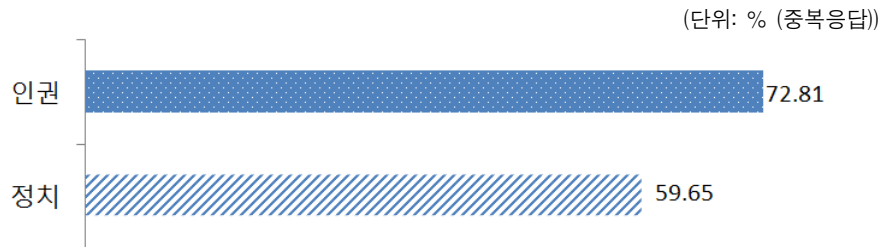
둘째, 여성 개인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즉, 남성적인 정치문화 관행에서 소수인 여성 의원들은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 스스로 세력화를 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문화적인 풍토가 여성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의식수 증가와 여성과 관련한 법과 정책의 제정이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 정치인과 국회의원의 의식 개선과 함께 로비 능력, 캠페인 능력, 정보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김은경 외, 2012: 51-52).

나. 베트남

1)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여성의 지위 전반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베트남의 경우 여성의 지위가 보통 수준이라고 파악한 사람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34%가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김은경 외, 2013: 99). 향후 여성의 참여 증진이 기대되는 분야로는 제시된 다양한 직종 중에서도 15.79%가 정당 및 정치 분야를 응답하여 1위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3: 100-103). 이는 향후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베트남 여성 정책들 중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한 사람은 6.14%에 머물렀으며, 잘 안되어 있다고 평가한 사람은 20.18%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3: 105). 그리고 수요조사에서 베트남 여성지위가 열악한 분야로 인권이 72.81%로 1위를 차지한데 뒤이어 정치가 59.65%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상당수가 여성의 정치활동 분야가 열악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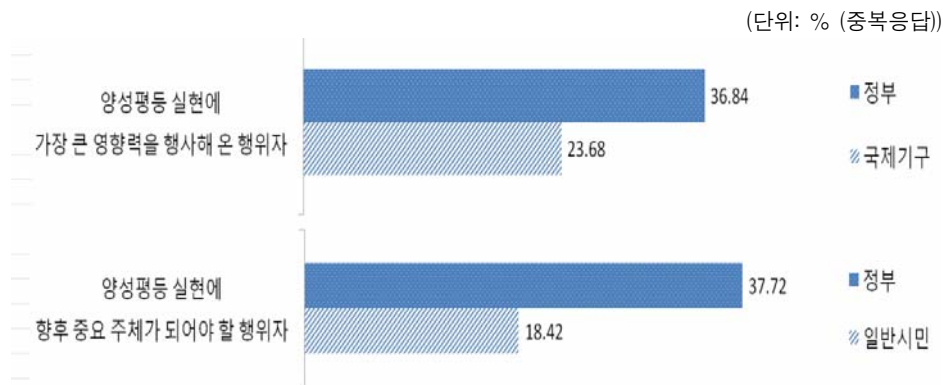
자료: 김은경 외(2013), p.100.

[그림 Ⅲ-3] 베트남 수요조사 - 여성지위가 열악한 분야

2)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주체

여성정책 수요조사결과, 베트남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는 정부가 36.84%로 가장 높았으며, 국제기구가 23.68%로 뒤를 이었다(김은경 외, 2013: 111). 그동안 국제기구가 베트남의 양성평등 이행에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앞으로 양성평등 실현의 중요 주체가 되어야 할 행위자를 묻는 부분에서는 2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향후 가장 기대되는 행위자에서도 정부가 37.72%로 1위를 차지하였는데, 2위는 일반시민이 18.42%를 차지하여 2위로 나타났다. 이제까지는 베트남의 경우 정치적으로 일당권위 체계가 확고하여 시민사회의 형성이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김은경 외, 2013: 121-122),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일반시민의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자료: 김은경 외(2013), p.111.

[그림 Ⅲ-4] 베트남 수요조사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행위자

3) 정치 참여의 장애요인 및 개선 과제

베트남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이에는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영향력이 미미한 점, 차별적인 법 체제의 존재, 직무순환과 연수 기회의 부족,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규범은 물론 여성 스스로 발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와 정치 세력화의 어려움 등이 포함된다(김은경 외, 2013: 140).

베트남 여성의 정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를 가능하게 할 정보와 영향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 공무원 및 정당, 정부의 고위 지도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젊은 여성 공무원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리더십에 대한 트레이닝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나아가 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나이 제한 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적용되는 정년이 동일하게 조정돼야 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김은경 외, 2013: 140).

2014년 진행된 베트남 여성정책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에서는 성 고정관념이 빈번하게 거론되었다. 정치참여나 지도자직 수행에서는 남성을 선호하고, 여성은 아직 가사일을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 성역할로 인해 여성들은 정치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되고,

참여하더라도 일·가정양립이나 사회의 편견에 맞서야 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직 남존여비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베트남 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지도자 자리의 경우, 여전히 사람들은 남성을 선호합니다.···국가의 정책은 사실상 심리적인 장벽을 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조건입니다. 여성들은 가정살림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일을 맡아야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베3, 남, 47세, 공기업 관계자)

“수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에 있어 가장 크고 명확한 원인은 각 정부 부처 지도자들의 여성 간부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들은 여성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꺼립니다.···여성의 짧은 은퇴연령 또한 문제가 됩니다.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는 남성과 같은 22세이지만 그 이후 최소한 10년은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데 은퇴연령마저 남성보다 짧아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기도 전에 은퇴를 해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베트남 여성들은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베5, 여, 52세, 베트남여성연맹 부회장)

“예를 들어, 남존여비와 같은 사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이 단순히 집안 일만을 담당하고, 바깥일은 신경쓰면 안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두 번째로, 지도자로서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 여성들이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베6, 여, 47세, 학계)

“일반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정치적 활동에 더 깊게 참여해야 하고, 관리자 또는 지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한번은 선거에 출마한 여성을 보고, 그 여성에게 표를 던지지 말라고 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녀를 야끼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녀가 당선된다면 그녀는 매우 커다란 노고를 견뎌 내야 할 것이고, 바빠질 것이고, 집에 있는 자식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사람들은 여전히 남성을 여성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두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7, 여, 41세, 학계)

또한 심층면접에서는 베트남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장애요인으로 양성평등 관련 법과 정책은 갖추어져있으나, 이를 이행해야하는 정부부처나 의사결정권자와 같은 주요 정책이행 주체들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현 13대 국회 내 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이전 12대, 11대 국회와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낮은 여성 대표 수치를 보입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이유는 바로 각 정부기관들이 여성 발전과 관련된 문제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 인사들이 여성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목표달성 실패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베1, 여, 37세, 정부 공무원)

“남녀평등은 아무리 목표치를 제시한다고 해도, 되면 좋지만 안 되도 큰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양성평등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아무도 앞 다투지 않는 겁니다.” (베2, 여, 62세, 현 국회의원)

현재 베트남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는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베트남 심층면접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개선과제로 국민대상 인식제고, 보다 강력한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 여성의원들의 질적 역량 제고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능력 있는 여성 간부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는 수적인 측면에도 집중을 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성 간부들의 실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질적인 향상에도 집중하여야 합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선전(캠페인)을 강화하여 각계각층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베1, 여, 37세, 정부 공무원)

“베트남 여성의 정치 대표성 증진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원과 주관적인 지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지원은 충분하고 강력한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현재 많은 지침, 정책, 의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 명단 내에 여성의 수가 충분치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혹은 전당대회를 뒤로 미룬다든지, 여성에게 본래 할당되어야 할 자리를 공식으로 두고 추후에 보충하든지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주관적 지원이란, 여성들 스스로 학문, 건강, 도덕성, 품격, 소질 등의 측면에서 국민들의 대표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5, 여, 52세, 베트남여성연맹 부회장)

“여성의원 특정 수의 비율을 목표로 한다면, 충분히 그 비율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그 다음에는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계속 고려해야 합니다.” (베6, 여, 47세, 학계)

그리고 베트남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에서 남녀 정년퇴직연령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는 점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분야 심층면접에서도 지적되었다. 남녀 정년퇴직연령에서의 차이로 인해 여성의 직무연수 및 승진기회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성이 리더, 간부급과 같은 의사결정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에서의 성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남녀평등은 법을 만들 때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즉 노동법을 만들 때, 우대사항을 만들기 전에 일단 남녀의 노동은 평등하게 해야 합니다.···노동의 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성 간부 임명, 진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계 없이 훌륭한 여성을 선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베2, 여, 62세, 현 국회의원)

다.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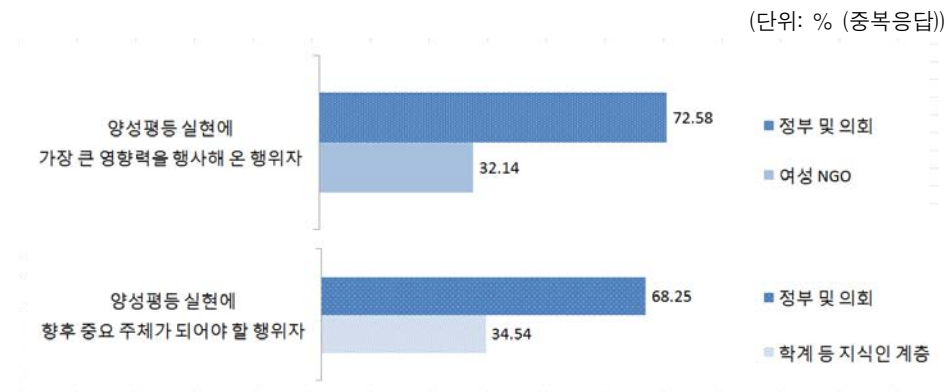
1)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캄보디아 여성의 지위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여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았으며 12%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하여 여성 지위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다른 협력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1a: 137). 정치 분야를 살펴보자면, 여성의 사회참여 현황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16.1%의 응답자가 정당과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진되었다고 보았으며, 24.07%가 정당 및 정치 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기대 될 것으로 예상 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37-138).

캄보디아 여성부의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여성의 정치 참여라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는데, 이는 폭력 철폐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다(김은경 외, 2011a: 140-141). 여성부의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여분야가 주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22.5%로 나타난 농어촌여성 지원에 뒤이어 여성의 정치 참여가 2위인 20%를 기록했다(김은경 외, 2011a: 140-141).

2) 양성평등을 향상을 위한 주체

캄보디아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와 의회를 1순위 행위자로 꼽은 응답자가 72.58%로 조사되었다(김은경 외, 2011a: 144). 또한 양성평등의 실현에 향후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할 행위자에서도 정부와 의회는 68.25%로 1위를 기록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44). 이는 곧 캄보디아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2순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제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는 여성 NGO(32.14%)로 나타난 반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에서는 NGO보다도 학계, 즉 지식인 계층(34.54%)이 2순위를 차지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44). 앞으로의 양성평등 실현에 있어 학계와 지식인 계층이 주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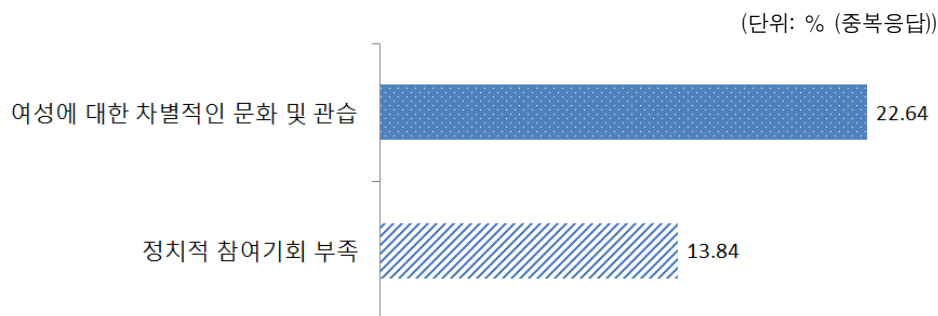
자료: 김은경 외(2011a), p.144.

[그림 Ⅲ-5] 캄보디아 수요조사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행위자

3) 여성 정치 참여의 장애 요인 및 개선 과제

캄보디아 여성정책 수요조사에서는 여성지위 향상의 장애요인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와 관습이 22.64%, 그리고 정치적 참여기회 부족이

13.84%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1a: 137). 여성의 정치 참여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전반적인 여성 지위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료: 김은경 외(2011a), p.137.

[그림 Ⅲ-6] 캄보디아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캄보디아 여성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의 경우, 정책 현황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여성의 정치 역량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및 정책(캄보디아 새천년개발목표와 니어리 라타나크 여성부⁷⁴⁾, 국가여성위원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이는 법과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그 요인으로 고위 공무원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법과 정책에 대한 존중 및 지도층의 의지 부족이 꼽혔다(김은경 외, 2012: 40-41).

여성 정치 참여의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면접 대상자에 따라 다소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현재 여성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소극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현직 여성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그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김은경 외, 2012: 44-45).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공통적인 장애요인이 크게 세 가지 지적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여성 후보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 여성의 정치 진출의

74) 캄보디아 여성부가 설정한 5개년 계획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5개의 전략 분야들 중 하나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은경 외(2011b), pp.26-30 참조.

대표적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정치권은 남성의 영역으로 분리하는 관념이 강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다(김은경 외, 2012: 44-45).

“여성 국회의원이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들은 사회 발전을 위한 일에는 직접 나서거나 목소리를 내지 않는 편이다.” (캄2, 여, 27, NGO 활동가)

다음으로 금권선거 관행이 여성 정치 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정치가 여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선입견과 맞물려 정치 참여를 저해하고 있었다.

“정당이 공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나이, 후보자의 경험이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실질적인 요인은 돈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면 의회 단위라 해도 돈이 없으면 선거 후보자에 등록하기가 어렵다.” (캄1, 여, 31, NGO 활동가)

셋째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평가와 후보 스스로의 역량 문제이다. 여성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사회문화적 고정관념을 마주하게 되고, 캄보디아 여성들은 가정과 일터 모두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하여 정치 참여가 부담이 되고, 가족의 지원 없이는 후보자 등록이 어렵다.

“여성이 후보자로 등록하면 그들은 후보자의 가정이 행복한지, 어떻게 사는지, 남편과 화목한지 추궁한다. 때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요구되는 점들의 차이가 여성들에게는 부담으로 안겨진다. 이는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면 그 여성은 일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캄1, 여, 31, NGO 활동가)

캄보디아 수요조사와 심층면접에서 파악한 결과, 캄보디아 여성의 정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는 제도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도적 측면으로는 금권선거 문화를 개선하고, 정당의 공천과정을 공정하게 마련해야 한다(김은경 외, 2012: 44). 특히 정당 내에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할당제 도입에 대한 노력에서 ‘적당한 번호’ 여성 정치인을 진입시키도록 하는 문구가 추가되는 정도에 그친다면, 애매모

호한 결과를 낳아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으므로, 결국 정당 차원에서 여성 정치인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김은경 외, 2012: 4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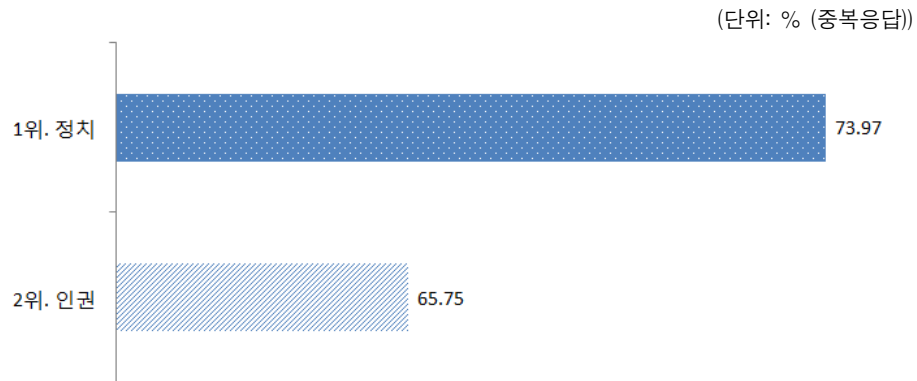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정치 활동 중인 여성 개인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하다(김은경 외, 2012: 44-46). 여성 정치인들의 의식이 개선되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면담자들의 평가가 있으며, 화술을 비롯한 정치적 기술과 경험을 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정당의 후보 공천 기준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 캄보디아의 문맹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여성부와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 지역 리더 대상 문해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김은경 외, 2012: 46).

라. 미얀마

1)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미얀마의 경우 설문지 응답자 중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열악한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73.97%가 여성의 정치분야를 선택하여 1위로 나타났다(김은경, 2013: 100). 이는 2위 인권(65.75%)과도 8% 이상 차이가 나, 이를 통해 미얀마 여성들의 정치분야 참여의 현 주소가 열악하다는 점을 가늠할 수 있다(김은경, 2013: 99-100).

그리고 미얀마의 여성 정책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분야로 9가지 중 여성의 정치 참여를 선택한 사람은 6.85%로 5위에 머물렀으며, 잘 안되어 있는 분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선택한 사람은 13.7%로 2위로 나타났다(김은경, 2013: 105).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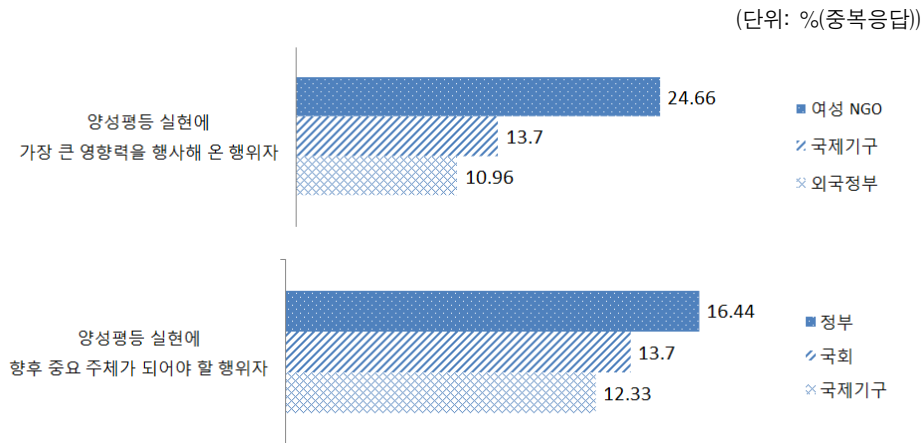
자료: 김은경 외(2013), p.100.

[그림 Ⅲ-7] 미얀마 수요조사 - 여성지위가 열악한 분야

2)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주체

2013년 수요조사 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는 여성 NGO가 24.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국제기구가 13.7%, 외국정부가 10.96%로 뒤를 이었다(김은경 외, 2013: 111). 미얀마에서 여성 NGO와 국제기구, 외국정부가 그동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는지 가늠할 수 있다.

반면 향후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할 행위자로는 정부가 16.44%로 가장 높았으며, 국회가 13.7%, 국제기구가 12.33%로 뒤를 이었다(김은경 외, 2013: 111). 이제까지 양성평등 실현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와 앞으로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주체 상위 1, 2, 3위가 각자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김은경 외(2013), p.111.

[그림 Ⅲ-8] 미얀마 수요조사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행위자

2014년 미얀마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에서는 정당, 특히 정당 대표의 의지가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에 주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당의 정책 수립시 특히 잠재력이 있는 여성이 있다면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국회 내에 보다 많은 여성 국회의원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정당 대표의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1, 남, 51세, 정부 공무원).

3) 정치 참여의 장애요인 및 개선 과제

미얀마의 여성 차별적 문화와 관습으로 인해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군부가 물러나고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군부정권 기간 동안 여성들이 정치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이에 따라 국가 계획에 여성의 수요(needs)와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아울러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위한 학습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김은경 외, 2013: 137-138).

2014년 미얀마 심층면접에 따르면, 국가가 민주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부정권 시기의 남성중심 문화가 잔존해 있다. 이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정치분야에서 남녀 평등한 정치참여가 싹트우기 어려운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국가가 현재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군부정권 때는 여성 정치 관련 규정이 원래 없었기도 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을 우선시 했습니다. 젠더라는 개념도 최근에 들어서야 들리는 것입니다.”(미8, 여, 46, NGO 활동가)

또한 심층면접에서는 미얀마 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는 전통적 관습에 따른 성역할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여성이 의원 활동을 하더라도 재당선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바깥에서 여성들이 일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집안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역할이 큼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능력과 시간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미3, 남, 35, 정부 공무원)

“유권자들이 남성을 여성보다 선호하는 경향은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더 무게를 두는 오래된 편견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의원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미5, 여, 44, 여당 국회의원)

미얀마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미얀마 내에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고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인적 자원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여성 참여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김은경 외, 2013: 139). 또한 여성이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개발전략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김은경 외, 2013: 138).

2014년 미얀마 심층면접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정치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할당제(quota system)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로 전환되고 여성의 정치 대표성에 주목하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

은만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할당제나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춘 미얀마 여성 인력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자체적인 평가도 있었다.

“할당제나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면 미얀마 국회 내 여성 수가 증가할 것인지 미얀마의 현황을 고려하면 아직 판단하기 시기상조이다. 용기있게 정치분야에 전면으로 나설 수 있는 여성들이 일단 적기 때문이다.”(미8, 여, 46, NGO 활동가)

“할당제는 미얀마 각 주, 도에서 남녀 차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각 주, 도에서 남성 6명, 여성 6명을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여성의원 비율이 50%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미9, 여, 69, NGO 활동가)

2. 경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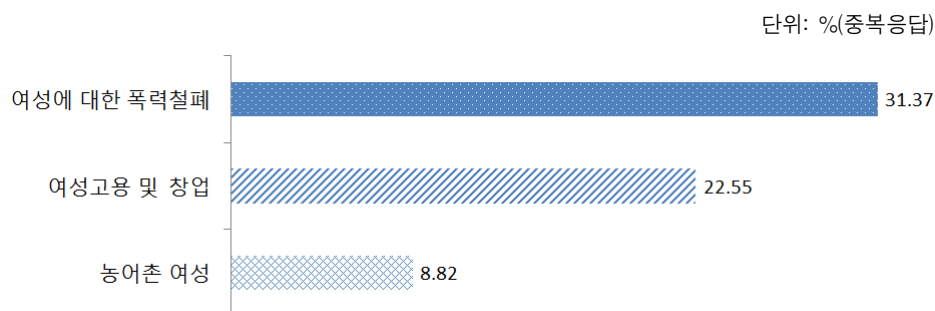
가. 인도네시아

1)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인도네시아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대체로 낮게 인식되고 있다.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문제의 심각성에 ‘대체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8%,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총 응답자의 83%가 여성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1a: 136-137). 많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로 이주하여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 정책은 부재하며, 가사도우미 외에도 여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저임금·고위험 직종 및 사회보장이 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남성보다 낮은 교육수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서 기인한다(김은경 외, 2012: 60-61). 이처럼 비공식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및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같은 여성이라도 사회적 지위가 더 낮게 인식되며, 정부의 혜택을 받기도 힘들다(김은경 외, 2012: 59).

인도네시아의 여성 고용 및 창업, 농어촌 여성과 관련한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정책 또한 정치 및 인권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실제로 2011년 설문조사에서 여성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분야로 정책의 성 주류화(약 24%)와 여성의 교육기회(약 17%)에 가장 많이 응답한 가운데, 농어촌 여성에 대한 정책이 공동 3위로 약 13%, 여성고용 및 창업에 대한 정책이 공동 6위로 약 8%의 응답률을 얻어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외, 2011a: 145-146). 한편, 여성부의 주력정책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여성고용 및 창업과 농어촌 여성에 대한 정책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김은경 외, 2011a: 142-143)에서 여성들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여성부의 활동 역시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1년도 설문조사 결과는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 폭력철폐(31.37%)에 뒤이어 여성고용 및 창업(22.5%)과 농어촌여성 분야(8.82%)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즉, 경제분야 정책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으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부족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김은경 외(2011a), p.140.

[그림 Ⅲ-9] 인도네시아 수요조사 -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있는 분야

또한, 2012년도에 실시된 현지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 여성노동자 보호와 양성평등 관련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이행가능성이 미약한 경우가 많으며, 법률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고 기업과 정부가 결탁하는 경우도 많아 기업이 어길 소지가 다분하여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김은경 외, 2012: 58).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을 전통적인 성 역할로 국한하는 내용의 법도 여전히 공존하며, 양성평등 법률이 현실에 적용되기 힘든 남성우월주의의 사회도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는 큰 요인이다(김은경 외, 2011a: 111-112).

여성들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해 직업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커리큘럼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수 후에 공식적인 경제분야로의 취업 연계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도 여성의 취업보다는 창업 지원에 더욱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창업 또한 여전히 전통적인 몇몇 직군에 한정되어 있다(김은경 외, 2012: 255). 여성들이 진정한 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소득 직군에 도전해야하며, 이는 여성들의 낮은 교육수준으로도 일하는 것이 가능한 전통적인 직군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성 노동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고급화 및 다양화가 전제된다(김은경 외, 2012: 255-256).

2)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주체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경제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주체는 기업인과 정부를 꼽을 수 있다. 2011년 수요조사 당시 설문조사에 기업인 항목이 부재하여 기업인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양성평등 실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 및 향후 중요 주체가 되어야 할 행위자 모두 정부 및 의회를 선택한 결과로 보았을 때(김은경 외, 2011a: 143), 정부 및 의회가 정치·인권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 정부 부처 중 여성정책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하는 부처인

인도네시아 여성부는 여성경제역량강화 부서⁷⁵⁾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타 정부 부처, 지역 여성 단체 및 NGO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1a: 245).

정부와 더불어 NGO 또한 경제 분야에서 여성을 고려한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어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주체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내 영세업 및 소기업을 위한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성인지적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는 5%만이 여성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반해, NGO의 경우 여성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이 22%를 차지하였다(SMERU, 2004; 김은경 외, 2012: 247-249 재인용). 물론, 여성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도 여성이 수혜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정부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더 많은 여성 사업자들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2: 249). 하지만 성인지적 관점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을 운영한 주체로 본다면, NGO도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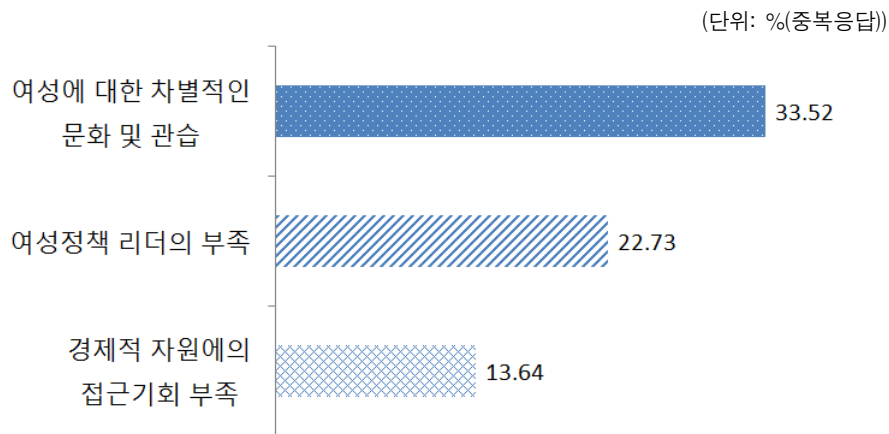
3) 경제참여의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경제 분야 참여가 미약한 것은 여러 장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즉,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2011년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그림 III-10 참조) 여성의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설명하자면, 여성은 가장이 아니므로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으며 가족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성 고정관념이 팽배하기 때문에 가족에 매여 있는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 승진이 힘들고, 창업을 함에 있어서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가내수공업 등의 소

75) 여성부 경제역량강화부서의 ‘2010-2014 5대 목표’는 (1) 성인지적 고용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정책 간 조화, (2) 협동조합, 소규모·영세사업체, 판매업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 형성 및 정책 간 조화, (3) 농림수산업 분야의 정책 개발 및 정책 간 조화, (4) 과학기술 및 경제자원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정책 간 조화, (5) 성인지적 인프라 정책의 개발 및 정책 간 조화이다.

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김은경 외, 2012: 60-61). 여아의 교육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된 여성의 낮은 교육 수준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을 받는 원인이 되며, 여성이 신용 대출 및 정부의 지원과 같은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김은경 외, 2011a: 136-137). 특히, 정부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다 보니 소규모 가내수공업을 하는 여성들은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김은경 외, 2012: 60-61).



자료: 김은경 외(2011a), p.137.

[그림 Ⅲ-10] 인도네시아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이외에도 여성 빈곤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불안정, 여성 경제 참여 관련 정책의 비일관성, 이행되는 여성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의 부재, ICT·네트워킹·마케팅 등에 대한 낮은 접근성, 정부 기관 간의 정책 부조화가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경제 참여 향상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김은경 외, 2011a: 172).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사회에 만연한 남성우월주의 철폐 및 남녀 모두의 의식개선이나,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관습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사업가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여성 사업가들이 전문 경영지식을 보유하여 기업을 운영한다면 기업 규모도 확대할 수 있고 여성 일자리 창출로 여성의 경제 참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성들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김은경 외, 2012: 59; 김은경 외, 2012: 62).

둘째, 직업훈련소 시설 및 교육 커리큘럼 현대화이다. 각 지역마다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접근하기 쉽지 않거나, 커리큘럼이 다양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예산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김은경 외, 2012: 59). 2012년 심층면접에서 한 인터뷰 대상자는 직업훈련 커리큘럼을 정부보다 시장이 주도할 때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훈련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김은경 외, 2012: 60-61).

셋째, 여성들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정책 대상자를 여성 중에서도 더욱 세분화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같은 여성이라도 가내수공업을 하는 여성, 비공식경제에 종사하는 여성,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 등 처한 상황은 다르며 이러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수혜 받을 가능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김은경 외, 2012: 59).

넷째, 여성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및 정책 이행을 통해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여야 한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다. 친여성적인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의 개입과 더불어 시장과 협력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김은경 외, 2012: 62).

그 외에도 여성 협동조합을 만들어 여성 간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면 여성들이 협상력을 가지는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2012년 심층면접에서 한 인터뷰 대상자는 한국의 여성 협동조합 사례에 관심이 많았으며, 따라서 한국의 사례는 인도네시아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외, 2012: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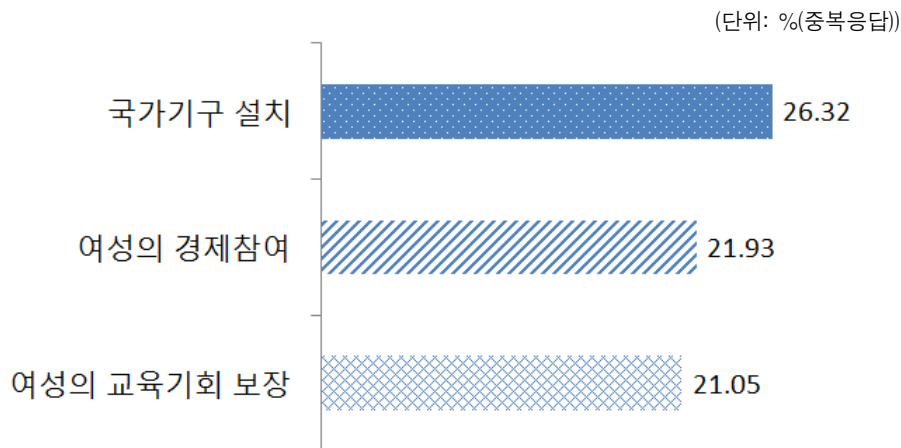
나. 베트남

1)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2013년 현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여성 지위에 대한 인식에 ‘보통이다’를 선택한 사람이 약 56%,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34% 정도에 머물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조금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김은경 외, 2013: 99).

그러나 설문조사의 결과와는 달리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중 78.2%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금 차별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MOLISA & ILO, 2010: 13; 김은경 외, 2013: 68 재인용).

2013년에 실시한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잘되어 있는 여성정책 분야로 국가기구 설치(26.32%)에 이어 여성의 경제참여 분야(21.93%)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얻었다(김은경 외, 2013: 105).



자료: 김은경 외(2013), p.105.

[그림 Ⅲ-11] 베트남 수요조사 -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가장 잘 되어있는 분야

한편, 잘 안되어 있는 분야로는 여성 인권 보장 및 폭력철폐가 22.81%의 지지율로 첫 번째로 꼽힌 가운데 여성의 경제참여는 5.26%로 부정적인 견해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김은경 외, 2013: 10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화와 실천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여성의 경제참여가 실천(12.28%)보다 법제도화(14.91%)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조금 더 앞섰다(김은경 외, 2013: 114).

베트남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여성 고용 및 창업, 농어촌 여성 정책을 포함하는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정책은 양성평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으나(김은경 외, 2013: 105), 법 내용으로 들어가면 성 불평등한 내용이 있어 베트남의 여성단체에서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노동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년퇴직 연령의 양성불평등이 있다. 남성은 60세인데 반해, 여성은 55세로 명시하고 있어 베트남의 여성 단체들이 정부에 이를 변화시키고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김은경 외, 2013: 69). 정부차원에서 여러 대안이 논의 되고 있으나, 베트남여성연맹 등 베트남 여성계는 성 차별적인 퇴직 연령에 반대하고, 남녀 동등한 퇴직연령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권용, 2013; 김은경 외, 2013: 68-69 재인용).

베트남에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노동법에서 여성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3: 104). 또한 여성 정책 중 가장 잘 되어 있는 분야에 여성 고용 및 창업, 농어촌 여성 관련 정책과 같은 여성 경제 참여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을 2013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외, 2013: 103-105).

경제 분야의 여성 관련 주요 법률 및 국가계획으로는 토지법(1987), 노동법(1994), 양성평등법(2006), 사회보장법(2006), 2011-2020 국가양성평등전략(2010) 등이 있으며, 이 중 ‘2011-2020 국가양성평등전략’은 두 번째 세부목표에 ‘경제, 노동, 고용분야에서 성 격차 감소: 농촌지역과 소수민족 여성의 경

제적 자원과 노동시장 접근성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3: 62-63).

2014년도 심층면접 결과는 여성의 경제참여에 있어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참여와 관련된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성들이 부담해야하는 가정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 역시 발견할 수 있다.

“이력서의 조건이 모두 같은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여성지원자를 채용하기 보다는 남성 지원자를 채용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남성들은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문제에 여성보다 덜 구속되어있지요.(중략) 일 자체를 수행하는 능력에 있어 성별이라는 요소가 별 상관 없는 영역에서도 이러한 가족적인 요소 때문에 여성채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9, 여성, 36세, 정부공무원)

“(구직자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요즘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녀평등법의 선전 덕분에 지금은 조금 더 교묘하게 작용할 뿐이지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차별을 하지는 않지만, 여성채용을 제한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중략) 남녀 근로자를 모두 채용하는 기업은 언제나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보다 나은 근무여건을 제공합니다.” (베11, 남성, 50세, 정부공무원)

한편, 베트남 정부가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강제력과 효과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노동법에 의한 여성의 출산휴가가 오히려 고용주들이 여성직원을 고용하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면도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남성고용주의 열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정책은 그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칠 뿐이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성 고용주들에게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책은 그저 외부적 요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중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시키고 싶다면, 고용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베10, 여성, 36세, 정부공무원)

“현재 노동법에 의하면 여성의 출산휴가는 6개월로 규정되어 있죠. 공장 조립라인 근로자로 여성들을 많이 고용하는데,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그동안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해야되는 겁니

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용주들이 여성채용을 주저하는 것입니다.(중략) 여성들을 꼭 채용해야 하는 직무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은 남성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베11, 남성, 50세, 정부공무원)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직업훈련 과정 역시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심층면접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과의 연계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직업훈련 과정에서 실습을 중시하는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직업훈련 과정에서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노동력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직업훈련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중략) 정부의 직업훈련은 30%의 실습과 70%의 이론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 고등학교, 직업전문대학교에서는 아직 이러한 직업훈련 대비 실습의 비용을 달성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용주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정부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너무 이론만 배웠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 최근에 읽은 신문기사에서도 ‘베트남 내 직업학교들은 단지 직업에 대해서만 가르칠 뿐이며,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취직도 못하고 시장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베트남 직업학교들은 지금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더군요.”(베15, 남성, 38세, NGO)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현재 베트남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베트남의 남녀 정년차별에 대한 의견이 교육수준과 직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교육수준이 낮은 블루칼라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정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사무직 여성들의 경우, 정년차별 철폐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여성, 특히 그중에서도 연구직, 과학자, 혹은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는 고학력 여성들은 60세까지 일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60세까지는 일해야 온전히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고,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12, 여성, 53세, 정당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반면, 권력이 없고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혹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찍 은퇴하고 쉬고 싶어합니다.” (베15, 남성, 38세, NGO)

이러한 베트남 정년연령의 남녀차이는 이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하여 차별조항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성별노동분업을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킨 제도이다(김은경·곽서희, 2014).

2)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주체

2011년과 달리 2013년 베트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성평등실현의 영향력 행위자에 대한 선택지로 기업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베트남에서의 2013년 설문조사 결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업인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3: 111). 향후 중요 주체가 되어야 할 행위자라는 질문에는 2%의 지지를 받았으나 40%의 지지를 받은 정부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김은경 외, 2013: 111).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 부처 내 여성 정책 담당 기구는 노동보훈사회부이며, 2008년 양성평등부가 신설되어 양성평등법과 정책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3: 54). 노동보훈사회부 외에도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중앙은 물론 지방연맹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조직구조를 갖춘 공산당 대중조직인 베트남여성연맹이 있다(김은경 외, 2013: 56). 양성평등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 추진 업무부터 관련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으로 베트남여성아카데미, 여성직업훈련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3: 56). 1980년대부터 벨기에 개발공사의 지원으로 소액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전국에 약 350개가 운영되고 있다(김은경 외, 2013: 58).

2013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의 경우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여성 경제 참여 정책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제가 지역의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외, 2013: 108-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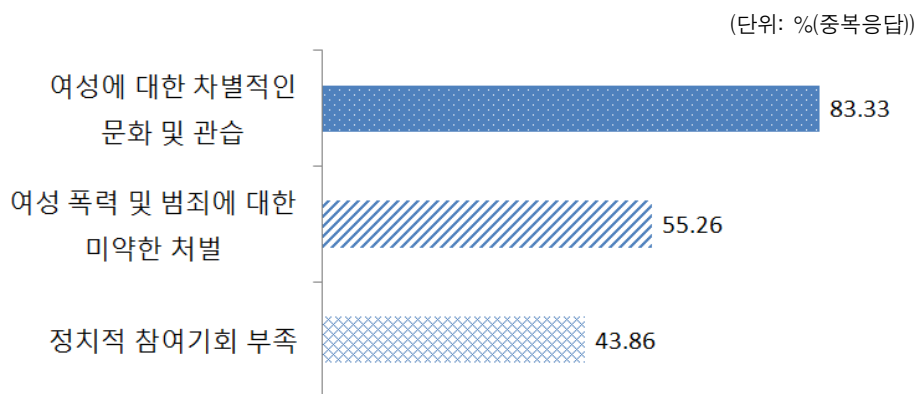
2014년에 실시된 심층면접에서도 정부정책이 경제참여에 있어 남녀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의 남녀차별적인 사회문화가 여전히 팽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

와 강제력 없이는 여성의 고용 및 경제참여가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사회경제조건은 아직 어렵습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남녀평등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베11, 남성, 50세, 정부공무원)

3) 경제참여의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

여성 경제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베트남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관련하여 2013년도에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가들이 여성지위 향상의 장애요인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와 관습에 83.33%의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김은경 외, 2013: 101).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가사노동에의 의무로 일·가정 양립에의 어려움을 겪어 이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김은경 외, 2013: 140). ‘여성은 남성보다 역량이 낮다’는 사회적 편견은 여성 기업인의 능력을 신뢰하는 않는 분위기를 형성한다(김은경 외, 2013: 140).



자료: 김은경 외(2013), p.101.

[그림 Ⅲ-12] 베트남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결코 낮지 않으나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조건, 정년연령의 차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위험 노출 가능성이 큰 비공식 경제부분에의 종사 등은 경제 분야에
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방해하는 요인이다(김은경 외, 2013: 68-69).

법적으로는 베트남이 가족 중심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
에 여성들이 가족을 떠나면 사회적 보호 장치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다(김은
경 외, 2013: 150).

이렇듯,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다고 하나 고용에서 여성의 차별이 공공
연히 발생한다면 이는 여성의 경제 참여가 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긍정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여성도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호시스템에서
소외된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양
성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조항들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실현의 가장 큰 주체인
정부의 노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도의 심층면접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 전문가들 대부분 역시 여성
들의 경제참여를 제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을 꼽고 있
다. 여성의 출산 및 전통적인 가정 내 성역할이 여성의 취업과 경력유지, 그
리고 승진을 방해하는 요소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의 남녀차별 철
폐를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가정의 일은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진행된 심층면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가족’과 ‘가정’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가 전통적인 가정 내 성역할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
하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가정 내 경제역할의 책임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전적으로 있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모델’의 사회문화를 엿볼 수 있다.그리
고 이러한 남녀차별적 성별 고정관념은 도시에서보다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자신의 사업 운영에 있어) 남성은 여성과 다릅니다. 남성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그것이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성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여성과 비교해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베13, 여성, 연령, 정당인)

“오늘날 도시 여성들은 이전의 전통적 관념에 예전만큼 큰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성은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 여성은 농사일은 보조해야한다는 등의 전통적 관념은 현재에도 농촌여성들의 시장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9, 여성, 36세, 정부공무원)

“베트남 여성들은 가족들을 돌볼 시간이 많이 남는 교사나 사무직 등의 일들을 선호합니다. (중략) 남편들도 아내가 이러한 직업들을 갖는 것을 선호하지요.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은 교사, 공무원, 연구원 등을 (직업으로 갖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하여 남는 시간에는 자식들을 돌보지요. 여타 경제적인 문제는 남편이 해결하고요.” (베15, 남성, 38세, NGO)

다. 캄보디아

1)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캄보디아의 여성 노동자들은 1차 산업, 그 중에서도 의류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류산업이 캄보디아 전체 외화수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함을 감안할 때 여성들도 캄보디아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김은경 외, 2011a: 89-90, 김은경 외, 2013: 213). 그러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곧 경제역량이 낮다고 인식되어 임금 차별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1a: 89-90). 또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춘 여성 대상 직업 훈련 부족, 출산,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도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 전통적인 직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본다(김은경 외, 2012: 56-57).

이에 따라 캄보디아는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차별에 대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자 니어리라타나크와 여성개발센터 운영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법과 제도의 법제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법으로는 헌법 31조/36조(1993), 노동법 172조-188조(1997), 토지법(2001)에서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준한 국제조약으로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1982), 베이징 행동강령(1995)이 있다(김은경 외, 2012: 224). 그러나 이러한 법률 및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김은경 외, 2012: 224).

2)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주체

경제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주체는 기업인과 정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설문조사 당시, 기업인은 항목이 부재하여 기업인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양성평등 실현의 영향력 행위자 및 향후 중요 주체가 되어야 할 행위자 1순위로 약 70%의 지지율로 정부가 선정되었다(김은경 외, 2011a: 143-145).

이러한 정부 내 부처 중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주도하는 부처는 캄보디아 여성부(MoWA)이다. 거시적으로 주요 국가 계획 및 전략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정부의 양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김은경 외, 2012: 225). 여성부 내에서도 특히 양성평등 및 경제개발국(General Directorate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에서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를 전담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지역여성부(Provincial Department of Women's Affairs)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수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 직업 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2: 225).

3) 경제참여의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장애가 되는 첫 번째 요인은 성 차별적 문화와 관습을 꼽을 수 있다. 여아의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한 여성들의 낮은 교육수준과 여성의 경제 역할을 가사노동으로 국한시키는 사회적 편견은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2: 5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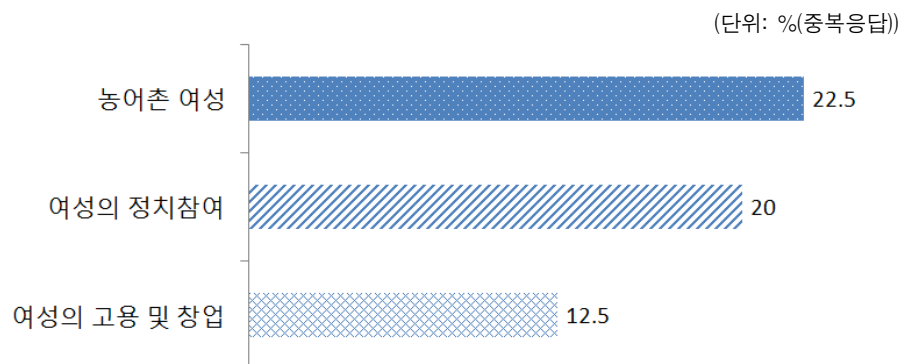
다양한 직업교육 커리큘럼의 부재도 여성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유망한 직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 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성 관념에 기반한 기술만을 교육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새로운 분야의 역량 개발에 효과적이지 않다(김은경 외, 2012: 56-57).

또한 여성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 낮은 취업 연계 가능성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과정 이수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데 필요한 예산부족

으로 정책 이행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외, 2012: 55). 이에 대해 민간 기업에서 일부 투자하여 시장의 수요가 있는 직업기술을 교육하고 이수한 우수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김은경 외, 2012: 55).

위 세 가지 요인 외에도 출산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농촌지역 여성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경제적 자원への 접근 기회 부족, 가정의 경제 및 자산에 대한 제한적인 통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의 제한적인 참여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김은경 외, 2011a: 137; 김은경 외, 2011a: 171-172).

여성의 경제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여성들이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전통적인 직업훈련을 통한 여성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유망한 직종으로 진입 가능성을 높여주는 커뮤니케이션 및 경영 기술, ICT, 마케팅 기술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김은경 외, 2012: 57). 또한 창업아이템은 있으나 자금사정으로 창업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을 독려하고, 여성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법의 개선이 요구된다(김은경 외, 2012: 57).



자료: 김은경 외(2011a), p.140.

[그림 Ⅲ-13] 캄보디아 수요조사 -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있는 분야

한편, 캄보디아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특히 농어촌 여성들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은 2011년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서도 지적된 바 있다(김은경 외, 2011a: 140; 그림 III-13 참조). 2011년도 설문조사에서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가장 안 되어있는 분야로서 현지 전문가들은 농어촌 여성분야를 가장 많이 지목하였다(22.5%). 농촌여성은 시장 확보와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으로 생활 및 경제 역량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농산물 가격 안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김은경 외, 2012: 57-58). 물품 판로 개척을 통한 시장 확보 및 가격안정성 보장을 위한 농촌여성들의 목소리를 키우고자 여성노동조합이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은경 외, 2012: 57-58).

라. 미얀마

1)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2013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2%,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로 과반 수 이상이 미얀마 여성은 대체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였다(김은경 외, 2013: 99).

사실 미얀마 여성은 교육열 및 교육 성취도가 다른 인근 국가들에 비해 높고 문해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및 사회진출도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김은경 외, 2013: 33-34).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대부분 농업에 집중되어 있고, 미얀마 헌법에 동종업에서 남녀는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다(김은경 외, 2013: 213). 비공식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15세 이상의 미얀마 여성도 절반 이상에 해당되며 농촌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김은경 외, 2013: 32-33 재인용).

미얀마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주요 법률 및 정책으로는 기혼여성 재산법(1874), 불교여성특별법(1954), 사회보장법(1954), 근로자 기본 권리 및 의무(1964), 미얀마 광산법(1996), 인신매매방지법(2005) 등이 있으며, 2013년 10월 3일 공표된 미얀마 여성발전국가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013-2022)의 12개 분야 중에 ‘여성과 경제’를 하나의

분야로 포함시켰다(김은경 외, 2013: 27-31).

2013년에 실시한 미얀마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잘 되어 있는 분야로 여성의 교육기회 보장(19.18%)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가운데 여성의 경제참여(여성고용 및 창업, 농어촌 여성 정책)는 6.85%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김은경 외, 2013: 105). 한편, 잘 안 되어 있는 분야로는 여성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31.51%)가 첫 번째로 꼽힌 반면, 여성의 경제참여는 1.37%에 머물렀다(김은경 외, 2013: 105).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아직까지 미얀마 내에서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4년도에 수행된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미얀마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미얀마 내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임금노동자로서 더 많이 일하게 되는 이유로 자본과 기술의 부족 문제를 들고 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국가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만약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자영업자까지 포함한다면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진입에 있어 미얀마의 몇몇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개인적’ 선호와 역량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개인의 능력과 선호에 따라서 여성들이 갖는 직업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로 일하느냐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대한) 기호는 개개인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몇몇은 개인으로 일하고 싶지만 자본금이 없어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한편, 몇몇은 개인으로 일하면 손해가 많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평사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11, 여성, 47세, 정부공무원)

“정부에서 일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성에 대해 차별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성들도 회사에서 꽤 높은 직급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잘나면 잘난대로 되는 것이죠. 당연히 잘 하지 못하면 못 얻는 것이고요.” (미13, 여성, 45세, 국회의원)

그러나 개인의 역량과 선호는 교육수준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여성을 보자면 아들과 딸이 태어나면 아들만 글을 가르칩니다. 딸에게 그다지 글을 가르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이에게 여자들이 집에서 집안일을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모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미14, 여성, 40세, NGO)

한편, 여성들을 위한 취업교육이라든지,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등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적극적 개입 면에서 미얀마 정부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얀마여성연맹에서 채봉 등 여성들을 위한 직업기술 훈련을 일부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나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이고, 여성자영업자/기업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국가 전반적으로 경제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의 부재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미얀마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적습니다. (여성) 모두가 자력으로 스스로 노력하여 발전하기 위해 스스로 연수를 받고 노력합니다. (중략) (여성발전을 위한 법이나 정책, 계획도) 있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찾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도) 있긴 있겠지만, 적습니다.” (미13, 여성, 45세, 국회의원)

2)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주체

2011년과 달리 2013년 베트남과 미얀마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의 영향력 행위자에 대한 선택지로 기업인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2013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얀마의 경우, 현재까지 양성평등 실현의 영향력 행위자에 대한 문항에서 기업인이라는 답이 0%로 양성평등 실현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향후 중요 주체가 되어야 할 행위자에 대한 응답에서는 기업인이라는 답이 8% 이상의 응답율을 보였다(김은경 외, 2013: 111). 이러한 점에서 미얀마 정책전문가들은 지

금까지 기업인들이 양성평등 향상에 기여해 온 것보다,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여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양성평등 향상의 중요 주체로 지목받은 정부의 경우, 사회복지부와 재활과(Rehabilitation Division)에서 여성정책수립 및 실행을 전담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3: 21). 사회복지부 사회복지국(Department of Social Welfare)내의 젠더실에서는 여성정책 수립 및 외부 기관의 자문 조율,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재활과(Rehabilitation Division)에서는 미얀마 여성의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역량강화를 위해서 여성개발센터 및 여성직업훈련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3b: 21-22). 마지막 중요 주체인 미얀마여성연맹(Myanmar Women's Affairs Federation)은 사회복지부가 수립한 여성정책을 직업훈련센터 등을 통해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3: 24).

덧붙여 경제는 지역의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얀마의 경우 여성 경제 참여 정책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김은경 외, 2013: 108-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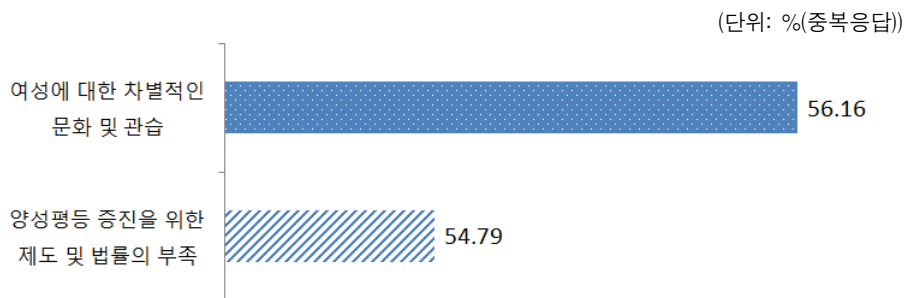
그러나 2014년도 심층면접 결과는 앞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있어 영향력 있는 주체로 파악된 정부의 역할/노력에 대해서 거의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3년도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중요한 주체로 인식된 만큼, 향후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경제참여의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

UNDP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75%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얀마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UNDP, 2013; 김은경 외, 2013: 217 재인용). 또한 미얀마 여성들은 재산소유권 및 양성평등 권리 등을 일찍이 법적으로 보호 받아 왔다(장은하 외, 2013: 29-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우월주의로 대표되는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은 여성의 경제 참여 장애요인이 된다. 2013년도에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파악되듯이,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1위, 56.15% 응답)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 및 법률 부족(2위, 54.79%)과 함께 여성지위 향상을 방해하는 요소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요소는 여성들의 경제참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외, 2013: 100-102).



자료: 김은경 외(2013), p.101.

[그림 Ⅲ-14] 미얀마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미얀마에서는 법적으로는 양성평등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해 있고 ‘일부다처제’와 같은 관습법도 존재해 성문법과 관습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장은하 외, 2013: 29-33). 농업 및 소규모 자영업과 같은 비공식 분야에 여성 노동자가 집중되는 현실과 남성과의 임금 격차 등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결과이다(김은경 외, 2013: 67-68).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의 부재도 여성 경제 참여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장은하 외, 2013: 116-117). 여성의 경제참여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은 있으나 여성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은 아직 법제화 되지 않았다(김은경 외, 2013: 27). 토지소유법과 같이 현재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및 사회적 보호 내용을 포함한 정책이 존재하나 남성우월주의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잘 이행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장은하 외, 2013: 32-33).

여성의 경제 참여 장애요인을 고려했을 때,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역시 남성우월주의 사상이 팽배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이다. 미얀마는 예로부터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판단되나 사

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 심층면접 결과도 미얀마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을 차별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차별적인 문화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심층면접 대상 전문가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 스스로의 의식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많은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만 있는 백수의 비율은 여성이 더 높습니다. (중략) (많은 교육받은 여성들이) 돈이 없어도 졸업 후에 집에만 있습니다. 여성이 바깥에서 일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14, 여성, 40세, NGO)

“여성이 지시한다는 것은 항상 심사숙고를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말 중의 하나가 남성들을 누르는 말이 되지 않는지, 내 자신이 소수종족이기에 그냥 말한 것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같은 것에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여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식(의 개선)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17, 여성, 47세, NGO)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차별요소는 특히, 여성이 관리직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와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에서 관리직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여성들은 사회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승진에 있어 더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일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도 관리직이 될 때까지 외국회사에서 근무했는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장벽과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중략) 이 사회가 정해놓은 성역할이 아직 우리에게 존재하고, 여성이 더 높은 지위에 가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남성의 발언과 여성의 발언에 대해 가끔 그 자신감이나 신뢰도에 있어서 아직 차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사회적 관습을 기초로 하여 성별에 따른 수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미15, 여성, 40세, NGO)

또한, 전 국가적인 인프라의 부족 문제 역시 여성들의 좀 더 활발한 경제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 파악된다. 우선, 미얀마의 은행시스템의 부재는 여

성들이 자본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교통시설의 부재 역시 여성들이 시장에 접근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기술의 부족 문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여성사업자들의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들의) 시장접근을 돕고 사업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증된 (사업) 파트너와 투자자와 함께 이들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미15, 여성, 40세, NGO)

한편,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여성들의 경제참여가 훨씬 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대부분 가정의 농사를 돕거나, 농산물 및 축산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농축산품의 판매 시, 생산품을 별도의 가공 없이 시장에 내다파는 실정이라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한계와 시장 접근성 역시 제한적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식 역시 도농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얀마의 농수산업은 아직 1차 생산물 정도만 생산 가능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료를 외국에 수출한 뒤 다시 역수입되는 물건들을 사용하는 수준이라서 (여성들이 농업, 수산업, 축산업에 모여서 일할 지라도) 이익이 생길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미18, 여성, 48세, NGO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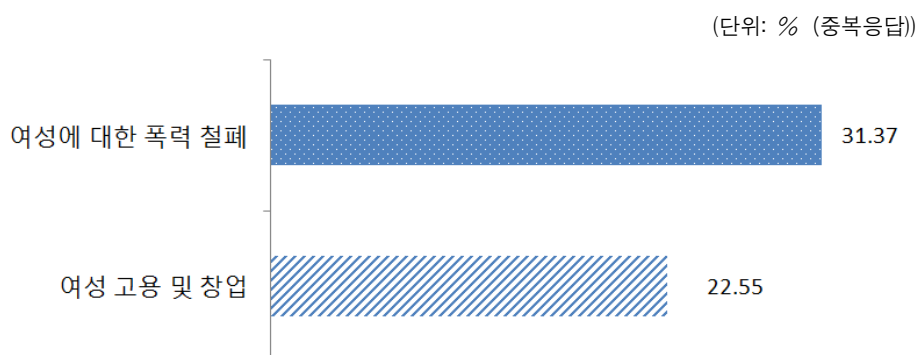
“양곤에서만 하고 있는 활동들이 시골에서도 진짜 필요합니다. (중략) 시골지역의 개인사업주를 위한 리더십에 대한 여성의 경험공유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농촌지역 여성들의 자신감이 올라가면 그들의 경제활동도 활발해질 것입니다.”(미14, 여성, 40세, NGO)

3. 인권 및 폭력분야

가. 인도네시아

1) 인권과 폭력 관련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2011년 수요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여성정책 중 가장 잘 안되어 있는 분야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31%)가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1a: 140). 여성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정책분야는 정책의 성 주류화가 가장 많았고(24%), 다음이 여성의 교육기회(17%)였으며, 농어촌여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는 모두 13%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김은경 외, 2011a: 141). 양성평등 법제도화가 필요한 분야로는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 철폐(28%)가 1위를 차지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46). 인프라가 되어있지 않은 분야이면서 법제도화가 필요한 분야 중 1위가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 철폐로 지적된 것은 이 분야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 이것으로 보아 인도네시아에서는 폭력철폐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료: 김은경 외(2011a), p.140.

[그림 Ⅲ-15] 인도네시아 수요조사 -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분야

2012년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은 여성인권의 무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한 사안으로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사회의 가부장성은 전통과 종교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으며 여성주의적 시각은 아직 대중에 의해 인지되지 못하거나 지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CEDAW 등 국제 기준을 인지하고 또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인권 확립을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 전체의 태도와는 큰 격차가 존재함이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2: 76-78). 다음 심층면담자의 설명은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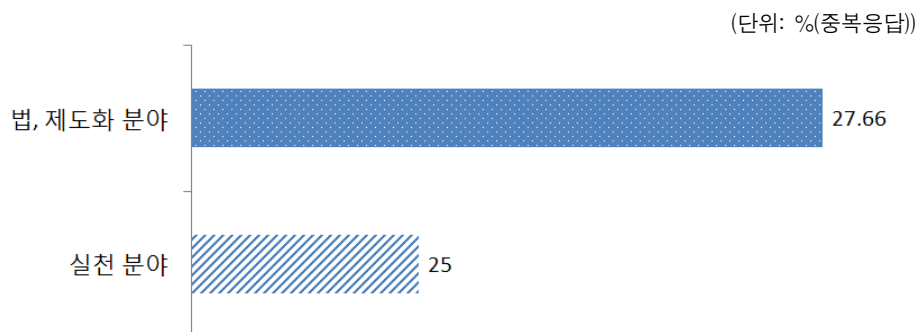
“성폭력이나 성범죄를... 종교적으로 이를 신의 뜻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폭력이나 성범죄는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습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관습법을 적용할 때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가족을 흠치는 범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20, 여, 43세, 학계)

2)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현재 영향력 행위자 및 향후 주체

2011년에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에 대해서 정부 및 의회라고 대답하였으며(43%), 다음이 여성 NGO(30%)였다(김은경 외, 2011a: 144).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향후 어떤 주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1순위에서는 정부 및 의회를 꼽았으며(84%), 2순위에서는 일반 시민이 48%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김은경 외, 2011a: 144). NGO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개선요구가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여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일반국민의 의식개선 활동이 29%였으며, 그 다음 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보호활동이 14%였다(김은경 외, 2011a: 145). 인도네시아는 정부에 대한 개선요구를 여성NGO에게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법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법제도화의 요구가 28%로 가장 많았다(김은경 외, 2011a: 146). 법제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

인 실천이 필요한 분야로는 역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가 가장 많아(25%) 여성에 대한 폭력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법제도 및 정책의 뒷받침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40%)을 차지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46). 양성평등 사업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25%), 다음으로 여성문제 알리기 캠페인(16%), 그리고 법안통과 및 정책형성을 위한 로비(15%) 순으로 답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47). 여성들 자신의 역량강화는 양성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고 여기에 법제도와 남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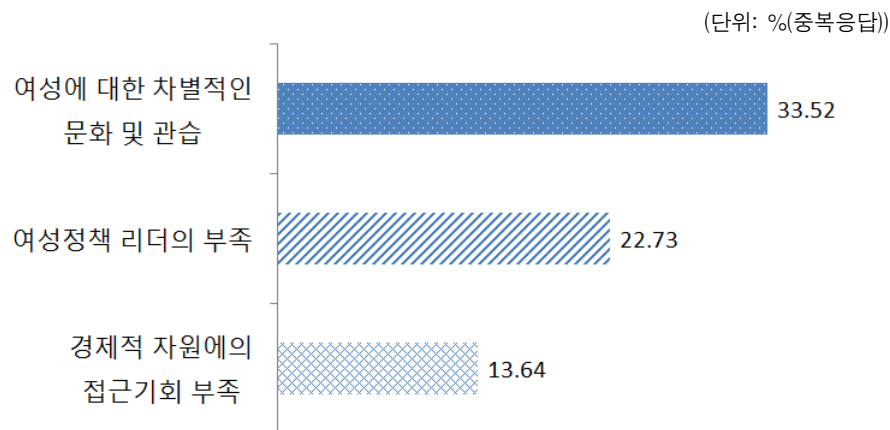
자료: 김은경 외(2011a), p.146.

[그림 Ⅲ-16] 인도네시아 수요조사 - 양성평등을 위해 법제도화/실천이 필요한 분야 중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대한 응답

3) 여성 인권증진 및 폭력철폐의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

2011년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전반적 여성 지위 향상 장애요인으로 차별적 문화와 관습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34%), 그 다음 여성정책 리더의 부족(23%)과 경제적 자원에서의 접근기회 부족(14%)이 뒤따른다(김은경 외, 2011a: 137). 정부와의 협력관계에 가장 문제가 많은 분야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철폐 정책이다(김은경 외, 2011a: 151). 2011년 8월 실시된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도네시아 여성부

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관련 정책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미진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폭력피해자 지원센터가 턱없이 부족하고, 운영 예산이나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종교적, 관행적 폭력에 대한 우려 역시 표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샤리아법(이슬람 기본법)’⁷⁶⁾에 따라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후퇴하였기 때문이다(김은경 외, 2011a: 152).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는 존재하지만 경찰이나 상담소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NGO 차원에서 폭력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국토의 광대성 및 확산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김은경 외, 2011a: 152).



자료: 김은경 외(2011), p.137.

[그림 Ⅲ-17] 인도네시아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보다 심층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폭력 관련 사회문화적 특성과 대중의 인식 또한 폭력철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사회가 가부장적이며 또한 반여성적임을 역설한다. 이슬람이 주를 이루는 종교도 여성인권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히 ‘잘못된 종교적 해석으로 인해 폭력을

76) 이 법에 따르면, 여성은 공공장소에 나갈 수 없고 머리를 가려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일부다처제가 가능하다.

합법화하는' 경우가 많다(김은경 외, 2012: 77). 또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 및 관습이 성폭력을 '자연스러운 일'이며 범죄로 여기지 않는 대중의 인식을 만들어 내는 문화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성폭력 희생자를 오히려 문제 제공자로 간주하며 불명예스럽게 여김으로써 재피해를 발생하게 한다.

2012년 심층면접의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국가적으로 여성인권 향상과 폭력 철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요소와 법체제의 미비, 예산부족 등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2: 79). 우선 관련법으로는 1945년 헌법과 CEDAW, 가정폭력 관련법 등이 있지만 성폭력관련법은 없고 현재 형법상에는 성폭력을 범죄로 취급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 체제 하에서 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재범 방지에 대한 메커니즘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소홀하다(김은경 외, 2012: 77). 지역예산의 한계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기관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과 성추행을 다루는 특별법이 없어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재범 방지 및 예방의 효과가 없고 피해자 구제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고 한다. 더구나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시켜 문제해결을 위해 여성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여성 폭력 해결을 위한 과제로, 2012년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여성 폭력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시각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은 아직도 여성인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체적 법령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입을 모았다(김은경 외, 2012: 80).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 없는 사법기관 절차 개선 및 사법 공무원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며, 공교육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 국가 전체 차원의 총체적인 반폭력 캠페인을 펼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 폭력 피해자의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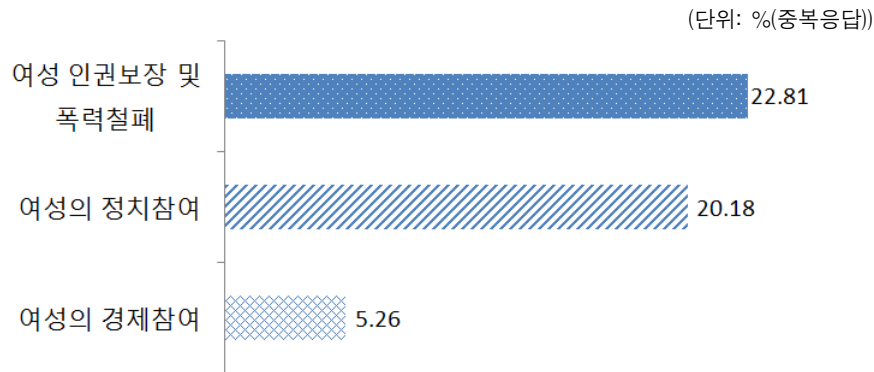
리적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장기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 외에 피해자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며 문화적으로는 폭력을 합법화하는 종교나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나. 베트남

1) 인권과 폭력 관련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2013년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한 전문가들의 견해로 베트남에서 여성의 지위가 열악한 분야는 인권이 73%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3: 100).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잘 안되어 있는 분야로는 인권 및 폭력 철폐가 1위로 지적되었다(23%)(김은경 외, 2013: 105). 양성평등 법제도화가 필요한 분야 또한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철폐(17%)가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베트남 여성정책에 있어서 인권 및 폭력철폐 이슈가 가장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여성의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25%)가 가장 대표적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성의 경제참여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가 27%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김은경 외, 2013: 109). 베트남의 경우 여성전담 국가기구, 성 주류화, 여성의 정치참여 등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지방정부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의 중요도는 현저하게 떨어지며, 대신 지방정부는 여성의 경제참여와 인권 및 폭력철폐 이슈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료: 김은경 외(2013), p.105.

[그림 Ⅲ-18] 베트남 수요조사 -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구축이 잘 안되어 있는 분야

2)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현재 영향력 행위자 및 향후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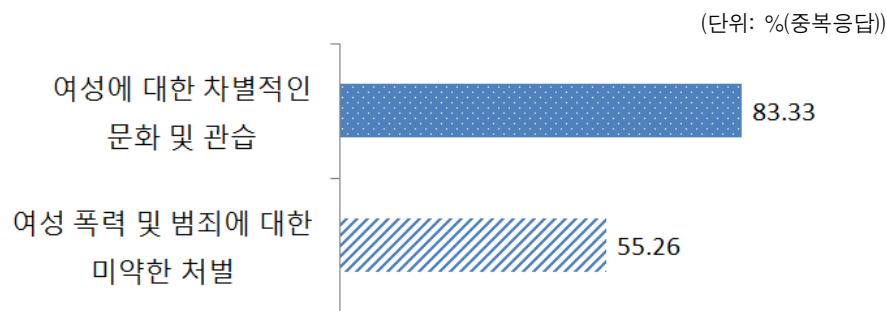
2013년 베트남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에 대해서 정부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국제기구(24%)였다(김은경 외, 2013: 111). 향후 어떤 주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18%로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일반시민(18%), 국회(16%), 여성NGO(15%) 순으로 이어졌다(김은경 외, 2013: 111). 여성 NGO에게 기대하는 역할에서 여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일반국민의 의식개선 활동이 22%,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12%,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과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보호활동이 각각 12%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3: 113).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법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가 가장 많았다(17%)(김은경 외, 2013: 114).

법제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분야로는 역시 여성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가 가장 많아(33%) 여성에 대한 폭력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 사업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법안통과 및 정책형성을 위한 최고결정권자 설득(25%)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법안통과 및 정책형성을 위한 의회 설득(16%), 대국민 성평등 캠페인(16%), 기타 리더쉽 육성과 역량강화 교육(16%)이 뒤

이었다(김은경 외, 2013: 115). 종합적으로 볼 때 베트남의 경우 여성폭력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기대감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 인권증진 및 폭력철폐의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

2013년 실시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지위가 열악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55%)이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와 관습(83%)에 이어 2위로 지적되었다. (김은경 외, 2013: 117).



자료: 김은경 외(2013), p.101.

[그림 Ⅲ-19] 베트남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여성 인권증진 및 폭력철폐를 더디게 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미약한 처벌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찰할 수 있다. 먼저 법률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베트남에는 가정폭력방지철폐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4년 실시한 심층면접에 의하면 베트남에서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 밖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을 형사, 민사 사건으로만 분류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이 법률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베17, 여, 44세, 고위 공무원). 또한 가정폭력 이외의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법률 실행이 난관에 봉착한 상태이다(베18, 남,

50세, 고위공무원).

이와 더불어 이미 존재하는 가정폭력법의 경우, 법 자체는 이미 충분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행의 효과는 미미함이 거의 모든 면담자에 의해 지적되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고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베20, 여, 48세, 고위공무원).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도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베20, 여, 48세, 고위공무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새로운 법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현존하는 정책을 본래의 취지대로 잘 실행해 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한 처벌의 강화보다는 인식제고가 우선되어야 함도 다수의 응답자로부터 지적되었다. 심층면접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가 생각하기엔 (가정폭력 관련) 정책을 추가로 더 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실생활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째, 매 기간마다 법의 미흡여부를 평가하여 수정하거나 보충해야 합니다. 둘째, (법실행을) 함께 검토하면서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가정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각 부서의 활동 내역 및 임무수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베17, 여, 44세, 고위공무원)

“저는 이러한(가정폭력) 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스크를 통한 선전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부터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베18, 남, 50세, 고위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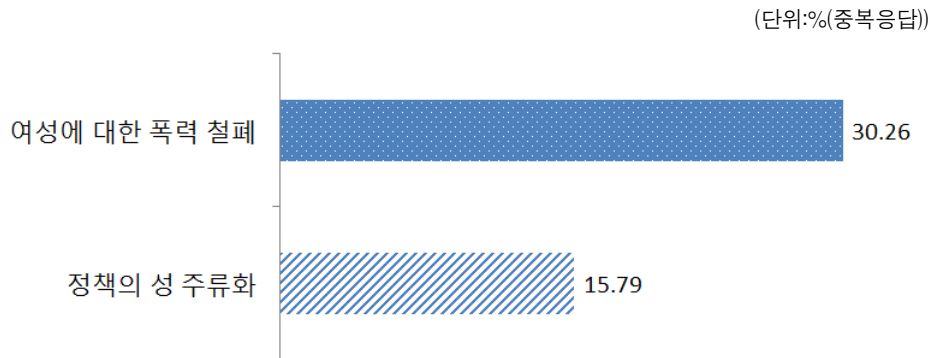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여성폭력문제를 심각한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견 공유의 시간들을 통해서 남성들, 어린 아이들, 노인들 또한 폭력의 희생자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들이 여성폭력문제에만 집중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몰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장애물이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해결해야겠다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베23, 여, 41세, 국제기구 직원).

다. 캄보디아

1) 인권과 폭력 관련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2011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견해로 캄보디아 여성정책 중 가장 잘 되어 있는 분야는 여성의 교육 기회(30%)와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16%)였다(김은경 외, 2011: 137). 여성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정책분야는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가 가장 많았다(30%)(김은경 외, 2011: 140). 여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가 30%로 가장 많았다(김은경 외, 2011: 142). 국가 양성평등 법제도화가 필요한 분야로도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철폐(36%)가 1위를 차지하였다(김은경 외, 2011: 146). 이것으로 보아 캄보디아에서는 폭력철폐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에 실행된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여성인권상황에 대해 복잡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외, 2012: 64). 전후 취약국으로서의 상황, 빈곤국가로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캄 20, 여, 45, 정부 공무원). 여성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 시대와 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늘 피해자로만 인식되어왔다. 그리고 캄보디아 자국 내 여성기관 및 여성관련 NGO 그리고 국제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수동적 참여자로 인식되고 있다.



자료: 김은경 외(2011a), p.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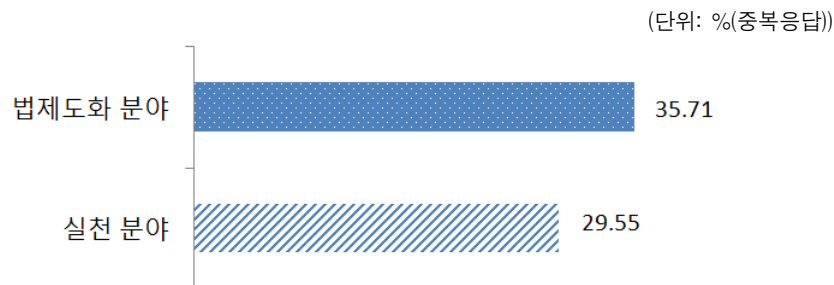
[그림 Ⅲ-20] 캄보디아 수요조사 - 여성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분야

2)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현재 영향력 행위자 및 향후 주체

2011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에 대해서 정부 및 의회라고 대답하였으며(73%), 다음이 여성 NGO(11%)였다(김은경 외, 2011a: 144). 2순위에 대한 응답에서는 여성 NGO(32%) 및 외국정부(20%)를 꼽았다. 종합하여 볼 때 정부와 의회, 그리고 여성 NGO의 역할을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어떤 주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1순위로 정부 및 의회를 꼽았으며(68%), 2순위로는 학계 등 지식인 계층(35%)과 여성 NGO(31%)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김은경 외, 2011a: 144). NGO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의식개선 활동이 26%, 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보호활동이 24%였다(김은경 외, 2011a: 14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법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법제도화의 요구가 36%로 가장 많았다(김은경 외, 2011a: 145-146). 법제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분야로는 역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가 가장 많아 (30%) 여성 폭력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법제도 및 정책의 뒷받침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48%)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여성 NGO들의

결집력(14%)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1a: 146). 양성평등 사업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18%). 다음으로 캄보디아는 법안 및 정책형성을 위한 로비(17%), 그리고 남성과의 파트너십(16%) 순으로 답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47). 여성들 자신의 역량강화는 양성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고 여기에 법제도 그리고 남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자료: 김은경 외(2011a), p.141.

[그림 Ⅲ-21] 캄보디아 수요조사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화/실천이 필요한 분야 중 '폭력 철폐' 응답

3) 여성 인권증진 및 폭력철폐의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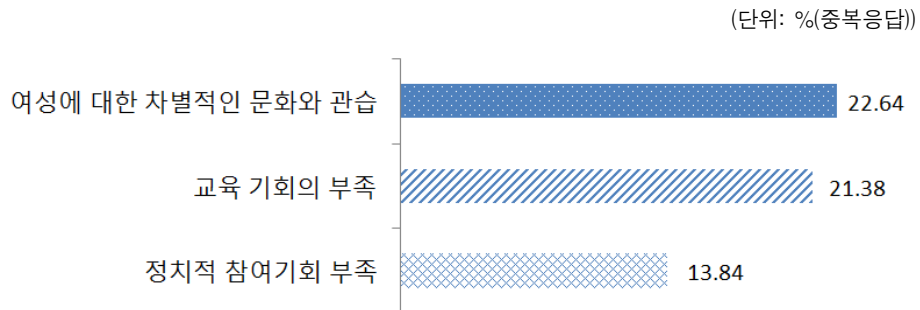
캄보디아의 여성폭력과 관련한 실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관련 법안이 제정된 것으로 보아 폭력근절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은 형성되어 있으나,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집행력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김은경 외, 2011a: 152). 또한 2011년 8월 실시된 관련 이슈에 대한 현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얻은 현지 현황으로 볼 때, 여성폭력 의제에 대한 NGO 네트워크가 미비했고, 정부와의 실질적 거버넌스를 위한 전략도 부재하였다. NGO 및 전문가들의 희망사항은, NGO 활동가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과 NGO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연대방식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⁷⁷⁾

77) 캄보디아 여성인권 및 폭력철폐와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에 한국의 연구진과 한국여성의 전화 고미경 사무처장이 참석하였고 간담회 평가서를 작성하였음.

2011년 수요조사에 따르면, 여성지위향상 장애요인으로 차별적 문화와 관습이 1위를 차지했으며(23%), 그 다음으로 교육기회의 부족(21%), 정치적 참여기회 부족(14%) 순이었다(김은경 외, 2011a: 137). 좀 더 세부적으로 2012년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여성인권증진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장애요인으로 ‘차밥 쓰레이(Chbap Srey)⁷⁸⁾’와 남성 중심적인 문화, 폭력에 대한 인식 및 수용적 태도, 장애인 등 소외 여성이 겪는 차별, 빈곤과 부정비리 그리고 금권남용을 둘러싼 이슈 그리고 실효성 없는 법과 정책집행을 들었다(김은경 외, 2012: 66).

이러한 장애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정책적 개선과제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2012년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로 인적역량강화의 필요성(예: 공무원과 여성의 역량강화), 두 번째로 폭력/차별에 대한 처벌 및 방지에 대한 정책적 실효성 강화(예: 법률의 성 차별적인 부분을 개선), 세 번째로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예: 여성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선 순환적 관계로 캄보디아의 총체적인 사회문화를 변화시키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각 개선과제의 성과는 거버넌스와 반부패 그리고 민주주의 정착 등의 요소들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임을 제언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2: 70).

78) 김은경 외 (2011b), p.16 참조. 이 전통적인 규범은 여성이 뛰어다니거나 경거망동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며, 온화하고 인내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살도록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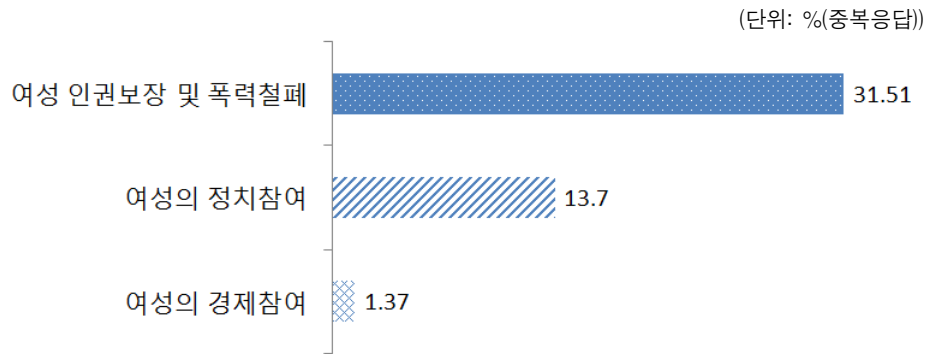
자료: 김은경 외(2011a), p.137.

[그림 Ⅲ-22] 캄보디아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요인

라. 미얀마

1) 인권과 폭력 관련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인식

2013년도의 수요조사 응답자들은 미얀마에서 여성의 지위가 열악한 분야로 정치(74%)다음으로 인권(66%)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여성정책 중 가장 잘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도 여성의 교육기회(19%), 여성문제 전달 국가기구 설치(12%), 정책의 성 주류화(10%) 다음으로 여성의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8%)가 4위를 기록한 점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김은경 외, 2013: 106). 미얀마의 양성평등 인프라 구축 중 가장 잘 안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답변 또한 여성의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31%)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김은경 외, 2013: 107).



자료: 김은경 외(2013), p.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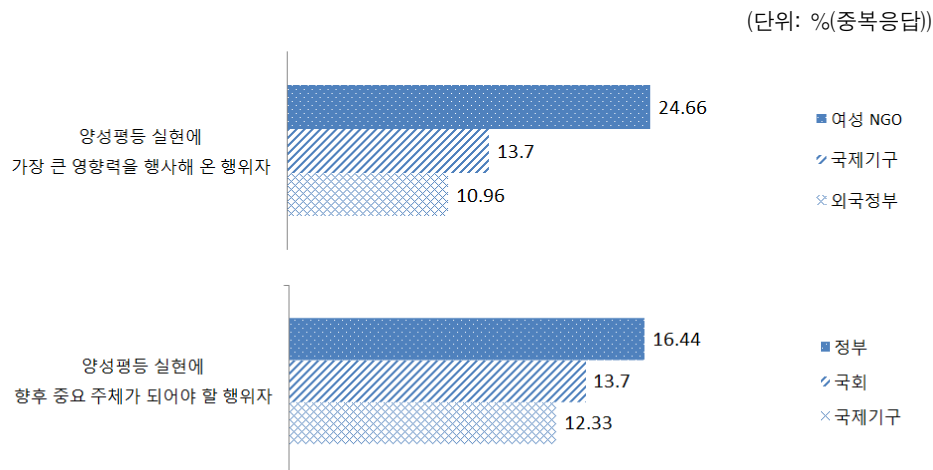
[그림 Ⅲ-23] 미얀마 수요조사 - 양성평등 인프라 구축에서 잘 안되어 있는 분야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미얀마는 정책의 성 주류화가 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여성 인권보장 및 폭력 철폐(18%)였다(김은경 외, 2013: 109).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성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가 16%로 가장 많았다(김은경 외, 2013: 109). 이러한 조사는 미얀마 여성 인권 관련 이슈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김은경 외, 2013: 99). 또한 미얀마의 중앙, 지방 정부가 여성의 인권보장 및 폭력 철폐 이슈에 관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는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현재 영향력 행위자 및 향후 주체

2013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에 대해서 미얀마는 여성 NGO(27%)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이 국제기구(14%)와 외국정부(11%) 순이었다(김은경 외, 2013: 111). 이는 지난 십 수 년간의 개발과정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점이다. 미얀마의 군부정권은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특히 교육, 인권, 복지 관련 부문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국제단체들의 자금을 받는 NGO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되었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도 미얀마의 자생 현지 NGO들은 외부의 자금지원으로 다양한

긴급구호, 복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의 여성관련 법/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GEN’과 같은 여성 NGO들이 정책 전반에 관한 리서치를 수행함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료: 김은경 외(2013), p.111.

[그림 Ⅲ-24] 미얀마 수요조사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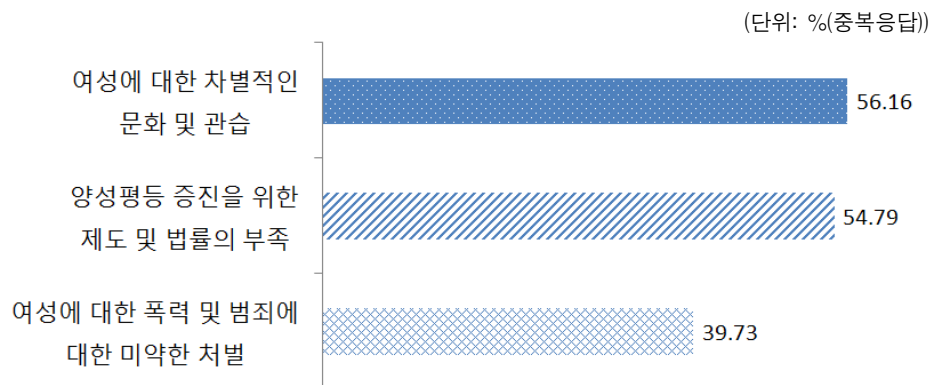
이에 비추어, 향후 어떤 주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16%), 국회(14%), 최고정책결정권자(12%)와 국제기구(1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으로 민간단체가 있었다(김은경 외, 2013: 111). 미얀마의 경우 과거 NGO 주도 하의 양성평등 달성과는 달리, 정부와 국회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 시민, 민간단체에 대한 기대감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 정부, 시민사회, 개인, 국제단체의 고른 공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NGO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개선요구(48%)와 여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일반국민의 의식개선 활동(4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보호 활동이 45%를 차지하였다(김은경 외, 2013: 113).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법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 정

책의 성 주류화(16%)와 여성의 정치참여(16%), 여성의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15%)가 꼽혔다(김은경 외, 2013: 114). 법제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분야 또한 여성 인권보장 및 폭력철폐가 가장 많아(29%) 여성에 대한 폭력에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 사업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법안통과 및 정책형성을 위한 의회 설득(27%)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대국민 성평등 캠페인(21%), 법안통과 및 정책형성을 위한 최고결정권자 설득(11%)이 뒤이었다(김은경 외, 2013: 115).

3) 여성 인권증진 및 폭력철폐의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

2013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지위향상 장애요인으로 가장 응답이 많은 요인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와 관습(56%)이었다(김은경 외, 2013: 117). 다음으로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 및 법률의 부족(55%),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40%), 여성정책 리더(인적자원)의 부족(36%), 정치적 참여기회 부족(32%)의 순이다.



자료: 김은경 외(2013), p.101.

[그림 Ⅲ-25] 미얀마 수요조사 - 여성지위 향상 장애 요인

또한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인권 및 폭력 철폐가 1위(32%)로 지적되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화가 필

요한 분야 또한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철폐(15%)가 3위를 차지하였다(김은경 외, 2013: 119). 2013년의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 볼 때, 미얀마는 현재 국가기구 설치 같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권증진 및 폭력철폐보다는 정책의 성 주류화라든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좀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김은경 외, 2013: 123).

2014년 심층면접에 의하면 여성인권 증진 및 폭력 철폐를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관련 법규 미비와 충분하지 않은 처벌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 미얀마에는 가정폭력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폭력을 경험한 가족을 보호할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법규가 있는 경우에도 너무 오래되었거나, 처벌이 미약하거나, 실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이 다수의 면접대상자들로부터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식민시대에 제정된 미얀마 형법 376조에서 강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이 법으로는 강간범을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형법만으로는 처벌이 불충분한 사항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이버포르노 같은 문제들이다(미20, 여, 여성관련 정부부처 직원, 53세). 다음으로는 이렇게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법들은 젠더적 관점이나 국제적 규범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다(미25, 여, NGO 대표, 38세). 마지막으로 여성 인권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무료법률서비스나 피해자 보호 체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미21, 여, 국회의원, 47세).

이에 대한 원인으로 면담자들은 우선 예산 및 인력 부족을 지적하였다(미21, 여, 국회의원, 47세) 남성이 다수인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여성 이슈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미24, 여, 미얀마 인권 NGO, 31세) 또한 법치시스템 전반에 걸쳐 성인지적 이해도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심층면접의 다음 발췌문은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법치, 법공무원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변호사와 대화 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가해자의 뒷조사뿐 아니라 피해여성도 조사합니다. 그 때 여성의 권리를 이해 못하는 가해자의 변호사가 ‘너 예전에도 겪어본 적 있잖아, 당신 예전에도 애인 있었지 않느냐, 당신 애인이랑도 이렇게 지낸 거 아니냐, 라는 여성을 창피 주는 질문을 앞뒤 안보고 묻습니다.... 경찰이건 변호사건 판사건 법과 관련된 사람이건 여성부건 모두가 (여성의 인권 보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미28, 여, 국제NGO 직원, 40세)

미얀마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서는 2013년 10월 북경행동강령 12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발전국가전략(NSPAW)이 제정되었으며 이 중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인권 두 분야에서 폭력 및 인권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얀마에서는 2014년 10월 현재 여성폭력방지 법안 초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연말 내 완성을 목표로 법률의 세부 조항에 관해 정부, 국회,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여 다각도로 논의를 하고 있다.⁷⁹⁾

4. 한국과의 협력사업 수요 및 한국의 CPS와의 연결

가. 인도네시아

1) 정치분야

현재 인도네시아 여성 정치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정당공천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나라들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성할당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남성 중심적 정당구조의 개선을 요구한다(김은경 외, 2012: 210-211). 그리고 여성 의원 네트워크의 구성과 여성부와 여성 단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치 훈련 주체들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주적인 시민교육과 유권자 교육 사업도 필요하다. 실제 심층면접 조사 결과

79) 2014년 6월 미얀마 방문 시 사회복지국(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MSWRR) 내 사회복지부 면담 및 2014년 심층면접 결과임.

인도네시아 대중들은 공공영역에서 성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2: 210-214).

그리고 심층면접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장애요인과 개선과제들이 드러날 수 있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과의 ODA를 통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주요 협력 분야로는 여성 정치인의 역량 강화 교육이 꼽혔고 연구를 위한 기금(research fund)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협력 기관으로는 대학이나 학술적 집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의 경우, 정부 정책 기획과 실행 예산 및 인력 지원을, 의원이나 의회 관계자는 여성 국회의원의 연수와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경향이 있었다. NGO 소속 관계자인 경우에는 여성 정치인과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김은경 외, 2012: 53).

2) 경제분야

인도네시아 경제분야에서는 먼저 여성실업교육을 제시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역 특색 및 시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 훈련과 취업으로의 연계, 기업 경영에 필요한 고차원적이고 다양한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다(김은경 외, 2012: 62). 다만, 한국이 실업교육을 도입하던 1970년대의 상황과 현재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다른 점도 많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김은경 외, 2012: 62). 현재 인도네시아도 비정규과정으로 직업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 등 취약계층은 학비 등의 장애요인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외, 2012: 276). 한국의 비정규교육과정인 산업체 부설학교나 특별학급 운영사례의 경우, 법으로 학비 징수를 금지하여 취약계층도 직업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교육 시스템 및 법적 장치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해볼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은경 외, 2012: 276). 또한 인도네시아는 여성 소자본 창업인 육성, 신용대출에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사업 확대 등에 관심과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2: 86).

그리고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도 변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현 시점에서, 한국의 여성창업 기회확대는 인도네시아가 고려해볼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사업 중 하나이다. 한국정부는 ‘여성 기업에 관한 법률(1999)’을 제정하고 여성 창업을 위해 자금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에게는 도배, 페인트, 타일 기술과 같은 비전통적인 분야의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들이 전통적인 직종을 넘어서서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유망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오은진 외, 2012; 김은경 외, 2012: 278 재인용).

2012년에 진행된 심층면접 및 정부 간 대화의 결과, 한국과 협력사업을 할 경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야로 훈련 및 교육 분야가 언급되었다(김은경, 2012: 62). 한국정부는 경제발전 시기에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산업 성장을 이룬 경험이 있고, 당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해 여성실업교육정책 및 여성창업활성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어 인도네시아 여성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2012: 217).

3) 인권 및 폭력분야

2011년 수요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표들은 정부의 여성 폭력 철폐 정책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관련 이슈 중에서 ‘성매매’와 같이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여성단체가 어떻게 이슈를 제기하고 또 법제화를 주도했는지에 대한 한국의 여성단체의 활동사례, 그리고 전략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김은경 외, 2011a: 158).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한국 여성정책 전문가 간 정책세미나에서, 한국 측에서는 국가반성폭력위원회(KOMNAS Perempuan)⁸⁰⁾와 협력 가능성을 제안하였는데 이 위원회의 업무는 대중 교육, 사실 확인 및 모니터링, 전략적 연구, 정책검토와 개선, 지역-

80) 이 위원회는 여성폭력철폐를 위해 1998년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n. 181/1998, no. 65/2005)으로 설립되었음. 위원회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종교와 도덕에 근거한 성차별적 정책이 206개 존재하고 있음.

국가-국제적 차원의 지지 네트워크 형성이며,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과 아동 폭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실을 대중에게 홍보하는 것이다. 국가반성폭력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폭력철폐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한국과 함께 성폭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인도네시아 CPS에서 나타난 젠더부문 특징

현재 한국은 ‘대 인도네시아 CPS 2012-2015’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 국가의 현황과 주요사안을 다룬 ‘인도네시아 주요 특성’에서는 새 천년개발목표(MDGs)중 전반적 보건분야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성사망을 감소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언급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a: 104). 특히 인도네시아 CPS는 모성사망을 문제에 있어 숙련된 조산인력에 의한 출산비율, 청소년 분만을 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보였으나 지역 간 모자보건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a: 104).

‘인도네시아 주요특성’에서도 양성평등 분야를 다루고 있긴 하나, 타 분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 정도이다. 양성평등 주요 특성으로, CPS는 여성 관련 문제로 여성 문해율은 남성과 동등한 수준이나,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11년 기준 18%, 시장참여율 2009년 기준 52%로 여성의 정치 및 시장참여가 저조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a: 107). 반면 여성 실업률은 2009년 기준 약 8.5%로 2005년 14.7%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여성 노동참가 비율 역시 50%가량으로 증가했음을 언급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a: 107).

그리고 인도네시아 CPS는 ‘범분야 지원계획’에서 환경과 함께 양성평등을 범분야 이슈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인도네시아 CPS는 성평등과 환경 이슈의 경우 ODA 지원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보편적 의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프로그램 형성단계에서부터 성평등 가치를 사업 수립, 이행 단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a: 139).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분야의 경우 인도네시아 CPS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5대 평가기준과 더불어 성 주류화를 추가적인 하나의 평가 기준으

로 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a: 139). 따라서 여성 부문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내용을 작성하여 사업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a: 139). 그리고 중점프로그램 형성단계에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 지원, 모자보건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a: 139). ‘성과관리방안’에서 CPS 평가계획으로는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여성, 인권, 환경 등 범분야 이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a: 152).

나. 베트남

1) 정치분야

2014년 실시한 베트남 여성정책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한 방안으로 국민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운영,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법률 및 정책 개발, 그리고 여성 관리 및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베트남 여성 정치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 구축과 정책연구도 제안되었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 증가를 위한 정책이 발굴되려면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아직 베트남에서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자체를 위한 인식제고와 역량강화 사업 수요도 제안되었지만, 보다 장기적인 여성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연구와 자료 구축이 여러 차례 제안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경제분야

2014년도 베트남 심층면접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노동력의 고급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분야의 직업훈련 제공, 여성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정보와 자영업 여성 지원을 위한 시장 정보를 만들어 제공하는 조직의 설립 등 베트남의 기존 정책을 통한 여성 경제역량 강화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제안되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들에게 단순한

노동 기술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분야와 관련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 여성 자영업자들에게는 취업과 경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보다 전문적으로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 건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인권 및 폭력분야

2014년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 사업 수요를 추가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제안을 살펴보면 먼저 베트남의 출생성비불균형 극복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출생성비불균형 문제 극복에 관심이 높았으며 관련 정책에 관한 학술적인 성격의 워크숍 개최를 희망하였다. 또한 한국의 정책 연구자들을 지원, 파견하여 베트남 현황을 평가하고 정책 실행을 감독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여성 및 가정 폭력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수립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였다. 베트남 내에서 한국의 여성쉼터와 같은 쉼터모델의 확장에도 관심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의 노하우와 진행방식을 전수받고 싶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4) 베트남 CPS에서 나타난 젠더부문 특징

한국의 대 베트남 CPS는 2011-2015년 단위로 수립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다. 먼저 ‘베트남의 주요 특성’에서 베트남 CPS는 도농·성별·지역별 빈곤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나 소수민족 임금,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빈곤감소의 현황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10).

타 국가 CPS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요특성’의 마지막은 양성평등부분을 다루고 있다. 베트남 CPS 상에서는 베트남의 양성평등 현황과 문제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먼저 베트남은 2006년 양성평등법, 2007년 가정폭력법을 도입했다는 점과 OECD 사회제도 및 젠더지수(SIGI)가 2009년 기준 비 OECD 102개국 중 31위, 성불평등지수(GEM)가 2007년 기준 93

개국 중 52위라는 점을 예를 들어 양성평등 실현이 비교적 높다고 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14). 또한 베트남 여성의 약 83%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14).

하지만 이와 동시에 베트남 양성평등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 CPS에서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가치와 현대사회의 흐름사이에 여성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공식분야에서 여성대상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14).

또한 베트남 여성 대부분이 저임금 분야에서 일하고 취업, 임금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다 토지 소유권 등재의 1/3만이 여성인만큼 여성의 재산권도 취약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14). 여성의 경제적 역량이란 금전적 소득을 취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재정적자본 그리고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과 토지와 같은 물리적 자본으로 분류되는 자원 전반에 대한 주권을 갖고 경제적 의사결정권, 실행력을 종합적으로 갖춘 능력까지 의미한다(오은정, 2013: 187).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 CPS상의 내용은 경제분야의 양성평등이슈에서 여성의 수치상에 나타나는 경제적 참여정도 뿐만 아니라 동일노동 내 임금차별, 경제적 권한 등 다각적인 면이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베트남 CPS는 ‘중점분야 프로그램’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크게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마련, 인적자원 개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 중 인적자원 개발에서 특히 베트남 CPS는 기술·직업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개발을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본 추진계획’에서 소수민족, 여성, 농촌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을 연계할 것을 밝히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35). 더불어 추진계획에서 역시 소수민족 여성의 보건, 교육, 농업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원이 언급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44). 한국 CPS에서는 대 베트남 원조 중점분야 프로그램 중 인적자원개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 여성 그룹 중에서도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사회 인프라 접근성이 열악한 소수민족과 산악지역 여성에게 중점을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의 농업분야 경제적 역량강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 CPS는 ‘범분야 추진계획’에서 여성 농업인 참여강화 프로그램 제공,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전수 등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44).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교육분야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전략이다. 베트남 CPS는 ‘범분야 추진계획’에서 성별 고정관념 및 성역할 개선을 목표로 하는 성인지적 모듈과 교재를 개발할 것을 밝히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44). 이는 남녀 교육 이수율에만 주목하지 않고, 보다 심층적으로 베트남 교육분야의 질적 제고를 위해 성인지적 교재와 학습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CPS는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성평등 장애요인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CPS의 ‘개발파트너와의 협력전략’에서도 분야별 파트너십 그룹 및 원조협의체 참여계획이 구체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젠더관련 그룹에 참여하겠다는 점은 표명되어 있지 않다. CPS의 ‘성과관리 방안’의 경우, 타 CPS와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분야는 범분야 이슈로 분류하여 모니터링, 실적평가 및 사후평가지 범분야에 대한 평가를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55-56). 마지막으로, ‘베트남 ODA관련 고려사항’에서는 베트남이 지역, 계층, 성별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체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57). 이는 여성이 언급되어 있긴 하나, 전반적인 기조는 사회주의적인 베트남의 개발 환경에 유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캄보디아

1) 정치분야

2012년 캄보디아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로 심층면접 결과 여성 정치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 연수와 장학금 지원 및 공무원의 의식 개선이 언급되었다. 특히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여성 정치 참여 기회를

확장시키는 대안으로 파악됐다(김은경 외, 2012: 45). 나아가 심층면접을 통해 캄보디아에서는 부정부패의 해소가 해결이 필요한 주요 문제로 나타났는데, 그동안의 여러 해외원조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여성들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조 실행의 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여성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거시적 규모의 프로젝트는 물론 그 효과를 측정할 방안이 고려돼야 함을 알 수 있었다(김은경 외, 2012: 45-46).

2) 경제분야

캄보디아는 다른 공여기관들이 젠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젠더사업 지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1a: 158). 시대문화적인 면에서 차이는 존재하나 한국의 여성 경제역량 강화 경험과 시행착오는 캄보디아의 여성경제역량강화 정책에 여러모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외, 2011a: 157-158).

캄보디아 수요파악을 통한 맞춤형 정책개발로는 먼저 여성 교육강화를 언급할 수 있다. 여성 교육 강화는 한국과의 가장 큰 협력 사업 수요 중 하나이다. 캄보디아 여성의 낮은 기초교육 수준으로 인해 아무리 다양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더라도 정보 전달에 한계가 존재한다(김은경 외, 2012: 272). 캄보디아의 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경제 발전 초기의 한국은 국가 경제개발계획에 맞춰 규모가 큰 산업체를 중심으로 야간 학교 설립 및 여성회관을 통한 기술, 정보과목, 교양 및 사회의식 교육 시행으로 현실적인 여성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였다(오은진 외, 2012:42; 김은경 외, 2012: 272-273 재인용). 이는 캄보디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개발센터에서 직업 훈련과 함께 기초적인 교육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용 가능하며, 더불어 기업체가 교육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인력을 선발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김은경 외, 2012: 272-273).

둘째, 여성 창업 지원은 여성 교육 지원과 함께 협력 사업 수요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이다. 2012년 정부 간 대화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시장 수요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여성 창업인 육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

이며,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과 같은 여성 창업인 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한 여성 기업들은 임금 개선 및 고용시장에서의 차별 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2: 86-87).

한국의 경험에 기반하여 캄보디아 내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해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판로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여성의 창업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김은경 외, 2012: 273-274). 둘째, 비전통적인 기술 교육을 통해 전통적인 창업 아이템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창업 아이템에 여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김은경 외, 2012: 274). 셋째, 한국의 여성 기업 종합 지원센터와 같이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공간 및 비용을 지원한다(김은경 외, 2012: 274-275). 넷째, 시장의 파이를 넓히고 협상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동조합을 구성한다(김은경 외, 2012: 275). 다섯째, 여성에 특화된 창업경진대회 실시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굴하고 고용을 늘리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은경 외, 2012: 275).

3) 인권 및 폭력분야

2012년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ODA를 통한 인권 및 폭력분야 사업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김은경 외, 2012: 75). 지방 낙후지역까지 포괄 할 수 있는 여성인권증진 및 보호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거점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여성부의 프로그램은 이미 다른 국가의 ODA사업을 통해 개선을 보여 왔지만, 프로그램의 이행 및 캄보디아의 개선된 법과 정책을 실행하는 것⁸¹⁾에 한계점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정부 및 NGO 관계자 모두 인적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부족한 예산의 문제도 언급하였으며, 적극적인 인식개선 활동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어 여성과 지역사회에 실질

81) 실제로 캄보디아 여성부 관계자는 ODA와 캄보디아 국내정책과의 연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2012년 5월 현지 워크샵 중 캄보디아 여성부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

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낙후된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의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활동에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 캄보디아 CPS에서 나타난 젠더부문 특징

현재 한국은 2012-2015년 캄보디아 CPS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새천년개발목표(Cambodia Millenium Development Goals, CMDGs)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CPS에서는 캄보디아 새천년개발목표(CMDGs) 중 보편적 초등교육은 2015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반면, 일부는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5번 모성보건이다(관계부처 합동, 2012b: 9).

그리고 캄보디아 CPS의 ‘캄보디아 주요 특성’에서는 경제, 빈곤, 인적자원 등 주제별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성 및 아동보건 관련 현황이 열악하고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자수가 2010년 기준 206명에 이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14). 또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식량부족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 특히 여성 가구주 가구가 취약집단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17).

그리고 ‘캄보디아 주요 특성’ 8번은 바로 양성평등을 다루고 있는데, 캄보디아 CPS는 분쟁, 빈곤문제 등으로 비롯된 성차별적 관습으로 인해 여성을 존중하던 전통이 약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17). 캄보디아의 양성평등 현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양성평등 관련 지수로는 크게 두 가지를 활용하였는데, 바로 OECD 사회제도와 젠더 지수(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 SIGI)와 UNDP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이다. 캄보디아 CPS는 캄보디아가 현재 OECD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IGI) 2009년 기준 비 OECD 102개국 중 27위로 양호한 반면, 높은 모성사망을 및 낮은 중고등 교육을 등과 같은 문제로 UNDP 성불평등지수(GII)는 2008년 기준, 138개국 중 95위를 차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17). 그 중에서도 특히 2008년기준 국회 내 여성의석 비율 22%, 중등교육 이상 받은 여성 비율 12%, 여성 노동력 참여비율 76%이며 그 비율의 대부분은 농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17).

또한 CPS는 가정폭력, 인신매매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2b: 18). 그리고 캄보디아 CPS는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MoWA)가 경제역량강화, 교육, 법적 보호, 건강 및 영양, 공공 및 정치부분 의사결정에의 참여라는 5대 전략분야로 구성된 2009-2013 니어리 라타나크 III(Neary Rattanak III)를 추진 중이며 정부가 관련 법, 정책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정부의 개혁의지가 지속적이라면 양성평등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18).

캄보디아 CPS '국제사회의 원조현황'에서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가 주도하는 캄보디아개발협력포럼(Cambodia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CDCF)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기술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TWGs)이 분야별 협력 및 모니터링 등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젠더기술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on Gender, TWG-G)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고 여러 예시 중 하나로 국가젠더 계획이 언급되어 있는 수준이다(관계부처 합동, 2012b: 25).

‘캄보디아 국가개발전략’ 부분의 경우, 캄보디아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II), 국가전략적개발계획(NSDP 2009-2013)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별도의 국가차원의 양성평등 세부 정책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4대 분야 중 하나인 역량개발 및 인적자원 개발에 젠더정책 시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만 CPS에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 캄보디아 지원현황’에서도 별도의 여성대상 혹은 성 주류화 사업에 대한 내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한국의 대 캄보디아 협력전략 기본방향’에서는 성평등을 환경, 거버넌스와 함께 범분야적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보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38).

캄보디아 CPS ‘중점협력분야’ 중 농촌 농업개발 추진계획에서는 범분야 이슈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캄보디아 여성 65%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산물 교역이나 중소기업 활동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상당하므로, 여성 역량강화와 같은 성인지적 요소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

다(관계부처 합동, 2012b: 44).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부분에서는 모자보건과 관계된 부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보건분야에 있어 캄보디아는 생식보건과 모자보건부분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임신에서부터 출산, 신생아 및 유아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모자보건서비스에 개발수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57). 또한 지원계획에서는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기초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지원하고, 특히 아동과 여성을 중점적으로 타겟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62). 위와 같이 보건분야에서는 여성이 모자보건이라는 범주 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다루어진 반면, 교통, 인적자원개발부분에서는 별도로 성평등 요소를 고려해야한다는 강조점 혹은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캄보디아 CPS ‘범분야 지원계획’에서는 양성평등 이슈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캄보디아새천년개발목표(CMDGs)내 여성관련 목표의 달성을 위해 사업별로 범분야 전략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성평등 분야의 경우, 각 중점프로그램 형성할 때 성별분리통계, 여성 참여비율 보장, 여성자치조직 형성 등을 포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64). 더불어 여성대상(gender-targeting) 프로그램인 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개발이나 인적자원개발에서도 성 주류화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64).

하지만 보다 기술적인 지원방법이나 재원조달 계획에서는 젠더분야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개발파트너와의 협력전략’에서는 보건, 농업 등 캄보디아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분야별 기술작업반(TWG)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데, 젠더기술작업반(TWG-G)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CPS에서는 이에 대한 참여계획이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ODA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관리방안’의 경우 CPS 평가 개요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CPS 수립기간중 수행한 사업들의 과정이나 영향을 평가한다는 취지로서, 성평등은 주요 범분야로 분류되어 주제별평가를 실시할 것을 간략하게 언급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b: 77).

라. 미얀마

1) 정치분야

2014년 실시한 미얀마 심층면접에서는 일반 국민 여성 인식제고가 제안되었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여성도 정치에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여성들이 보다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당원들이나 여성 국회의원들 대상 해외 연수 및 세미나를 통한 역량강화가 다수 제안되었다. 해외사례를 다양하게 접하여 타국가의 여성 정치참여 발전경험을 배울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여성학 과정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의 정치참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과 같은 젊은 여성들이 여성학을 접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미얀마에서는 인식 개선, 전문적인 정치 활동 관련 교육, 나아가 여성학과 같이 여성의 정치관련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경제분야

2014년도에 실시된 미얀마 심층면접을 통해서는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해 기술훈련과 자본제공에 대한 개발협력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훈련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기술훈련(포장기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한 가지 특이할만한 사실은 여성들에게 단순한 직업기술 훈련뿐만 아니라 시장진출을 위한 역량개발, 기업가 정신 교육, 멘토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도시보다는 농촌지역, 소외된 지역의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된 바 있는데, 한 면담자는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에 있는 단체와 협력함으로써 현지의 사정을 잘 반영한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하고 있다.

또한, 한 전문가는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 역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미얀마와 ODA 사업을 할 때의 현지 파트너의 선정과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3) 인권 및 폭력분야

2014년도 실시된 심층 면접에서는 연구 강화,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여성 인권 관련 분야에서의 사업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먼저 군인, 법관, 행정부처의 정부 각 분야의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곧 고위 의사결정직에 오르게 될 50세 이하의 공무원들을 타겟으로 한 교육을 희망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인권 관련 연구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현재 미얀마에서의 여성관련 연구는 매우 미약하며,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미얀마가 직면하고 있는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고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권리 옹호활동에 있어서 한국의 기술적 지원을 희망하였다. 한국의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미얀마 내에서 여성이 구성하고 연출하여 옹호사업을 벌이는 사업은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4) 미얀마 CPS에서 나타난 젠더부문 특징

미얀마는 현재 한국의 ODA 26개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대 미얀마 유·무상원조 통합 CPS는 수립되어 있지 않다. 단, KOICA에서 2013년 발표한 ‘KOICA 국별 지원현황: 미얀마’는 유·무상원조 지원실적과 더불어 2013-2015 대 미얀마 무상원조 지원방향을 다룬 문서를 발표한 바 있어, 이를 대안적으로 살펴보았다.

KOICA는 ‘미얀마 중점지원 목표 및 방향’에서 농업과 농촌개발, 산업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 행정 효율성 및 거시경제 운영능력 강화, 기술직업훈련 정책기반 마련 및 교육의 질 향상 크게 4가지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3: 22-23). 이 목표에서 별도로 양성평등을 고려하는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KOICA의 대 미얀마 지원사업내역 및 추진중인 사업에서도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제시되지 않았다.

5. 소결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의 시작은 수원국의 현황과 수요를 충분히 살펴보는 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온 4개국 현지 여성정책 수요파악 결과를 정치, 경제, 인권 및 폭력 분야로 나누어 개괄하였다. 그리고 한국 CPS에서는 현지의 성평등 관련 문제점과 성평등 원조에 대한 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PS내 젠더부문 특징을 살펴보았다.

정치분야에서는 4개국 모두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문제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여성들은 집안일에 충실하고 남성들이 사회활동, 나아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전통적 성 고정관념이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별 현황이 반영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되었는데,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는 정당공천에서 나타나는 금권주의와 연고주의가 공통적으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고, 캄보디아, 미얀마의 경우 심층면접에 따르면 여성의 소극적인 자세가 장애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위와 같은 성역할이 일·가정 양립 문제로 이어진다는 문제점, 그리고 남녀 정년퇴직연령 차별이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분야에서도 앞서 언급하였듯 여성 차별적인 인식과 문화가 여성의 승진이나 사업 운영 등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일·가정양립으로 인한 이중고는 특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특징적인 이슈가 계속 언급되었는데, 바로 남성 60세, 여성 55세라는 법적 정년퇴직연령에서의 차별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계층이나 직종에 따라 정년퇴직연령 남녀 통일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인권분야에서 역시 차별적인 문화와 관습은 주요 장애요인이자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샤리아 법(이슬람 기본법)’과 같은 종교적 관습과 양성평등 개념간의 상충 문제가

두드러졌다. 캄보디아에서는 여성의 순종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차밥 쓰레이(Chbap Srey)’라는 사회적 규범이 큰 장애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4개국 모두 여성대상 폭력 철폐와 방지를 위한 법·정책의 제도적 이행 기반이 미흡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2007년 가정폭력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나 가정폭력법의 경우, 법 자체는 이미 충분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행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개선과제로는 여성폭력 철폐와 방지를 위한 법, 정책의 추진력 강화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미얀마의 경우 현재 여성폭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중에 있다.

위와 같은 4개국의 분야별 여성정책 현황과 수요를 파악했을 때, 차별적인 문화 및 관습 문제는 정치, 경제 그리고 인권분야 구분없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4개국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성고정관념과 같은 문화적 요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을 시사한다. 또한 양성평등 혹은 여성의 정치, 경제참여나 여성대상 폭력을 금지하는 법적 기반은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여러 차례 강조되었다.

현재 CPS가 수립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의 경우, 모두 양성평등 현황을 다루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CPS에서는 여성의 정치, 경제분야 참여가 낮다는 점과 모성사망율과 지역간 모자보건 서비스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본 연구과제가 파악한 한국과의 협력사업 수요에서도 여성의 정치, 경제 참여 활성화가 제시되었는데, CPS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므로, 접점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도네시아 성평등 원조사업으로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역량강화를 고려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안을 기획한다면, 현지 수요에도 부합할 수 있고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CPS 방향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CPS에서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관념과 현대사회 속 현실 간의 간극으로 인한 여성인권 문제와 특히 비공식분야에서 여성대상 차별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현지 수요파악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된 여성에 대한 차별적 문화라는 장애물을 CPS가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또한

여성 토지소유권 문제 역시 베트남 CPS, 현지 성평등 원조 수요과약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베트남 CPS는 여성, 특히 소수민족이나 산간 지역, 빈곤층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역량강화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 CPS에서는 성차별적 관습이 양성평등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부분은 캄보디아 수요조사, 심층 면접에서도 드러난 양성평등 실현의 큰 장애요인이자 개선과제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CPS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와 관습을 명시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현지 수요과약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CPS는 가정폭력, 인신매매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현지 수요과약 과정에서도 여성대상 폭력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한 이슈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CPS에서는 가정폭력과 인신매매와 같이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점을 제시한 바 없다. 비록 짧은 문제제기에 지나지 않으나, 캄보디아 CPS상에서 현지 여성 인권에 대한 현황을 다룬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얀마는 현재 CPS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KOICA의 대 미얀마 국별 지원현황에서 아직 성평등 원조는 명시된 바가 없다. 향후 미얀마 대상 원조사업 기획 및 추진시, 본 연구의 미얀마 현지 여성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고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IV

아태지역 협력국과의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경험

| | |
|------------------------------------|-----|
| 1. 개발컨설팅의 기제로서의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과 평가 | 191 |
| 2. 4개국의 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 발굴 결과 | 213 |
| 3. 4개국 공동협력연구의 시도와 결과의 공유 | 241 |
| 4. 소결 | 251 |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은 2011년부터 여성정책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이하 SSAGE 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며, 본 장에서는 SSAGE 워크숍을 통해 발굴한 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 그리고 4개국 공동협력연구의 진행과정과 시사점을 분석할 것이다. 이 세 요소는 개발컨설팅의 두 측면인 정책 자문과 프로젝트 자문 중 정책 자문의 특징이 강하며, 서론에서 언급된 아태지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세부 메커니즘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세 요소에 대해 각 절에서 개괄한 뒤 이를 소결에서 개발컨설팅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1. 개발컨설팅의 기제로서의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과 평가

가. SSAGE 워크숍의 목적 및 개요

2011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 4년에 걸쳐 진행된 SSAGE 워크숍은 협력국의 여성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지 전문가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현지 양성평등 정책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현지의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개개인의 역량 발휘가 더 큰 사회적 변화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김은경 외, 2011a: 164).

2011년도에는 1차 협력대상국인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여성정책 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한국에서 초청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12년도에는 현지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2013년도에는 2차 협력대상국가로 선정된 미얀마와 베트남의 여성정책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다. 2014년도에는 UNDP 캄보디아 사무소와 공동주최로 1, 2차 협력대상 4개국의 여성정책 관련 고위공무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지식공유를 위한 정부 간 대화를 실시하였다. 4개년의 워크숍은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공통적인 틀은 유지

하여 왔으나, 협력국 현지의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전년도보다 진보한 워크샵을 제공하기 위해 참가자 구성과 개최 형식에 있어서는 매년 조금씩 변화를 주어 왔다.

형식과 참가자 구성에 있어서 매년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본 워크샵은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의 기간으로, 한국 또는 현지에서 평균 30-40명의 현지 여성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2011년도부터 개최된 워크샵의 개요를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특기할만한 점은 2012년도의 경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여성 정책 현안을 발굴을 위해서는 국내보다는 현지에서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표 IV-1〉 SSAGE 워크샵 개요 (2011-2014)

| | 1차 (2011) | 2차 (2012, 현지워크샵) | | 3차 (2013) | 4차 (2014) |
|--------|--|---|---|---|--|
| |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 |
| 워크샵명 | 2011 KWDI SSAGE Workshop: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 2012 KWDI SSAGE Workshop: 여성정책·사업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샵 | 2012 KWDI SSAGE Workshop: 여성정책·사업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샵 | 2013 KWDI SSAGE Workshop: 미얀마, 베트남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샵 | 2014 KWDI SSAGE Workshop: 아태지역 젠더정책 워크샵 및 정부간 대화 |
| 기간 | 2011. 9. 18(일)~10. 1(토) (2주간) | 2012. 5. 8(화)~5. 11(금) (약 1주간) | 2012. 5. 28(월)~6. 1(금) (1주간) | 2013. 9. 9(월)~9. 13(금) (1주간) | 2014. 9. 29(월)~10. 3(금) (1주간) |
| 장소 | 한국(서울) | 캄보디아(싸엠립) | 인도네시아(발리) | 한국(서울) | 한국(서울) |
| 초청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미얀마 베트남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

| | 1차 (2011) | 2차 (2012, 현지워크샵) | | 3차 (2013) | 4차 (2014) |
|--------|----------------------------|--|---|-------------------------------|---|
| |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 |
| 참가 인원 | 각 국가 15명 (총 30명) | 캄보디아 46명 한국 15명 (총 61명) | 인도네시아 40명 한국 14명 (총 54명) | 각 국가 14명 (총 28명) | 각 국가 약 6명 (총 25명) |
| 참가 국가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미얀마 베트남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
| 참가자 구성 | 현지 공무원, NGO 활동가, 정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공무원, 정치인, 학계, NGO 활동가 • 한국: 본원 연구진, 원내/외 강사진, 부처 ODA/여성정책 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공무원, 정치인, 학계, NGO 활동가 • 한국: 본원 연구진, 원내/외 강사진, 부처 ODA/여성정책 담당자 | 여성정책 관련 정부인사, 시민사회 활동 및 학계 인사 | 젠더정책 관련 고위급 공무원, 정부인사, 정부산하단체 인사, 국회의원 (각 국가의 ASEAN 여성위원회(ACW) 위원 포함) |

자료: 김은경 외(2011a), p.163; 김은경 외(2013), p.127.

참가자 선발 과정은 현지 기초조사과정과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현지 워크샵 참석가능자를 파악한 후 현지 여성부 및 관련부처, 학계, NGO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워크샵 프로그램 참석자 공고를 하였고, 지원자들은 신청서와 정책이슈노트를 제출하였다. 신청서 심사 결과와 각 주제 분야별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을 염두에 두고 최종 참가자를 선발하였다. 실무진 위주로 참가자를 선발하였던 2011년, 2013년 워크샵에서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젠더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고위급을 대상으로 했던 2014년도의 경우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부국장급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영어로 강의 수강과 토론이 가능한 자를 위주로 선발하였다.

최종 선발된 참가자들을 살펴보면 정부, NGO, 학계의 여성정책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주로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해 진행하였던 2014년도에는 정부의 여성부처 뿐 아니라 국회, 정부산하 단체의 임원들도 참가하였으며, 50대에서

60대의 참가자가 가장 많았다.

나. 워크숍 프로그램 구성

SSAGE 워크숍은 강의(공통과목, 선택과목), 전문가(참가자) 워크숍 혹은 세미나, 현장학습,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워크숍은 현지수요조사와 현지 전문가 자문회의에 기반하며 기존 여성과 개발에 대한 강의 중심의 연수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나아가, 참가자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과 전문가 컨설팅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다(김은경 외, 2011a: 167).

공통과목은 양성평등 정책 개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주제들로서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젠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강의로 구성되었다(김은경 외, 2011a: 167). 주제로는 ‘KWDI 설립배경과 한국여성정책의 기여도’,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경험’,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과정’, ‘성 주류화 정책과 도구’, ‘UN CEDAW 보고서 작성과 실행’ 등이 대표적이다.

선택과목으로는 정치적 역량강화,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인권 및 여성폭력철폐에 대한 심화학습 강의와 전문가 컨설팅으로 구성되었다(김은경 외, 2011a: 167). 현장학습은 영역별로 진행되는 선택과목 강의와 연계한 것으로 각 해당분야 기관들을 방문하여 시설견학 및 기관소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젠더관련 이슈 발굴과 발전사례를 공유하고 있다(김은경 외, 2011a: 169). 참가자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관심있는 정책이슈에 대해 작성해온 정책이슈노트를 바탕으로 1인 1 정책제안서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양 국가가 발표와 공유의 과정을 통해 양국 양성평등 정책 현실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 정책화 방안과 실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70).

워크숍 세부 일정은 표 IV-2와 같은 기본 포맷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러나 기간과 프로그램 세부 구성에 있어서는 현지 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조금씩 바뀌어서 진행하고 있다.

〈표 IV-2〉 SSAGE 워크샵 세부 일정 (예)

| 일 자 | 일 | 월 | 화 | | | 수 | | | 목 | | 금 | 토 | |
|-----|----------|------------------|------------------|------------------|------------------|------------------|------------------|------------------|-------------------------------|------------------|----------------------------------|----------|--|
| 오 전 | 한국 입국 | 오리엔 테이션 | 공통과목 강의3 | | | 공통과목 강의6 | | | 분야별 사업제안서 발표 및 토론 | | 전체 사업 제안서 발표 및 토론 | 한국 출국 | |
| | | 공통과목 강의1 | 공통과목 강의4 | | | | | | | | | | |
| | | | 공통과목 강의5 | | 여성가족부와의 간담회 | | | | | | | | |
| 오 후 | 한국 입국 | 공통과목 강의2 | | 기관 방문 (정치) | 기관 방문 (경제) | 기관 방문 (인권) | 기관 방문 (정치) | 기관 방문 (경제) | 기관 방문 (인권) | 선택 강의 (보건) | 선택 강의 (경제) | 문화 탐방 | |
| | | 선택 강의 (정치) | 선택 강의 (경제) | | | | | | | 선택 강의 (인권) | 분야별 사업제안서 워킹데이틀 | | |
| | | 환영만찬 | | | | | | | | 폐회만찬 | | | |

다. 워크샵의 특징 및 의의

1) 4개년도 워크샵의 종합적 특징 및 의의

SSAGE 워크샵의 특징은 현지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워크샵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는 점과 워크샵이 참여적 형태가 되도록 기획하였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워크샵 준비 단계에서부터 현지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에 실시한 기초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현지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①정치적 역량강화, ②경제적 역량강화, ③여성의 인권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워크샵의 세부주제로 선정하여 각 분야에서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왔다(김은경 외, 2011a: 166-167).

둘째, 워크샵 과정에서는 일방적 지식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워크샵 참석자들이 워크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현지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김은경 외, 2011a: 166-167). 참석자들은 지원서 제출 시 작성한 정책페이퍼를(policy paper)을 워크샵 기간동

안에 보다 구체화된 사업제안서(policy proposal)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지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 대안을 주도적으로 찾아 나가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 중심의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참석자들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김은경 외, 2011a: 167).

셋째, 본 SSAGE 워크숍은 종종 대립관계에 놓일 수 있는 정부와 NGO가 동일 관심분야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김은경 외, 2011a: 167).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워크숍에서는 참가 대상을 정부공무원, NGO, 정치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워크숍 이후 정책입안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현지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지-한국 관련 정책전문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SSAGE 워크숍에서 제안된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은 각국의 생생한 수요를 담고 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수요 파악을 통해 수원국 중심의 원조를 추구하는 것은 국제원조흐름과 한국 정부의 원조 철학에 부응하는 것이며 젠더분야의 구체적 ODA 사업의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각 연도별 워크숍의 특징

이러한 종합적인 특징 이외에도 각 연도별로 워크숍의 특징과 의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11년 제 1차 SSAGE 워크숍

2011년도 첫 SSAGE 워크숍에서는 양성평등 정책 역량강화 워크숍의 기본 모듈이 개발되었다. 워크숍 설계를 위하여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워크숍의 목적을 설정하고 협력국을 발굴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으며, 특히 현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반영하여 워크숍의 세부 주제를 결정하여 워크숍을 설계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서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워크숍 평가 결과를 통한 개선 사항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대상별 젠더 관련 연수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김은경 외, 2011a: 206). 본 워크샵의 기본 모듈은 이후에 개최된 2, 3, 4차년도 SSAGE 워크샵의 기본 모듈로서 활용되고 있다.

나) 2012년 제 2차 SSAGE 워크샵

2012년도의 워크샵의 특징으로는 현지 워크샵 개최를 들 수 있다.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현지 정책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양성평등 의식 증진 및 정책실행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협력국 현지에서 개최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고,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현지의 다양한 여성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 현지 워크샵은 기획과 진행에 있어서 인력 및 시설 운영 전반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개발된 워크샵의 기본 모듈을 바탕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에 있어서 그 주제를 선별함으로써 축약된 기간 안에 효율적인 운영과 결과를 도출하도록 기획하였다.

2012년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워크샵 일정 중 정부간 간담회를 기획함으로써 국별 양성평등 담당자들과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캄보디아, 한국-인도네시아 정부 간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주제분과 그룹별 토의를 통해 개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한국 정부 및 각국 여성부 공무원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수원국과 공여국의 여성정책 지식공유 틀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 및 캄보디아 정부차원의 검토과정을 거쳐, 향후 실효성 있는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다) 2013년 제 3 차 SSAGE 워크샵

본 워크샵은 2011년도에 개발된 모듈을 기본으로 신규 협력국가 2개국(미얀마, 베트남)의 정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이 있다. 또한 2011년도 워크샵에서는 선택분과 과정이 정치적 역량강화,

경제적 역량강화, 인권의 세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선택강의에 교육과 보건분야를 추가하여 주제 분야를 좀 더 세분화 하였다(김은경 외, 2013: 141). 또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사회 및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초점을 두어 강의를 구성하였다(김은경 외, 2013: 141). 본 연구사업이 3차년도에 들어서면서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이라는 목표가 구체화됨에 따라 워크샵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것이 참가자들이 사업제안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투입요소(input)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좀 더 강조점을 두었다(김은경 외, 2013: 141).

라) 2014년 제 4 차 SSAGE 워크샵

2014년의 SSAGE 워크샵은 이전 워크샵의 여러 요소들을 반영하였으나, 몇 가지 차별화된 시도를 하였다. 첫째, 워크샵 참여자로 여성정책 담당 고위급 공무원들을 초청한 점이다. 2013년도에 개발한 본 사업의 논리모델에 있어서도 고위급 공무원의 변화만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다(김은경 외, 2013: 224). 또한 지난 2013년 워크샵 참가자들의 평가에서도 고위급정책입안자를 위해 KWDI의 SSAGE 워크샵이 제공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김은경 외, 2013: 168). 따라서 본 워크샵의 참가자들은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부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뿐 아니라, 여성정책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 및 입법사무관, 여성정책의 주 실행자인 여성연맹 및 여성관련 준 정부 단체들의 간부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협력국의 양성평등 인프라 구축과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정책 수립과 추진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고위급을 지원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였고, 2014년도의 워크샵은 이를 반영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사업의 4개 협력국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을 모두 초청하여 진행한 점이다. 4개국과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가별 여러 환경과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이슈에 있어서 이들 간에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협력국을 한 자리에 모아 서로의 여성 관련 현안 및 해결 과정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라. 4개년도 워크숍 평가

본 절에서는 가장 최근인 2014년도의 SSAGE 워크숍 평가결과를 먼저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 실시된 SSAGE 워크숍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발컨설팅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1) 2014년도 SSAGE 워크숍 평가

2014년도 워크숍의 평가는 크게 네 영역에 걸쳐 진행되었다. 평가는 “전체 워크숍 평가”, 각 강의 및 기관방문을 마친 후 이루어진 “과목별 평가”, 각 세미나 세션에 관해 평가한 “세미나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숍 전후의 개인의 역량 변화를 측정하는 “사전·사후 자기 평가”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5점 척도로 진행되었다.

가) 전체 워크숍 평가

전체 워크숍 평가는 워크숍 마지막 날 실시되었으며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지원업무, 만족도, 성취도, 지속성의 7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본 워크숍 전반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4.58점을 주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4.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속성은 ‘워크숍 추천 의향’과 ‘워크숍의 지속 필요성’으로 나뉘어 있으며, 특히 ‘워크숍 지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4.84점으로 전체 워크숍 평가 항목 중에서 최고점에 해당한다. 지속성 다음으로는 워크숍의 효율성(4.61점)과 효과성(4.60점)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다. 효율성은 ‘프로그램 조직’ 및 ‘학습 환경 조성’, ‘워크숍에 대한 사전 안내’, ‘워크숍 기간 중 안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고, 효과성은 세션별 준비성, 워크숍 자료 평가, 워크숍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했다. 이는 참가자들이 워크

샵의 구성과 진행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임을 나타낸다.

반면, 성취도(4.49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긴 하나 절대적 수치로 볼 때 낮은 평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워크샵을 통한 지식의 향후 활용도’가 4.44점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향후 워크샵 개최 시 참가자 간에 습득한 지식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유용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Ⅳ-3〉 전체 워크샵 평가 결과

| 분야 | 문항 | N | 평균(표준편차) | |
|------|-----------------------|----|------------|------------|
| 적합성 | 워크샵 기간 | 25 | 4.56(0.65) | 4.59(0.58) |
| | 워크샵 프로그램 및 주제 | 25 | 4.60(0.50) | |
| | 워크샵 구성 | 25 | 4.60(0.58) | |
| 효과성 | 세션 준비성 및 유익성 | 25 | 4.56(0.51) | 4.60(0.53) |
| | 워크샵 자료의 적절성 및 교육효과성 | 24 | 4.63(0.49) | |
| | 워크샵 시설 및 장비 | 24 | 4.63(0.58) | |
| 효율성 | 워크샵 프로그램 및 환경의 효율적 조직 | 25 | 4.52(0.51) | 4.61(0.50) |
| | 워크샵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안내도 | 25 | 4.40(0.65) | |
| | 워크샵 기간 중 공지 및 안내 | 25 | 4.68(0.48) | |
| | 워크샵 운영진의 조직성 및 봉사정신 | 25 | 4.84(0.37) | |
| 지원업무 | 워크샵 장소(KWDI) 만족도 | 25 | 4.84(0.37) | 4.59(0.50) |
| | 워크샵 장소(센터마크 호텔) 만족도 | 25 | 4.72(0.46) | |
| | 숙박 만족도 | 25 | 4.68(0.48) | |
| | 식사 및 다과 만족도 | 25 | 4.28(0.68) | |
| | 문화 활동 만족도 | 24 | 4.42(0.50) | |
| 만족도 | 강의 만족도 | 25 | 4.68(0.48) | 4.51(0.55) |
| | 현장학습 만족도 | 25 | 4.64(0.49) | |
| | 세미나 세션 만족도 | 25 | 4.28(0.74) | |
| |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 | 25 | 4.44(0.51) | |

| 분야 | 문항 | N | 평균(표준편차) | |
|-----|----------------|----|------------|------------|
| 성취도 | 개인 역량 강화 기여도 | 25 | 4.56(0.51) | 4.49(0.55) |
| | 개인 목표 달성도 | 25 | 4.52(0.51) | |
| | 워크샵 지식의 향후 활용도 | 25 | 4.44(0.58) | |
| | 참가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 24 | 4.46(0.59) | |
| 지속성 | 워크샵 추천 의향 | 25 | 4.68(0.48) | 4.76(0.43) |
| | 워크샵 지속 필요성 | 25 | 4.84(0.37) | |
| 평균 | | | 4.58(0.52) | |

정량적 평가 이외에도 참가자들이 제시한 워크샵 평가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강의를 통해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 현황을 배울 수 있다는 점, 친화적인 분위기에서의 열린 토론, 그리고 특히 기관방문이 좋았습니다.”

“본 워크샵을 통하여 한국 뿐 아니라 4개 참가국 모두의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강화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참가한 워크샵 참가자, 연구자, 강사 등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경험이 좋았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하루 이틀 더 필요합니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각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과 의견 교환이 가능했던 점, 그리고 워크샵 조직과 효율적 운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촘촘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학습 강도가 높았던 점, 강의와 토론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평가하였다.

나) 과목별 (강의 및 기관방문) 평가

다음으로는 강의 및 기관방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매 강의 이후 아래와 같은 평가요소로 강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Ⅳ-4〉 강의에 대한 평가결과

| 과목명 | 평가요소 및 항목별 평균(표준편차) | | | | | | | | | |
|-----------------|---------------------|----------------|----------------|----------------|----------------|----------------|----------------|----------------|----------------|----------------|
| | N | 필요성 | 적합성 | 이해도 | 강사 전문성 | 강의 시간 | 강의 자료 | 만족도 | 전체 평가 | 평균 |
|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 | 22 | 4.36 (0.79) | 4.00 (0.82) | 3.86 (0.56) | 4.45 (0.67) | 4.00 (0.69) | 4.45 (0.60) | 4.45 (0.67) | 4.50 (0.60) | 4.26 (0.67) |
| 한국 여성정책 발전과정 | 23 | 4.70 (0.47) | 4.48 (0.59) | 4.17 (0.65) | 4.61 (0.58) | 4.13 (0.69) | 4.39 (0.58) | 4.43 (0.66) | 4.43 (0.66) | 4.42 (0.61) |
| 한국의 여성폭력 이슈 | 21 | 4.38 (0.67) | 4.33 (0.73) | 4.19 (0.68) | 4.05 (0.67) | 3.90 (0.62) | 4.14 (0.65) | 4.19 (0.68) | 4.19 (0.68) | 4.17 (0.67) |
| 한국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23 | 4.52 (0.59) | 4.48 (0.67) | 4.35 (0.78) | 4.39 (0.72) | 3.96 (0.77) | 4.43 (0.59) | 4.43 (0.73) | 4.43 (0.66) | 4.38 (0.69) |
| 한국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 23 | 4.43 (0.79) | 4.35 (0.78) | 4.52 (0.67) | 4.74 (0.54) | 4.13 (0.87) | 4.61 (0.72) | 4.57 (0.66) | 4.52 (0.59) | 4.48 (0.70) |
| 사업제안서 작성요령과 실습 | 23 | 4.87 (0.46) | 4.83 (0.65) | 4.57 (0.73) | 4.70 (0.56) | 4.30 (0.70) | 4.61 (0.58) | 4.65 (0.57) | 4.70 (0.56) | 4.65 (0.60) |

강의는 총 6회 실시되었으며, 강의 주제는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경험’, ‘한국 여성정책 발전과정’, ‘한국의 여성폭력 이슈’, ‘한국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제안서 작성요령과 실습’으로 정치, 인권, 경제 분야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 평가요소로는 해당 강의의 필요성, 적합성, 이해도, 강사의 전문성, 강의 시간, 강의 자료, 만족도, 전체 평가의 8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강의는 ‘사업제안서 작성요령과 실습(4.65점)’이며, 다음으로 ‘한국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4.57점)’, ‘한국 여성정책 발전과정(4.43점)’과 ‘한국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4.4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향후 구체적 적용도가 높은 강의를 선호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강의 시간에 있어서 점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참가자들은 강의 및 토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느꼈음을 시사한다.

〈표 Ⅳ-5〉 기관방문에 대한 평가결과

| 과목명 | 평가요소 및 항목별 평균(표준편차) | | | | | | | | |
|-------------------------|---------------------|----------------|----------------|----------------|----------------|----------------|----------------|----------------|----------------|
| | N | 필요성 | 적합성1 | 적합성2 | 이해도 | 강의 시간 | 만족도 | 전체 평가 | 평균 |
| 전 국회의원과 의 간담회 | 24 | 4.13 (0.74) | 3.75 (0.68) | 3.96 (0.69) | 3.88 (0.61) | 3.96 (0.62) | 4.13 (0.61) | 4.00 (0.66) | 3.97 (0.66) |
| 한국 여성의 전화 기관방문 | 24 | 4.21 (0.72) | 4.17 (0.70) | 4.25 (0.68) | 4.17 (0.70) | 4.25 (0.68) | 4.08 (0.65) | 4.25 (0.68) | 4.20 (0.69) |
|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 기관방문 | 24 | 4.58 (0.58) | 4.33 (0.82) | 4.50 (0.51) | 4.63 (0.49) | 4.46 (0.66) | 4.67 (0.56) | 4.67 (0.56) | 4.55 (0.60) |
| 여성가족부의 간담회 | 25 | 4.40 (0.71) | 4.36 (0.76) | 4.44 (0.77) | 4.20 (0.76) | 4.24 (0.72) | 4.28 (0.74) | 4.28 (0.79) | 4.31 (0.75) |
| 경기여성능력개 발센터와의 간담회 | 24 | 4.58 (0.78) | 4.46 (0.83) | 4.67 (0.64) | 4.63 (0.65) | 4.58 (0.65) | 4.63 (0.65) | 4.67 (0.64) | 4.60 (0.69) |

기관방문 평가는 총 5회 실시되었으며,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와 간담회를 나누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평가요소는 강의평가와 마찬가지로 필요성, 적합성, 이해도, 강의시간, 만족도, 전체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학습의 경우 적합성에 관한 문항이 2개이다. 본인 업무와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적합성 1)에 더하여 해당 방문기관이 적절한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적합성 2)이 추가되었다. 기관방문에 대한 평가결과,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와의 간담회(4.60점)’와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 기관방문(4.55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두 기관에서의 이해도와 만족도는 모두 4.6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 기관이 여성폭력 대응 및 직업훈련에서 보유한 탁월한 전문성과 특화성이 참가자들에게도 잘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 세미나세션 평가

〈표 Ⅳ-6〉 세미나세션에 대한 평가결과

| 과목명 | 평가요소 및 항목별 평균(표준편차) | | | | | | | | | |
|--|---------------------|----------------|----------------|----------------|----------------|----------------|----------------|----------------|----------------|----------------|
| | N | 필요성 | 적합성 | 이해도 | 강사 전문성 | 강의 시간 | 강의 자료 | 만족도 | 전체 평가 | 평균 |
| 4개국별 한국여성정책 연구원과의 공동연구과제 결과 공유 및 주제별 발전방안 모색 | 25 | 4.52 (0.77) | 4.44 (0.82) | 4.28 (0.74) | 4.32 (0.75) | 3.92 (0.91) | 4.28 (0.79) | 4.32 (0.75) | 4.28 (0.74) | 4.30 (0.78) |
|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지역 통합과 시사점 | 23 | 3.83 (1.11) | 3.96 (1.11) | 3.91 (1.08) | 4.09 (1.00) | 3.74 (1.05) | 4.00 (1.00) | 3.87 (1.06) | 3.91 (1.04) | 3.91 (1.06) |
| 4개국의 젠더분야 ODA 현황과 이슈 | 24 | 4.54 (0.66) | 4.33 (0.70) | 4.17 (0.82) | - | 4.04 (0.95) | - | 4.21 (0.78) | 4.21 (0.78) | 4.25 (0.78) |

세미나 세션은 세 분야로 나뉘서 이뤄졌다. ‘4개국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공동연구과제 결과 공유 및 주제별 발전방안을 모색’,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지역 통합과 시사점’, ‘4개국의 젠더분야 ODA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참가자들이 4개국별 연구과제 결과(4.52점)와 젠더분야 현황(4.54점)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강의시간에 관해서는 모든 세션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세션 개최 시 강의 및 의견 교환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배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 사전·사후 자기 평가

〈표 IV-7〉 워크샵 전·후 자기평가결과

| 구분 | 워크샵 전 (표준편차) | 워크샵 후 (표준편차) | t | df | 유의확률 |
|--|-----------------|-----------------|------------|----|-------|
| 여성 및 젠더 이슈에 관한 관심도 | 4.67(0.96) | 4.86(0.36) | -0.847 | 20 | 0.407 |
| 여성 및 젠더 이슈에 관한 이해도 | 3.81(0.68) | 4.76(0.44) | -6.523 *** | 20 | 0.000 |
| 젠더 관점에서의 업무수행 정도 | 4.33(0.80) | 4.67(0.48) | -2.646 ** | 20 | 0.016 |
| 젠더 이슈에 관한 지역적 협력 필요성 | 4.71(0.64) | 4.71(0.46) | 0.000 | 20 | 1.000 |
| 소속 기관 내 젠더 관련 정책 (프로그램) 제안 여부* | 4.38(0.74) | 4.71(0.46) | -2.092 ** | 20 | 0.049 |
| 소속 기관 내 젠더 관련 정책 (프로그램) 채택 및 실행 여부* | 4.05(0.92) | 4.81(0.40) | -4.202 *** | 20 | 0.001 |
| 여성 이슈에 관한 개별 혹은 그룹별 연구 경험* | 4.00(0.71) | 4.76(0.44) | -4.985 *** | 20 | 0.000 |
|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 3.52(1.37) | 4.76(0.44) | -3.924 *** | 20 | 0.001 |
| KWDI와의 협력의향 | 4.48(0.81) | 4.95(0.22) | -2.911 *** | 20 | 0.009 |
| 평균 | 4.22(0.85) | 4.78(0.41) | - | - | - |

참조: *p<0.10, **p<0.05, ***p<0.01

* 워크샵 후 자기평가에서는 향후 의향을 묻고 있음.

워크샵 전·후 자기평가는 워크샵 시작 전과 워크샵의 모든 일정이 종료된 직후에 실시되었다. 전·후의 항목별 평균점을 비교해 보면, ‘젠더 이슈에 관한 지역적 협력 필요성’ 항목을 제외(사전, 사후 평균점이 동일함)한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워크샵 전과 후의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은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며, 사전 3.52점에서 사후 4.76점으로 1.24점이 향상되었다. 그 다음으로 ‘여성 및 젠더 이슈에 관한 이해도’가 사전 3.81점에서 사후 4.76점으로 0.95점이 향상되었고, ‘소속 기관 내 젠더 관련 정책 채택 및 실행 여부’와 ‘여성 이슈에 관한 개별 혹은 그룹별 연구 경험’은 각각 0.76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대응표본분석을 실시한 결과, 9개

의 측정 항목 중 7개 항목의 전·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샵의 효과가 가장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여성 및 젠더 이슈에 대한 이해도’와 ‘여성 이슈에 관한 연구 경험’, ‘젠더 관련 정책 채택 및 실행 여부’와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KWDI와의 협력의향’, ‘젠더 관점에서의 업무수행 정도’, 관련 정책 제안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워크샵의 효과가 젠더의식을 고양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지난 SSAGE 워크샵에 대한 평가와의 비교

본 소절에서는 지난 워크샵에 대한 평가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고, 2014년도 SSAGE 워크샵 평가결과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연차의 중점사항과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과 평가요소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3년 간 시행된 워크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간략히 살펴보고, 올해의 그것과 비교해 봄으로써 여성정책 역량강화 워크샵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사업을 통해 시행된 2011년도 첫 워크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적합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5점 만점에서 평균 4.634점을 얻어 참석자들의 상당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김은경 외, 2011a: 188-192) (표 IV-8 참고). 2011년도에는 워크샵 평가를 위한 참가자와의 심층면접도 병행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참석자들은 워크샵에 대해 큰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강의와 현장학습 방문과의 연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다만,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에는 강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과 참가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김은경 외, 2011a: 193-196).

〈표 IV-8〉 2011년도 전체 워크숍 평가 결과

|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 | 평균 | 표준편차 |
|-------------|------------|-------|-------|
| 적합성 | 워크숍 기간 | 4.481 | 0.569 |
| | 프로그램 적합성 | 4.815 | 0.474 |
| | 구성요소 | 4.481 | 0.500 |
| 효율성 | 강의수준 | 4.577 | 0.494 |
| | 전체구성 | 4.654 | 0.476 |
| | 현장학습 적절성 | 4.692 | 0.462 |
| | 운영의 효율성 | 4.593 | 0.491 |
| 효과성 | 참가자 목표 달성도 | 4.519 | 0.569 |
| | 강의전달방식 | 4.407 | 0.562 |
| | 강사 전문성 | 4.630 | 0.483 |
| | 네트워크 형성 | 4.593 | 0.491 |
| 영향력 | 업무와의 유용성 | 4.741 | 0.516 |
| | 업무능력 향상 기여 | 4.704 | 0.457 |
| | 역량강화기여 | 4.741 | 0.438 |
| 지속성 | 추천의향 | 4.808 | 0.394 |
| | 워크숍의 당위성 | 4.704 | 0.457 |
| 전체 | | 4.634 | 0.489 |

자료: 김은경 외(2011a), p.189

2012년도 워크숍의 경우 앞에서 간략히 설명된 것처럼, 1차 협력대상국 2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의 현지 워크숍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며, 1차년도에 비해 간소화된 형태로 그 평가가 이루어졌다. 표 IV-9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각 현지 워크숍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각 강의과목별 필요성과 적절성, 전문성, 전반적 강의 만족도 측면에서 평가한 점수를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5점 척도에서 평균이 4점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2011년도와 평가항목과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전년도와 이후 년도의 워크숍에 비해 다

소 떨어지는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참석자들이 현지에서 진행하는 강의와 세미나 중심의 워크샵보다 한국에 초청되어 다양한 현장학습과 한국 전문가들의 교류 기회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표 IV-9〉 2012년도 현지 워크샵 평가 결과

| 평가항목 \ 국가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
| 강의의 필요성 | 4.10 | 3.87 |
| 강의의 적절성 | 4.03 | 3.87 |
| 강사의 전문성 | 3.87 | 3.91 |
| 전반적 강의 만족도 | 3.89 | 3.68 |

한편, 2013년도에는 본 사업의 중간평가 차원에서 1차 협력대상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을 대상으로 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워크샵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의 사후평가가 실시되었는데, 워크샵 전-후, 참가자(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의 젠더의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IV-10 참고). 워크샵에 사전과 사후 젠더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변화에 전반적인 향상이 있었으며, 특히 워크샵의 다른 참가자들과 네트워크를 지속, 차후에 한국 혹은 여성정책연구원과의 협력 사업을 구상, 그리고 젠더에 관한 이해도 등이 가장 높게 향상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경 외, 2013: 188-207).

〈표 IV-10〉 2011년도 및 2012년도 워크숍 전-후 인식변화 평균값 비교

| 항목 | 인도네시아 | | | 캄보디아 | | | 전체 | | |
|---|-------|-------|-----------|-------|-------|-----------|-------|-------|-----------|
| | 전 | 후 | 후-전 평균 | 전 | 후 | 후-전 평균 | 전 | 후 | 후-전 평균 |
| 여성 이슈와 정책에 대한 관심 | 4.259 | 4.778 | 0.519 | 3.724 | 4.483 | 0.759 | 3.982 | 4.625 | 0.643 |
| 젠더에 관한 이해도 | 3.741 | 4.519 | 0.778 | 3.069 | 4.103 | 1.034 | 3.393 | 4.304 | 0.911 |
| 업무를 젠더적 시각에서 생각 | 4.296 | 4.741 | 0.445 | 3.517 | 4.357 | 0.893 | 3.893 | 4.545 | 0.673 |
| * 젠더 이슈가 중요하다고는 생각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 | 3.048 | 3.185 | 0.191 | 3.250 | 2.550 | -0.727 | 3.135 | 2.915 | -0.125 |
| 업무에서 젠더 관련성을 발견 | 4.074 | 4.481 | 0.407 | 3.897 | 4.621 | 0.724 | 3.982 | 4.554 | 0.571 |
| 젠더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동료나 상사와 의논 | 3.963 | 4.444 | 0.481 | 3.000 | 3.793 | 0.793 | 3.464 | 4.107 | 0.643 |
| 젠더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시행 | 3.840 | 4.440 | 0.600 | 2.679 | 3.655 | 0.929 | 3.226 | 4.019 | 0.774 |
| 여성 이슈와 정책에 대해 개인적 으로 혹은 모임을 통해 공부 | 4.111 | 4.519 | 0.408 | 3.448 | 4.069 | 0.621 | 3.768 | 4.286 | 0.518 |
| 차후에 한국 혹은 여성정책연구원 과의 협력 사업을 구상 | 3.360 | 4.185 | 0.800 | 2.241 | 3.143 | 0.964 | 2.759 | 3.655 | 0.887 |
| 워크숍의 다른 참가자들과 네트 워킹을 지속 | 3.520 | 4.370 | 0.840 | 2.679 | 3.862 | 1.143 | 3.075 | 4.107 | 1.000 |
| 전체평균 | 3.921 | 4.344 | 0.495 | 2.967 | 3.826 | 0.830 | 3.500 | 4.120 | 0.610 |

자료: 김은경 외(2013), pp.193-194.

* 역코딩항목

또한, 본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표 IV-11에서 제시된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현지에서 개최된 워크숍에 비해 한국에서 개최된 초청 워크숍 참가자의 경우가 워크숍 전과 후의 의식 변화가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참석자들의 의식변화가 현지에서 이루어진 워크숍보다는 국내 초청워크숍에서 더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정도 뒷받침 한다고 보인다.

〈표 Ⅳ-11〉 워크숍 장소에 따른 의식변화 전-후 자기평가 평균 값 집단 간 차이 비교

| 구분 | | 워크숍 전 의식 평균 | 워크숍 후 의식 평균 | 후-전 의식변화 평균 |
|--------|----|-------------|-------------|-------------|
| 워크숍 장소 | 한국 | 3.78 | 4.30 | 0.76 |
| | 현지 | 3.45 | 4.08 | 0.55 |
| | 모두 | - | 4.30 | - |
| F값 | | 1.196 | 1.209 | 0.720 |

자료: 김은경 외(2013), p.196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에는 2011년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내에서 2차 협력국가 2개국(미얀마, 베트남)의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표 Ⅳ-1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평균은 5점 만점에서 4.43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적합성의 측면에서 참석자들은 1주일의 워크숍 기간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사한 맥락에서 일부 응답자들은 설문지 상 추가의견 난에 토론시간의 부족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2011년도의 평가와도 유사한데, 2011년도 워크숍의 경우, 2013년도 워크숍과 달리 2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워크숍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파악되었다.

한편, 2013년도 워크숍에 대해 이루어진 과목별 평가를 살펴보면, 강의위주의 과목보다는 현장학습과 간담회와 같이 한국 전문가와 현지 참가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을 때 전반적이 평가, 이해도,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양방향적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앞서 언급된 것처럼, 2011년도와 2013년도의 초청워크숍 기간에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숍 기간 및 충분한 토론시간에 대한 문제가 지적 되었었는데, 2014년도에는 워크숍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각 강의 및 현장방문 요청 시, 참가자들의 토론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강사 및 현장방문 섭외 시점부터 노력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워크숍 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표 IV-12 참고). 그러나 앞서 언급된 것처럼 토론시간 부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향후 워크숍 설계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12〉 2013년도 전체 워크숍 평가 결과

|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 | 평균 (표준편차) | 요소평균 (표준편차) |
|-------------|------------------------|--------------|----------------|
| 적합성 | 워크샵 기간 | 4.00 (0.72) | 4.26 (0.23) |
| | 프로그램 | 4.57 (0.50) | |
| | 전체 구성요소 | 4.61 (0.50) | |
| | • 공통과목 강의 구성요소 | 4.14 (0.52) | |
| | • 선택과목 강의 구성요소 | 4.14 (0.52) | |
| | • 참가자들의 젠더사업 개발과정 구성요소 | 4.20 (0.48) | |
| | • 현장학습 구성요소 | 4.18 (0.48) | |
| 효율성 | 프로그램 조직 및 환경 조성 | 4.50 (0.51) | 4.54 (0.11) |
| | 워크샵에 대한 사전 안내 | 4.43 (0.63) | |
| | 워크샵 기간 중 안내 | 4.57 (0.50) | |
| | 워크샵 운영진 수 | 4.68 (0.48) | |
| 효과성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지식의 습득 | 4.61 (0.50) | 4.53 (0.05) |
|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지식의 향후 효용 | 4.50 (0.64) | |
| | 현지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개인 역량강화 | 4.50 (0.51) | |
| | 네트워크 구축 | 4.50 (0.64) | |
| 지속성 | 워크샵 추천 의향 | 4.68 (0.55) | 4.71 (0.05) |
| | 워크샵 지속 필요성 | 4.75 (0.44) | |
| 평균 | | 4.43 (0.54) | |

자료: 김은경 외(2013), p.167

3) 시사점

2014년도 SSAGE 워크숍은 기존 역량강화 연수사업 모듈에 의거하여 기획되었으나, 고위급 공무원을 초청하였다는 점과 남남협력을 집중적으로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워크숍과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였다.

국별 사업제안서를 캄보디아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인도네시아는 여성과 아동폭력 예방정책 강화, 미얀마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베트남은 가정폭력 방지 및 철폐법의 이행의 주제로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국별 양성평등 관련 당면한 과제들과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을 통해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워크숍 평가에서는 본 워크숍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고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이트한 스케줄과 강의와 토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함이 여전히 지적되었다. 여기에는 짧은 워크숍 기간 중에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하려는 기획진의 적극적 의도가 담겨있긴 하나, 참석자들에게는 이는 추후 워크숍 진행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전의 워크숍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워크숍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충분한 토론시간의 확보를 통해 참석자들의 참여중심의 워크숍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워크숍 내용은 강의보다는 현장학습이나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협력대상국 정책전문가들과 한국의 전문가들 간 상호 간 더 효과적인 지식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4개국의 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 발굴 결과

가. 인도네시아

1) 정치분야

인도네시아 정치분야에서는 2011년, 2012년 SSAGE 워크숍을 통하여 발굴한 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 2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안은 ‘풀뿌리 차원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2014 총선거 대비 여성후보 진출을 위한 캠페인 전략 수립’으로, 사업 목표, 내용과 대상 등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풀뿌리 차원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2011년 SSAGE 워크숍)⁸²⁾

본 사업은 풀뿌리 차원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는 여성들이 권리와 차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여성이 적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지역공동체와 마을 단위 여성 단체의 정치적 권리 인식을 돕고 풀뿌리 차원의 여성리더를 양성하며 도/시/군에 걸쳐 선출된 여성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직접 수혜 대상으로는 인도네시아 여성연합회원과 지역구 정당리더, 잠재적인 여성 후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 방식으로는 공동체 대상 서비스(outreach), 정당 로비, 미디어 접촉, 역량강화 워크숍과 연수, 감시와 평가 등이 있다.

나) 2014 총선거 대비 여성후보 진출을 위한 캠페인 전략 수립(2012년 SSAGE 워크숍)⁸³⁾

해당 사업은 2014년 총선에 대비하여 능력 있는 여성 후보를 총선에 진

82) 김은경 외(2011a), pp.282-284. 발표자: Ms. Dewi Komalasari (Program Staff, Indonesian Women Coalition for Justice and Democracy).

83) 김은경 외(2012), pp.388-389. 발표자: Ms. Elis Nurbaeti (Chairman, P2TP2A, Integrated Service Center for Women and Children).

출시시키고자 한다. 특히 정보와 역량의 부족함을 개선하여 유권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선거 운동과 정당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식을 쌓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연설 능력과 발언과 협상력을 키울 것이다. 예상 가능한 효과로는 해당 워크샵을 통해 여성 후보자가 총선 과정을 이해하고 선거 캠페인을 주체적으로 진행할 역량을 갖고 당선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하도록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다.

2014년 인도네시아 총선과 관련하여, 본 연구과제에서는 인도네시아대학 정치연구소(PUSKAPOL)와 함께 2014년 총선에서 남녀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여성 후보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바 있는 인도네시아 정치분야 한국과의 협력사업 수요에서 나타난 연구기금 지원, 그리고 위 정책수요 제안에 대해 동시에 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경제분야

인도네시아 경제분야의 경우, 2011년, 2012년 SSAGE 워크샵에서 발굴한 3개의 사업제안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1년에는 빈곤에 노출된 농촌 여성들을 위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통한 빈곤완화정책 사업’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2012년 SSAGE 워크샵에서는 ‘여성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창업/경영인 지원 사업’, ‘성인지적 인프라 모델개발사업’이 제안되었다. 사업제안서별 개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통한 빈곤완화정책 (2011년 SSAGE 워크샵)⁸⁴⁾

본 사업제안서는 농촌여성이 스스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활동을 제공하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농촌 인구의 40%가 여성인데 반해, 농촌 여성 대부분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며 일자리 부족의 문제에도 직면해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을

84) 김은경 외(2011a), pp.289-290. 발표자: Ms. Endang Sulfiana Sukirman (Board of Executive, PPSW Sumatra, PPSW Association).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 대상은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농업 종사 여성,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편부모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연수, 관련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와 정책노트 작성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옹호활동 전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와 경제활동을 통한 농촌여성의 역량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회 예산 위원회 25% 정도의 정책 입안자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법안의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개정, 약 5,000여명 빈곤여성 일자리 혹은 경제활동 제공을 기대한다.

나) 여성 SME 창업·경영인 지원사업(2012년 SSAGE 워크숍)⁸⁵⁾

본 사업안의 목표는 지방여성이 지방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 및 기술을 발전시키고, 역량강화를 통해 이를 사업 콘텐츠로 발전시켜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하는데 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에서 중소기업(SME)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성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협상력, 자본에의 낮은 접근성, 기술 습득의 제약 등으로 상대적으로 열세의 위치에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업 대상은 빈곤 및 낙후지역의 여성, 여성이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가내수공업 등 여성 사업자가 활동하는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워크숍 실시, 기술교육 모듈 개발 및 강사진 양성,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전자금(revolving fund) 지원, 중소기업(SME) 종사 여성을 위한 법/제도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 활동을 통해 빈곤여성들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재정적 독립, 가구 소득 및 가족 탄력성(family resilience)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85) 김은경 외(2012), pp.289-390. 발표자: Ms. Ema Rachmawati (Head of the Field of Women Empowerment, Council of Women Empowerment, Child Protection and Family Welfare of Central Java Government).

다) 성인지적 인프라 모델개발 사업(2012년 SSAGE 워크숍)⁸⁶⁾

이 사업안의 목표는 공공인프라 개발 계획에서 실행 단계까지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중장기 인프라 사업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꾸준한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기반 인프라 건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양성평등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여성의 참여가 미약한 실정을 반영하였다.

본 사업은 총 4개년으로 구상되었으며 1차년도에는 공공사업 및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을 구축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인프라 사업 연구조사를 실시한다. 2차년도에는 성인지적 인프라개발을 위한 지표 개발, 3차년도는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4차년도는 시행착오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성인지적 인프라모델개발 보완 및 완성을 실시한다.

3) 인권 및 폭력분야

인도네시아 인권 및 폭력분야에서는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4년 SSAGE 워크숍을 통해 발굴한 5개의 사업제안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제는 성폭력 감소를 위한 사회통제 시스템 활성화, 성폭력 관련 법 제정,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인지적 거버넌스 제도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인지적 법 집행 강화, 그리고 여성과 아동폭력 예방정책 강화이다. 성폭력,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사업 수요가 주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업제안서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Sido Urip과 Air Meles 지역의 성폭력 감소를 위한 사회통제 시스템 활성화 방안(2011 SSAGE 워크숍)⁸⁷⁾

본 사업안은 약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목표는 Sido Urip과 Air Meles지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 확대이다.

86) 김은경 외(2012), pp.391-392. 발표자: Ms. Dian Marina (Ache Area Coordinator, Pulih Foundation).

87) 김은경 외(2011a), p.296. 발표자: Ms. Susi Handayani (Cahaya Perempuan Women's Crisis Center).

사업의 목적은 첫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인도네시아 Cahaya Perempuan 여성긴급센터(Women's Crisis Center)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증진, 둘째, 여성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수준 개선, 셋째,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설립을 위한 지역정부의 책임성 강화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교육을 통한 마을 대표들의 성 인지도 증진, 둘째,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 독려, 셋째,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 옹호활동 조직이 있다.

나)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법 제정 사업 (2012 SSAGE 워크숍)⁸⁸⁾

본 사업은 성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목표로는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와 사법 시스템 구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recovery services)의 질적 개선, 사후대책 외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상 성과로는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및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나 가해자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인식 및 태도 변화, 감화교육 및 카운슬링을 통한 가해자의 행동방식 변화를 바탕으로 성폭력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88) 김은경 외(2012), pp.393-394. 발표자: Ms. I Gusti Agung Ayu Jakie Viemilawati (Psychologist for Direct Services and Technical Advisor to Aceh Program, Pulih Foundation Jakarta).

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인지적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사업
(2012 SSAGE 워크숍)⁸⁹⁾

본 사업은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성 불평등 해소 및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성인지적 정책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의 성 주류화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공감과 지원 증대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업의 세부 목표는 성 주류화, 성인지 예산, 성별 통계, 성별 영향 평가와 관련한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성 주류화 이행 시스템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러한 이행 시스템을 각 부처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교육모듈 및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 행정단위 별로 이행 시스템에 대한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제도적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차 사업대상자는 인도네시아 여성부, 재정부 등 주요 정부부처 내 정책입안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이행 시범대상으로 7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기획관들이며, 2차 사업대상자는 중앙 및 지방정부 교육담당자(facilitator), 지방정부 기획관 및 예산 분석관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 주류화 이행 가이드라인 개발, 성별영향평가 교육 방법 및 모듈 개발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성 주류화 이행 개선과 성인지적 거버넌스 제도화 발전을 기대한다.

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인지적 법 집행 강화 사업
(2012 SSAGE 워크숍)⁹⁰⁾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을 대상으로 역내 규범 개선,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과 관련이 있는 경찰기관 등의 법 집행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89) 김은경 외(2012), pp.394-395. 발표자: Ms. Lolly Martina Martief (Head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Ministry of Public Works).

90) 김은경 외(2012), pp.395-396. 발표자: Mr. Benny (Program Manager,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목적으로 하며 특히, 여성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법 집행기관의 친여성적 법 집행역량 강화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였다. 세부 목표는 1) 여성의 사법제도 접근성 개선, 2) 법 집행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및 프로세스 개혁 및 관련 제도 지원, 3) 성인지적 관점을 법 집행 과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과 여성사회단체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아체(Aceh)주의 반다 아체(Banda Aceh), 그레이트 아체(Great Aceh), 그리고 피들(Pidle)으로 설정하였으며, 2개년도 사업으로 구상하였다. 1차 사업 대상자로는 민간여성단체, 법 집행기관이 되겠으며 2차 사업 대상자로는 도시 및 농촌지역 주민, 법 집행 담당 부처 및 지방 정부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세미나, 정보 공유, 변화를 위한 전략 논의 추진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매거진, 온라인 웹사이트 등 전략적인 미디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지방정부,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가 성 인지적 방식으로 각자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주로 교육 및 학습, 세미나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 여성과 아동폭력 예방정책 강화사업(2014 SSAGE 워크숍)⁹¹⁾

본 사업은 ‘여성과 아동폭력 예방정책(prevention policy) 강화’를 주제로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젠더기반폭력(GBV)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인데, 이는 국가차원의 실태조사와 같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측면으로 보자면, 인도네시아는 2002년 아동보호법, 2004년 가정폭력 철폐법 등을 제정했지만, 정부부처간 조율이 부족하고 대중의 참여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사업의 목표는 첫째, 중앙정부 및 34개 지역정부의 여성아동폭력 정책 이행 역량 강화, 둘째, 34개 지역정부 차원에서 여성과 아동폭력에 대

91) 발표자: Ms. Rohika Kurniadi Sari (Deputy Assistant for Violence against Women, Women Protection Department, Ministry of Women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MoWE-CP)).

한 인식 제고, 즉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젠더담당관(gender facilitator)과 같은 인적자원 개발이다.

또한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의 여성 및 아동대상 폭력 평가의 경우, 실태 조사(정량평가)와 초점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 질적평가)를 활용하는 동시에 정책 이행에 대한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를 추진하는 두 가지 트랙(two-track)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나. 베트남

1) 정치분야

베트남 정치 분야에서는 2013년 SSAGE 워크샵에서 발굴한 4개의 사업제안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4개의 사업안은 ‘평등한 베트남을 위한 공적 리더십 강화 사업’, ‘국가운영에서 여성 리더 증가를 위한 성인지예산 정책 변화 사업’, ‘은퇴연령의 양성평등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 ‘양성평등 관련 법·정책 계획 및 이행의 개선을 위한 성인지예산 역량강화 사업’이다. 그 내용과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평등한 베트남을 위한 공적 리더십 강화 사업 (2013 SSAGE 워크샵)⁹²⁾

베트남에서는 1999년 수립한 여성대표할당제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공공분야 내 여성의 대표성이 여전히 낮다. 그리고 본 사업은 정부의 리더십 연수와 경영 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성인지적이지 못한 반면, 비정부 기구의 연수 프로그램은 성인지적이지만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면에 착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년에 걸쳐 베트남 국가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호치민정치아카데미(Ho 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92) 김은경 외(2013), pp.140-141. 발표자: Ms. Luong Thu Hien (Found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Women in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WiPPA), Ho 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HCMA)).

HCMA) 산하 기관인 여성정치행정연구센터(Center for Women in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WiPPA)를 수행기관으로 두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의 수혜자는 공공부문의 정치권의 중간 및 고위직 여성 리더와 공공 부문과 정치권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 후보자는 물론 남성 리더도 포함된다. 본 사업은 3개년도 사업으로 구상할 수 있겠으며, 목표는 2016년 선거서 정치권과 공공부문의 지도자급 내 여성 대표성 증가이다. 따라서 젊고 유능한 여성들을 향후 지도자로 발굴하고 남녀 정치인들의 양성 평등 의식이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가 방해가 되는 정책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증거에 기반한 여성의 정치참여 관련 정책 연구, 고위급 전략 리더 대상으로 하는 성 주류화된 커리큘럼의 개발(4개월 프로그램) 및 연수 시행, 중간급 관리자를 위한 정치, 행정 고급과정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등이 있다.

나) 국가운영에서 여성 리더 증가를 위한 성인지예산 정책 변화 사업 (2013 SSAGE 워크숍)⁹³⁾

베트남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성 격차를 줄여가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이나, 지도자 및 관리직에서 남녀 간 성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운영 수준에서 여성 지도자의 수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이 2015년 예산법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사업의 수행기관은 베트남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이며, 수혜자는 베트남여성연맹을 비롯하여 회의 및 워크숍 참가자이다. 사업의 목표는 예산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물 발간, 그리고 국내외 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젠더 연구와 연수를 위한 여성연맹 관계자 역량 강화이다.

93) 김은경 외(2013), pp.142-143. 발표자: Ms. Cao Thi Hong Minh (Officer, Policy-Legal Department, Vietnam Women's Union(VWU)).

사업기간은 약 12개월이며, 베트남 북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는 성인지 예산을 비롯한 성 주류화의 정책 도구와 젠더 연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성인지 예산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와 국가 예산법에 성 주류화를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은퇴연령의 양성평등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 (2013 SSAGE 워크숍)⁹⁴⁾

베트남에서 남녀의 은퇴 연령은 성 차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양성평등 정년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노동법 통과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법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실정이다.

본 사업의 수행 기관은 베트남노동사회대학교(Universit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ULSA)로 여성 노동자,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리더와 공무원을 직접 수혜자 대상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약 6개월이고, 하노이 및 약 3개 지방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의 목표는 모든 레벨의 정부 리더와 공무원들이 성평등 지식을 갖추어 차별적인 은퇴연령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는 수요 조사를 위한 워크숍 개최, 공무원 연수 커리큘럼 개발 및 약 100여명의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가 있다.

라) 양성평등 관련 법·정책 계획 및 이행의 개선을 위한 성인지예산 역량강화 사업(2013 SSAGE 워크숍)⁹⁵⁾

베트남에서는 국가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평등 예산이 할당되고 있지만, 보건, 교육, 인프라 개발 등에서 성 주류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성 인지적 예산 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94) 김은경 외(2013), pp.144-145. 발표자: Ms. Nguyen Thi Thuan (Acting President, Universit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ULSA)).

95) 김은경 외(2013), pp.145-146. 발표자: Ms. Vu Phuong Ly (Senior Program Officer, UN Women Vietnam Country Office).

해당 사업의 수행기관은 UN Women 베트남 사무소로 노동보훈사회부, 재정부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 기관들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의 목표는 양성평등 법과 정책 계획 및 이행의 개선에 있으며 성인지 예산 역량 강화에 초점이 있다.

본 사업은 약 3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는 정부 공무원과 지도자의 성인지예산 강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분야의 재정예산서 작성에서 성인지 예산 시범 실시를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자문회의 개최를 포함한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사회 간 성인지 예산 논의를 위해 안내 책자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된다.

2) 경제분야

베트남 경제분야에서는 3개의 사업제안서 발굴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사업제안서는 ‘도시지역 비공식부문 도농이주 여성노동자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사회적 보호 개선 사업’, ‘여성의 토지사용권 및 경제적 역량강화에 대한 대중인식 증진 사업’, ‘베트남 내 가사노동자 관련 정책의 성 주류화 사업’이며, 주요 목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지역 비공식부문 도농이주 여성노동자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사회적 보호 개선 사업(2013 SSAGE 워크숍)⁹⁶⁾

본 사업은 농촌에서 이주하여 도시에서 비공식 경제부문의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제 역량 강화 및 사회적 보호 개선 사업이다. 사회보호시스템에서 소외되는 도농 이주 여성 노동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본 사업의 이행주체는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96) 김은경 외(2013), pp.150-151. 발표자: Ms. Dao Ngoc Nga (Researcher, Research Center for Female Labour and Gender, Institute of Labour Science and Social Affairs (ILSSA)), Mr. Nguyen Hoanh Nghia (Official, Gender Equality Department, Ministry of Labour-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

Social Affairs, MOLISA)의 양성평등국과 산하연구기관인 노동사회과학연구원(Institute of Labour Science and Social Affairs, ILSSA)이다. 하노이시, 호치민시를 대상지역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약 24개월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이주 여성노동자 자조그룹 형성, 건강보험 구매 지원, 취업 기회 및 생계유지 관련 정보 제공, 사회보호 서비스에의 접근성 및 혜택 제고, 생계활동의 개선, 지속을 위한 자원에의 접근성 제고, 비공식 부문에서 종사하는 과정에 노출될 수 있는 위기 및 취약성에 대한 역량 제고 등이 있다.

나) 여성의 토지사용권 및 경제적 역량강화에 대한 대중인식 증진 사업 (2013 SSAGE 워크숍)⁹⁷⁾

본 사업은 농촌 인구가 많은 베트남에서 토지소유권은 간접적으로 경제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베트남 내 많은 여성들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토지권 주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여성들은 토지 사용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사업 목표는 토지사용권 이행에 있어 여성의 역량강화이며, 토지법에 대한 일반 주민 및 여성의 인식 증진, 법률상담 제공, 토지법 개정을 위한 모니터링 및 변호활동, 대중매체를 동원한 캠페인 활동 등이 주요 활동내용이다.

다) 베트남 내 가사노동자 관련 정책의 성 주류화 사업 (2013 SSAGE 워크숍)⁹⁸⁾

현재 베트남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여성 노동자들의 다수가 가사노동자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법이 개정되어 가사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부분에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 성인지적 관점이 부

97) 김은경 외(2013), pp.151-152. 발표자: Ms. Hoang Thi Huong (Coordinator, Gender and Community Development Network(GENCOMNET)).

98) 김은경 외(2013), pp.152-153. 발표자: Ms. Tran Thi Cam Nhung (Researcher, Institute for Family and Gender Studies(IFGS)).

족하다.

본 사업은 국책연구기관인 베트남가족젠더연구소(Institute of Family and Gender Studies, IFGS)로 제안하며, 직접수혜대상은 베트남 내 가사노동자, 간접수혜대상은 노동 및 여성이슈 관련 정책입안자들이다. 이 사업에 대한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정책입안가들을 대상으로 젠더 워크숍 실시, 여성 가사도우미 관련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가사노동자에 대한 정책이슈 페이지 관련 자문 워크숍 실시 등이 있다.

3) 인권 및 폭력분야

베트남 인권분야에서는 5개의 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 발굴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있는 보건분야에 대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사업안은 ‘도시지역 청소년 데이트에서의 젠더기반 폭력 예방사업’, ‘여성보건 역량강화 프로그램: 국가 역량구축 및 여성보건 역량강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사업’, ‘가정폭력 예방 관련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가정폭력 감소와 가정폭력 방지 및 철폐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부 메커니즘 강화사업’이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도시지역 청소년 데이트에서의 젠더기반 폭력 예방사업 (2013 SSAGE 워크숍)⁹⁹⁾

본 사업은 남녀 청소년 데이트 젠더기반 폭력예방을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48개월 프로젝트로써 대상 지역은 베트남 내 5개 대도시(하노이시, 하이퐁시, 다낭시, 칸토시, 호치민시)이다. 수행기관은 Action Aid International 베트남 사무소이며, 12-15세 남녀 청소년을 사업의 직접수혜자로 두는 동시에 교사, 학부모, 지역공동체, 지역당국을 간접수혜자로 두고 있다.

본 사업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갖고 있다. 첫째, 데이트 젠더

99) 김은경 외(2013), pp.157-158. 발표자: Ms. Le Thi Lan Phuong (Women's Rights Project Officer, ActionAid International in Vietnam).

기반 폭력에 대한 10대 청소년 및 대중의 인식 제고, 둘째, 대상지역 청소년의 데이트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태도의 변화 도모, 셋째, 학교 및 공동체 내 아동친화적이고 성인지적인 지원서비스 정책의 개선이다.

나) 여성보건 역량강화 프로그램: 국가 역량구축 및 여성보건 역량강화 (2013 SSAGE 워크숍)¹⁰⁰⁾

본 사업제안서는 베트남 여성들, 특히, 낙후지역 여성들의 경우, 보건정보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여성보건이 열악한 8개 지방에 대한 여성보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여성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교수 자료 및 도구의 개발, 강사들에 대한 연수의 제공 등을 통해 국영 연수기관의 역량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부 및 대중조직 간부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업 수혜대상은 베트남여성연맹 산하 베트남여성아카데미의 교수진 및 일반여성으로, 대상지역은 여성보건이 특히 열악한 지방 약 8개이다. 활동 내용은 정부 및 대중조직 간부 역량강화를 위한 교수자료 개발, 보건 관련 강사자 연수(TOT), 그리고 일반 여성 대상 성, 생식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사업(2013 SSAGE 워크숍)¹⁰¹⁾

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베트남 여성연맹 산하 여성개발센터(Center for Women and Development)의 주도로 36개월 동안 진행되며, 대상지역은 54개 지방이다. 수혜자는 여성폭력 피해자, 공동체 주민, 여성연맹 및 기타 관계기관 직원이다.

사업의 세부활동으로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용자 친화적인 지원서

100) 김은경 외(2013), pp.159-160. 발표자: Ms. Tran Giang Linh (Head of Research and Training Department,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ISDS)).

101) 김은경 외(2013), pp.160-161. 발표자: Ms. Le Thi Phuong Thuy (Head of Counseling and Developing, Center for Women and Development, Vietnam Women's Union).

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무료 상담 및 지원서비스센터의 설치, 강사를 위한 연수(TOT) 개최, 미디어 캠페인,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및 예산의 확보, 피해자의 물리적, 정신·사회학적 안전 메커니즘 구축 등이 있다.

**라) 가정폭력 예방 관련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2013 SSAGE 워크숍)¹⁰²⁾**

본 사업은 ‘남성도 가정폭력 문제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해결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 하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일반시민과 특히, 남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제고를 목표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가정폭력 정책을 담당하는 가족국이 속해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36개월동안 진행되며, 전국 63개 지방을 대상으로 한다. 본 프로그램의 직접수혜자는 남성(16세-60세) 및 가정폭력 피해자이며, 간접수혜자는 시민, 지역당국 및 매스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업대상의 지식, 태도, 현황에 대한 기초 설문조사, 가정폭력 및 성인지성 제고를 위한 언론인 연수 워크숍 실시, 가정폭력 예방 관련 영화 페스티벌 개최 및 TV 광고에 활용, 행진 캠페인 진행, 지역공동체 및 학교에서 남학생들과 가정폭력을 주제로 대화 실시 등이 있다.

**마) 가정폭력 감소와 가정폭력 방지 및 철폐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부 메커니즘 강화사업(2014 SSAGE 워크숍)¹⁰³⁾**

베트남에서는 2006년 양성평등법, 2007년 가정폭력철폐및방지법이 제정되었고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관련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내 가족국에서 가정폭력 업무를 전

102) 발표자: Mr. Tran Van Thao (Program Officer, Family Departmen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OCST)).

103) 발표자: Ms. Lo Thi Thu Thuy (Senior Official, Ethnic and Religions Department, Vietnam Women's Union).

담하는 등 가정폭력 방지에 관련된 메커니즘 자체는 존재하지만, 조율이나 실질적인 이행은 아직 미온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사업의 목표는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 업무 협의, 사업 평가활동 등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으며 특히 데이터수집 및 공유를 위해 보건 및 사법 관련 부처의 협력도 포함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2014 KWDI SSAGE 프로그램 중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와 같은 기관 방문을 통해 원스탑센터(one-stop center) 체계를 알게 되었는데 매우 인상 깊었으며, 향후 베트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베트남에서는 양성평등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들이 협력하는 체제가 약하므로, 향후 국가차원에서 국회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 양성평등에 대한 모니터링세션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각자 경제, 사회 등 다른 이슈를 갖고 정책모니터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젠더이슈가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가정폭력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여성대상폭력(VAW)에 대한 지역사회 상황을 공유하는 메커니즘도 고려할 수 있다.

다. 캄보디아

1) 정치분야

캄보디아 정치 분야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3개의 정책 제안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구에서 여성의 리더십 기술 역량 강화’, ‘국회의원 진출 및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지방의회 여성 의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별 내용과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가) 지역구에서 여성의 리더십 기술 역량강화(2011 SSAGE 워크숍)¹⁰⁴⁾

첫 번째 제안서는 지역구에서 여성의 정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지역구 단위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목적은 여성의 리더십 기술역량 강화, 리더십과 관련한 기

104) 김은경 외(2011a), pp.280-281. 발표자: Ms. Sotheary Meach (Vice Chief of Local Governance, Ministry of Women's Affairs(MOWA)).

술의 생성, 기술에 대한 인지도의 증가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워크숍 주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실행하고 목표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24개 주의 여성리더를 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24개 주의 여성 리더들의 자신감을 강화하고 역량을 확대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업무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제안서의 초점을 두고 있다.

나) 국회 여성의원 진출 및 역량강화 사업(2012년 SSAGE 워크숍)¹⁰⁵⁾

해당 제안서는 국회에 이미 진출한 여성 의원들과 여성 국회의원 후보(당원)가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과 의사표현 능력을 강화시키는 교육훈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국회의원과 국회의원후보의 역량 강화 워크숍은 총 5개의 지역에서 진행 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참여 가능한 정당을 5개로 제한을 두었는데 이들은 캄보디아 전 지역에 걸쳐서 여성 의원 후보를 각 주마다 1인 이상 추천한 정당들이다.

해당 사업을 통한 성과로는, 캄보디아 여성들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수가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국회의원은 이후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 지방의회 여성의원 역량강화 사업(2012년 SSAGE 워크숍)¹⁰⁶⁾

본 사업은 지방 의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방 기초단체의 의회에 여성을 진출시키고자 하며 지방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105) 김은경 외(2011a), p.377. 발표자: Mr. Virak Sao Vong (Vice-Chief of Local Governance Office, Department of Gender Equality, Ministry of Women's Affairs (MOWA)).

106) 김은경 외(2012), pp.378-379. 발표자: Mr. Him Thonglim (Coordinator, State Secretariat for Civil Service (Gender Mainstreaming Action Group)).

것이 목표이다.

주요 사업 방안은 교육 및 인적자원 강화 사업이다. 기대 가능한 효과로 여성과 아동의 문제가 지역 사회의 대중에게 공유될 것과 보다 양성평등적인 기초 단체 계획 수립이 가능한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와 우수 사례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는 정책개발자들이 정책 입안에 반영 가능한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라) 정부 공직분야에서의 여성 참여 증진 사업(2014년 SSAGE 워크숍)¹⁰⁷⁾

본 사업제안서 주제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강화’, 즉 ‘정부 공직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 증진’이다. 현재 캄보디아 국회 내 여성의원 비율은 약 20.3%이며 여성 장관 비율은 약 10.7%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공공분야 전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직 내 여성 참여 비율 증진을 목표로 한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2018년까지 현재의 국회 내 여성의원 비율을 30%로, 정부 및 지역 차원에서 여성의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내 의사결정직 비율을 17%에서 25%로 증가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양성평등관련 국가정책을 개발하고, 타겟 그룹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구상하였다. 또한 여성 후보자 증가를 위해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옹호활동을 펼치고, 의사결정직 내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대중인식제고 사업 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기대하는 성과로는 2018년까지 국회 내 여성의원 비율 30%로 증가, 공공분야 여성의원 비율 40%로 증가, 국가양성평등정책 개발 및 이행이다.

본 사업은 국회의원 여성비율 증가를 목표로 하므로, 국회의원 여성들이 주요 타겟 그룹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밖에도 장관(minister), 차관(secretary of state)직 내 여성 또한 보다 광범위하게는 여성 의사결정권자들도 타겟 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

107) 발표자: Ms. Serey Vuthea Khieu (Director General, Unit of Social Development, Ministry of Women's Affairs(MOWA)).

2) 경제분야

캄보디아 경제분야에서는 2011년, 2012년 워크샵을 통해 발굴한 4개의 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안은 ‘Siem Reap 지역 여성개발센터 민관협력 파트너십’,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직업능력센터 사업’, ‘여성 취업 지원 및 취업 여성 역량강화 사업’이며, 사업별 주요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Siem Reap지역 여성개발센터 민관협력 파트너십(PPP)(2011년 SSAGE 워크샵)¹⁰⁸⁾

본 사업제안서의 목표는 민관협력파트너십(PPP) 모델을 활용하여 민간서비스공급자와 Siem Reap 주의 여성개발센터 간의 협력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증진하는데 있다. 현재 공공분야가 도맡아 운영하는 공급중심의 Siem Reap 여성개발센터의 역량강화 서비스들은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PPP모델을 통한 수요중심의 기업가개발센터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현지의 니즈를 반영한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특산물 유통활성화서비스 실행, 현 여성개발센터의 구조 및 서비스 분석, 시장메커니즘 분석, 여성개발센터 인프라 개선 및 발전, 민간분야 참여 증진을 위한 방법 고안,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이 있다.

나)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직업능력센터 사업(2012년 SSAGE 워크샵)¹⁰⁹⁾

본 사업의 목표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을 통해 여성의 경제역량을 개발 및 발전시키는데 있다. 캄보디아는 58개의 직업훈련센터와 200여개 지방훈련센터가 있어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센

108) 김은경 외(2011a), pp.285-286. 발표자: Mr. Pisith Sok (Ministry of Women's Affairs(MOWA)).

109) 김은경 외(2012), p.380. 발표자: Ms. Oum Chanpanhara (General Programme and Publication Manager, Gender and Development for Cambodia (GADC)).

터가 체계화된 커리큘럼 부재 및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 교육 등으로 수강생들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주 또한 직업훈련센터의 기술교육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취업으로 연계가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하는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시장의 수요 파악, 표준 직업훈련 커리큘럼 개발 및 시행,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 홍보, 훈련생이 만든 제품의 시장 진출 지원, 교육 이수 후 취업으로의 연계 지원 등이 있다.

다) 여성 취업 지원 및 취업 여성 역량강화 사업(2012년 SSAGE 워크숍)¹¹⁰⁾

본 사업은 600명의 젊은 직업여성들에게 일을 함과 동시에 고등교육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를 이수한 직업여성들이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의류업, 관광업, 가내수공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나, 낮은 교육 수준으로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을 반영한다.

보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직장여성들의 관심 주제와 직업시장에 대한 조사 실시, 고등교육기관 선정, 사업대상자들의 관심사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다.

라)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캄보디아 여성부 조직역량강화 사업 (2012 SSAGE 워크숍)¹¹¹⁾

본 사업의 목표는 캄보디아 여성부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시장수요에 부응하며, 실용적인 프로그램/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

110) 김은경 외(2012), p.381. 발표자: Ms. Prom Tevy (Head of Publication and Library, Royal Academy of Cambodia(RAC)).

111) 김은경 외(2012), p.382. 발표자: Phana Veunida (Deputy Director, The 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CRDB)/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

고자 한다. 또한 여성부가 기존 운영중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SWOT 분석 등을 통한 상황분석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여성부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직급별/분야별 실무 훈련 및 멘토링,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시장조사, 시범사업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GIA), 성인지통계(gender statistics, GS), 성인지적 기획(gender planning),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 GB)에 대한 이해 및 실무능력 향상, 멘토링 지원을 통한 경험 전수 그리고 실제 실무 훈련을 통해 총체적인 여성부의 조직적 역량강화를 시도하는 사업이다.

예상 효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여성부, NGOs, 부처간 성 주류화 액션그룹(GMAGs)¹¹²⁾, 민간분야, 개발 공여국/기관)의 강화, 여성부의 조율/조정 능력 확대, 나아가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프로젝트를 개발을 기대한다.

3) 인권 및 폭력분야

캄보디아 인권 및 폭력분야 관련 사업제안으로는 3개의 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를 공유하고자 한다. 사업안은 ‘법적기소(prosecution)를 통한 성범죄처벌강화방안’,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지방법집행관/정부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16일간의 캠페인’이며, 사업별 목표,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2) 부처간 성 주류화 액션그룹 (Gender Mainstreaming Action Groups in Line Ministries: GMAGs)은 각 부처에 설립된 전문 부서/담당관 제도로써 성 주류화 행동계획 (Gender Mainstreaming Action Plan)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가) 법척기소(prosecution)를 통한 성범죄처벌강화방안(2011 SSAGE 워크숍)¹¹³⁾

본 사업은 약 3년간 지속 되는 프로젝트로써 목표는 Banteay Mean Chey 주의 4개 지역구의 5개 동(commune)에 거주하는 성범죄에 취약한 여성 및 여아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이들이 사법시스템을 활용해 스스로 법적권한을 행사하고 인신매매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적으로는 다음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인신매매 예방 및 소송 참여를 위해 책임기관의 역량 강화, 둘째, 지역주민들이 사건을 고소하고 서로에게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셋째,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및 법적지원 제공, 넷째, 인신매매 생존자를 위한 안전한 숙박 및 그 외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다.

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지방법집행관/정부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2012 SSAGE 워크숍)¹¹⁴⁾

사업 목표는 오츠로브(O'Chrov) 지방(district)의 의무담당자(duty bearer)가 인신매매 및 이와 연관된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하고, 이를 통해 담당할 지역사회에서 인신매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사업대상지역은 반테멘체이(Banteay Mean Chey) 주의 오츠로브(O'Chrov) 지역(district)내의 7개 시(communes)를 지정하였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정보습득 및 인식개선 워크숍을 통해 인신매매의 심각성 및 대처방법, 관련 지원 정보를 알리고, 지방정부 및 사법권 관계자들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의 법제도가 실효성있게 잘 집행될 것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정책을 제정할 것을 도모하여 지역내 법집행자가 적극적으로 인신매매 사건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13) 김은경 외(2011a), pp.293-294. 발표자: Ms. Panhavichetr Pok (Executive Director, Cambodian Women's Crisis Center (CWCC)).

114) 김은경 외(2012), pp.383-384. 발표자: Mr. Trak Sokundara(Deputy Chief, Legal Protection, Ministry of Women's Affairs(MOWA)).

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16일간의 캠페인(2012 SSAGE 워크숍)¹¹⁵⁾

본 사업은 국가 양성평등 정책의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남성과 남아들이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방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16일간의 캠페인은 가정폭력의 유해성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인식개선을 도모하여, 특히 남성/남아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목표로 남성/남아의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인식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폭력 피해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통해 돕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라. 미얀마

1) 정치분야

미얀마 정치분야에서는 2013년, 2014년 SSAGE 워크숍을 통해 발굴한 4개의 정치분야 관련 사업제안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안은 ‘여성폭력 범죄 감소를 위한 공동체의 인식제고 및 사법 접근권 개선 사업’, ‘소수민족 여성의 정치 역량 구축 사업’, ‘미얀마 시민사회의 양성평등 및 젠더 정의 사업’, ‘정책 애드보커시, 역량 구축, 여성정치역량강화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 사업’이다. 각 제안서 사업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소수민족 여성의 정치적 역량구축 사업(2013 SSAGE 워크숍)¹¹⁶⁾

미얀마의 소수 민족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NBF(Nationalities Brotherhood Federation)은 여러 민족의 정치 집단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역

115) 김은경 외(2012), pp.384-386. 발표자: Mr. Ratanak Ou(Executive Director, People Health Development Association (PHD)).

116) 김은경 외(2013), pp.136-137. 발표자: Ms. Chin Chin (Director, Nationalities Brotherhood Federation).

량 구축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선거에서 보다 많은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양곤 내 소수민족 여성, 지도자,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수혜자로 양곤 내의 소수민족 정치 집단의 여성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정치 집단 지도자들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는 시민교육과 함께 유권자에 대한 교육 실행,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한 입법과 관련한 워크숍 개최를 제안한다.

나) 미얀마 시민사회의 양성평등 및 젠더 정의 사업(2013 SSAGE 워크숍)¹¹⁷⁾

미얀마는 군부 집권으로 인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하며 교육과 여성이 공공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여성의 필요를 중심에 두고 국가계획이 실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미얀마개발자원연구원(Myanmar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 MDRI)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은 약 6개월이다.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정당, 학계, 시민사회와 정치 단체를 총 망라한다. 주요 활동 내용은 젠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개최와 양성평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애드보커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다.

다) 정책 애드보커시, 역량 구축, 여성정치역량강화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 사업(2013 SSAGE 워크숍)¹¹⁸⁾

미얀마 여성들의 경우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여성차별철폐조약과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하며 기존의 선거법과 함께 그 외의 법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구축하여 양성평등 정책 관련 애드보커시 활동을

117) 김은경 외(2013), pp.137-138. 발표자: Ms. Kyawt Kyawt Khaing (Researcher/Trainer, Myanmar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MDRI)).

118) 김은경 외(2013), pp.138-139. 발표자: Ms. Shwe Shwe Sein Latt (Director, Phan Tee Eain).

증진해야 한다.

해당 사업의 수행 기관은 Phan Tee Eain (NGO)으로, 수혜자는 국회의원, 정당원, 공무원과 여성단체의 리더들이다. 사업은 2015년 선거에서 여성의 당선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성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정당 명부상에서 비례대표제를 위한 여성 후보자의 수를 증가시키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애드보커시를 위한 워크숍과 여성 정치 리더십 연수 및 여성정치자료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있다.

2) 경제분야

미얀마 경제분야의 경우, 2013년, 2014년 SSAGE 워크숍을 통해 발굴한 2개의 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안은 ‘Laputta 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사업’이다. 사업별 목표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Laputta 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2013 SSAGE 사업)¹¹⁹⁾

본 사업은 나르기스 태풍 피해로 그 지역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나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 착취 및 폭력에 시달리는 현실에 기인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Laputta 지역에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사업기간은 약 1년, 수행 주체는 현지 NGO가 될 수 있겠으며 직접 수혜대상은 16-24세의 여성, 간접 수혜대상은 그들의 가족 및 지역공동체로 볼 수 있다.

본 사업은 해당 지방의 사회복지부와 NGO가 협력하여 직업 기술 및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활동내

119) 김은경 외(2013), pp.146-147. 발표자: Ms. Naw Ellen Htoo (Associate Director, Women Department, Patheingyi Myaungmya Association), Ms. Neih Kim Lian and Ms. Tin Myat Myat Hmue (Social Worker Grade 3 Hakha Pre-primary School,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MSWRR)).

용으로 한다. 또한 인신매매 방지, 에이즈 및 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도 포함한다.

나)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사업(2014 SSAGE 워크숍)¹²⁰⁾

미얀마는 2011년 군부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정치, 경제적으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부는 여전히 국회에서 2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체제전환에 따른 민영화, 거시경제정책 개혁, 법안 개혁, 시장체제 경제 전환, 세제 개혁 등 다양한 개혁이 국가 전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미얀마의 경우 현재 국가차원의 신빙성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미얀마에서는 현재 젠더현황분석, 여성대상폭력 국가실태조사, 사회문화적 관념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참여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부재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경제정책이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참여비율은 63%에 불과하며 이는 남성의 75%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여성이 일하더라도 남성보다 소득이 낮고, 사업에 다시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사업은 농촌, 도시외곽(peri-urban) 거주 여성을 타겟으로 하여 여성의 경제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을 거시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 목표로서 무임금 가사노동, 여성 경제활동 장애요소 파악, 현 직업훈련 효과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경제정책연구를 통해 산출물(output)을 기반으로 사회복지부 및 노동부에서 그와 관련된 여성경제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인권 및 폭력분야

미얀마 인권분야에서는 2013년 SSAGE 워크숍에서 발굴한 4개의 성평등 원조 사업제안서를 공유하고자 한다. 사업안은 ‘여성폭력 범죄 감소를 위한

120) 발표자: Ms. Thai Su San (Executive Committee Member, Myanmar Women and Children Development Foundation).

공동체의 인식제고 및 사법 접근권 개선 사업’, ‘(HIV/AIDS) 법·정책 개혁 검토에 대한 인권 사업’, ‘여성친화(보건)센터 설립 사업’, ‘지역정부의 양성 평등정책 형성 사업’이다. 사업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여성폭력 범죄 감소를 위한 공동체의 인식제고 및 사법 접근권 개선 사업(2013 SSAGE 워크숍)¹²¹⁾

현재 미얀마에서는 여성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법과 정책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여성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 정신적, 법적 지원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UNDP 미얀마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은 사법 접근권과 법률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반을 둔 성인지적 조치를 개발하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사업기간은 3개년도로 예상하며, 수혜자는 사회복지부, 내무부, 법무부 등의 중앙정부부처와 지역정부이며 공동체 차원에서는 일반 여성, 폭력 피해자, 배우자 및 일반 남성, 미디어 관계자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목표는 미얀마 3개 지역(township)의 사법 접근권 및 법률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그를 기반으로 한 성인지적 조치 개발, 여성폭력 철폐 관련 연구(operational research) 실시이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사법 접근권 및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분석과 관계 부처 전문가들의 역량 개발 및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또한 연구를 통해 애드보커시 회의를 열고 연구 결과를 배포하여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HIV/AIDS) 법·정책 개혁 검토에 대한 인권 사업(2013 SSAGE 워크숍)¹²²⁾

HIV/AIDS는 미얀마 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보건 정책 이슈 중 하

121) 김은경 외(2013), pp.135-136. 발표자: Ms. Sanda Thant (Gender Specialist, Gender Unit, UNDP Myanmar).

122) 김은경 외(2013), pp.153-154. 발표자: Ms. Nwe Zin Win (Executive Director, Pyi Gyi Khin Women Organization).

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과 정책 내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규모 증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지 NGO를 이행주체로 하여 본 사업은 약 4년간의 양곤, 네피도 시 지역 사업을 제안한다. 수혜자로는 주요 관계부처, 국회, 취약집단(성매매종사자, 남성동성연애자, 여성 감염자 등)의 네트워크, 관련 NGO 등이 있겠으며, 간접수혜자로는 HIV/AIDS 감염여성, 성매매종사자, 동성연애자 등이 있다.

본 사업의 목표는 각계 관계자들의 인권 관련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키고, 국회 내 입법위원회, 공공운영위원회 등에 성매매종사자 관련 법과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투입요소(input)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미얀마 HIV/AIDS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검토, 취약집단 네트워크, NGO 네트워크 대상 인권 및 관련 법 이슈에 대한 워크숍 실시, 작업반의 해외 현장방문, 법 개정 및 검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워크숍 개최 등을 담고 있다.

다) 여성친화(보건)센터 설립 사업(2013 SSAGE 워크숍)¹²³⁾

본 사업의 목표는 여성친화보건센터 설립을 통해 모성사망률 개선 및 낙태 등으로 인한 여성사망률의 감소이다. 동 사업은 NGO의 주도로 Chin Region, Ayarwaddy Division에서 약 12개월동안 진행이 될 것을 계획으로 하고, 동 지역의 출산 가능한 연령의 여성을 수혜자로 한다.

사업의 주요 활동으로는 Chin지역과 Ayarwaddy 지방의 여성들을 위한 6개 여성친화 보건센터 설치, 여성청소년 대상 의식제고 훈련(월 1회), 생식보건 관련 상담, 임산부 환자의뢰시스템 제공, 생식보건 관련 정보교육커뮤니케이션 자료의 생산 등을 포함한다(김은경 외, 2013: 155).

123) 김은경 외(2013), pp.155-156. 발표자: Ms. Su Su Nge (Monitoring and Evaluation Manager, Pyoe Pin Programme).

라) 지역정부의 양성평등정책 형성 사업(2013 SSAGE 워크숍)¹²⁴⁾

미얀마는 현재 여성폭력 등의 이슈를 다루는 양성평등법이 부재하며, 국가의 젠더 현황관련 데이터와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여성폭력 관련 법안이 국제기구나 NGO의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폭력 피해자 신고전화나 지원서비스는 부족하다.

사회복지부의 주도로 본 사업은 12개월동안 Mon 주, Sagaing 지역, Chin 주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사업의 직접수혜자는 지방정부의 주요 관계자, 국회 및 지역의회의 의원, 지역부처의 수장 및 주요 관계자이며, 간접수혜자는 3개 사업대상 지역의 여성이다.

사업의 주요 활동으로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젠더개념 및 성 주류화 개념 교육, 지역공동체 차원의 성인지통계 개발, 젠더정보센터(Gender Information Center) 설립, 지역공동체 차원의 젠더정책 형성을 목표로 주요관계자와의 자문회의, 본원 출신의 기술자문관 및 전문가 초청 워크숍, 젠더 및 성 주류화에 대한 연수, 여성폭력에 대한 시범 설문조사 실시, 대상지역에 젠더정보센터 설치 등이 있다.

3. 4개국 공동협력연구의 시도와 결과의 공유

가. 4개국 공동협력연구의 시도와 진행과정

본 연구사업은 보다 실질적으로 현지 여성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4개국 내 정부, 국제기구, NGO 혹은 연구기관과의 공동협력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현지 소규모 공동협력연구라는 기회를 통해 협력국의 여성정책 연구역량 강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동협력연구는 현지 연구역량을 고려하여, 국별 주요 여성정책 현안에 대한 3개월 정도의 단기 연구를 목표로 하였으며, 향후 보다 심층적인 공동협

124) 김은경 외(2013), pp.156-157. 발표자: Ms. Rupa Mya (Deputy Director,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MSWRR)), Ms. Ni Ni Win (Principal, Center for Women Care,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MSWRR)).

력연구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일종의 파일럿(pilot)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4개국별 공동협력연구 시도와 진행과정을 개괄하고자 한다.

1) 인도네시아

2014년도에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선거인 총선(4월)과 대선(7월)이 모두 치러졌으며, 이러한 시기적 이슈를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협력 연구주제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였다. 공동협력 연구의 추진을 위해 2012년 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본원과 과거에 협력경험이 있는 현지 여성문제 연구 전문기관인 여성연구소(Women Research Institute, WRI)와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공동협력연구 규모, 기간, 과업범위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본원과 2011년 상호교류협력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대학 정치연구소(Centre for Political Studies (PUSKAPOL), University of Indonesia)와 접촉하여 인도네시아 선거에서의 유권자 행동조사(survey)로 주제를 구체화하고 공동협력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대학 정치연구소는 대학 부설 기관이라 이미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과 기존에 본원과 협력 체제 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2) 베트남

베트남은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 산하 연구기관인 노동사회문제연구원(Institute of Labour Science and Social Affairs, ILSSA)과의 공동협력연구를 추진하였다. 노동사회문제연구원(ILSSA) 내에는 여성노동자 및 젠더연구센터(Center for Female Workers and Gender Studies)가 있고 그동안 국제기구, 한국의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온 만큼 타 협력국들에 비해 수월하게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노동사회문제연구원(ILSSA)과는 여성의 직업훈련 정책과 현황을 주제로 총 3개의 세부적 이슈를 다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합의하

였으며, 동시에 여성정책 및 현안연구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상호교류협력협약(MOU)을 체결하였다.

3)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경우 여성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정부부처인 여성부(Ministry of Women Affairs, MOWA)와의 공동협력연구를 시도하였다. 정책적 함의를 갖는 연구를 위해서는 여성부가 최적의 파트너였으나, 답신이 늦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연구 수행 가능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그리고 본 연구사업 진행 중 현지 캄보디아 사무소 방문 면담 당시,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이 젠더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정보를 접한 뒤 아시아재단 캄보디아사무소와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캄보디아와의 공공협력 연구의 경우, 여성폭력(VAW) 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 연구 역량(research capability)으로 그 주제를 결정하였다. 특히, 캄보디아 내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2기(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for Violence against Women: NAPVAW II)”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성정책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2기(VAPVAW II) 수립에 필요한 연구역량과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어 캄보디아 여성정책 현안에 부응하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미얀마

미얀마의 경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여성정책 연구 인력 풀(pool)과 연구역량을 갖춘 곳을 발굴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대안적으로 국제기구, 그 중에서도 양성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UNDP 미얀마 사무소를 파트너로 선택하여 논의가 진행되었고, 미얀마 농촌여성에 대한 현황과 정책연구로 주제가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3개월에 걸친 논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업세부계획(TOR) 논의단계에 진입하면서, 연구지원금 수령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절차상의 협력방식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궁극적으로는 미얀마와의 공동협력연구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5) 공동협력연구 시도에 대한 소결

위와 같은 수개월간의 공동협력연구 시도를 통해 결론적으로 본 연구사업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3개국과 공동협력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국별 공동협력연구 주제와 수행기관은 다음 표 IV-1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V-13〉 현지 공동협력연구 주제 및 수행기관 개요

| 국가 | 공동협력연구 주제 | 수행기관 |
|-------|--|---|
| 캄보디아 | 양성평등 분야에서의 캄보디아 국가 여성정책 연구 역량 강화 방안 (Strengthening National Policy Research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Gender Equality in Cambodia) |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 캄보디아 사무소 |
| 인도네시아 | 2014 총선에서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인식 분석 연구 (Voter's Behaviour in Voting for Candidates in 2014 Legislative Election and Voter's Perception in Voting for Women Candidates) | 인도네시아대학 정치연구소 (Centre for Political Studies (Puskapol), University of Indonesia) |
| 베트남 | '베트남 여성 직업훈련 정책과 현황 연구'를 주제로, 다음 총 3개의 세부연구과제 수행: 1)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직업훈련 정책 리뷰(Policy Review on Vocational Training from Gender Equality Perspective) 2) 국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에서의 젠더이슈 분석(Gender Issues in Vocational Training: Findings from National Survey Data) 3) 베트남 농촌여성의 직업훈련수요 평가를 위한 이론적, 실질적 방안(Theoretical and Practical Methods on Assessing Vocational Training Needs of Vietnamese Rural Women) | 노동사회문제연구원 (Institute of Labour Science and Social Affairs, ILSSA) |

나. 공동협력연구 결과의 공유

본 연구사업은 현지기관과의 공동협력연구가 여성정책 현안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각 국 여성정책 관계자들과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정책제언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된 2014 KWDI SSAGE 프로그램 중 공동협력연구 공유세미나(Joint Research Seminar)를 구성하여 현지 고위급 공무원들과 본 연구내용과 그에 따른 현지 여성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는 논의

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협력국 여성정책 관계자들은 현지 여성관련 현안에 대한 학문적 연구결과를 접하는 기회를 갖고, 현지 연구기관은 해당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 및 다른 협력국 정책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얻고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세미나 진행방식은 각 국별로 공동협력연구 관계자가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2014 KWDI SSAGE 참가자중 국별 1인과 한국측 주제전문가가 토론자로서 피드백을 제시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또한 여성정책관련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고위급 관계자들로 구성된 2014 KWDI SSAGE 참가자들도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함에 따라 공동협력연구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다(표 IV-14 참조).

〈표 IV-14〉 KWDI와의 공동협력연구 공유세미나 개요

- 세미나명: 공동협력연구 공유세미나(Joint Research Seminar)
- 일시 및 장소: 2014. 10. 2 (목) 09:00~12:00, 서울 센터마크호텔
- 참가인원: 2014 KWDI SSAGE 참가자 25인, 공동협력연구 발표자 6인, KWDI 연구진 및 한국측 주제별 토론자 약 10인
- 국별 세미나 발표 주제
 - I. 캄보디아
 - 1. 양성평등 분야에서의 캄보디아 국가 정책 연구 역량강화 방안(Strengthening National Policy Research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Gender Equality in Cambodia)
 - II. 인도네시아
 - 1. 2014 총선에서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인식 분석 연구(Voter's Behaviour in Voting for Candidates in 2014 Legislative Election and Voter's Perception in Voting for Women Candidates)
 - 2. 정당의 역할: 인도네시아 하원의원내 여성대표성 증가에 있어 정당의 역할과 개인의 경험(Role of Political Party: In Increasing Women Representation in Indonesian House of Representatives-Personal Experience)
 - III. 베트남
 - 1.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직업훈련 정책 리뷰(Policy Review on Vocational Training from Gender Equality Perspective)
 - 2. 국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에서의 젠더이슈 분석(Gender Issues in Vocational Training: Findings from National Survey Data)
 - IV. 미얀마
 - 1. 미얀마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역량강화 현황(Situation of Women in Myanmar: Political and Economic Empowerment)

1)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경우 공동협력연구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진 1인 (Ms. Hoeung Sopheap, Moulathan Consulting, MLT)이 참석하였으며, 아시아 재단과 진행하고 있는 ‘양성평등 분야에서의 국가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주제로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세미나 발표에서는 연구 개념적 틀 (conceptual framework)과 연구방법론을 소개하였는데, 연구방법론으로는 데스크 리뷰(desk review), 주요 정보원 면접이 주로 활용되었다. 이번 공동협력연구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성대상폭력(VAW) 이슈에 대한 국가 연구역량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세미나에서는 제 2차 캄보디아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NAPVAW) 배경과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연구결과 공유에서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PVAW)의 5가지 전략분야(strategic areas)를 먼저 소개하였다. 5가지 전략분야는 첫째, 기초적 방지, 둘째, 법적 보호와 다분야적 서비스, 셋째, 법과 정책, 넷째, 역량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캄보디아 공동협력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전략분야별로 어떤 연구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고, 제 2차 캄보디아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PVAW)과는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캄보디아 내에서 젠더와 관련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공여기관, 현지 NGO, 학계, 개인 등 각 주체별로 면접을 진행하여 개발주체들이 갖고 있는 연구 수요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캄보디아 공동협력연구에서는 여성폭력에 대해 국가차원의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접한 2014 KWDI SSAGE 참가자중 캄보디아 측 여성부 공무원들은 여성대상폭력(VAW)과 면접대상 주요 정보원 선발 기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개념 정립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 측은 현재 여성 및 양성평등 자원센터(Resource Center for Women and Gender Equality)와 같은 기관 설립 구상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폭력도 다뤄질 수 있겠다고 예상하였다. 더불어 향후 여성부는 다른 연구기관, 단체들과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년정도 내에 연구결과가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NAPVAW)의 실질적인 적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공동협력연구 과제책임자 1인(Ms. Riaty Raffiudin, Senior Researcher and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Faculty of Social and Political Sciences, University of Indonesia)과 더불어 전 국회의원이자 2014 총선에 출마했던 여성 전 국회의원 1인(Ms. Lena Maryana Mukti, Former Member of House Representatives of Indonesia)을 초청하였다.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공동협력연구에 여성 국회의원의 실제 경험을 연계하여 현장감을 더하고자 하였다.

인도네시아 공동협력연구에서는 2014년도 4월 총선 남녀 유권자 투표율, 남녀 후보자 득표율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녀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투표행위 및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동협력연구 기간 및 규모를 고려하여, 비례무작위추출(proportional random sampling)을 통해 자카르타시 3개 지역 520여명의 유권자(남성 260명, 여성 260명)를 표본집단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공동협력연구에서는 응답자 인구학적 프로파일과 더불어 남녀 유권자별 남녀 후보자 선택 경향 및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2014 KWDI SSAGE 참가자 중 여성부 토론자(Mr. Amat Darsono)는 정당들이 단순히 30%라는 여성의원 쿼터를 채우기 위해 여성을 정당에 포함시키는 데 급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성의 정치대표성 증진을 위해 여성들의 적극성과 정치교육의 체계화, 정당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여성 정치 교육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선거기간 및 선거 전후에 여성의원 30%의 할당제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소개하였는데, 선거 전, 정부 및 정당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할당제 이행을 장려했으며,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선거 이후에는 새롭게 선

출된 여성 당선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된 점 등을 공유하였다.

한편, 2014 총선에 출마했던 여성 전 국회의원의 발표는 인도네시아 여성할당제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할당제는 여성을 포함할 것이 아니라 여성을 리더십 역할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적극적인 우대정책의 적용을 위해서 여성 의회 의원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 등 여성 국회의원으로서는 겪은 사례와 교훈을 제시하였다.

3) 미얀마

미얀마와는 공동협력연구가 성사되지 않았으나, 미얀마 내 대표적 연구기관 중 한 곳인 미얀마개발자원연구원(Myanmar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 MDRI) 연구자 1인(Ms. Kywat Kywat Khaing, Trainer and Researcher, Myanmar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 MDRI)을 초청하여 미얀마 여성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적 현황을 공유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미얀마 헌법과 전통상에서는 성차별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원 비율의 경우 하원 5.79%, 상원 1.79% 정도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며, 여성은 주로 기관 및 정당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빈곤감소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시장 접근성이 낮고 저기술, 저소득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서의 장애요소와 개선과제도 다루어졌다.

미얀마 모자보건연맹(Myanmar Maternal and Child Welfare Association) 소속의 지정토론자는 NGO와의 연계가 빈곤 해소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쿠키 판매, 화훼 및 농업관련 사업 기회 제공 등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미얀마의 여성 정치대표성 역시 관련된 또 하나의 이슈였는데, UNDP 아태지역 사무소의 관계자는 미얀마 내 여성 후보자 역량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발표자는 현재 할당제 도입이 정부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였다. 이와 관련해 여성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인도네시아의 발표자 2인이 할당제 도입경험에 기반하여

몇몇 의견을 공유하였는데, 우선, 할당제라는 적극적 조치에 대한 지식과 인식 간 연계와 특별한 선거운동 전략, 남성 유권자들의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운동권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4) 베트남

베트남은 공동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장 1인(Ms. Nguyen Thi Lan Huong, Director General, Institute of Labour Science and Social Affairs, ILSSA)과 공동연구진 1인(Ms. Hoang Thu Hang, Researcher, Institute of Labour Science and Social Affairs, ILSSA)이 참석하였으며, 3개 세부연구과제 중 2개를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직업훈련 정책 리뷰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발표에서는 베트남의 직업훈련 정책 개발과 이행에 있어 성인지적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면담을 주로 활용하였고, 평가기준은 첫째, 직업훈련정책의 남녀 실제 현황에 대한 관련성(relevance), 둘째, 남녀의 직업훈련 수요 반영여부를 보는 효과성(efficiency), 셋째 직업훈련정책의 성 주류화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들의 노력(commitment and responsibilities)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직업훈련법(Law on Vocational Training), 양성평등법(Law on Gender Equality), 노동법(Labour Code), 국가 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National Target Program on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등 다양한 관련법과 정책의 성 주류화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 주제는 국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에서의 젠더이슈 분석으로, 2010-2012년 남녀 직업훈련 참여 현황과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공동협력연구는 기간과 규모를 고려하여 베트남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 GSO)이 실시하는 국가노동취업실태조사를 2차자료로 활용하였다.

베트남의 중간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한국 전문가 토론자(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는 본 발표에서 제시한 정책제언에 전적으로

동의함과 동시에, 여성의 육아, 가사일 등을 고려하고 농촌여성, 장애여성
과 같은 보다 폭넓은 여성 그룹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직업훈련학교 설립과
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는 일가정양립
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직업훈련 자체뿐만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를 배려
하는 사회적 합의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4 KWDI SSAGE 참가자중 1인인 베트남 토론자(Le Thi Tuong
Van, Researcher, Vietnam Women's Academy)는 소속기관인 베트남여성연맹
측이 2016-2020 여성인적자원개발계획을 위한 연구를 계획 중이라는 점과
여성연맹이 1985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여성대상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였다. 더불어 베트남여성연맹의 경험을 바탕으
로 시설 개선, 여학생 참여 활성화 등 실질적으로 겪은 시사점도 함께 제시
하였다.

다. 시사점

현지 공동협력연구는 한국측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비해 현지 자료
나 현지 전문가와의 면접 등 인력 풀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
적이고 구체적인 여성정책 연구를 추진하기에 의의 깊은 시도였다. 이와 동
시에 본 연구사업은 현지 기관과의 공동협력연구 시도와 추진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협력국 내 여성정책 연구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인적자원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사업은 공동협력연구 파트너에 따로 제약을 두
지 않고 현지 정부, 국책연구기관, 국제기구, NGO 등 광범위하게 모색하였
다. 그러나 여성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인력이 많지 않
았고, 있더라도 소수이다 보니 업무량이 집중되어 공동협력연구 제안을 받
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정책 개발과 도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
료와 연구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협력국 내 여성정책 연구역
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겠다.

둘째, 현지 기관과의 공동협력연구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다. 4개 협력국

을 일률적으로 협력국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동일한 연구 예산과 연구 범위를 설정하기 보다는, 국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4개 협력국의 사회·경제적 수준,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 여성정책 연구 역량 상황에는 각자의 특수성이 있고,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협력연구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각 협력국별 상황을 고려한 공동협력연구 추진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공동협력연구와 연구결과 공유 세미나의 병행이다. 본 연구사업이 실시한 공동협력연구 공유세미나는 한국 그리고 4개 협력국이 모여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가졌다. 현지기관과의 공동협력연구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으나, 연구결과 공유세미나 병행을 통해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 개발과 이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연구확산 및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다 의의있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아태지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경험으로서 4개국 협력워크숍과 4개국 공동협력연구의 결과를 기술하였다. 4개국 협력 워크숍은 지식 공유를 통한 상호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며 각 국가의 고위급 공무원 간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강의, 기관방문, 참여적 세미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국별 사업제안서 발표를 통하여 각 국가별 당면 과제와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교환함으로써 상호학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워크숍 기간과 직후에 실시된 평가는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이 소기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보여주었다.

4개국 공동협력연구는 현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현지 여성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연구를 소규모의 파일럿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공동연구를 통한 협력국의 여성정책 연구역량강화 가능성

을 타진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원활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과 현지 연구 수행 인력의 부족으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미얀마의 경에도 현지 연구 인력 풀 부족과 기관의 행정절차의 상이함으로 인해 공동연구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추진되었는데, 연구 인프라와 본원과의 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협력 워크숍과 공동협력연구는 개발컨설팅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정책 자문과 프로젝트 자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개발컨설팅의 성격 중 본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들은 주로 정책자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워크숍의 경우 한국의 여성발전 과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강의, 법과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파악할 수 있는 기관방문은 향후 참가자들이 정책 수립 시 직접 적용가능하다. 또한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참여적 세미나 세션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참가국의 정책과 지역적 관점에서의 거시적 양성평등 정책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한국정부의 ODA 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향후 성평등 원조를 모색한 점 또한 자문적 성격을 띤다. 이 모든 과정에 협력국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 참가했다는 점은 본 워크숍과 협력연구의 정책자문적 성격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향후 정책의 실현 가능성 또한 높여 주고 있다.

또한 본 워크숍과 공동협력연구는 향후 개발컨설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지원서 작성 시부터 자국의 성평등 분야의 정책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분석한 페이지를 제출하였고, 이후 워크숍을 통해 이 중 가장 시급한 현안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사업제안서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자료는 수원국의 고위정책입안자들이 직접 파악하고 분석한 수원국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향후 개발컨설팅 및 프로젝트 컨설팅으로서의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높다. 아울러 4개국과의 공동협력연구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수원국의 현황과 자료를 활용하여 현지 연구진이 직접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연구기관으로서의 본원의 연구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 연구진의 역량강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적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V

아태지역 협력국에 대한 여성정책 개발컨설팅과 한국의 성평등 ODA 증진 방안

1. 아태지역 4개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체계와 수요 분석 257
2. 아태지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경험과 성과 276
3. 아태지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 경험에
기반한 한국 ODA 정책제언 280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은 지난 4년 동안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미얀마와 베트남의 정부와 여성단체들과 협력하며, 연구와 협력관계 증진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당초 이 연구에서 협력국가를 선정할 때 기준이, 동남아시아의 대표성을 갖는 국가이면서, 한국 ODA가 가장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국가들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문헌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로 파악하기 어려운 각국의 여성정책 분야와 성평등 원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ODA가 성평등 원조를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ODA 연구사업으로서 이 연구과제는 지난 4년에 걸쳐 세가지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첫 번째는 아시아 4개국의 성평등 원조체계와 수요를 분석한 부분으로서, 이 가운데 4개국의 원조유형과 분야를 보면, 이들 4개국에 대한 성평등 원조는 주로 성 주류화 사업(젠더마커 1점)¹²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사업분야로는 보건과 교육분야 사업이 우세하였다. 성 주류화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여성인권, 폭력 그리고 보건분야 사업에서는 여성대상 사업도 상당수 진행되고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현재 한국 ODA 사업을 기획하거나 발굴하는 단계에서 성평등 원조사업을 구상하는 여러 정책 실무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매우 실용적인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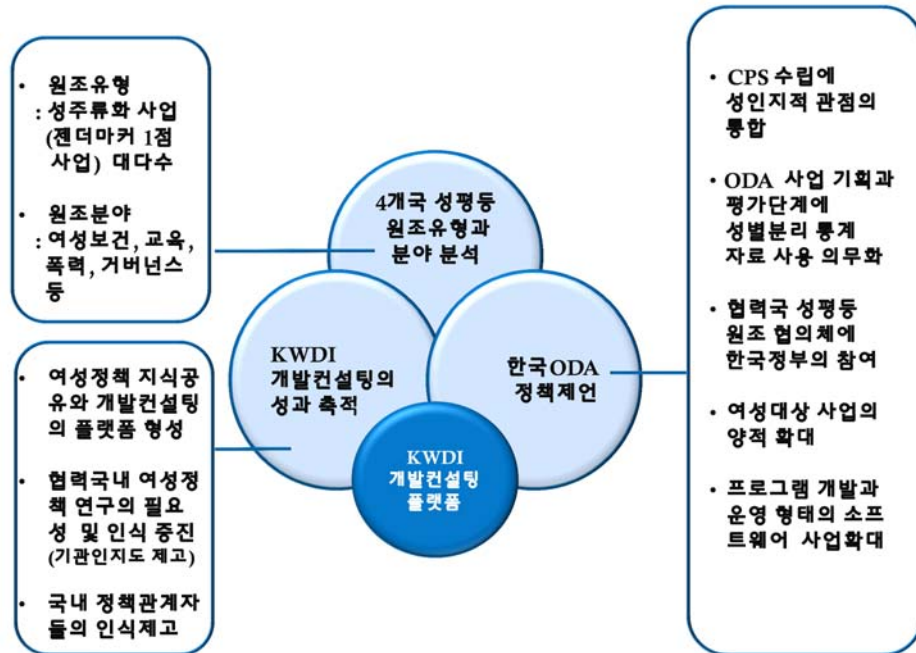
두 번째 성과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평등분야 ODA 연구사업을 통해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플랫폼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이들 4개 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를 하면서 연구와 조사분석을 통해 시의적절하며 당위성있는 여성정책이 형성된다는 것과, 정책연구의 역량구축이 궁극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데 협력국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국내 정책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면서 정부의 성인지 ODA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에도 기여를 하였다. 이 두 번째 성과

125) 젠더마커는 OECD/DAC에서 각국의 원조예산을 성평등분야에 얼마큼 지출하였는가를 가름하는 기준으로서, 전혀 관계없는 사업 0점, 일반사업에 젠더관점을 통합한 성 주류화 사업 1점, 성평등과 여성인권 증진 자체를 목적으로 한 여성대상 사업 2점으로 구분하고 있음.

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정책적 기여를 해야 하는 기관의 사명을 대내외적으로 이행한 부분이다.

세 번째는 한국 ODA 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이다. 2015년부터 새롭게 준비하게 될 CPS 수립, ODA 사업의 기획과 발굴단계, 그리고 평가단계에서 성별분리통계 자료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4개국의 성평등 원조 협의체에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성평등 원조사업의 발굴에 있어서 여성대상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젠더관점 통합사업)에 대한 정책실무자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여성대상사업의 양적 확대라는 측면으로 정책제언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과제는 한국정부의 ODA 사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실용적인 연구이며,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제언 역시, 정책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용어로 작성되었다.



[그림 V-1] 아태지역 4개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성과

1. 아태지역 4개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체계와 수요 분석

이 절에서는 먼저 4개국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4개국의 여성정책 기반에 있어서 유사성과 상이성, 그리고 4개국에서 최근에 진행된 성평등 분야 원조사업을 분석하여 국가별 성평등 원조의 유형과 분야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에서 제안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가. 4개국 성평등 원조 인프라의 유형과 원조사업의 특징

1) 4개국 성평등 원조 인프라 분석

4개국의 여성정책 기반과 성평등 원조의 운영 메커니즘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성정책 전담부처가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2개국이고, 성평등 원조 협의체가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와 미얀마 3개국이었다. 법제화 부분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는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나 정치, 경제, 인권 분야별 법제화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나머지 3개국은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 세워진 것을 제외하면, 정치, 경제, 인권 부분에 법제화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조직이나 법제화 측면의 인프라에 있어서 4개국의 공통사항은 국가차원의 여성발전 기본계획을 갖추고 있는 정도였다.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제시된 성평등 원조 수요를 살펴보면, 4개국 공통적으로 여성인권 증진과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원조사업이 가장 많은 수요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정치참여에 대한 원조수요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제분야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미얀마의 경우 정책의 성 주류화, 베트남의 경우 여성경제참여와 교육, 캄보디아의 경우 농어촌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성 주류화, 인도네시아의 경우 도농지역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와 여성보건 파트의 수요가 부각되어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성평등 원조사업 시행의 주요 파트너로는 UNDP, UN Women, UNFPA 등 UN 계열의 국제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V-1〉 4개국 성평등 원조 인프라의 유형 구분

| | | 미얀마 | 베트남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
| 조직 및 기구 | 여성정책 전담기구 | - | - | ○ | ○ |
| | 성평등 원조 협의체 | ○ | ○ | ○ | △ |
| 법제화 | 국가차원의 기본계획 | ○ | ○ | ○ | ○ |
| | 정치대표성분야 법제 | - | △ | - | ○ |
| | 경제역량강화 법제 | - | △ | △ | ○ |
| |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 철폐 관련 법제 | △ | △ | ○ | ○ |
| NGO | 여성 NGO 활동 (정책파트너) | ○ | △ | △ | ○ |
| 성평등 원조 수요 | [성평등 원조 수요] | | | | |
| | - 여성인권/폭력철폐 | ○ | ○ | ○ | ○ |
| | - 여성정치참여 | ○ | ○ | ○ | - |
| | - 여성경제참여 | | ○ | ○ (농어촌) | ○ (도/농) |
| | - 여성교육 | | ○ | | |
| | - 여성보건 | | | | ○ |
| | - 정책의 성 주류화 | ○ | | ○ | |
| | [주요 정책파트너] | | | | |
| | - 국내정책 | 국제기구 | 시민 /NGO | 학계 | 시민 /NGO |
| | - 성평등 원조 정책 | UNFPA/UNDP | UN Women | UNDP/JICA | |

참조: * 법제화의 기준은 관련법에서 성평등이나 여성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실제상에 적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음.

* 성평등 원조수요는 2011-2014 기간 중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성평등 원조 주요 파트너는 문헌과 담당자 인터뷰(2014)에 기반하였음.

자료: 김은경 외(2013), p.212의 표를 수정 및 보완함.

2) 4개국에 대한 양다자 기구의 성평등 원조 사업 분석

이 절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각국의 성평등 원조 운영체계와 선진 양다자기구의 국가별 성평등 원조 프로젝트 현황을 기반으로, 여성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으로 나누어보고 국가별로 성평등 원조사업이 시행되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했다.

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대한 주요 양자기구 젠더 프로젝트의 분야별 사업 진행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 보건 사업(12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난복구와 인도적 지원 사업(8개)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를 이어 여성 교육과 정치 관련 사업이 (각기 7개) 수행되었으며, 여성 경제 관련 사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인프라 사업과, 정책(예산 등)의 성 주류화 및 인권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분야와 관계없이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에 대한 양자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성 주류화 사업이 여성대상 사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나아가 각 분야에서 여성 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이 진행된 비중을 사업 수로 비교해보면, 여성 교육 사업, 여성 경제 관련 사업, 재난 복구 및 인도적 지원 사업, 인프라 사업 및 정책(예산 등)의 사업, 기후변화 사업은 성 주류화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여성 보건 사업의 경우 여성 대상 사업이 성 주류화 사업에 비해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여성 정치 사업이나 여성 인권 사업 등은 여성 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 수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표 V-2〉 인도네시아에 대한 주요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사업 분야

| | 분야 | 프로젝트 수 | 여성대상 | 성 주류화 | 해당 국가 |
|---|----------------------|--------|------|-------|-----------------|
| 1 | 여성에 대한 폭력 | - | - | - | - |
| 2 | 여성보건 | 12 | 7 | 5 | 호주, 일본, 미국, 영국 |
| 3 | 여성교육 | 7 | - | 7 | 호주, 캐나다, 일본 |
| 4 | 여성경제 | 5 | 1 | 4 | 호주, 캐나다, 한국, 독일 |
| 5 | 여성정치 ¹²⁶⁾ | 7 | 3 | 4 |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

| | 분야 | 프로젝트 수 | 여성대상 | 성 주류화 | 해당 국가 |
|----|----------------------|--------|------|-------|-------------|
| 6 | 여성과 기후변화 | 1 | - | 1 | 일본 |
| 7 | 여성과 재난복구 및 인도적 지원 | 8 | 1 | 7 | 캐나다, 일본, 영국 |
| 8 | 여성과 인프라(건설) | 3 | - | 3 | 호주, 일본 |
| 9 | 정책(예산)의 성 주류화 | 3 | - | 3 | 캐나다, 영국 |
| 10 | 여성인권 ¹²⁶⁾ | 3 | 2 | 1 | 독일, 네덜란드 |
| 11 | 총합 | 49 | 14 | 35 | - |

출처: AusAID, CIDA, JICA, KOICA, SNV, GTZ, USAID, DFID, Europe AID 홈페이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주요 다자기구 젠더 프로젝트의 분야별 사업 진행 양상을 살펴보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버넌스와 법 체계 지원 사업(11개)이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 여성 경제 사업(9개)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여성 보건 사업(8개)과 이주사업(7개)이 다수 진행되었으며, 여성 폭력, 농촌 여성 경제, 여성 교육 사업이 각기 5개씩 이행되었다. 나아가 인권 사업과 인프라 사업, 정치적 역량강화 사업도 있었다. 재난 복구 사업의 경우 양자기구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다자기구에서는 소수의 사업만이 존재했다. 아울러 사업 전반에서 ADB와 UNDP, 세계은행이 가장 많은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분야와 관계없이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에 대한 다자간 사업에서도 성 주류화 사업이 여성대상 사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각기 분야에서 여성 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이 진행된 비중을 사업 수로 비교해보면, 거버넌스와 법 체계 지원 사업, 농촌 여성 경제 사업, 공공부문 여성 경제 사업, 여성 교육 사업, 여성과 인프라 사업, 재난 복구 및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은 여성 대상보다는 성 주류화가 우세하게 진행된 사업들이었다. 반대로 폭력 사업, 보건 사업, 이주 관련 사업, 인권 사업 등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

126) 폭력과 관련되지 않고 여성의 인권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로 분류됨.

127) 정치 참여(로서의 거버넌스 구조 포함).

〈표 V-3〉 인도네시아에 대한 주요 다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분야

| | 분야 | 프로젝트 수 | 여성대상 | 성 주류화 | 해당 기관 |
|----|---------------------|--------|------|-------|-----------------------------|
| 1 | 거버넌스, 법체계 지원 | 11 | 3 | 8 | ADB, 세계은행, UNDP, UN WOMEN |
| 2 | 농촌 여성경제 | 5 | - | 5 | ADB, ILO |
| 3 | 공공부문 여성경제 | 9 | 1 | 8 | ILO, 세계은행 |
| 4 | 여성에 대한 폭력 | 5 | 4 | 1 | ADB, UNDP, UNICEF, UN WOMEN |
| 5 | 여성보건 | 8 | 7 | 1 | ADB, 세계은행, UNICEF |
| 6 | 여성교육 | 5 | - | 5 | ADB, 세계은행 |
| 7 | 여성과 기후변화 | - | - | - | - |
| 8 | 여성과 이주 | 7 | 6 | 1 | ILO, 세계은행, UN WOMEN |
| 9 | 여성과 인프라 | 2 | - | 2 | ADB |
| 10 | 여성과 재난복구 및 인도적 지원 | 2 | - | 2 | UNDP |
| 11 | 인권 | 4 | 3 | 1 | ILO, UNDP, 세계은행, UN WOMEN |
| 12 |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 | 1 | 1 | - | UN WOMEN |
| 13 | 다분야 ¹²⁸⁾ | 2 | - | 2 | UNICEF, UNDP |
| 14 | 총합 | 61 | 25 | 36 | - |

출처: ADB, ILO, UNDP, World Bank, UNICEF, UN Women 홈페이지

나) 베트남

베트남에 대한 주요 양자기구의 젠더 프로젝트의 분야별 사업 진행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 폭력과 관련된 사업(8개)과 여성 보건(7개)이 가장 많았다. 보건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것은 여타 국가와 유사하나 베트남의 경우

128) 경제(고용), 보건, 교육 등의 여러 분야를 동시에 목표로 진행 하는 사업들로 분류됨.

폭력 관련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 경제(3개)와 교육(2개) 사업이 많았고, 정치, 기후변화, 인권 분야에서도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분야와 관계없이 비교할 때, 베트남 양자기구 사업에서는 성 주류화 사업의 수가 크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 각 분야에서 여성 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이 진행된 비중을 사업 수로 비교해보면, 모든 분야에서 성 주류화 사업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력, 보건, 교육, 경제, 정치, 기후변화, 인권 분야를 망라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단, 폭력 분야에서는 여성 대상 사업도 일부 진행되고 있었다.

〈표 V-4〉 베트남에 대한 주요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분야

| | 분야 | 프로젝트 수 | 여성대상 | 성 주류화 | 해당 국가 |
|----|-----------------------------------|--------|------|-------|------------------------|
| 1 | 여성에 대한 폭력 (인신매매에 의한 폭력과 예방 포함) | 8 | 3 | 5 | 스페인, 스웨덴, 캐나다, 일본, 스위스 |
| 2 | 여성보건 | 7 | 1 | 6 | 호주, 영국 |
| 3 | 여성교육 | 2 | - | 2 | 캐나다, 영국 |
| 4 | 여성경제 | 3 | - | 3 | 캐나다, 스위스 |
| 5 | 여성정치 | 1 | - | 1 | 캐나다 |
| 6 | 여성과 기후변화 | 1 | - | 1 | 호주 |
| 7 | 여성과 재난복구 및 인도적 지원 | - | - | - | - |
| 8 | 여성과 인프라(건설) | - | - | - | - |
| 9 | 정책(예산)의 성 주류화 | - | - | - | - |
| 10 | 여성인권 | 1 | - | 1 | 호주 |
| 11 | 총합 | 23 | 4 | 19 | - |

출처: AECID, AusAID, CIDA, DFID, JICA, Embassy of Sweden in Hanoi, SDC, USAID 홈페이지

베트남에 대한 주요 다자기구 젠더 프로젝트의 분야별 사업 진행 양상을 살펴보면, 양자 기구의 패턴과 유사하게 폭력 관련 사업(10개)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거버넌스와 법체계 지원 사업, 공공 부문의 여성 경제 사업, 여성 교육 사업(6개)이 많이 진행되었다. 여성 보건 사업과 농촌 여성 경제 사업이 그 뒤를 이어 진행되었으며, 그 외에 기후변화, 이주, 인프라, 재난 복구와 인도적 지원 및 정치적 역량 강화의 분야에서 각기 사업들이 소수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젠더 사업에 있어 가장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자기구는 ADB와 세계은행으로 나타났다.

분야와 관계없이 비교할 때, 베트남에 대한 다자기구 사업에서도 역시 성 주류화 사업이 여성 대상 사업에 비해 많았다. 나아가 각 분야에서 여성 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이 진행된 비중을 사업 수로 비교해보면, 거버넌스와 법 체계 지원 분야, 농촌 여성 경제 분야, 보건 분야, 이주 분야, 인프라 건설 분야, 재난복구와 인도적 지원 분야 및 정치적 역량 강화 분야에서 성 주류화 사업이 여성 대상 사업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부문 여성경제 분야, 폭력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여성 대상 사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교육 분야에서는 동등한 수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표 V-5〉 베트남에 대한 주요 다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분야

| | 분야 | 프로젝트 수 | 여성대상 | 성 주류화 | 해당 기구 |
|---|--------------|--------|------|-------|---|
| 1 | 거버넌스, 법체계 지원 | 6 | - | 6 | ADB, ILO, UNDP, UNESCO, UN Women, |
| 2 | 농촌 여성경제 | 4 | - | 4 | ADB, IOM, 세계은행 |
| 3 | 공공부문 여성경제 | 6 | 5 | 1 | ADB, ILO, UNDP, UNIDO |
| 4 | 여성에 대한 폭력 | 10 | 6 | 4 | Asia Foundation, ILO, IOM, UNFPA, UNODC, UN Women |
| 5 | 여성보건 | 5 | 1 | 4 | ADB, Asia Foundation, FAO, UNFPA |

| | 분야 | 프로젝트 수 | 여성대상 | 성 주류화 | 해당 기구 |
|----|-------------------|--------|------|-------|----------------------------|
| 6 | 여성교육 | 6 | 3 | 3 | ADB, Asia Foundation, 세계은행 |
| 7 | 여성과 기후변화 | 2 | 2 | - | ADB, UN Women |
| 8 | 여성과 이주 | 2 | - | 2 | ILO |
| 9 | 여성과 인프라 | 1 | - | 1 | 세계은행 |
| 10 | 여성과 재난복구 및 인도적 지원 | 1 | - | 1 | 세계은행 |
| 11 | 인권 | | - | - | - |
| 12 | 여성의 정치적 역량 강화 | 1 | - | 1 | - |
| 13 | 다분야 | 2 | 2 | - | Asia Foundation, UNDP |
| 14 | 총합 | 46 | 19 | 27 | - |

출처: ADB, Asia Foundation, FAO, ILO, IOM, UN, UNDP, UNESCO, UNFPA, UNIDO, UNODO, UN Women, World Bank 홈페이지

다) 캄보디아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양자기구의 젠더 프로젝트의 분야별 사업 진행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 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사업(13개)이 진행되었고, 다음으로 여성 경제 관련 사업과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사업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여성 인권 사업, 교육 사업, 정책(예산 등)의 성 주류화 사업들이 소수 존재하였다.

분야와 관계없이 비교할 때, 캄보디아에 대한 양자기구의 여성 대상 사업이 성 주류화 사업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 각 분야에서 여성 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이 진행된 비중을 사업 수로 비교해보면, 여성 보건 사업, 여성 인권 사업은 여성 대상 사업으로 다수가 진행되었다. 반면 여성 경제 사업은 성 주류화 사업이 우세하였다. 그 밖에 폭력 사업은 여성 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 수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표 V-6〉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분야

| | 분야 | 프로젝트 수 | 여성대상 | 성 주류화 | 해당 국가 |
|----|--------------------------------------|--------|------|-------|----------------------------|
| 1 | 여성에 대한 폭력 (인신매매에 의한 폭력과 예방 포함) | 5 | 3 | 2 |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 |
| 2 | 여성보건 | 13 | 11 | 2 |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
| 3 | 여성교육 | 1 | 1 | - | 일본 |
| 4 | 여성경제 | 6 | 2 | 4 | 스페인, 한국, 일본, 호주, 덴마크 |
| 5 | 여성정치 | - | - | - | - |
| 6 | 여성과 기후변화 | - | - | - | - |
| 7 | 여성과 재난복구 및 인도적 지원 | - | - | - | - |
| 8 | 여성과 인프라(건설) | - | - | - | - |
| 9 | 정책(예산)의 성 주류화 | 1 | - | 1 | 일본 |
| 10 | 여성인권 | 2 | 2 | - | 노르웨이 |
| 11 | 총합 | 28 | 19 | 9 | |

출처: AECID, AusAID, CIDA, DANIDA, DFID, GIZ, JICA, KOICA, NORAD, USAID 홈페이지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다자기구 젠더 프로젝트의 분야별 사업 진행 양상을 살펴보면, 사업 수의 편차가 심하지 않아 국제기구의 사업이 여러 분야에 고루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농촌의 여성 경제 사업, 여성 보건 사업 및 여러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다분야 사업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거버넌스와 법 체계 지원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고, 공공부문의 여성 경제 사업, 폭력 사업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교육 사업, 이주 관련 사업, 기후변화 사업, 인권 사업, 정치역량 강화 사업 등도 소수 존재하였다. 아울러 캄보디아 젠더 사업에서 가장 많은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ADB와 UN Women으로 나타났다.

분야와 관계없이 비교할 때, 캄보디아에 대한 다자기구 사업에서는 여성

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의 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나아가 각 분야에
서 여성 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이 진행된 비중을 사업 수로 비교해보
면, 성 주류화 사업이 우세한 분야로 거버넌스 및 법 체계 지원, 농촌 여성
경제, 보건 분야가 있었다. 반면 여성 대상 사업이 우세한 분야로는 공공부
문 여성 경제, 폭력 분야가 존재하였다. 이외에 기후변화, 이주, 정치 역량
강화 사업들은 여성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소수 존재하였다.

〈표 V-7〉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다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분야

| | 분야 | 프로젝트 수 | 여성대상 | 성 주류화 | 해당 기관 |
|----|-------------------|--------|------|-------|--------------------------|
| 1 | 거버넌스, 법체계 지원 | 4 | 1 | 3 | UNICEF, UN WOMEN |
| 2 | 농촌 여성경제 | 5 | - | 5 | WFP, ADB, IFAD |
| 3 | 공공부문 여성경제 | 3 | 3 | - | ADB, ILO, UN WOMEN |
| 4 | 여성에 대한 폭력 | 3 | 3 | - | UN WOMEN |
| 5 | 여성보건 | 5 | 1 | 4 | ADB |
| 6 | 여성교육 | 2 | 1 | 1 | Asia Foundation, ADB |
| 7 | 여성과 기후변화 | 1 | 1 | - | ADB |
| 8 | 여성과 이주 | 1 | 1 | - | Asia Foundation |
| 9 | 여성과 인프라 | - | - | - | - |
| 10 | 여성과 재난복구 및 인도적 지원 | - | - | - | - |
| 11 | 인권 | 1 | - | 1 | UN WOMEN |
| 12 |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 | 1 | 1 | - | - |
| 13 | 다분야 | 5 | 4 | 1 | UNFPA, UNICEF, 세계은행, FAO |
| 14 | 총합 | 31 | 16 | 15 | - |

출처: ADB, Asia Foundation, FAO, IFAD, ILO, UNDP, UNFPA, UNICEF, UN Women, WFP, World Bank 홈페이지

라) 미얀마

미얀마에 대한 주요 양자기구의 젠더 프로젝트의 분야별 사업 진행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 보건 사업(17개)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과 인프라 사업(각기 6개)과 재난 복구와 인도적 지원 사업(5개)이 뒤를 이어 많은 수로 나타났다. 분야 별 사업 수로 비교할 때 미얀마에서는 여성 보건 사업에 주요 양자기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폭력, 경제, 정치 및 기후변화 관련 사업과 인권 사업이 소수 집계되었다.

〈표 V-8〉 미얀마에 대한 주요 양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분야

| | 분야 | 프로젝트 수 | 여성대상 | 성 주류화 | 해당 국가 |
|----|-----------------------------------|--------|------|-------|-------------------------------|
| 1 | 여성에 대한 폭력 (인신매매에 의한 폭력과 예방 포함) | 2 | 1 | 1 | 일본, 미국 |
| 2 | 여성보건 | 17 | 6 | 11 | 호주, 영국, 일본,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한국 |
| 3 | 여성교육 | 6 | - | 6 | 호주, 영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
| 4 | 여성경제 | 2 | - | 2 | 영국 |
| 5 | 여성정치 | 1 | - | 1 | 영국 |
| 6 | 여성과 기후변화 | 2 | - | 2 | 일본, 한국 |
| 7 | 여성과 재난복구 및 인도적 지원 | 5 | - | 5 | 호주, 영국, 캐나다 |
| 8 | 여성과 인프라(건설) | 6 | - | 6 | 일본, 스위스, 미국, 한국 |
| 9 | 정책(예산)의 성 주류화 | - | - | - | - |
| 10 | 여성인권 | 1 | - | 1 | 호주 |
| 11 | 총합 | 42 | 7 | 35 | - |

출처: AusAID, DFID, JICA, NORAD, SDC, USAID, CIDA, KOICA 홈페이지

분야와 관계없이 비교할 경우, 미얀마의 양자기구 사업에서는 성 주류화 사업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나아가 각 분야에서 여성 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이 진행된 비중을 사업 수로 비교해보면, 보건 사업에서는 성 주류화 사업의 수가 여성 대상 사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아울러 교육, 경제, 정치, 기후변화, 재난 복구 및 인도적 지원, 인프라, 인권 분야 모두의 사업에서는 성 주류화 사업의 수가 절대적으로(해당 분야 전체를 구성) 나타났다. 이외에 폭력 분야에서는 여성 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의 수가 같게 나타났다.

미얀마에 대한 주요 다자기구 젠더 프로젝트의 분야별 사업 진행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 보건(11개)과 교육(9개) 분야에 가장 많은 수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는 앞서 본 양자기구의 사업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다자기구 역시 보건과 교육 분야에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프라 사업(7개)이 많이 조사되었고, 거버넌스와 법체계 지원 사업과 농촌 여성 경제 사업(각 4개)이 뒤를 이어 진행되었다. 또한 공공 부문 여성 경제 사업과 인권 사업 및 정치역량 강화 사업들도 소수 진행된 바 있다. 아울러 미얀마에서는 ADB, UNDP, UNICEF 및 세계은행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젠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분야와 관계없이 비교할 때, 미얀마에 대한 다자기구의 사업은 성 주류화 사업이 여성 대상 사업에 비해 크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 각 분야에서 여성 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이 진행된 비중을 사업 수로 비교해보면, 농촌 여성 경제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버넌스와 법체계 지원, 공공 부문 여성 경제, 보건, 교육, 기후변화, 인프라, 재난 복구 및 인도적 지원, 인권, 정치 역량 강화 분야를 포함하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모든 분야에서 성 주류화 사업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 경제 분야에서는 여성 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의 수가 동등하게 나타났다.

〈표 V-9〉 미얀마에 대한 주요 다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분야

| | 분야 | 프로젝트 수 | 여성대상 | 성 주류화 | 해당 기관 |
|----|-------------------|--------|------|-------|---|
| 1 | 거버넌스, 법체계 지원 | 4 | - | 4 | ADB, ILO, UNDP, UNHABITAT |
| 2 | 농촌 여성경제 | 4 | 2 | 2 | FAO, UNDP |
| 3 | 공공부문 여성경제 | 2 | - | 2 | UNIDO |
| 4 | 여성에 대한 폭력 | - | - | - | - |
| 5 | 여성보건 | 11 | 2 | 9 | ADB, FAO, UNDP, UNFPA, UNICEF, WHO, 세계은행 |
| 6 | 여성교육 | 9 | 2 | 7 | ADB, ILO, UNDP, UNESCO, UNHCR, UNICEF, 세계은행 |
| 7 | 여성과 기후변화 | 3 | - | 3 | UNDP, UNHABITAT |
| 8 | 여성과 이주 | - | - | - | - |
| 9 | 여성과 인프라 | 7 | - | 7 | ADB, UNFPA, UNHABITAT, 세계은행 |
| 10 | 여성과 재난복구 및 인도적 지원 | 1 | - | 1 | UNESCO |
| 11 | 인권 | 2 | - | 2 | UNESCAP, UNICEF |
| 12 |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 | 1 | - | 1 | UNDP |
| 13 | 다분야 | 1 | - | 1 | UNDP |
| 14 | 총합 | 45 | 6 | 39 | - |

출처: ADB, ESCAP, ILO, FAO, UNDP, UNESCO, UNFPA, UN HABITAT, UNHCR, UNICEF, UNIDO, WHO, World Bank 홈페이지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각 국가에 대한 여성대상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으로 분류해볼 때, 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평등 원조 사업의 형태는 대부분 성 주류화 사업이었으며, 원조의 분야는 보건과 교육분야 사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폭력, 경제, 거버넌스 분야로 나타났다. 여성대상 사업

은 OECD/DAC이 분류하는 젠더마커 2점 사업으로서, 서론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젠더마커 2점 사업의 비중은 젠더마커 1점(성 주류화 사업, 또는 젠더관점 통합사업) 사업보다 낮다. 따라서, 이들 4개 국가에 대한 성평등 원조 프로젝트의 유형 분석에서도 역시 이같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한편, 여성대상 사업은 주로 보건, 인권, 폭력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으로, 4개국의 성평등 원조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주요 파트너라고 지칭한 기구와, 실제로 각국에서 성평등 원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구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평등 원조 협의체의 주요 파트너는 UN 계열의 기구들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사업 수에 있어서는 4개국 전반에서 UNDP도 있었으나, ADB와 World Bank가 가장 활발하게 성평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 4개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성평등 원조 사업 수요 분석

앞서 표 V-1에서 보듯이, 4개국 공통적으로 강조한 분야들은 여성 인권 및 폭력 관련 사업과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이었다. 4개 국가별로 한국정부에 대한 원조수요는 어떤 내용을 제안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¹²⁹⁾

인도네시아는 이들 국가 중 유일하게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정책의 성 주류화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것이 조사결과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인권증진이나 폭력철폐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항 이외에, 여성보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특이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에 있어서는 도시 여성의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농어촌여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실제 워크숍에서도 수입이 적은 농촌지역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취업교육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129) 김은경 외(2013), pp.218-221 참조.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연수를 통한 농촌출신 여성들의 취업지원 쪽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김은경 외, 2011a: 182), 국토규모가 방대한 인도네시아 전반에 걸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에 있어 진입지점을 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분야로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철폐가 1순위로 나오고, 여성정치참여, 여성의 경제/교육기회 보장이 동일한 순위로 나타난 바 있다. 워크샵에서 제안된 정책제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세션에서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인식변화나 정년연령의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확산 같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여성대표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한 사업들이었다. 경제/교육세션에서는 일반여성들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도시이주 여성노동자의 경제역량강화 등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에 대한 이슈가 제안되었다. 베트남이 빠르게 산업화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여성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도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이나 창업지원, 또는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건 세션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예방과 피해자보호 서비스를 위한 사업들과 일반여성을 위한 여성보건관련 지식과 정보의 구축이 제안되었다.

베트남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법제 자체가 남녀차별적인 부분들, 즉 정년연령의 차별문제나, 토지소유주의 부부 공동명의 삭제조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농어촌보다는 도시지역 여성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제안되어, 수요조사의 결과가 어느 정도 타당함을 뒷받침해주었다.

한편, 베트남의 남녀 간 정년연령 차별문제는 수요조사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이는 정책세미나와 워크샵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차원의 쉼터나 상담소 운영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 역시 정책세미나와 워크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지 수요파악에 있어서 다각적인 방법의 활용이 매우 적절했음을 알 수 있었다.

캄보디아는 농어촌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부분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법제도화의 우선순위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었고, 여성인권보장과 정치참여, 그리고 정책의 성 주류화로 모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워크숍을 통한 정책제안서 개발에 있어서는 농촌지역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전환 등 사회의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증진에 대한 정책제안이 많았고, 워크숍을 통해 방문했던 한국의 각종 여성 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여성취업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외, 2011a: 182).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비슷하게 농업비중이 큰 국가로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여성의 비율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듯 보인다.

미얀마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분야로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책의 성 주류화 그리고 여성인권보장 및 폭력철폐의 세 가지 분야에 가장 우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제적 권고사항인 여성정책전담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기구설립의 필요성 역시 인지하고 있었으나,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였다. 워크숍에서는 정치 세션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가 낮음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정보접근의 차별과 학습기회부족을 들고, 여성의 정치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연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경제/교육 세션에서는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센터 설치와, 학교 교사에 대한 양성평등의식 증진 사업을 제안하였고, 인권/보건 세션에서는 지방정부의 양성평등지원 사업과 여성보건 관련 법과 센터설립을 제안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부합되는 사업보다는 주제별 세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제안이 발굴되었으나, 정치참여증진, 여성역량강화는 유사한 맥락에 있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방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측면은 소수민족이 많고 지방자치가 중앙과의 연계가 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성 주류화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업의 주요 방법으로는 대부분이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연수라는 제안이 많았는데, 이는 실제로 미얀마 설문조사에서도 양성평등 사업 실행 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에 ‘법안

통과 및 정책형성을 위한 의회설통’, ‘여성 리더십 육성과 역량강화 교육’이 가장 많이 집계된 응답이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 등 리더십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기회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협력국의 여성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다. 정부관계자, 학계, NGO활동가, 국제기구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파악 설문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구체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실무자들과의 정책세미나와 워크샵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수요조사와 워크샵이라는 접근방법은 협력국의 수요를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여성정책의 ODA 사업발굴은 기계적인 설문조사만으로도 이를 수 없고, 정책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 만으로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 두가지의 방법론을 통해 협력국의 특징과 수요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과의 네트워크 및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여성정책 지식공유의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V-10〉 4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제안서의 분야별 리스트

| 국가 | 연도 | 분야 | 주제 |
|-----------------------|----|------|---|
| 인 도 네 시 아 | 정치 | 2011 | 의회 및 지역구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 |
| | | |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의 증진·한국의 공직선거법 발전과정과 선거풍토 변화 |
| | | | 총선 여성연대 및 시민연대 활동을 통한 선거문화 개선 |
| | | 2012 | 2014 총선거 대비 여성후보 진출을 위한 캠페인 전략수립 워크샵 |
| | | 2014 | 여성 국회의원 비율 확대를 위한 명부식비례대표제 도입 사업 |
| | | | 여성 친화적인 정당 내부 개혁을 통한 여성의원 선출 비율 확대 사업 |
| | | | 성평등 향상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 성인지정책 구축 사업 |
| | 경제 | 2011 | 취업교육과 ICT연수를 통한 농촌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
| | | 2012 | 여성 SME(Smalland Micro Enterprises)창업/경영인 지원사업 |
| | | | 성인직적 인프라사업 모델개발 사업 |

| 국가 | 연도 | 분야 | 주제 |
|-------------|----|------|--|
| 베 트 남 | 인권 | 2014 | 자본·시장으로의 접근성 향상 및 경제분야의 여성지도자 양성을 통한 여성 경제역량 강화 사업 |
| | | | 상품 부가가치 창출 및 수입 향상을 위한 지역공동체 기술교육 및 여성의 적극적 경제참여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
| | | 2011 |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법적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국의 원스톱 (one-stop) 서비스 |
| | |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 공동실시 |
| | | | 한국여성운동과 정부·의회의 굿 거버넌스 사례 및 전략탐색 |
| | | 2012 |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처벌법 제정사업 |
| | |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인지적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사업 |
| | |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인지적 법 집행 강화 사업 |
| | | 2014 | 여성·아동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 대상 심리사회적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통합전략 개발 사업 |
| | | | |
| | 경제 | 2013 | 평등한 베트남을 위한 공적 리더십 강화 사업 |
| | | | 국가 운영에 있어서 여성리더 증가를 위한 사업 |
| | | | 양성평등 관련 법·정책 계획 및 이행의 개선을 위한 성인지예산 역량 강화 사업 |
| | | | |
| | | 2014 | 정부정책 성 주류화 및 성별 통계데이터 수집을 위한 공무원 젠더역량 강화 기술 지원 사업 |
| | | | |
| | | 2013 | 은퇴연령의 양성평등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 |
| | | | 도시지역 비공식부문 도농이주 여성노동자의 경제적 역량강화 |
| | | | 여성의 토지사용권 및 경제적 역량강화에 대한 대중 인식 증진 사업 |
| | | | 베트남 가사노동자 관련 법적 보호 정책 |
| | | 2013 | 도시지역 청소년 데이트에서의 젠더기반 폭력 예방사업 |
| | | |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사업 |
| | | | 베트남 내 젠더기반 폭력의 개념 명확화 및 해결사업 |
| | | | 여성폭력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한 역량구축 사업 |
| | | | 가정폭력 예방 관련 행동 변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
| | | 2014 | 여성폭력 예방 및 철폐를 위한 의료보건 서비스 강화 사업 |
| | |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업무담당자 통합 및 강화, 가해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실시사업 |
| | 교육 | 2014 | 여성 및 여아의 교육·훈련 접근성 및 성취도 강화 사업 |
| | | | 여성 직업교육기관 시설개선 및 여성의 2차 직업교육·전문대학교육 이수 증진사업 |

| 국가 | 연도 | 분야 | 주제 |
|------|----|------|--|
| 캄보디아 | 보건 | 2013 | 여성 보건 역량강화 프로그램: 국가 역량구축 및 여성 보건 역량강화 |
| | | 2014 | 농촌지역 임신·출산 여성을 위한 의료보건서비스 강화 사업 |
| | 정치 | 2011 | 여성 정치인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증진 및 세력화를 위한 방안 |
| | | |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방법과 활용방안 |
| | | 2012 | 국회 여성의원 진출 및 역량강화 사업 |
| | | | 지방의회 여성의원 역량강화 사업 |
| | | 2013 | 정치·공공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위한 지원호나경 조성 및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
| | | | 여성의 선거참여 관련 애드보커시 강화를 위한 정부기관 및 사회서비스 역량강화 사업 |
| | 경제 | 2011 |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전환 등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 |
| | | | 민관협력을 통한 취업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제시 |
| | | | 여성개발센터(WDC)의 지속적 활용 방안 |
| | | 2012 |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직업능력센터 사업 |
| | | | 여성 취업 지원 및 취업여성 역량강화 사업 |
| | |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캄보디아 여성부 조직역량강화 사업 |
| | 인권 | 2011 |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법적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국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
| | |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 공동실시 |
| | | 2012 |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지방 법집행관/정부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
| | |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16일간의 캠페인 |
| | | 2014 | 여성·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책 강화 및 피해자의 사법서비스 접근 개선 사업 |
| | | | 여성폭력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기관 및 사회서비스 역량강화 사업 |
| | | | 여성차별·인신매매방지 활동지원을 위한 법실행 강화 및 COMMIT 회원간 협력 강화사업 |
| | | |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 경제역량 강화를 통한 가정 내 여성 존엄성 증진 사업 |
| 미얀마 | 정치 | 2013 | 소수민족 여성의 정치적 역량구축 사업 |
| | | | 미얀마 시민사회의 양성평등 및 젠더정의 사업 |
| | | | 여성 정치역량강화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 사업 |

| 국가 | 연도 | 분야 | 주제 |
|----|----|------|---|
| | | 2014 | CEDAW에 따른 정부의 여성관련 법정책 개정 및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인권인식 증진사업 |
| | | | 성평등 법·정책 이행 강화 및 젠더전략 수립·분석·전파에 대한 정부기관 역량강화 사업 |
| | | | NESPAW에 따른 여성 향상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훈련 및 여성의 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인식 증진사업 |
| | 경제 | 2013 |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 |
| | | 2014 | 직업훈련 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 참여율 확대 및 경제역량 강화 사업 |
| | 인권 | 2013 | 여성폭력 범죄 감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인식제고 및 사법접근권 개선 사업 지역정부의 양성평등정책 형성 사업 |
| | | 2014 | 여성폭력방지법 관련 해외사례조사를 통한 미얀마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및 인식 증진 사업 |
| | 교육 | 2013 | 교육분야 이해관계자를 위한 양성평등 의식 증진 및 성 주류화 사업 |
| | 보건 | 2013 | HIV/AIDS 법·정책개혁 검토에 대한 인권사업 여성친화 보건센터 설립 사업 |
| | | 2014 | 여성 및 여아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접근성 확대 사업 |

자료: 김은경 외 (2012) pp.315-316; 김은경 외 (2013) pp.237-238에서 재구성

참조: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MMIT: The Coordinated Mekong Ministerial Initiative Against Trafficking; NESPAW: National Strategic Pla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 아태지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경험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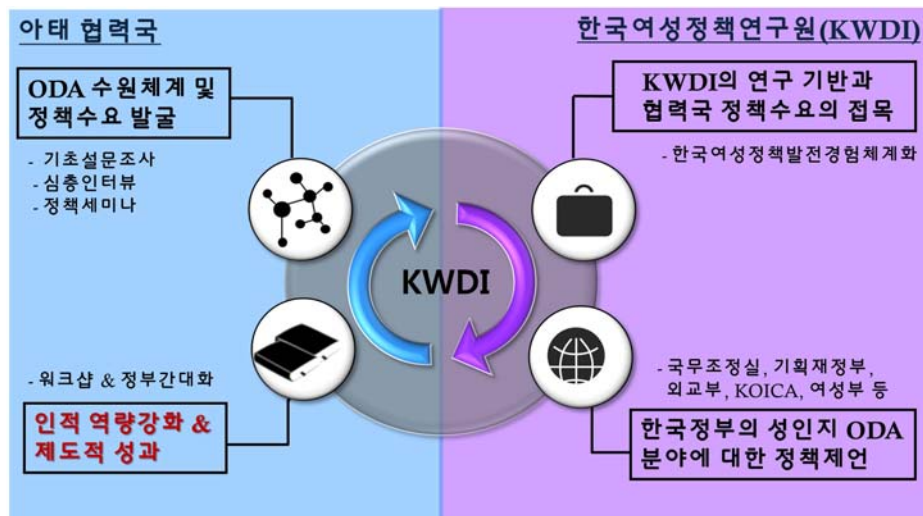
가. 여성정책 지식공유와 개발컨설팅의 플랫폼 형성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은 다차년에 걸쳐 아태지역 협력국의 성평등 원조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의 연구사업과 한국정부의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사업은 다차년에 걸쳐 아태지역 4개국을 연구 파트너로 삼아온 만큼,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벌여왔다. 다차년에 진행된 이 연구의 주요 내

용을 정리하면 궁극적으로 4가지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아태지역 협력국에 대한 성평등원조의 수요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본 연구사업은 그 자체로 여성정책에 대한 컨설팅의 주체가 됨과 동시에 아태지역 협력국과 한국정부를 연결해주는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해왔다.

KWDI는 아태지역 협력국의 성평등정책 실무자와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서 수요를 들었고 그들과 함께 양국의 여성정책 발전상황에 대해 지식을 공유했다. 4개국의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고 이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수요를 공유하고, 이를 한국 정부관계자와의 정책대화로 연결지었다. 그리고, 본 연구사업이 협력국에서 필요한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연구라는 형태로 정책연구의 기회 또한 제공했다.



[그림 V-2]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의 구조와 운영방식

KWDI는 4년에 걸쳐 아태지역 국가들과 교류하였고, 4개국 여성정책 담당부처 및 주요 여성 NGO들과 쌓은 네트워크와 신뢰는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연구가 낳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와 신뢰의 기반은 궁극적으로 개발컨설팅의 과정이었고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

였다. 본 연구과제의 연구진이 여성정책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아태 협력 국과의 모든 접촉과정은 정책자문의 과정이었고, 각 단계별 정책자문은 매년 보고서를 통해 내용이 정리되고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성평등 원조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며 그동안 본 연구과제를 통해 얻은 점들을 연결하면, 상당부분 국가별 특성이 이 연구과제를 통해서도 발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특정한 여성정책 수요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원조 공여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도 나타난 특징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여성부가 원하는 사업(‘여성자원센터’설립)을 구체적으로 건의하며 한국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베트남은,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없는 가운데, 정치적 대중조직인 베트남여성연맹을 통해 다양한 인력교류의 요청이 있었으며, 미얀마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고위급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인식제고 차원의 세미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각 국가마다 워크숍을 통해 정책 제안을 정식으로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정책적 수요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협력국가들과의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심화될수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관차원에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은 향후 이 연구과제가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는 부분이다.

나. 협력국 내 여성정책 연구와 조사에 대한 인식 증진

4년차를 맞이한 올해 연구에서, 4개국과의 공동협력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이는 그동안 4개국으로부터 제기된 수요를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보고자 한 취지였다. 4개국과의 공식적인 지식공유의 장이 되어온 SSAGE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여성정책 경험과 연구결과들을 공유해왔기 때문에, 이들 4개국 역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노하우를 전수받기 원했고, 또는 연구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현재 이들 4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태지역 협력국에는 자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 기관차원의 인적·물적 역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양성평등 정책의

씽크탱크(think-tank)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모델을 선호하고, 자국에도 이러한 모델의 여성정책 연구기관이 설립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번 4개국과의 공동협력연구 시도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 경험이었다. 첫째,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둘째, 4개국의 프로젝트 수행의 효율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국가와의 여성정책 컨설팅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우, 연구역량을 갖춘 인력을 파악하거나 선별하는 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 수월하였으며, 수행과정의 효율성 역시 다른 국가와 달리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한번의 연구경험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이들 두 개 국가와의 협력연구는 모두 연구기관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초기에 정부와 접촉하며 시간이 상당기간 소비되었고, 그나마 캄보디아의 경우는 국제기구와 연결이 되면서 신속하게 진행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와의 공동협력연구가 SSAGE 워크샵에서 공유되면서, 각국의 반응은 자국 내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고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다. 국내 정책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성평등 원조의 인식 제고

이 연구가 시작된 2011년 당시 상황은 한국정부가 OECD/DAC에 가입하고,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준비하던 시기였다. 젠더이슈가 범분야 이슈로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정책입안자와 실무자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 연구는 아태지역 협력국과의 네트워크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 정부 관계자와 NGO 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이 연구를 알리게 되었다. 이 연구가 국내 정책 관계자와 함께 진행하는 ‘젠더와 ODA 포럼’이나 각종 자문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여성부, KOICA, KDI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한국 ODA 정책에 있어서 젠더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난 것은 두가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2012년 국무조정실의 주관으로 ‘한국형 ODA 모델수립’이라는 과제에 미래이슈 영역의 여성부문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의 과제책임자는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의 여성부문의 세부과제를 정하는 과정부터 자문에 참여하고, 실제 과제의 책임을 맡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제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명의 박사인력이 참여하였다.

두 번째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에 2014년 평가과제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ODA 사업 평가’를 제안했고, 그것이 과제로 채택된 것이다. ODA 사업에 대한 평가는 2011년부터 정부가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고, ODA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부처는 매년 자체평가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평가사업은 평가소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정 부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문가가 평가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소위의 평가대상 과제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ODA 사업 평가가 채택된 것은, 정부의 인식변화를 반증하는 것이다. 향후 이 연구과제를 통한 정책제안들 역시 다양한 ODA 시행기관에서 채택되기를 전망해 본다.

3. 아태지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 경험에 기반한 한국 ODA 정책제언

이 절은 한국 ODA 정책 결정자 및 실무자들에게 성평등 원조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이며 실용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사업이 1차년부터 정책으로 제안한 사항들 중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시 한번 이 절에서 소개하였으며, 실제 여성대상사업과 성 주류화사업(젠더통합사업)의 사례를 설명하는 식으로 성평등 원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가. (국무조정실) CPS 수립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현재 수립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의 CPS에서는 양성평등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몇 가지만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CPS에서는 ‘범분야 지원계획’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성평등 원조 이행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행할 의사는 명시하고 있지만 깊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다루지 않고 있다. 즉 원조 협력분야별로 젠더관점이 통합되어 있기 보다는 범분야 이슈로 구분되어 약간 소개된 정도이므로, 현실적으로는 형식적인 차원의 언급에 그치고 있다(김은경 외, 2012: 332).

예를 들어 캄보디아 CPS 범분야 지원계획에서는 보건, 농업 및 인적자원 개발 분야 사업에서 성 주류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성 주류화 전략이나 계획, 대상 사업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추상적인 차원의 언급에 지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CPS가 한국의 성평등 원조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정표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CPS만으로는 한국의 원조가 협력국의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정치, 경제, 인권, 교육, 보건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국의 양성평등 현황을 고려한 ODA 지원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CPS는 각 2012-2015년, 베트남 CPS는 2011-2015년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다. 지금의 CPS가 갖고 있는 한계와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진일보한 차기 CPS 수립을 준비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향후 CPS에서는 협력국의 개발환경을 파악할 때 다양한 분야별 양성평등 현황과 문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협력국의 국가경제개발계획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관련 정책도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국내 양성평등 정책의 현 주소와 주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이 성평등 원조를 이행할 수 있을 만한 분야를 우선 순위화하여 CPS에서 양성평등 추진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권분야는 양성평등 실현에 있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CPS에서

는 한 문구 정도 언급되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현지 수요 파악 결과, 양성평등 실현에 있어 여성 차별적인 문화와 관습 문제가 큰 장애요인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원조사업에서 현지 여성의 인권과 폭력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설계되는 CPS에서는 양성평등을 단순히 범분야 이슈로서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분야별로 젠더관점이 통합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전략을(what to do), 어떻게(how to do)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현재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CPS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CPS나 대 미얀마 유상 혹은 무상 원조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경우 현지 양성평등 현황과 성평등 원조 이행방안이 적극적으로 다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

나. (국무조정실, 각 정부부처) ODA사업 기획과 평가단계에 성별분리 통계자료 사용 의무화

ODA 사업에 젠더관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기제가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기획과 평가단계에서만이라도 성별분리 통계자료의 사용을 의무화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많은 ODA 사업이 시행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획이 되었다면, 협력국 상당수의 빈곤계층이 완화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 ODA에서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ODA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KOICA를 필두로 여성대상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보통의 ODA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프로젝트의 투입 단계부터 산출과 성과 단계까지 기획하는 PDM(Project Design Matrix)이 사전형성조사 단계 또는 사전연구인 BDS(Basic Design Study)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는 이 PDM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 젠더관점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활동과 집행단계에서 새롭

게 젠더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ODA 평가는 OECD/DAC의 5가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5가지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사후평가가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어느 지표에도 해당사업의 성별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OECD/DAC은 5가지 기준을 젠더관점으로 재구성한 지표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ODA 사업을 평가하는 일반 ODA 전문가들이 젠더지표를 적용하기란 매우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ODA 사업 기획단계와 평가단계에서 ‘성별분리 통계자료의 활용 지침’ 등의 기제를 투입하여, 모든 ODA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젠더관점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세부 지침만이라도 있다면, 사업기획단계에서 젠더요소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평가과정에서는 많은 ODA 평가 전문가들이 그들이 평가하는 사업의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를 남녀 분리된 통계로 제출하게 될 것이며, 그 자체로 해당사업의 성별 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 (외교부, KOICA) 국내 개발컨설팅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2012년 외교부에서는 KOICA가 지난 20여 년간 기술협력으로 실시한 정책자문,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실시설계 등의 사업을 개발컨설팅 사업으로 유형화한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무상원조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KOICA의 개발컨설팅 경험이 축적된 결과이다. 한국의 성평등 원조 증진을 위해서는 DEEP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거나, 한국의 경험이 개발컨설팅에 활용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대상 DEEP 프로그램 수립시 본 연구가 실시한 여성정책에 관한 현지 수요 파악 결과를 고려하고 반영한다면, DEEP 프로그램에 젠더관점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치, 경제, 인권,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주제별로 한국의 여성발전경험을 체계화 한 사례연구를 DEEP 프로그램 주제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외교부, KOICA, 한국수출입은행) 현지 성평등 원조 협의체에 한국정부의 참여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개국은 각 다른 형태로 성평등 원조에 대해 공여기구들과 원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 원조협의체가 원조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해당국가에 대해 다른 기구에서 어떤 내용의 원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력국은 어떤 분야의 원조에 수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한국정부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서 본 4개국의 성평등 원조 협의체에 한국정부는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현지 성평등 원조 협의체는 무상원조 관계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지 출장을 통한 면담 결과, World Bank나 ADB에서 해당국가의 성평등 원조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정부의 KOICA 해외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해외 사무소에 파견된 인원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고, 젠더사업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인력의 수급 차원에서 젠더분야를 전담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젠더분야 하나만을 전담할 인력을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해외 사무소에 파견된 인력 중에 젠더파트를 담당하는 1인을 두도록 중앙 본부차원에서의 정책수립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본 연구대상 4개 협력국에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위 제안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여성대상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다양한 공여주체들과의 현지 양성평등 현황을 접하고, 성평등 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유상원조에서의 젠더이슈를 접목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여성대상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

한국의 정책실무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ODA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OECD 젠더넷에서는 성평등 원조를 이중전략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 여성대상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라는 것을 들어왔으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해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 정책제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공하려 한다. 한국의 KOICA는 국내 원조 시행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성평등 원조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여성대상사업’과 ‘성 주류화시범사업’으로 구분하고 성평등 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평등 원조사업은 여성을 주 수혜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여성대상사업’과 일반사업에 성인지적 관점과 성 주류화 구성요소를 반영한 ‘젠더관점 통합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³⁰⁾ ‘여성대상사업’은 여성을 주 수혜대상으로 하되 궁극적으로 성 주류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의 결과 여성의 권리, 지위, 인권, 인식 등이 향상된 사업들을 의미하며(젠더마커 2점 사업), ‘젠더통합사업’은 사업의 대상이 남녀를 포괄하고 있으나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성별 분석 및 데이터 유무, 양성평등 목표 및 활동 내용, 젠더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가 포함된 사업들(젠더마커 1점 사업)을 의미한다(김은경 외 2012: 126-127).

앞서 2장에서 4개국의 성평등 원조 프로젝트 현황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대상 사업은 주로 사업명에 ‘여성’ 또는 ‘여아’라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지칭된 경우가 많고, 젠더관점 통합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명에서 이 같은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대상 사업의 대표적인 분야가 모자보건 사업이다. 모자보건은 여성대상사업의 전형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실제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국의 현장을 방문해보면, 모자보건사업은 모자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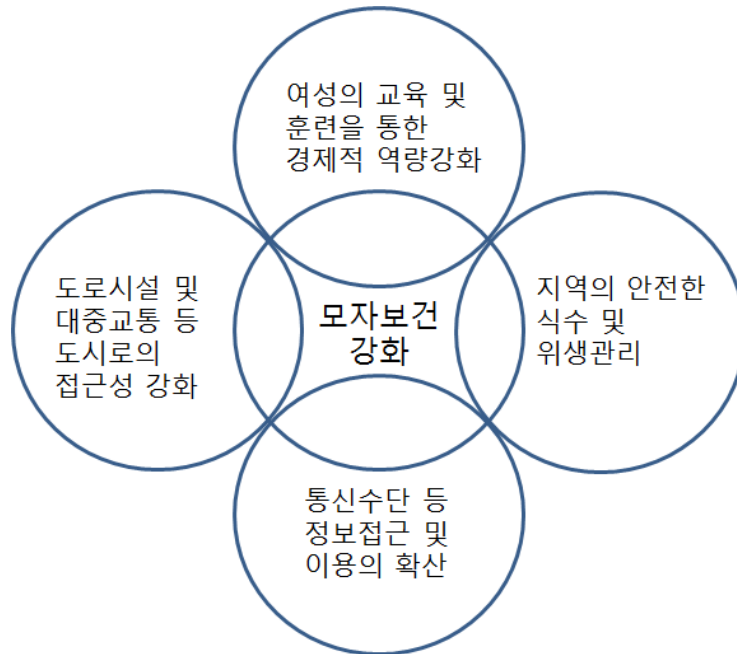
130) 이는 유엔의 성 주류화 과정에서 여성과 발전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에서 추진된 것으로 여성중심의 접근(Women in Development, WID)과 젠더 접근(Gender and Development, GAD)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업에만 그쳐서는 그 효과를 끌어올리기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책임자가 젠더전문가로 참여했던 필리핀 일로일로주 지역보건체계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¹³¹⁾ 지역의 특성이 GIDA(Geographically Isolated and Disadvantaged Area)로 분류된 지역이었는데, 산간벽지의 산모들이 산전 검사를 받기 위해 오토바이로 비포장도로를 한시간 이상 달려야 시내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이런 지역에서 모자보건 사업이란 단순히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만을 다루는 사업이 아닌 것이다. 이런 지역에서 모자보건사업은 도로건설 및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 지역의 식수 및 위생사업, 통신수단 및 정보접근확대 사업과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진정한 모자보건의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에 여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기회를 동시에 부여하여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증진시킨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모자보건 강화 사업의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그림 V-3 참고).

여성대상 사업의 양적인 확대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다른 분야 사업과 접목하는 식의 질적인 확대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원조 시행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도로 인프라 사업, 식수 사업, 모자보건 사업 등을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 이같은 사업수요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내 시행기관이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인프라 개발 사업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유상원조 기관 역시 본 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유·무상 전반에서 보다 실질적인 여성대상 사업의 질적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31) 이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책임자(김은경)는 2013년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일로일로주 지역보건체계 역량강화 사업의 BDS에 젠더전문가로 참여하고, 젠더분야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음.



출처: 김은경(2013), KOICA 필리핀 일로일로주 지역보건체계 강화사업 BDS 젠더전문가 출장보고서.

[그림 V-3] 여성대상 사업과 일반사업이 통합·확장된 형태의 예시

KOICA는 사업 일부를 ‘성 주류화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2014년 현재 3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무상원조 사업의 성 주류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 주류화 시범사업 확대도 좋겠으나, 현재 KOICA가 진행 중인 사업의 후속사업 발굴시 젠더이슈를 접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최근 미얀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모델을 현지화한 MDI 설립사업이 궁극적으로 연구와 개발의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이 과정 중에 여성연구의 파트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미얀마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사업’에 관련 주제에 대한 한국 여성발전경험 공유, 베트남 ‘한·베 기술학교 설립사업’에 직업훈련과정 중 여학생 대상 교육과 취업지원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김은경 외, 2013: 228-232). 또한 베트남 라오

까이성, 팡찌성 행복프로그램(Happiness Program)과 같은 농촌공동체개발사업의 경우 세부 활동 중 하나로 농촌여성 주민 대상 소득증대 혹은 농산물 판매기술 교육을 추진할 수 있겠으며, 이는 베트남 CPS에서 농업분야 사업에서의 여성 참여 및 소득향상 지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CPS 이행에도 부합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김은경 외, 2013: 228-232).

바. 프로그램 지원 형태의 성평등 원조사업의 개발

여성대상 사업과 젠더관점 통합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선진 양·다자기구의 성평등 원조 사업 주제는 보건, 교육, 폭력, 거버넌스, 지역개발과 경제, 공공행정 등을 아우르고 있었으며, 이들 국제원조기구 활동에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지원형태가 인프라 구축같은 하드웨어적 측면이 아니라 역량강화와 정책자문, 운영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같은 소프트웨어적 형태의 사업들이었다. 두 번째 특징은 양다자 기구들에서는 정부와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현지의 NGO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적 지원은 주로 젠더통합 사업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이는 젠더통합 사업이 여성대상 사업과 비교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성인지적 정책 및 거버넌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외, 2012: 156-157). 또한 NGO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수원국 정부로 하여금 좀 더 많은 책무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우회적 방법이기도 하며, 향후 수원국이 해당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무상원조의 대부분이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력을 맺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프라 확충이나 건설 등의 사업요소를 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필요하지만, 수원국에서 해당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같은 부분의 사업들도 필요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KOICA와 부문별 사업을 진행하는 각 정부부처의 사업이 조율하여 상호 정보공유는 물론 역할분담을 하여 진행된다면,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국내 정부부처

간 협력 뿐 아니라, UNDP, UN Women 등과의 협력사업을 개발하는 것 역시 한국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4개국의 성평등 원조 수행방식과 분야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자 했다. 이들 국가의 성평등 원조의 기반(정책전담 조직, 법체계 등)에 대한 분석, 성평등 원조사업의 유형과 주요분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살펴봤을 때, 이들 국가는 분명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분야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평등 원조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어떤 국가에 어떤 유형의 사업을 접근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각계의 정책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별분리 통계자료 사용과 젠더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업에 젠더관점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자의 정책적 의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법이나 시행단계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재성 외 (2013), 『DEEP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관계부처 합동 (2011),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베트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_____ (2012a),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인도네시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_____ (2012b),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캄보디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2), 『개발컨설팅 ODA 사업 종합 평가결과』, 제1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 김권용 (2013), “베트남, 연금 고갈 우려에 정년 연장 추진”, 2013년 2월 17일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13/0200000000AKR20130213097700084.HTML?from=search> (접속일 2013. 02. 13)
- 김은경 외 (2011a),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정책전문가들의 역량강화 워크숍 모듈개발』, 연구보고서-23,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11b),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젠더 프로파일』, 연구보고서-23-1,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12), 『아태지역 양성 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II):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여성정책 모형개발』, 연구보고서-10,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13), 『아태지역 양성 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III): 여성정책 지식 공유 기반구축』, 연구보고서-8,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곽서희 (2014), “베트남 정년퇴직연령의 성차(Gender Gap)와 성별노동분업의 제도화에 대한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4집 3호.
- 김은경·곽서희·심수민 (2013), “상호성 기반의 역량개발 패러다임과 지식공유: 세계은행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제5권 제1호.
- 김은경·박연선 (2013), “동남아시아 여성의 의회진출에 영향을 미친 선거제도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분석: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
- 김은경·김정수 (2014), “캄보디아 성평등 원조체계 조사를 위한 해외출장복명서 (내부자료)”,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주 (2013), “한국 개발컨설팅 ODA 사업 발전방안”, 『KOICA 국제개발협력지』. No. 2. 한국국제협력단.
- 박수영 (2012),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개발협력컨설팅 ODA사업’과 개발원조 개선방안』, 한국국제협력단.
- 오기윤 (2013), “KOICA의 개발컨설팅 사업사례를 통해 본 성과 및 시사점: 개발 조사 사업을 중심으로”, 『KOICA 국제개발협력지』. No. 2. 한국국제협력단.
- 오은진 외 (2012), 『2011 발전경험모듈화사업: 여성특화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및 사업운영 경험』,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은정 (2013), 『KOICA 성평등 개발협력사업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 장은하 외 (2013), 『미얀마·베트남 젠더 프로파일』, 연구보고서 8-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수민 (2012), “지식공유 분야 G20 서울개발의제 이행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17.
- 한국국제협력단 (2013), “KOICA 국별지원 현황 미얀마”, 한국국제협력단.
- ADB (2006a), “Project Data Sheet: Tonle Sap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ector Project”.
<http://www.adb.org/projects/34382-022/main> (접속일 2014.5.7.)
- ____ (2006b), “Project Data Sheet: Community Empowerment for Rural Development”.
<http://www.adb.org/projects/32367-013/main>에서 (접속일 2014.5.9.)
- ____ (2010), “Indonesia: Empowering Rural Women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 2010”.
<http://www.adb.org/themes/gender/case-studies/indonesia-empowering-rural-women-through-community-development>. (접속일 2014.5.9.)
- ____ (2011), “Cambodia: Tonle Sap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ector Project, Completion Report”.
<http://www.adb.org/features/well-springs-new-hope> (접속일 2014.5.7.)
- ____ (2012a), “Helping Women Through Water and Sanitation in Cambodia”.
<http://www.adb.org/features/well-springs-new-hope> (접속일 2014.5.7.)
- ____ (2012b), “Completion Report - Indonesia: Community Empowerment for Rural Development Project”.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rojdocs/2009/32367-INO-PCR.pdf>. (접속일 2014.5.9.)
- BAPPENAS (2011), List of Medium-Term Planned External Loans(DRPLN-JM)

2011-2014.

DFAT (2010), “Annual Report 2010”

<http://aid.dfat.gov.au/countries/eastasia/burma/Documents/lift-annual-report-2010.pdf> (접속일 2014.7.3.)

Ellerman, David (2000), “Knowledge-Based Development Assistance,” Knowledge, Technology & Policy, New York: Springer.

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 (FERD) (2014), “Guide to International Assistance to Myanmar”,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Myanmar.

Galtung, Johan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Oslo: Peace Research Institut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United Nations in Vietnam (2012), “One Plan 2012-2016”, Hanoi.

INGO Forum Meeting 2014, (2014) “INGO Forum Meeting”, 23. May. 2014.

<http://www.ngocentre.org.vn/pub/ingo-forum-meeting-2014-may> (접속일 2014.10.23)

JICA (2007), “Cambodia Country Gender Profile”, p.46-49.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and ILO (2010), “Labour and Social Trends in Vietnam 2009/10”, Hanoi: MOLISA.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08), “Platform for the Operation of the Vietnam Partnership Group on Aid Effectiveness”,

<http://www.ngocentre.org.vn/files/docs/platform.pdf>(접속일 2014.10.20.)

_____ (2010), “Review the Progress on the Realization of ODA Strategic Framework for 2006-2010 Period and ODA Vision beyond 2010”, Presented at the Aid Effectiveness Forum by Ho Quang Minh, Director General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 of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June 3, Hanoi.

Ministry of Women's Affairs (MoWA) (2011), 『ODA Report :Ministry of Women's Affairs 2010』, Department of Planning and Statistics.

OECD (2014), “Aid in Support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Donor Charts”, Paris: OECD.

OECD/DAC (2012),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12”, Paris: OECD.

SMERU (2004), “Mapping Assistance Program to Strengthen Microbusiness”, Newsletter No. 10: April-Jun 2004, Jakarta: SMERU Research Institute.

- Swinkels, Rob A. and Carrie Turk (2003), “Strategic Planning for Poverty Reduction in Vietnam: Progress and Challenges for Meeting the Localize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Vietnam: World Bank Publication.
- UN (2014), “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400&nr=1579&menu=1300> (접속일 2014. 10. 29)
- UNDP (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New York: UN.
- Vietnamplus (2014), “Vietnam Development Partnership Forum to take place in December”, August 5, <http://en.vietnamplus.vn/Home/Vietnam-Development-Partnership-Forum-to-take-place-in-December/20148/53638.vnplus> (접속일 2014.10.23.)
- World Bank (2011), “Gender Dimension of Third Rural Transport Project-Vietnam, presented by Phuong Thi Minh Tran from World Bank, Hanoi,” at A Technical Symposium on Gender in the Economic Sectors: End-of-GAP Results, Impact, Tools, Data Expo and Expert Dialogues, Washington DC.

웹사이트

- 법체처, <http://www.moleg.go.kr/main.html>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웹사이트, <http://stat.koica.go.kr>
- ADB, <http://www.adb.org>
- AECID, <http://www.aecid.es/EN>
- Asia Foundation, <http://asiafoundation.org/in-asia>
- AusAID, <http://aid.dfat.gov.au/Pages/home.aspx>
- CDC/CRBD ODA Database, <http://www.cdc-crbdb.gov.kh/database/>
- CIDA, <http://www.international.gc.ca/development-developpement/index.aspx?lang=eng>
- DANIDA, <http://um.dk/en/danida-en/>
- DFID,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international-development>
- Embassy of Sweden in Hanoi, <http://www.swedenabroad.com/hanoi>
- ESCAP, <http://www.unescap.org/>
- Europe Aid, <https://ec.europa.eu>

- FAO, <http://www.fao.org/home/en/>
- GIZ, <http://www.giz.de/>
- Hoilhpn, <http://hoilhpn.org.vn/print.asp?newsid=16172>
- ILO, <http://www.ilo.org/global/lang-en/index.htm>
- IOM, <http://www.iom.int/cms/en/sites/iom/home.html>
- JICA, <http://www.jica.go.jp/>
- Ministry of Women's Affairs (MoWA, Cambodia), <http://www.mwva.gov.kh/>
- Myanmar Information Management Unit, <http://www.themimu.info/>
- Ngocenter(vietnam), <http://www.ngocentre.org.vn/jobs/consultancy-development-booklets-%E2%80%9CReconciliator-stories%E2%80%9D-and-%E2%80%9Cmanual-establishment-and-operation%E2%80%9C>
- Norad, <http://www.norad.mil/>
- SDC, <https://www.eda.admin.ch/deza/en/home.html>
- SNV, <http://www.snvworld.org/>
- UNDP, <http://www.undp.org>
- UNDG, <http://www.undg.org/>
- UNESCO, <http://en.unesco.org/>
- UNFPA, <http://www.unfpa.org/>
- UNHABITAT, <http://unhabitat.org/>
- UNHCR,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home>
- UNICEF, <http://www.unicef.org/>
- UNIDO, <http://www.unido.org/>
- UN Women, <http://www.unwomen.org/en>
- USAID, <http://www.usaid.gov>
- Vietnam Union of Friendship Organisations (VUFO)-NGO Resource Centre,
<http://www.ngocentre.org.vn/>
- WFP, <http://www.wfp.org/>
- WHO, <http://www.who.int/countries/vnm/en/>
-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부 록

| | |
|---|-----|
| 〈부록 1〉 2014년도 미얀마/베트남 심층면접 질문지(영문) | 299 |
| 〈부록 2〉 2012, 2014년도 심층면접 응답자 리스트 (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 4개국 | 313 |
| 〈부록 3〉 2014 SSAGE 워크숍 4개국 참가자 리스트 | 317 |
| 〈부록 4〉 2014 SSAGE 워크숍 참가신청서 1 : Application Form | 319 |
| 〈부록 5〉 2014 SSAGE 워크숍 참가신청서 2 : Policy Paper | 322 |
| 〈부록 6〉 워크숍 평가지 | 324 |

<부록 1> 2014년도 미얀마/베트남 심층면접 질문지(영문)

Strengthening Gender Equality Policy Infrastructure in the Asia-Pacific Region (Ⅳ)

: Development Consulting Based on Knowledge Sharing on Korea's Development in Women's Policies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a state-funded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women's policies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30 years. In 2011, the KWDI set up a multi-year ODA project titled 'Strengthening Gender Equality Policy Infrastructure in Asia-Pacific Region,' and we have partnered with four developing countries—Cambo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In 2013, we conducted a survey on the status and the local needs of women's policy of Myanmar and Vietnam; had policy seminars with experts of the two countries; and held a one-week workshop for capacity building of local policy experts. In 2014, we hope to work closely with experts in Myanmar and Vietnam to further develop last year's research results by examining more specific local needs for women's empowerment and gender equality.

As a part of the project in 2014, KWDI is planning to conduct in-depth interview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coordinators from Myanmar and Vietnam. The questionnaires are prepared by the KWDI. Target interviewees include civil servants, parliamentarians and political party members, NGOs, and other experts. All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in-depth interview (including your identification information) will be used only to identify local needs for women's policy of the two countries, and it will not be used for other purpos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 KWDI wishes to work together with partner countries to find way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s status and the development of gender equality policy.

We hope to further develop close partnership with Myanmar and Vietnam and contribute to developing women's policy in the two countries.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in advance.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Cooper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Contact Information:

Eun Kyung Kim
Project Manager, Head of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Cooper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82-2-3156-7107,
kekkekek@kwdimail.re.kr, ekkim928@gmail.com

Questionnaires for In-depth Interviews

March 14, 2014

Overview

1. Objective:

To identify specific local needs for women's policy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2. Three Topics of the Questionnair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KWDI's research on local policy needs for women's policy in 2013,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women's economic empowerment and women's human rights & violence against women are selected as topics for the in-depth interviews.

3. Duration: April 1 to June 30, 2014

4. Type of Interview: One-on-one interviews

5. Interviewee: At least 8 persons by topic, at least 24 persons by country

| Category | | Political Empowerment | Economic Empowerment | Women's Human Rights |
|---|--------|-----------------------|----------------------|----------------------|
| Civil servants | | 2 | 2 | 2 |
| Parliamentarians/ Members of political party | | 2 | 2 | 2 |
| NGOs and other experts | | 4 | 4 | 4 |
| Total | | 8 | 8 | 8 |
| Gender | Male | | | |
| | Female | | | |

※ Please fill in the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interviewees below.

| Number | Name | Gender | Age | Organization & Position | Interview Date & Time | Signature |
|--------|------|--------|-----|-------------------------|-----------------------|-----------|
| | | | | | | |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 In Section A(No.1~3), ask questions according to the interviewee's affiliation.

A. Policy Status of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Option 1) Ask if the interviewee is a civil servant:

1. If there is any policy or effort made by the government to improv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 What is the policy or the effort in detail?
- How successfully has it been implemented so far?
 - a) If a policy or an effort made has not successfully achieved its intended goals, what have been the obstacles?
 - b) Or if it has achieved its intended goals successfully, in what aspect has it been successful and what are the success factors?
- If there is no such policy or effort, what are the reasons?

2. If there is any project or activity done by political parties or NGOs for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 Who have conducted such project or activity? (Name an organization or an institute, etc.) And what kind of project or activity has been conducted? Please elaborate.
- How successfully has it been implemented so far? If it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what has contributed to the success?
 - a) If it has not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what are the obstacles?
 - b) If there is no such policy or effort, what are the reasons?

3. What organizations does your government work with to push forward a policy or a program for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 Who are your partners? (Name an organization or an institute, etc.) And how do you collaborate with your partners?
- Has your government cooperated with political parties or NGOs on any project or activity for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If so, please elaborate what you've worked together on. Or if there is no such cooperation with political parties or NGOs, what are the reasons?

(Option 2) Ask if the interviewee is a *member of political party*:

1. If your political party has made efforts to enhanc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 What kind of efforts has your political party made to enhanc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 How much support have the efforts gained from the public/voters?
- If there is no such policy or effort, what are the reasons?

2. If there is any policy or effort made by the government to improv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 What is the policy or the effort in detail?
- How successfully has it been implemented so far?
 - a) If a policy or an effort made has not successfully achieved its intended goals, what have been obstacles?
 - b) Or if it has achieved its intended goals successfully, in what aspect has it been successful and what are the success factors?
- If there is no such policy or effort, what are the reasons?

3. Who does your political party work with to push forward a policy or a program for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 Who are your partners? (Name an organization or an institute, etc.) And how do you collaborate with your partners?
- Has your political party cooperated with the government or NGOs on any project or activity for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If so, please elaborate. Or if not, please give reasons why.

(Option 3) Ask if the interviewee is *a scholar or an activist from an NGO*:

1. If your organization or institute has conducted projects or activities aimed at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 What kind of project or activity has your organization or institute conducted to enhance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Please elaborate on them.
- How successfully has it been implemented so far?
 - a) If it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what has contributed to the success?
 - b) If it has not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what are the obstacles?

2. If there is any policy or effort made by the government to improv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 What is the policy or the effort in detail?
- How successfully has it been implemented so far?
 - a) If a policy or an effort made has not successfully achieved its intended goals, what have been obstacles?
 - b) Or if it has achieved its intended goals successfully, in what aspect has it been successful and what are the success factors?
- If there is no such policy or effort, what are the reasons?

3. Who does your organization/institute work with to push forward a policy or a program for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 Who are your partners? (Name an organization or an institute, etc.) And how do you collaborate with your partners?
- Has your organization/institute cooperated with the government or political parties on any project or activity for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If so, please elaborate. Or if not, please give reasons why.

※ Questions hereafter (Section B & C) will go to every interviewee regardless of one's affiliation.

B. Situation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4. How do appreciate/evaluat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your country?

- Are women represented enough in Parliament and local councils? Is the level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your country satisfactory or does it need more improvement?
- Affirmative action is oft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measure to improv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one of its examples can be a gender quota system. Does your country have any affirmative action in place to improv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f so, please elaborate. Or if not, is an affirmative action needed to improv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your country? Given that political system of your country is different from Korea's, what kind of affirmative action can be taken?

[Activities of Female Members of Parliament]

5. How do you appreciate/evaluate (legislative) activities done by women parliamentarians?

- How active are women parliamentarians in parliamentary politics? How enthusiastic are they in proposing motions? How active are they in representing ordinary women as well as disadvantaged women?

6. What are the difficulties or obstacles that women MPs face in their activities?

- How actively do women participate in standing committees in the Parliament? If women's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in standing committees are lower than those of men, what are the causes?
- What are the difficulties faced by women in being reelected?
- What is the network among female parliamentarian like? How often do they meet, discuss and work together to address women's issue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Election Campaigns by Female Candidates]

7. Do women want to run for election?

- Who wants to run for election for the parliament or a local council? What kind of characteristics or backgrounds do the female candidates usually have? (in terms of age, education, career experience, family backgrounds, political opinions, etc.)
- If there are not many women who run for election, what makes female candidates hesitant to run for election? What are the obstacles faced by women who wish to run for election? (e.g. lack of party's nomination, cost for election campaign, etc.)

8. What are the criteria for political parties in nominating candidates?

- Do political parties prefer male candidates to female ones? If so, what are the reasons?

9. What about voters? What kind of criteria do voters usually consider?

- What affects their votes? (e.g. a political party of the candidate, social ties including regionalism, gender, etc.)
- What do voters/people think about female candidates? If they prefer male candidates to female candidates, what makes them to less support female candidates?

10. Considering the policy status and the situation of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what kind of support is needed to improv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C. ODA Supports

11. If you have ever collaborated wi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 agencies for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what kind of projects have you worked together and how successful were they?

- Please share the details of the best practice if there has been one.

12. Given an opportunity to cooperate with Korean government or KWDI through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at kind of cooperation would be effective to address the issues related to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And what kind of support or aid is needed from Korea?

※ Questions hereafter are country-specific.

[Myanmar Specific]

M-1. KWDI conducted a survey in 2013 to figure out the status of women's situation and the policy needs for women's issues in Myanmar. Seventy-four policy experts from the government, academia,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ponded to the survey.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politics is considered to be an area where the

status of women is the lowest (74%) whil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s expected to see greatest progress (22%). If you also agree that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s very low at present, but will experience a great progress in the future, what makes you foresee this kind of prospect? And in what ways can this change accelerate further?

M-2. Myanmar has adopted a single-member electorate/constituency system where only one candidate is elected in an electorate or a constituency. Under the system of the single-member electorate/constituency, a political party is to nominate only one candidate for an electorate or a constituency, and as a result, female member of the political party tend to have less chance to be nominated. Is there any discussion to address this kind of issue or change the political system which might negatively affect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f so, please elaborate.

[Vietnam-specific]

V-1. In the election for the 13th National Assembly (2011-2016), 45-50% of applicants were female who ran for candidacy as Vietnam Women's Union suggested to the Vietnam Fatherland Front. However, after 'three consultative conferences' organized by Vietnam Fatherland Front, the final female candidates on the ballot dropped to 31%, resulting in 24.4% elected. What are the main reasons for female candidates being left out? What strategy would be needed to make more women appointed as the final candidates and be elected? (e.g. capacity building training for female candidates, policy dialogue with Vietnam Fatherland Front, etc.).

V-2. Vietnam has a high percentage of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reaches to 24.4% and in People's Councils, on average over 20% in provinces, districts and communes. However, it has a relatively low percentage of women in People's Committees, on average around 10%. What are primary reasons of the relatively lower percentage in women in People's Committees? What could be possible solutions to promote women's participation at the local level?

Thank you!

※ Please fill in the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interviewees below.

| Number | Name | Gender | Age | Organization & Position | Interview date & time | Signature |
|--------|------|--------|-----|----------------------------|--------------------------|-----------|
| | | | | | | |

〈Women's Economic Empowerment〉

1. What characterizes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activities in your country?

-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economic participation: being employed or opening one's own business (entrepreneurship). Are women more likely to be engaged in one type of economic participation than the other? If so, why is there such difference in types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 Or if you find the answer different depending on one's social class, how does the social class affect types of one's economic participation?
- What kind of occupation do women prefer and why?

A. Women as Employees

2. Is there any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recruitment process of the government or a company? If so, what kind of sexual discrimination exists?

- Does a company or the government require different qualifications in hiring male and female employees? For example, a female applicant can be judged by one's appearance while a male applicant can be judged by one's competence in a job interview. If there is this kind of discrimination, please elaborate.

3. What kind of occupation do women can easily or hardly access and why?

- Are the jobs that women can easily access well-paid and decent? If women tend to be excluded from high-paying and decent jobs, what are the entry barriers?

3. What is women's situation like in continuing and developing one's work/career?

- Do women often quit their jobs due to childbirth or child-rearing?
- Is there any discriminatory law against gender equal employment? If so, what is it and how does it affect women's employment?

4. If there is any effort by the government of your country to increase women's employment (e.g. laws, policies, programs, etc.):

- If so, what is the effort in detail?
- How successfully has it been implemented so far?
 - a) If you think that a policy or an effort made has not successfully achieved its intended goals, what are the obstacles i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 b) Or if you think that it has achieved its intended goals successfully, in what aspect do you think so and what are the success factors?

- If there is no such effort, what are the reasons?

5. If there is any vocational training provided for women:

- Who provides the vocational trainings for women—government,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 agencies or local organizations? (Name an organization or an institute, etc.)
- What are the contents/themes of the vocational trainings? And who are the target trainees?
- Vocational training can be more helpful for female trainees to find an employment when the trainings are tailored to specific labor market demands of a certain company or industry. This is because trainees can learn skills that are actually needed in certain enterprise/industry, so it is more likely that female trainees can be employed in the enterprise/industry right after the training. Has there been any attempt in your country to provide such market demand-oriented training?
 - a) If there has been any effort made on market demand-oriented vocational training for women, please brief us on the training or the program. (e.g. main agent, relevant industry, etc.)
 - b) If there was little or no effort made for market demand-oriented vocational training for women, what could be the main reason?

6. In what ways can women's employment improve?

B. Women as Entrepreneurs

7. What kinds of business do women tend to open? And why do women prefer a certain business?

(e.g. high profitability, stable income, few entry barriers, flexibility in time use, etc.)

8. What kind of difficulties do women face in starting up one's own business? And what causes the difficulties?

9. If there is any effort by the government of your country to encourage and support women's business start-ups and entrepreneurship (e.g. laws, policies, programs, etc.):

- What is the effort in detail?
- How successfully has it been implemented so far?
 - a) If you think that the effort has not successfully achieved its intended goals, what are the obstacles i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 b) Or if you think that it has achieved its intended goals successfully, in what aspect do you think so and what are the success factors?
- If there is no such effort, what are the reasons?

10. What kind of support is needed to encourage women to start up their own business?
(e.g. training/education, access to seed money and other resources, etc.)

11. What kind of support is needed to help women entrepreneurs generate more incomes?

C. Rural Women's Economic Empowerment

12. In farming/fishing communities, what kind of economic activities are women commonly involved in?
(e.g. Farming & selling agricultural products, tenant farming, fishing & selling fishery products, etc.)

- In 1970s, Korea initiated a movement titled "New Village Movement," which aims to develop rural communities lagging behind cities by mobilizing community members. In this movement, women in rural areas organized women's groups, and their activities greatly contributed to generating more incomes and improving living environment of the rural communities. Does your country have such kind of women's group or organization in rural areas? If there is, please elaborate.
- In what ways ca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in rural areas be more encouraged or promoted?

13. How profitable are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in farming/fishing communities?

- In the case of Korea, National Cooperative Federation of Agriculture/Fishery has channeled distribution/selling of farming/fishery products. Thanks to this kind of system, consumers are now provided with good quality of products and suppliers have also gained stable incomes. If many rural women in your country also sell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for income, what is the distribution structure like and how effective is it? What do you think about joint sales through cooperatives? Through what kind of distribution system can income of women in rural areas be secured?

D. ODA Supports

14. If you have ever collaborated wi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 agencies for women's economic empowerment, what kind of projects have you worked together and how successful were they?

- Please share with us in detail if there has been/was any best practice.

15. Given an opportunity to cooperate with Korean government or KWDI through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at kind of cooperation would be effective to address the issues related to women's economic empowerment? And what kind of

support or aid is needed from Korea?

※ *Questions hereafter are country-specific.*

[Myanmar-specific]

M-1. It is noticeable that there is no big gender gap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Myanmar. In addition, more women go to university than men in Myanmar. There has been a dramatic increase i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from 38.9% in 1983 to 60.5% in 2007), but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is still lower than that of men (73.8% in 1983 and 84.1% in 2007). If you think that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rate is disappointing considering the high educational level of women in Myanmar, what would make women's improved educational outcomes lead to disappointing labor market outcomes? Or if you think that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has been enhanced and that gender gap in the labor market will be reduced further, what has brought or will bring this change?

[Vietnam-specific]

V-1. One of the issues in Vietnam is difference in retirement age: women retire at 55 while men retire at 60. Opponents to this law insist a gender-equal retirement age of 60, applying same both to men and women. However, some female employees prefer current retirement system. What are the rationales for both positions? What is the government's position on this controversy?

V-2. The Land Law amended in 2013 guarantees the full names of both husband and wife in the certificate of land use rights and ownership of houses where they are mutual assets.

In practice, are women able to exercise the same land use rights as men? What specific strategies (by government/NGO activists) would be needed to ensure more equal land use rights for women in reality?

Thank you!!!!!!

※ Please fill in the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interviewees below.

| Number | Name | Gender | Age | Organization & Position | Interview date & time | Signature |
|--------|------|--------|-----|----------------------------|--------------------------|-----------|
| | | | | | | |

〈Women's Human Rights〉

A. General Status of Women's Human Rights

1. Some of traditional or cultural practice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value of gender equality. And this restricts a country from pursuing gender-equal society. What social, cultural or religious obstacles does your country face to improve women's human rights? (e.g. social, cultural or religious norms, policies and practices)
2. What should be done to eliminate the obstacles that you mentioned?
3. If any, what has considerably contributed to improving women's human rights in your country?
(e.g. policies and practices, specific projects, etc.)

B. Violence against Women

4. If there is any law of your country to punish the perpetrators of violence against women:
 - What is the content of the law?
 - How effectively has it been implemented?
 - What are its limitations for effective prosecu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 If there is no such law, what are the reasons?
5. If there is any policy, law or effort by the government of your country to support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 What is the content of the law, the policy or the effort?
 - How effectively has it been implemented?
 - What are its limitations for effective protec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 If there is no such policy, law or effort, what are the reasons?
6. If there is any policy, law or effort by the government of your country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 What is the content of the law, the policy or the effort?
 - How effectively has it been implemented?
 - What are its limitations for effectiv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 If there is no such policy, law or effort, what are the reasons?

7. To push forward any policy or programs to tackle violence against women, who do you work in partnership with? (e.g. name of an organization, details on cooperation, etc.)

C. ODA Supports

8. If you have ever collaborated wi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 agencies to address the issues related to women's human rights including violence against women, what kind of projects have you worked together and how successful were they?

- Please share with us in detail if there has been/was any best practice.

9. Given an opportunity to cooperate with Korean government or KWDI through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at kind of cooperation would be effective to address the issues related to women's human rights? And what kind of support or aid is needed from Korea?

※ *Questions hereafter are country-specific.*

[Myanmar-specific]

M-1. National Strategic Pla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013-2022(NSPAW) was launched by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in partnership with its partners including UNDP, UNFPA and Gender Equality Network replacing 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011-2015(NPAAW). What do you think about its contents and how can it be implemented effectively?

M-2.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law on anti-violence against women law is in place in Myanmar with various stakeholders. If you have been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would you share about the progress so far? What are the key issues in the discussions? Has the discussion been reached an agreement among various stakeholders? If not, what are the controversial issues and how different are th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Vietnam-specific]

V-1. The Law o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Control has come into effect since 2008. However, a concern has been raised that the law is not effectively implemented nationwide. What policies or practices would be effective to enforce the law both at the central and the local level?

V-2. While the law on domestic violence is in force, no law on sexual violence or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has been enacted yet. Has there been any discussion or attempt to legislate a law on sexual violence or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f so, please elaborate. If not, what are the reasons?

V-3. Sex ratio imbalance at birth is an alarming trend, currently estimated to be 112 boys per 100 girls born in Vietnam. What makes son preference persist in Vietnam? What approaches the government (or local NGO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uld take to alleviate the imbalance?

Thank you!!!

**<부록 2> 2012, 2014년도 심층면접 응답자 리스트
(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 4개국**

가. 캄보디아

| 번호 | 분류 | 성별 | 연령 | 소속기관 및 직책 |
|----|----|----|-----|---|
| 1 | 정치 | 여 | 31 | PyD, Head Department of Gender and Women's Right |
| 2 | 정치 | 여 | 27 | GADC, Advocacy and Networking Program Officer |
| 3 | 정치 | 여 | 38 | COMFREL, Education and Gender Coordinator |
| 4 | 정치 | 남 | 56 | Sam Rainsy Party Member and National Assembly, Parliamentarian |
| 5 | 정치 | 여 | n/a | Director of Department of Economics, Ministry of Women's Affairs |
| 6 | 정치 | 여 | 59 | Deputy Governor of Kampong Chhnang Province |
| 7 | 정치 | 여 | 54 | Director of Kampong Chhnang, Department of Women's Affairs |
| 8 | 경제 | 여 | 37 | Hager, Career Program Manager |
| 9 | 경제 | 여 | 49 | DPA, Gender Officer |
| 10 | 경제 | 여 | 30 | CPWP, Regional Coordinator |
| 11 | 경제 | 남 | 32 | PyD, Deputy Head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
| 12 | 경제 | 여 | 50 | LWD, Gender Advocacy and Network Coordinator |
| 13 | 경제 | 남 | 41 | Rolea B'ier District Governor, Kampong Chhnag Province |
| 14 | 경제 | 남 | 49 | Director of Kampong Chhnang, Department of Commerce |
| 15 | 경제 | 여 | 46 | Director of Kampong Chhnang, Head of District Economic Office |
| 16 | 인권 | 여 | 44 | CWCC, Regional Manager |
| 17 | 인권 | 여 | 33 | Banteay Srei, Executive Director |
| 18 | 인권 | 여 | 44 | DCA, Program Officer |
| 19 | 인권 | 여 | 46 | GADC, WELA, Project Leader |
| 20 | 인권 | 여 | 45 | Director of Department of Gender Equality, Ministry of Women's Affair |
| 21 | 인권 | 남 | 60 | Member of Rolea B'ier District Council, Kampong Chhnang Province |

나. 인도네시아

| 번호 | 분류 | 성별 | 연령 | 소속기관 및 직책 |
|----|----|----|----|---|
| 1 | 정치 | 여 | 51 | Academics / Lecturer University of Indonesia |
| 2 | 정치 | 여 | 36 | Head NGO Kalyanamitra |
| 3 | 정치 | 여 | 39 | Member of Parliament Partai Persatuan Pembangunan |
| 4 | 정치 | 여 | 54 | Head membership development & leadership training / Golkar Central Committee |
| 5 | 정치 | 여 | 32 | Public Policy Reform Division Staf KPI (Koalisi Perempuan Indonesia) |
| 6 | 정치 | 남 | 52 | Asisten Deputi Gender dalam Politik dan Pengambilan Keputusan Kementerian Pemberdayaan Perempuan dan Perlindungan Anak |
| 7 | 정치 | 여 | 48 | Direktur Hukum dan Hak Asasi Manusia Badan Perencanaan dan Pembangunan Nasional |
| 8 | 정치 | 여 | 45 | Academics / Lecturer University of Indonesia |
| 9 | 정치 | 여 | 44 | Political Party Activist/ Unity Development Party |
| 10 | 정치 | 여 | 35 | Political Party, Parliamentarian/ Partai Amanat Nasional(PAN) (국 가평화당), Dewan Perwakilan Rakyat(DPRD) DKI Jakarta(자카르타 주정부 국민대표 의회) |
| 11 | 경제 | 여 | 35 | Academics, Civil Society/ Migrant Care |
| 12 | 경제 | 여 | 65 | Political Party, Parliamentarian/ Golkar Party(골카르당), Dewan Perwakilan Rakyat(DPR)(국회) |
| 13 | 경제 | 여 | 47 | Academics, Civil Society Organization/ Departemen Sosiologi Universitas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사회학과) |
| 14 | 경제 | 여 | 50 | Academics, NGO/ PEKKA(여성가장협회) |
| 15 | 경제 | 여 | 52 | Birokrat(관료)/ Kementerian Pemberdayaan Perempuan dan Perlindungan Anak (여성부) |
| 16 | 경제 | 여 | 46 | Akademisi bidang Pemberdayaan Ekonomi (경제능력 향상 분야 학계)/ SMERU(사회-경제 연구기관) |
| 17 | 인권 | 여 | 35 | Commissioners of Komnas Perempuan |
| 18 | 인권 | 여 | 50 | Mitra Perempuan Chairman |
| 19 | 인권 | 여 | 33 | NGO Lentera |
| 20 | 인권 | 여 | 43 | Academics / Lecturer University of Indonesia |
| 21 | 인권 | 여 | 28 | LBH APIK Jakarta |
| 22 | 인권 | 여 | 53 | Asisten Deputi Penanganan Kekerasan Terhadap Perempuan |
| 23 | 인권 | 여 | 43 | Ketua Biro Internal Departemen Pemberdayaan Perempuan Dewan Pimpinan Pusat Partai Demokrat |
| 24 | 인권 | 여 | 38 | Member of Parliament 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

다. 미얀마

| 번호 | 분류 | 성별 | 연령 | 소속기관 및 직책 |
|----|----|----|----|---|
| 1 | 정치 | M | 51 | Member Township Election Commission, Yangon Region |
| 2 | 정치 | F | 64 | General Secretary, Democratic Party (Myanmar) |
| 3 | 정치 | M | 35 | Captain, Ministry of Defense |
| 4 | 정치 | M | 65 | President, Inn National Development Party Minister for Inntha Affairs, Shan State |
| 5 | 정치 | F | 44 | Member,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Party |
| 6 | 정치 | F | 46 | Trainer / Activist, Peace, Democracy & Development Association |
| 7 | 정치 | F | 43 | Founder/Executive, Smile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
| 8 | 정치 | F | 46 | Trainer, CONCORD Institute /Training Centre |
| 9 | 정치 | F | 69 | Freelance Trainer / Activist, Women's Empowerment |
| 10 | 경제 | F | 41 | Principle / Head, Women's Development Centr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 11 | 경제 | F | 47 | Manager, Myanmar Agriculture Service, Ministry of Agriculture & Irrigation |
| 12 | 경제 | M | 31 | Member, New National Democracy Party |
| 13 | 경제 | F | 45 | Organizer,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Party |
| 14 | 경제 | F | 40 | Myanmar Women Entrepreneurs Association (MWEA), General Secretary |
| 15 | 경제 | F | 40 | Network Asia Co. Ltd |
| 16 | 경제 | F | 57 | Myanmar Garment Manufacturer Association (MGMA), Secretary |
| 17 | 경제 | F | 47 | Program Coordinator, Food Security Working Group |
| 18 | 경제 | F | 48 | Director, Business Kind Myanmar |
| 19 | 경제 | F | 55 | Freelance Trainer / Consultant, AFXB |
| 20 | 인권 | F | 53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Deputy Director |
| 21 | 인권 | F | 47 | Member of Parliament, Yangon Region, Parliament |
| 22 | 인권 | M | 68 | All Mon Regions Democracy Party(AMDP), Central Executive Committee Member |
| 23 | 인권 | F | 64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NLD), Lower House Representative (Mayangone Tsp) |
| 24 | 인권 | F | 31 | Youth Legal Clinic, Director |
| 25 | 인권 | F | 38 | Gender Equality Network (GEN), Senior Coordinator |
| 26 | 인권 | F | 73 | Myanmar Women Affair Federation(MWAF), President |
| 27 | 인권 | F | 57 | Myanmar Maternal and Child Welfare Association(MMCWA), Secretary |
| 28 | 인권 | F | 40 | Care Myanmar, Program Advisor |
| 29 | 인권 | M | 30 | Charity Oriented Myanmar (COM) CEO |

라. 베트남

| 번호 | 분류 | 성별 | 연령 | 소속기관 및 직책 |
|----|----|----|----|---|
| 1 | 정치 | 여 | 37 | Vice Director of General Office, National Committee for Advancement of Women |
| 2 | 정치 | 여 | 62 | Member of Parliament |
| 3 | 정치 | 남 | 47 | Director of Department for SNG/Central Party of Vietnam |
| 4 | 정치 | 남 | 70 | Former Chairman, Central Committee of Propaganda Central Party of Vietnam |
| 5 | 정치 | 여 | 52 | Vice President, Vietnam Women's Union |
| 6 | 정치 | 여 | 47 | Vice Director, Institute of Family and Gender Studies |
| 7 | 정치 | 여 | 41 | Vice director, Institute of Women's Studies, Vietnam Women's Academy |
| 8 | 정치 | 여 | 60 | Former Director of Institute of Women Research and Development, National University of Vietnam |
| 9 | 경제 | 여 | 36 | Vice Director, Foreign Exchange Management Office, State Bank of Vietnam |
| 10 | 경제 | 여 | 36 | Deputy Manager of Business Development and Investment Division, Petro Vietnam |
| 11 | 경제 | 남 | 50 | Vice Director, Department of Labour Relationship,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
| 12 | 경제 | 여 | 53 | Vice President, Women Union of Tuyen Quang Province |
| 13 | 경제 | 여 | 46 | Director, Committee of Economic Issues, Central Women Union |
| 14 | 경제 | 남 | 57 | Representative, Central Commission for Popularization and Education, Vietnam Communist Party |
| 15 | 경제 | 남 | 38 | Vice Director, REACH Vietnam |
| 16 | 경제 | 남 | 41 | Director, Institute of Research and Consultancy on Development |
| 17 | 인권 | 여 | 44 | Senior Officer, Department of Familial Affairs,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MOCST) |
| 18 | 인권 | 남 | 50 | Director, Gender Equality Department,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MOLISA) |
| 19 | 인권 | 남 | 38 | Vice Director, Legislative Department, National Office of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
| 20 | 인권 | 여 | 48 | Vice Director of Population and Social Affairs Department, Vietnam Farmers' Union |
| 21 | 인권 | 여 | 38 | Deputy chief, Consultant and Development Unit, Center of Women and Development, Vietnam Women's Union |
| 22 | 인권 | 여 | 33 | Youth Program Coordinator, Center of Creative on Population and Health (CCIPH) |
| 23 | 인권 | 여 | 41 | Programme Analyst(Gender-based violence), UNFPA Vietnam |
| 24 | 인권 | 여 | 35 | Deputy chief, Gender Equality Studies, Institute of Family and Gender Studies(IFGS) |


<부록 3> 2014 SSAGE 워크숍 4개국 참가자 리스트

| 국가 | # | 이름 | 성 | 성별 | 소속기관 및 직책 |
|-------|----|--------------------|----------|----|--|
| 캄보디아 | 1 | Saphoeun | Sun | F | Member of Parliament Commission for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National Assembly |
| | 2 | Arun | San | F | Secretary of State Legal Protection Ministry of Women's Affairs |
| | 3 | Samith | Hou | F | Secretary of State Ministry of Women's Affairs |
| | 4 | Sophally | Long | F | Under-Secretary of State Ministry of Women's Affairs |
| | 5 | Serey Vuthea | Khieu | F | Director General Unit of Social Development Ministry of Women's Affairs |
| | 6 | Sochetra | Nhean | F | Director Gender Equality Ministry of Women's Affairs |
| 인도네시아 | 7 | Dewi Motik | Pramono | F | President National Council of Women's Organizations-Indonesia (KOWANI) |
| | 8 | Sri Budi Eko | Wardani | F | Executive Director Center of Political Studie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s University of Indonesia |
| | 9 | Amat | Darsono | M | Director for Gender Mainstreaming in Politics and Decision Making Deputy Ministry of Gender Mainstreaming in Politics, Social and Law Ministry of Women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
| | 10 | Valentina | Gintings | F | Director for Gender Mainstreaming in Infrastructure Deputy Ministry of Gender Mainstreaming in Economic Issues Ministry of Women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
| | 11 | Rohika Kurniadi | Sari | F | Deputy Assistant for Violence against Women Women Protection Ministry of Women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
| | 12 | Martief | Lolly | F | Director of Social Economic Enviro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Social Economic Enviro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Ministry of Public Works |
| | 13 | Enfy Diana | Dewi | F | Researcher and Chief of Dissemination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 Ministry of Public Works |

318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 국가 | # | 이름 | 성 | 성별 | 소속기관 및 직책 |
|-------------|----|---------------|-------|----|---|
| 미 얀 마 | 14 | Yin Yin | Pyone | F | Assistant Direct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
| | 15 | Hlaing Moe | Myat | F | Assistant Direct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
| | 16 | Thida | Khar | F | Staff offic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Social Welfare Training School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
| | 17 | Khin Mar | Tun | F | General Secretary Central Executive Committee Myanmar Women's Affairs Federation |
| | 18 | Tin Tin | Win | F | Joint Secretary Myanmar Maternal and Child Welfare Association |
| | 19 | Thai Su | San | F | Executive Committee Member Myanmar Women and Children Development Foundation |
| 베 트 남 | 20 | Nguyen Thanh | Tra | F | Deputy Director Department of Social Affairs Committee of Social Affairs of National Assembly |
| | 21 | Hoang Thi Thu | Huyen | F | Deputy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Gender Equality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
| | 22 | Nguyen Thanh | Hai | F | Head of the Multilateral Sec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ICD)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
| | 23 | Lo Thi Thu | Thuy | F | Senior Official Ethnics and Religions Department Vietnam Women's Union |
| | 24 | Le Thi Tuong | Van | F | Researcher Institute of Women's Studies Vietnam Women's Academy |
| | 25 | Hoa Huu | Van | M | Deputy Director Department of Family Affair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부록 4> 2014 SSAGE 워크숍 참가신청서 1
: Application Form

| | | |
|--|--|--|
| Application Form  2014 KWDI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SSAGE): Senior-Level Gender Policy Workshop and Dialogue (September 29 - October 3, 2014, Seoul, Korea) | | (Photo) |
| I. Personal Information | | |
| Full Name (Please print as in passport)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_____ _____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i>First Last</i> <i>(Surname)</i> </div> | | Nationality <hr/> Passport Number (Please submit upon admission to the workshop) |
| Date of Birth (DD/ MM /YYYY) | Sex Male <input type="checkbox"/> Female <input type="checkbox"/> | Airport of Departure |
| Telephone Number: (Home) (Mobile) | | E-mail Address: |
| Home Address (Please print) | | Emergency Contact (Local) Name: Tel: |
| II. Organization & Career Information | | |
| Organization | Department | Present Position |
| Office Address | | Duration of Employment From _____ to Present |
| | | Tel. No. |
| | | Fax No. |
| Describe your present duties: | | |

Employment record for the past 5 years
(Organization/ Period/ Position & Responsibilities):

III. Educational Background

| Name of Institution | From (MM/YYYY) | To (MM/YYYY) | Field(s) of Study and Degree |
|---------------------|-------------------|-----------------|------------------------------|
| | | | |
| | | | |
| | | | |

Previous Training Experience in Korea (if any):

Program: _____

Period (MM/YYYY): From _____ To _____

IV. Language Proficiency

English

Listening: Excellent ☐ Good ☐ Fair ☐ Poor ☐
 Speaking: Excellent ☐ Good ☐ Fair ☐ Poor ☐
 Writing: Excellent ☐ Good ☐ Fair ☐ Poor ☐
 Reading: Excellent ☐ Good ☐ Fair ☐ Poor ☐

Mother Tongue:

Other Languages:

V. KWDI Workshop Information

Through which organization did you receive information about 2014 KWDI SSAGE Workshop?

The Government ☐

KWDI ☐

Other Organization ☐ (Name of Organization _____)

Expectations for the Workshop:

VI. Policy Paper

The applicant is expected to prepare a Policy Paper on any gender issue of his concern (A guideline to writing a Policy Paper is provided as a separate form). This Policy Paper should be submitted with this application. During the workshop, participants by each country group will develop the Policy Paper into a Policy Proposal.

VII. Applicant's Responsibilities

If accepted as a participant to 2014 KWDI SSAGE Workshop, I agree:


- 1) To follow the training program to the best of my ability and abide by the rules of the training institution of KWDI.
- 2) Not to extend the length of my stay and stay only for the purpose of KWDI workshop.
- 3) To accept that KWDI is not liable for any damage or loss of my personal property; and that KWDI will not assume any responsibility for illness, injury, or death arising from extra curricula activities, willful misconduct, or undisclosed pre-existing medical conditions;
- 4) To submit a two-page Policy Paper with this application form (by August 15, 2014)**
- 5) To carry out such instructions and abide by such conditions as may be stipulated by KWDI in respect of my training program.

I fully understand that my status as a participant may be terminated if I fail to make satisfactory progress, or for any other cause as determined by the KWDI of the Republic of Korea.

Applicant's Name:

Date: _____ **Signature:** _____
(DD/MM/YYYY)

**<부록 5> 2014 SSAGE 워크숍 참가신청서 2
: Policy Paper**

| | | |
|--|--------------------------|---|
| Policy Paper | |  |
| 2014 KWDI | | |
|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SSAGE): Senior-Level Gender Policy Workshop and Dialogue (September 29 – October 3, 2014, Seoul, Korea) | | |
| Name _____ | Title _____ | |
| Organization _____ | Nationality _____ | |
| Topic of Interest | | |
| <input type="checkbox"/>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WPE) | | |
| <input type="checkbox"/> Women's Economic Empowerment/Women's Education (WEE/WE) | | |
| <input type="checkbox"/> Women's Human Rights/ Women's Health (WHR/WH) | | |
| <u>Contents</u> | | |
| Please state a gender issue of your concern in your country,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policy for this issue, the need for improvement or alternatives and your role and goal for solving this issue. | | |
| 1) Issue of your concer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policy regarding this issue | | |

3) The need for improvement or alternative policy for the issue

4) Your role and goal for solving the issue (personal opinion or duty)

Signature:

Date:

<부록 6> 워크숍 평가지

가. Pre-Self Evaluation

Please indicate your status by responding to each statement in the following table.

(①=Strongly Disagree, ②=Disagree, ③=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Agree, ⑤=Strongly Agree)

| Your Status | Evaluation | | | | |
|--|------------|---|---|---|---|
| 1. I am interested in women and gender issues.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I have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n gender.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I think about my work from gender perspectives.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I agree with the need for regional cooperation in gender issues.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I have suggested gender-related program/policy to my colleagues and supervisor.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My suggestion for gender-related program/policy became enforced /implemented.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I am studying women's issues and policies through individual or group learning.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I was already acquainted with 2014 KWDI SSAGE workshop participants from my country before coming here.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I am thinking of cooperating with KWDI. | ① | ② | ③ | ④ | ⑤ |

ㄴ. Evaluation on Lecture

Please rate the session on the scales indicated. Your comments are most appreciated

(1=Bad/ Disagree, 2=Not bad, 3=Good, 4=Very good, 5=Excellent/Agree)

| Category | Questions | 1 | 2 | 3 | 4 | 5 |
|---------------------------|---|---|---|---|---|---|
| Necessity | - Was the lecture helpful for your work? | | | | | |
| Adequacy | - Was the lecture related to your work? | | | | | |
| Level of Understanding | - Did you fully understand the content of this lecture? | | | | | |
| Expertise of Lecturer | - Do you think a lecturer has expertise for the topic? | | | | | |
| Lecture Hours | - Were lecture hours adequate? | | | | | |
| Materials | - Do you think that lecture materials were well prepared? | | | | | |
| Satisfaction with Lecture | - How much are you satisfied with the lecture? | | | | | |
| Overall Evaluation | - Overall, how would you rate this lecture? | | | | | |

Additional Comments

| |
|--|
| |
|--|

다. Evaluation on Session

Please rate the session on the scales indicated. Your comments are most appreciated

(1=Bad/ Disagree, 2=Not bad, 3=Good, 4=Very good, 5=Excellent/Agree)

| Category | Questions | 1 | 2 | 3 | 4 | 5 |
|---------------------------|--|---|---|---|---|---|
| Necessity | - Were presentations helpful for your work? | | | | | |
| Adequacy | - Were presentations related to your work? | | | | | |
| Level of Understanding | - Did you fully understand the content of the presentations? | | | | | |
| Expertise of Lecturer | - Do you think the presenters have expertise for the topic? | | | | | |
| Presentation Hours | - Were presentation hours adequate? | | | | | |
| Materials | - Do you think presentation materials were well prepared? | | | | | |
| Satisfaction with Lecture | - How much are you satisfied with the presentations? | | | | | |
| Overall Evaluation | - Overall, how would you rate this seminar? | | | | | |

| Additional Comments |
|---------------------|
| |

라. Evaluation on Field Trip

Please rate the session on the scale indicated. Your comments are most appreciated

(1=Bad/ Disagree, 2=Not bad, 3=Good, 4=Very good, 5=Excellent/Agree)

| Category | Questions | 1 | 2 | 3 | 4 | 5 |
|---------------------------|--|---|---|---|---|---|
| Necessity | - Was the field trip helpful for your work? | | | | | |
| Adequacy | - Was the field trip related to your work? | | | | | |
| | - Was the visited organization or institution appropriately chosen? | | | | | |
| Level of Understanding | - Did you fully understand the content and objectives of the field trip? | | | | | |
| Field Trip Hours | - Were field trip hours adequate? | | | | | |
| Satisfaction with Lecture | - How much are you satisfied with this field trip? | | | | | |
| Overall Evaluation | - Overall, how would you rate this field trip? | | | | | |

| Additional Comments |
|---------------------|
| |

마. Overall Workshop Evaluation

Please indicate how strongly you agree with questions below.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ither Agree or Disagree, 4=Agree, 5=Strongly Agree)

| Category | Questions | 1 | 2 | 3 | 4 | 5 |
|-------------------------------|--|---|---|---|---|---|
| 1. Appropriateness | 1.1 Was the length and pace of the workshop appropriate? | | | | | |
| | 1.2 Were programs and topics relevant to your work? | | | | | |
| | 1.3 Was the overall composition of workshop programs appropriate for the objective of this workshop? | | | | | |
| 2. Effectiveness | 2.1 Were sessions well prepared and informative? | | | | | |
| | 2.2 Were workshop materials relevant and educative? | | | | | |
| | 2.3 Were workshop facilities satisfactory and equipment well-operating? | | | | | |
| 3. Efficiency | 3.1 Were overall workshop programs and settings efficiently organized? | | | | | |
| | 3.2 Before the workshop, was enough information provided on the workshop program? | | | | | |
| | 3.3 During the workshop, were notices and information well provided? | | | | | |
| | 3.4 Was workshop staff well organized and ready to provide help? | | | | | |
| 4. Logistics | 4.1 Was the workshop venue (KWDI) satisfactory? | | | | | |
| | 4.2 Was the workshop venue (Center Mark Hotel) satisfactory? | | | | | |
| | 4.3 Was accommodation satisfactory | | | | | |
| | 4.4 Were meals and snacks satisfactory? | | | | | |
| | 4.5 Were cultural activities satisfactory? | | | | | |
| 5. Satisfaction with Programs | 5.1 Were you satisfied with the lectures? | | | | | |
| | 5.2 Were you satisfied with the field trips? | | | | | |

| Category | Questions | 1 | 2 | 3 | 4 | 5 |
|---------------------------------|---|---|---|---|---|---|
| | 5.3 Were you satisfied with the Seminars held on Thursday, Oct 2 (Seminar Session 1: Joint Research Seminar, Seminar Session 2: Regional Perspectives, Seminar Session 3: ODA in Gender Sector)? | | | | | |
| | 5.4 Were you satisfied with the participatory programs (Worktable by Country and Policy Proposal Presentation)? | | | | | |
| 6. Accomplishment and Influence | 6.1 Did this workshop contribute to your capacity building? | | | | | |
| | 6.2 Were you able to achieve your personal objective through this workshop? | | | | | |
| | 6.3 Do you think the knowledge acquired through this workshop will be practically used in your work? | | | | | |
| | 6.4 Was the workshop helpful in networking with other participants? | | | | | |
| 7. Sustainability | 7.1 Would you recommend this workshop to your colleagues and friends? | | | | | |
| | 7.2 Do you think this kind of workshop should be held continuously? | | | | | |

| |
|--|
| What did you like most about this workshop? |
| |
| What improvements would you recommend for this workshop? |
| |
| Other Comments |
| |
| Thank You! |

바. Post-Self Evaluation

Please indicate your status by responding to each statement in the following table.

①=Strongly Disagree, ②=Disagree, ③=Neither Agree nor Disagree, ④=Agree, ⑤=Strongly Agree

| Your Status | Evaluation | | | | |
|--|------------|---|---|---|---|
| 1. My interest on women and gender issues increased after this workshop.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My understanding on women and gender issues increased after this workshop.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My gender perspectives for my work became stronger after this workshop.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The necessity for regional cooperation in gender issues increased after this workshop.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I would like to (continue to) suggest gender-related program/policy to my colleagues and supervisor when I return to my country.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I would like to (continue to) advocate for enforcement/implementation of gender-related program/policies when I return to my country.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I would like to (continue to) study women's issues and policies through individual or group learning when I return to my country.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I would like to continue to network with participants of 2014 KWDI SSAGE workshop.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I would like to cooperate with KWDI. | ① | ② | ③ | ④ | ⑤ |

Abstract

Strengthening Gender Equality Policy Infrastructure in the Asia-Pacific Region (): Development Consulting based on Knowledge Sharing of Women's Policy

Eun Kyung Kim
Eun Ha Chang
Jung Soo Kim
Seo Hee Kwak

KWDI has been conducting a multi-year ODA research project since 2011 aimed at establishing polit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gender equality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year 2011-2012, KWDI partnered with Cambodia and Indonesia and carried out various programs including baseline surveys, policy dialogues and capacity building training. From 2013, KWDI expanded the project to include Myanmar and Vietnam as additional partners.

The current report is an analysis of KWDI's research results for the past four years from a perspective of development consulting. Development consulting is a means of conducting development assistance which provides policy, institutional and technical consulting, utilizing experts in the fields of economics, social and science. Various programs that KWDI has conducted with partner countries can be framed as development consulting based on knowledge sharing, and this report tries to elucidate this aspect.

The report begins with an analysis of the ODA system of the partner countries. It analyzes the general ODA receiving system and procedures, the coordinating mechanism and the ownership status of each partner government. In these countries, ODA is usually handled by finance, planning and foreign affairs ministries, and there is usually a focal point for coordinating foreign assistance. Each country has a coordination mechanism to oversee and adjust incoming development assistance. As for gender ODA, coordination mechanism also existed, although the level of coordination varied according to each country.

The next part analyzes the actual needs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in political, economic and human rights aspects of the partner countries, and South Korea's ODA strategy towards these countries. Across all three fields of politics, economics and human rights, discriminatory culture and tradition has been pointed out as major obstacles in realizing gender equality. This implies that in order to realize gender equality, cultural issues such as social prejudice against women and gender stereotyping needs to be tackled in a proactive way. The lack of implementation of laws that promot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economic participation and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has been identified as another major problem.

South Korea'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Indonesia, Vietnam and Cambodia includes gender situation but in a cursory level. CPS on Vietnam and Cambodia includes women's rights issues such as discriminatory tradition, domestic violence and human trafficking. These issues are congruent with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This report then introduces,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consulting, the project's main programs—the annual capacity workshop and joint research, The annual training workshop titled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SSAGE) has been designed as a participatory program actively reflecting the local needs identified through baseline surveys, expert interviews and policy dialogue. It was also planned to provide networking opportunities for gender policy makers and experts within and among the partner countries. In addition the SSAGE participants identified gender agenda of their own country, which can be reflected in South Korea's gender ODA planning. As a part of the project, joint researches were also conducted with three partner countries with an aim of strengthening local research capacity. These activities can be identified as policy consulting, which is one method of development consulting.

The concluding part summarizes the current research from a development consulting perspective and ways to promote South Korea's gender ODA in the Asia-Pacific region. KWDI has created, through this project, a platform for knowledge sharing and development consulting of gender policy. Second, it increased awareness for the necessity of gender policy research. Third, it established network among policy makers within and outside South Korea and has contributed to promoting gender ODA.

The report concludes with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it suggests integration of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 of South Korea and usage of gender disaggregated data in ODA planning and evaluation. Second, it advises incorporation of gender perspective in development consulting projects. Third, it recommends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donor coordination mechanism in partner countries. Third, it recommends an increase in the volume of women-specific projects and also expansion of program assistance for gender ODA.

2014 연구보고서-19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여성정책의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컨설팅**

2014년 12월 29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대)

ISBN 978-89-8491-655-5 94330

978-89-8491-647-0 94330 (세트)

<정가 15,000 원>